

사목의 기쁨

사 목 아 이 템 & 사 례

Mission
Family
Parish
Catechesis
Ecology
Community

사목의 기쁨

사 목 아 이 템 & 사 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 장 김희중 대주교

부소장 고준석 신부

연구원 김정은

신소연

엄재중

이준혜

사목의 기쁨

- 사목 아이템 & 사례

제1판 1쇄 발행 2018년 11월 9일

편 찬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발행인 김희중

주 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전 화 02-460-7548

팩 스 02-460-7545

<http://pastor.cbck.or.kr>

e-mail pastor@cbck.or.kr

편집·인쇄 하양인

비매품

1. 본 모음집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새롭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한 선에서 수집 정리한 것입니다.
2. 각 교구 사목국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좋은 사목 프로그램을 수집하였고, 교회 내 잡지와 신문, 그 밖에 단행본, 연수 자료집, 사목자 개인이 작성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3. 본 모음집에 수록된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과거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당명만 표기하고, 당시 본당 신부의 이름은 따로 명기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단,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받거나 개인 저작의 경우에는 출처에 이름을 밝혔습니다.
4. 각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과 적용은 사목자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본당에 적용하실 때 본당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본 모음집은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홈페이지(<http://pastor.cbck.or.kr>) '연구소 발간 자료'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목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참된 사제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양들의 냄새가 나는 사제”(2013년 성유 축성 미사 강론)를 언급하셨습니다. “양들의 냄새가 나는 사제”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목자”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그렇다면 양들의 냄새가 나는 사제, 착한 목자는 어떤 사제일까요?

목자가 양들의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양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양에게서 나는 냄새들이 목자에게도 베어 들어 목자에게서 양들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착한 목자는 신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사제들입니다. 이러한 사제들은 양떼들인 신자들의 삶의 기쁨과 슬픔, 그들의 행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자들을 신자들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고난, 근심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신자들을 위해 더욱더 좋은 사목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기쁨은 다시 사목자의 보람과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목의 기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당을 비롯한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양들의 냄새가 나는 사제들’이 열과 성을 다해 신자들을 위해 다채로운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선교 방법과 냉담 교우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적극적 노력들, 풍요로운 전례 참여를 위한 본당과 개인 차원의 준비,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각종 나눔과 봉사활동,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교회의 활동 등, 신자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유익한 사목 활동들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무형의 복음적 자산이요, 한국 교회의 숨은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신부님들이 펼치신 사목 사례를 모아 『사목의 기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음집은 전국의 각 교구 사목국을 통해 사제들이 실시한 사목 프로그램들을 수집하고 또한 교회 내 잡지와 신문 등의 매체들에 게재되어 있는 사목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여 모은 것들입니다.

이 사목 모음집인 『사목의 기쁨』이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재해석됨으로써 “양들의 냄새가 나는 사제들”은 양들의 냄새가 더욱 짙게 풍기며 신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해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

김희중 대주교

목차

일러두기	3
『사목의 기쁨』을 펴내면서	4

사목 분야별

본당 전체 행사

1.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계획과 활동	10
2. 본당 설립 40주년과 가정 방문 고리 기도	14
3. 가족과 함께하는 도보 성지순례	18
4. 전 신자 여름 캠프	27
5. 한마음 신앙 캠프 ‘거리 마당극’	30
6. 마르코 복음을 따른 영성 캠프	34
7. 루카 복음을 따른 영성 캠프	37
■ 사목 아이디어 모음	40

본당 사목 계획

1. 본당 사목 계획서 실천 가이드	41
2. 본당 사목 평가 방법	50
3. 본당 사목 진단	54
4. 소공동체 중심의 본당 사목	57
5. 본당 사목 위원 연수	64
6. 교회 지도자 선출 방법	76
7. 본당 공동체장 면담	77

선교

1. 새 가족 모시기 운동	80
2. 냉담 교우 모시기 방안	82
3. 모실 분 찾기 운동	84
4. 공동체 선교 활동 자료	87
■ 사목 아이디어 모음	101

교리교육

1. 입교에서 세례 후까지 전 과정 토털 서비스	104
2. 세례 후속 교육	106
3. 새 영세자 교육	108
4. 예비신자와 새 영세자 돌보기	110
5. 신자 재교육-성모 신심 세미나	125
■ 사목 아이디어 모음	127

전례

1. 떼제 기도	129
2. 떼제 기도와 영화를 이용한 수난 묵상	134
3. 성탄 프로그램	138
4. 복사 착의 및 선서식	141
5.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144
6. 성체조배	145
■ 사목 아이디어 모음	147

	말씀(성경 읽기)	1. 말씀 묵상(VM) ■ 사목 아이디어 모음	149 152
	사회 사목	1. 본당 사회 사목 활동 2. 교구와 함께하는 '이웃 사랑 실천' 3. 본당 사회 복지 활동 4. 본당 연계 가정 간호 5. 본당 호스피스 사목 6. 가톨릭 공부방 7. 불편한 즐거움으로 다복한 공동체 8.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즐거운 불편' 9.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문화제 ■ 사목 아이디어 모음	154 156 157 160 163 164 167 169 177 179
	기타	1. 신심 서적 54권 읽기 2. 영성이 담긴 구유 꾸미기 3. 본당사 편찬 매뉴얼 ■ 사목 아이디어 모음	183 188 192 198
사목 대상별	가정	1. 성가정을 위한 가정 사목 프로그램 2. 혼인 갱신 미사 1 3. 혼인 갱신 미사 2 4. 봉쇄 수도원 체험 가족 피정 5. 가족 피정 프로그램 6. 가족 캠프 7. 사별 가족 모임 8. 가정 방문 ■ 사목 아이디어 모음	202 206 213 221 224 228 232 236 238
	연령별	1. 주일학교 선택 수강제 2. PESS 프로그램 3. 주일학교 여름 행사 프로그램 4. 초등부 주일학교 환경 교육 프로그램 5. 주일학교 여름 생태 캠프 6. 청소년 견진 가정 교리 7. 청년 피정 프로그램 8. 청년 사도 훈련 프로그램 9. 노인 대학 ■ 사목 아이디어 모음	239 241 244 251 257 272 279 286 288 293
부록		■ 기도문 모음 ■ 설문지 모음	298 306

사목 분야별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계획과 활동

- 수원교구 범계 본당

■ 출처: 김영철(수원교구 범계 본당 기획위원회장), 『사목정보』 2009년 6월 호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기념 활동의 주제와 추진 활동을 결정하고, 결정된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주제로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도록 하며, 활동별 주관 조직을 정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본당 기획위원회에 맡겨 수립하고 정리된 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확정하였다.

확정된 기본 계획은 기념 활동의 목적, 주제 성구, 활동 기간, 참여 대상, 활동 추진 방안, 기념 활동 내용, 추진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추진 일정, 기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 및 자원 마련 등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기념 활동의 목적

지역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먼저 자기 복음화를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를 표현하였다.

: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다음의 10년을 준비하는 기념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 5,13-16 참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 세상의 “살아있는 돌”(1베드 2,5 참조)로 쓰이는 본당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함.

주제 성구

목적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신·구약 성경 안에서 각각 하나씩 2개의 주제 성구를 정했다.

- ①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이사 2,2-3)
- ②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활동 계획

활동 기간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08년 3월 23일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11월 23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로 하고 본당 공동체 모든 교우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당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는 전체 활동의 진행 상황 점검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획·홍보팀’, 본당 역사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어제와 오늘팀’, 본당의 다음 1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쇄신 활동을 담당하는 ‘새 하늘 새 땅팀’ 본당 설립 10주년의 기쁨을 나누는 활동을 담당하는 ‘나눔팀’의 4개의 팀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기념 활동 범위는 기본 계획에서 정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 항목의 추가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팀장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활동의 상세 계획은 업무를 분담 받은 조직에서 수립하고 위원장과 본당 신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기도 했다.

기념 활동

활동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진행한다.

① 본당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어제와 오늘’), ② 내일을 준비하며(‘새 하늘 새 땅’), ③ 과거·현재·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표현하는(‘나눔’) 3단계로 정리하였다.

① ‘어제와 오늘’

- 10년사 발간

한국 천주교회는 물론 안양 지역 복음화 역사까지 수원 교회사 연구소의 자문 및 감수를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순교 성인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사 공부 자료로 사용하도록 충실을 기하였다. 아울러 10년간 본당이 걸어온 길을 재조명하여 발전시켜 나아갈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함은 물론이고 총회장에서 각 구역의 반장에 이르기까지 봉사자로 수고했던 모든 사람을 연도별로 정리한 명부도 등재하여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고 각 봉사자의 재직 기간 중 행한 활동에 관하여 문의하여 현재의 복음화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만든다.

- 복음화 매뉴얼 작성

현재 본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음화 활동의 업무 내용과 처리 순서를 정리, 기록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매뉴얼은 새로 봉사자로 임명되는 사람이 맡은 임무를 파악하는 것을 수월하게 해주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봉사직을 맡기를 꺼려하는 교우들을 봉사의 장으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복음화 활동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복음화 활동을 마련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능도 갖춘 것이 매뉴얼이다.

- 본당 부채 정리

부속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위하여 교우들이 본당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던 금액 중 상당 부분 남아있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깨끗하게 없애고자 하는 취지의 활동이다. 급하지 않은 비용 지출은 보류하고 절약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채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분 강화 등의 외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한다.

② ‘새 하늘 새 땅’

- 소공동체 중심 사목 구도로의 전환 준비 및 본당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교우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소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활동이다. 10주년 기념 활동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관련 교육 시행, 사목조직 체계 변경, 평신도 역할 강화, 소공동체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뒤따르는 활동이다.

- 본당 설립 10주년 기도 봉헌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기도문을 기념 활동 기간 중 봉헌되는 매 미사 후에 교우들이 함께 바치는 활동이다. 기도문에는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성령을 통해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는다.

- 성경 필사 및 성경 읽기

쉬는 교우 찾기 활동에 앞서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를 통해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히브 4.12 참조)으로 무장하는 활동이다. 성경 필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39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필사 범위를 정하고 구역에 할당된 범위를 구역 모든 교우가 나누어 필사하는 공동 필사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한다. 필사된 성경은 인쇄된 성경과 같은 모양으로 한 권으로 제본하여 교구장의 축복을 받고 10월에 거행된 ‘사랑의 한마음 대축제’에서 주님께 봉헌한 후 성당 1층의 만남의 방 입구에 교우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진열해 놓는다. 성경 읽기는 1년 내 신·구약 성경 완독을 목표로 하여 매 미사 30분 전부터 교우들이 함께 읽는 것으로 한다. 개인별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는 물론이고, 바오로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선교 지향과 함께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필사하도록 적극 권유한다.

- 쉬는 교우 찾기

계속 노력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10주년 활동 기간 중의 ‘성인 유해 순회기도’ 시에 각 구역에서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더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쉬는 교우들을 포함한 공동체의 일치성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 활동이다.

- 건진성사/10주년 기념 특별 강의

개별 교우와 본당 공동체의 자기 복음화를 위한 노력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신자 재교육의 의미를 포함한 건진교리와 특별 강의를 듣는 시간이다.

- 본당 홈페이지 개설/시설 개보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미로 10주년 기념 활동에 포함시킨다.

③ ‘나눔’(1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는 각종 전례 행사와 기념행사로 구성)

- 성인 유해 순회 기도

본당의 주보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유해를 모든 구역에서 차례로 1박2일씩 모시고 기도하는 활동으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로 지키신 신앙을 본받아 다시 태어남으로써 지역 복음화에 모든 교우가 참여하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였다. 이 기도회 안에서 구역별로 찾을 대상이 되는 쉬는 교우를 기도 지향의 하나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순회 기도는 전체 구역을 순회하고, 7월 6일 주보성인 축일 교중미사 때 유해를 모시고 입당하여 제대 앞에 모신 후 미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일정 계획을 한다.

- 10주년 기념 미사

본당 설립일에는 기념 미사만을 봉헌한다. 대부분의 기념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인 10월 19일에 전체 교우가 함께하는 감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기념음악회

(해당 본당은 기본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이 취소되었다.)

- 교우 핸드프린팅 타일 설치

10년을 함께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문구와 손도장을 새긴 점토판을 구워 성당 1층에서 4층 성전까지 올라가는 계단 옆의 벽에 설치한 활동이다. 지역별, 구역별, 가족별로 모아 설치함으로써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교회 중심의 향후 사목 방향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기도 하였다.

- 사랑의 한마음 대축제

10주년 기념 활동을 마치기 한 달 전인 10월 19일에 모든 교우가 참여하는 '사랑의 한마음 대축제'를 마련한다. 기념 미사 봉헌, 구기 게임, 명랑 게임, 장기자랑 등이 포함된 행사를 통하여 10년간 받은 은총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결속을 다지는 활동으로 계획되었다. 기념 미사 중에 전체 교우가 참여한 필사 성경을 봉헌하고 건물을 기증하여 오늘의 범계 본당이 있도록 해 준 기증자에게 모든 교우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서를 갖기도 하였다. 즐거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지역 교회의 이름을 정하고 지역 단위로 계획한 이벤트 등을 선보임으로써 소공동체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에 임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변화의 시작을 희망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은 단순히 교세 확장만을 꾀하는 모습의 교회가 아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사는 교회로 변화와 쇄신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또한 자기 복음화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기념 활동에도 이전의 모습처럼 참여하지 않은 교우가 참여한 교우보다 많았고 여전히 점차 낮아지는 미사 참여율·주일학교 출석률 등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념 활동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복음화를 소망하며 지역 교회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요 활동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기에, 비록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거듭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은총의 한 해가 10주년의 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기념 활동은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를 살피며 온 인류의 복음화를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당 설립 40주년과 가정 방문 고리 기도

- 대전교구 태안 본당

■ 출처: 지요하(대전교구 태안 본당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사목』 2005년 1월 호

2004년은 대전교구 태안 본당 설립 40주년이었다. 따라서 이태 전부터 40주년을 잘 맞이하고 알차게 지내고자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40주년 기도문'(<첨부 1> 참조)과 '태안 천주교회의 노래(본당가)'를 만들어서 모든 신자에게 배포하고, 2004년 1월 18일(연중 제2주일) 교중 미사를 '40주년 개막 미사'로 봉헌하고 40주년 준비위원장이 미사 강론 시간에 40주년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40주년의 분위기를 널리 실감시켰다.

'40주년 기도문'은 4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40주년 개막 미사부터 9월까지의 매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모든 평일 미사마다 미사 시작 직후에 바쳤고, 10월부터는 영성체 후 기도 다음에 바쳤다. 그리고 본당가는 필자가 작사를 하고, 본당 출신 최초 사제이신 김한승 라파엘 신부님이 작곡을 하여 만들었다. 40주년 개막미사 이후 중요한 행사 때마다 모든 신자가 이 본당가를 함께 부름으로써 40주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주임 신부님의 일 년 삼등분 계획에 맞추어 태안 본당 공동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행사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40주년 성가정상 순회 가정 방문 고리기도 ② 옛날 사진과 유물 전시 ③ 40주년 기념 식수(植樹) ④ 40주년 경축 미사와 경축의 밤 행사 ⑤ 40주년 추수감사제 ⑥ 60년 후인 100주년 축하주 만들어 묻기
-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40주년 성가정상 순회 가정 방문 고리 기도'를 소개한다.

구체적 방법

- 1)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대축일에 고리 기도를 시작하면서 각 가정에서 모실 성가정상 축복식을 가졌다. 이 성가정상을 양쪽에 고리가 달린 운반함에 담아 이동하기로 하였다.
- 2)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고리를 잇는 방식으로 700여 가정(대략 하루에 8개 가정)을 순회하며 기도한다. 1구역 교적의 1번 가정부터 시작하되, 가을철 농번기와 겨울철 일기 불순을 고려하여 중간쯤에 공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였다.
- 3) 성가정상이 가정에 모셔지면, 되도록 많은 가족이 참석하도록 하여 촛불을 켜고 본당에서 마련한 양식(<첨부 1>)에 따라 기도를 바친다(약 50분 소요). 기도를 마치면 앞 가정의 한 사람과 다음 가정의 한 사람이 함께 성가정상을 옮겨 모신다. 그리고 성가정상을 다음 집으로 모셔간 사람은 그 집에서도 함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 집과 다음 집에서 두 번 기도를 하는 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완전한 고리

기도가 된다.

- 4) '고리 기도 현황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현황일지에는 '순번, 날짜와 요일, 기도 시간, 구역 이름, 세대주 이름, 참석자 이름, 참석자 수'를 적는다<첨부 2>.
- 5) 또한 특별히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이틀을 잡아 40시간에 걸쳐 고리 기도를 봉헌한다. 본당 성체조배실에서 실시하며, 모든 구역 신자가 참여하도록 순서를 배정한다.
- 6) 전체 일정 계획과 진행은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와 구역분과가 합동으로 주관하였다.

본당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신자 가정이 참여한 '고리 기도'의 사목적 효과를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다만 거의 모든 신자 가정이 '40주년 고리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한 것은 분명하다. 각 가정의 성화와 함께 '영적·내적 성장의 해'로 설정한 2005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첨부 1〉

본당 설정 40주년 성가성상 가정 방문 고리 기도 순서

※ 준비물 : 성경, 성가책, 묵주

1. 시작 성가 : 236번 "사랑하올 어머니"(3절까지)
2. 성호경
3. 40주년 기도문
 - † 40년 전 이 땅에 진리의 빛을 주신 하느님!
 -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참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 지난 40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신앙을 얼마나 성장시켜 왔는지
반성하고 확인하게 하시며
40주년을 지내는 올해
참 신앙의 목표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뜨겁고 확실하게 지니도록 은총 베풀어주시어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보살펴주소서.
 - 지난 40년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사랑과 화목 속에서 일치단결하여
용서와 화해, 선교와 성전 건립 등
여러 가지 신앙의 결실들을 함께 이루어감으로써
참된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뜨거운 불을 지펴주소서.
 - 본당 설립 40주년의 영광을 베풀어주시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미래의 시간도 모두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저희 교회가 늘 새로워지도록 보살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4. 고백기도

본당 설립 40주년을 지내는 올해에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깊이 반성합시다.

(잠깐 묵상한 다음에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고백기도’를 바친다.)

5. 자비송

6. 본기도

† 기도합시다.

사랑이 지극하신 하느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선물입니다.

또 저에게는 큰 힘이고 도움입니다.

당신은 가정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서로 어울려 당신께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서로 아끼면서 우애를 돈독히 키워 나가게 하소서.

어려움은 함께 나누어서 반으로 줄게 하시고,

기쁨은 나누어서 배로 늘게 하시어,

우리 모두 평화 안에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아멘.

7. 제1독서: 집회 3,1-16

8. 제2독서: 1코린 13

9.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10. 복음: 루카 6,20-26

11. 묵상(5분 정도)

12. 기도

①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한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잘 보존하게 하여주소서.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맑은 것을 알아보게 하여주소서.

악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주시며,

사물을 자연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지루함을 모르고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모르는 영을 주소서.

나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해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소서.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유머를 이해하는 친절과 풍자를 포용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②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께

저희 아이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당신께 드리는 저의 기도가 저희 아이들에게 빛과 힘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동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아직 철부지로만 보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하고 온갖 유혹으로 가득차 있나이다.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첫 눈길을 당신께 보내고 낮에는 당신의 망토에 싸여 걷고
 저녁에는 당신이 굽어보는 아래에서 잠들게 하시며
 바르고 선한 것에만 맛 들이게 하소서. 아멘.

③ 가정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3. 목주기도: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또한 우리 구역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또한 우리 본당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또한 우리 구역의 모든 쉬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또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14.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가톨릭 기도서』)

15. 주님의 기도

16. 마침 기도-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가톨릭 기도서』)

(기도문 가운데 “저희 성당”을 “저희 가정과 본당”으로 바꾸어서 한다.)

17. 강복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18. 마침 성가 : 238번 “자모신 마리아”

〈첨부 2〉

40주년 성가정상 순회 가정 방문 고리 기도 현황일지

순번	날짜	요일	시간	구역/공소	세대주	참석자	비고

가족과 함께하는 도보 성지순례

- 의정부교구 용현동 본당

■ 출처: 『사목』 2004년 9월 호

의정부교구 용현동 본당에서 2003년 여름행사로 치렀던 가족 도보 성지순례를 바탕으로, 본당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1박2일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준비

순례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른 길로 들어서는 일 없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마치려면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1) 사전 답사

도보 성지순례는 무엇보다 선두가 길을 잘 찾아가고, 적당한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쉬면서 간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곳을 알게 하는 문구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평소보다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발이 부르트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한다. 답사는 실전과 똑같아야 한다.

2) 순례지에 대해 미리 공부하기

의미 있는 장소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머물렀는지 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한 곳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순교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 장에 걸쳐 글과 사진(또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약 두 달 전부터 성당 마당이나 로비에 전시해 놓는다. 또한 준비 모임 시간에 순교지나 순교자와 관련된 영상물을 보여준다.

3) 신청 받기

약 두 달 전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때 참가비(가족당 2-3만 원 정도)도 함께 받는다. 가족과 함께 갈 수 없는 신자들은 동료와 함께(4명 정도)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도 좋다. 5세 이하 어린이나 70세 이상 된 노인은 되도록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의 신자 가운데도 특별히 오래 걸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접수를 받도록 한다.

4) 워크북 만들기

워크북은 봉사자용과 참가자용으로 구분하여 되도록 세밀하게 작성한다. 주제와 주제가는 물론이고, 자세한

일정과 순례지에 대한 소개, 지도도 곁들인다. 또한 응급처치법도 실어준다. 워크북은 순례하는 날 버스에서 볼펜과 함께 나누어 준다.

5) 전체 준비 모임

일주일 전에 준비 모임을 갖고, 순례자들 모두가 준비물과 프로그램을 숙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순례 당일에는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주제가(〈첨부 1〉 참조)를 선정하여 이때 연습한다.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수시로(걸으면서 힘들고 지칠 때) 주제를 부르며 힘이 날 것이다.

반드시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게 하고, 양말은 되도록 등산용 양말을 권한다. 식사 때 밥은 공동으로 준비하고, 반찬은 가족별로 준비하게 한다.

몇 가족을 묶어 그룹을 만들어주고, 대표자를 뽑게 한다. 대표자는 그룹을 이끌고 보살피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봉사자와 연락한다.

6) 물품 구입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은 한꺼번에 구입한다. 모자와 조끼를 단체로 구입하되 안전을 위하여 되도록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모자와 조끼는 준비 모임 때 나누어 주고 순례를 떠나는 날 착용하게 한다. 특별히 구입약은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2. 일정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7	출발 전례	아침 기도와 묵상
8	본당 → 성지 1 (차량 이동) 버스 안 프로그램	아침식사
9		십자가의 길
10		프로그램 2
11		(성극 준비와 발표)
12	시작 미사	파견 미사
13	점심식사와 휴식	점심식사
14	성지 1 → 성지 2 (도보 이동)	본당으로 출발 (차량 이동)
15		
16		
17		
18	저녁식사와 휴식	
19	성지 2 → 성지 3 (도보 이동)	
20		
21		
22	참회 예절과 고해성사	
23	프로그램 1(가족과 함께)	
24	잠자기	

3. 세부 프로그램

1) 버스 안 프로그램

버스를 타고 인원 점검이 끝나면 『가톨릭 성가』 177장(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2절까지 부른 다음, 묵주기도 5단(고통의 신비)을 다함께 바친다. 그리고 나서 순례지에 대해 미리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퀴즈 맞추기나 스무고개 등 다양한 놀이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때 진행자는 놀이법만을 알려주고, 되도록이면 두 명씩 짝을 지어 놀이를 진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2) 프로그램 1(가족과 함께)

가족끼리 동그랗게 모여 앉는다. 이때 가운데 촛불을 켜면 좋다. 시작 기도를 한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 편지는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있을 파견 미사 때 봉헌한다. 봉사자가 편지를 모두 모아 점심식사 시간에 편지 받을 사람에게 전해준다. 편지를 다 썼으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만든다(파견 미사의 보편 지향 기도 시간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 기도를 한다).

마침 기도로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다함께), ‘부모를 위한 기도(자녀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가), ‘부부의 기도(부부가)를 바친다.

3) 프로그램 2(성극 준비와 발표)

전날 성지에서 보고 들었던 옛일을 직접 성극으로 꾸며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룹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성극을 꾸민다. 그룹 대표자는 성극이 행여 장난스럽게 흐르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룹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한 다음,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가 모두 끝나면 김대건 신부의 옥중서한(〈첨부 2〉 참조)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4) 기타

- ① 걸을 때에는 둘씩 짝지어 묵주기도를 한다. 묵주기도를 마치면 묵상을 하거나 주제가 또는 성가를 부른다. 행렬 처음과 마지막 사람은 큰 깃발을 들고 다닌다. 저녁에 걸을 때에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고, 가족마다 랜턴을 하나씩 이용하게 한다.
- ② 하루에 걷는 거리는 30km 이내로 한다. 40-50분 정도 걸으면 5-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는다. 쉬는 동안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간식으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오이, 사탕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④ 성지에 도착할 때마다 ‘성지순례 기도’(〈첨부 3〉 참조)와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가톨릭 기도서』),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첨부 4〉 참조)를 바친다. 성지를 떠나기 전에는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가톨릭 기도서』)를 드린다.
- ⑤ 파견 미사 때 평화의 인사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되, 특별히 가족끼리는 꼭 안아준다.

4. 유의 사항

1)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믿음과 삶이 배어있는 성지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므로 주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2) 성지에서는 다른 순례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앰프나 핸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성지에

도착하자마자 일정과 유의사항을 육성으로 알려주고, 특별히 아이들이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난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

- 3) 본당 신자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아무래도 소란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가족끼리 성지를 둘러보게 한다. 이때 성지에 상주하는 안내 봉사자가 없다면 부모가 기도 분위기를 이끌면서 성지 곳곳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좋다.

〈첨부 1〉 - 도보 성지순례 주제곡

내가 가진 것(Take all of me)

우리 가 족이 - - 함께 걸 어요 - - 신앙
 선조의 지취를 따라 함께 걸 어요 - -
 오 - 주 - 님 - 우리 이 - 길 - 을 - 주님
 힘으로 주님 뜻대로 함께 걸 어요 - -

2. 내가 가진 것 모두 드려요 지나온 세상 셈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오 주님 나의 노래 주님 힘으로 주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3. 내가 가진 것 모두 드려요 당신 숨결로 불타오르는 내 모든 것을
오 주님 나의 노래 주님 힘으로 주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첨부 2〉 - 김대건 신부의 옥중 서한¹⁾

교우들 보십시오.

나의 벗인 교우들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1) 흔히 "김대건 신부가 조선 교우들에게 보낸 마지막 회유문(廻諭文)"으로 불리는 이 서한은 김대건 신부의 서한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진 것이다. 현재 그 원본은 유실되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1885년에 필사된 것으로, 절두산순교자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1885년 당시 시복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뮈텔(Mütel, 閔德孝) 주교가 명동성당에서 발견하여 기록 담당자였던 로베르(Robert, 制果錄) 신부에게 필사하도록 한 것이다. 편지가 쓰여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편집부에서 현대어로 손질했음도 밝힌다.

세례를 받았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에 태어나고 입교한 효험(效驗)이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농부를 예로 들어봅시다. 농부는 때에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모진 고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갑니다. 그러다가 수확할 때에 이르러 곡식이 잘 되고 여물면, 그동안 땀낸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고 춤추며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요,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여 빈 줄기와 껍질만 있으면, 땀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을 박대할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도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벼를 삼으시고,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피로써 우리에게 물 주시어 자라고 영글도록 하시니, 심판날이 되어 거두실 때에 은혜를 받아 영근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의인으로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영글지 못하였으면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여, 알고 계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어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성교회를 세우셨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속이 교회를 아무리 심하게 내리치고 핍박할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성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 무수히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에 가톨릭교회가 들어온 지 60년가량 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우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핍박이 불길처럼 심해져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 중에 있게 되니, 우리 모두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 그지없으며, 차마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작은 털끝 하나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하고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였으니, 이렇듯 고통스런 핍박도 어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미 하느님께 행복한 세속과 마귀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난관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애(友愛)를 잊지 말고 서로 돕고,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거두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여기 감옥에서 생활하는 우리 스무 명은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으나 혹시 죽게 되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고 돌보아주십시오. 할 말이 무궁하지만 어찌 글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만 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지 아니하여 전장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착실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사랑하는, 그래서 잊지 못하는 신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부디 마음을 헛되지 말고, 낮에도 밤에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떠한 핍박도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히려 여러분은 세속과 마귀를 이겨내어 더 큰 공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환난에 놀려 행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성녀의 자취를 더욱더 따르고 지켜 성교회에 영광을 더하십시오. 하느님의 착실한 군사이며 의인임을 뚜렷하게 보여주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여럿이지만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참고 돌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할 말이 참 많지만 거처가 마땅하지 못해 그만해야겠습니다. 모든 신자를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입으로 여러분의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親口)합니다.

조선대목구 부감목 김대건 안드레아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담기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곧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또한 주님의 뜻이 서려있으니,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디며 오직 주 하느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제가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찌 전혀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부디 서러워하지 마시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저세상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만나면 길이길이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1846년 8월 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김 신부 드림.

〈첨부 3〉 - 성지순례 기도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순례의 길을 걸으며 당신께 의탁하오니
당신 아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성서 안에서, 전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성지에서 새롭게 뵈고자 하오니
우리가 신앙과 사랑을 다하여
당신의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순례 동안에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이
이 순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할 모든 이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첨부 4〉 - 시복시성 기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에게
시복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들과 한목소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추가 자료〉

최양업 사제 시복 시성 기도문

(청주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인준)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 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맘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 기도문

(김지석 야고보 주교 인준)

모든 성인들의 덕행으로 찬미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은 일찍이 성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여
그 표양을 본받게 하셨나이다.
박해의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생애를 바치신
착한 목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 가르치신 바를 따르며,
더욱 신앙에 정진하게 하소서.
또한 최양업 신부의 공로로 저희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저희가 (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허락하심으로써
당신 권능을 드러내시고,
저희가 소망하는 대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복자와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 신자 여름 캠프

- 서울대교구 고척동 본당

■ 출처: 장호희(고척동 본당 중고등부교사), 『사목정보』 2009년 6월 호

전 신자 여름 캠프 기획

본당 15주년을 맞이해 본당 전 신자 캠프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좌 신부님과 사목회가 그해 1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두 달 후 신부님이 필자와 청년 회장을 비롯한 몇몇 청년을 부르셨다. 필자는 당시 중고등부 7년차 교사였다. 그리고 준비 상황을 청년들에게 위임하셨다. 아무래도 캠프 경험이 없으신 아버지들에게는 대규모 캠프 준비가 힘들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다. 청년들은 기획팀을 중심으로 홍보, 예산, 인원 관리, 시설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팀 인원을 모집하였다. 다행히 본당에는 교사 경험과 캠프 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

이번 캠프의 취지와 의미는 본당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신앙 활동에서 윤희유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본당 설립 15주년과 주변 개발로 새 식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더욱 캠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캠프 조직 구성

캠프 준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점은 조직도 구성이었다. 그래서 기획, 홍보, 예산, 인원관리팀을 구성하여 4개 팀의 연합체를 캠프 위원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과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다시 현실적으로 개편했다. 신부님을 중심으로 기획팀이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나머지 팀이 각자 맡은 역할을 기획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조직도를 구성했다.

캠프 준비

우리는 이번 캠프의 방향과 목적, 캠프 형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우선 캠프의 방향은 전 신자의 가족화였다. 그리고 여름이라는 특성을 살려 휴가의 의미도 포함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① 홍보

홍보는 최대한 일찍 시작했고 프로그램이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홍보를 했다.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캠프에 맞추도록 회사에서 휴가 날짜를 잡기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는 많은 신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캠프를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영상물, 대형 현수막, 홍보 책자, 본당 설립 15주년 기도문, 캠프에 대한 내용 추가 등 성당에 오면 누구라도 캠프에 대하여 알도록 했다.

② 구역장의 역할

이렇게 충분히 홍보하고 나서 구역장들에게 캠프에서 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캠프 접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했다. 그 결과 캠프 출발 한 달 전에 신청자가 600명이 넘어서고

캠ป์ 접수 마감인 2주 전에는 860명을 넘어섰다. 결과적으로 최종 출발 인원 869명으로 캠ป์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 것은 남·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중심으로 홍보한 영향이 크다. 대규모 캠ป์여서 인원 통제가 힘들다고 예상하고 구역을 하나의 조로 생각하여 구역장님들에게 조장 역할을 맡겼다. 물론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 번의 설명회와 사전 리허설을 충분히 마친 상태였다. 이렇게 역할을 줌에 따라 각 구역 구역장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남성 총구역장을 비롯한 지역장들까지 참석시켜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저녁에 전체 미팅을 함께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문제 발생 시 바로 구역장과 연락을 취함으로써 효과적인 진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③ 캠ป์ 신청

보통 캠ป์ 신청을 받아보면 캠ป์가 열리기 일주일이나 며칠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캠ป์에서는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에 늦어도 2~3주 전에 신청 인원을 마감해야 한다. 마감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리 차량 배차와 식당 예약을 완료하고, 개인마다 자신의 침실호수와 탑승 차량의 호수를 미리 알도록 하여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4개월간 매주 4~5일씩 회의와 작업 시간을 마치고서야 캠ป์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

전 신자 여름 캠ป์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여름휴가와 소공동체(구역) 모임, 주님과 의 시간이었다. 낮엔 함께 어울려 놀고 저녁엔 주님 안에 거룩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둘째 날 미사와 해피투게더(공연, 캠ป์파이어, 불꽃놀이)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

	8월 3일(목)	8월 4일(금)	8월 5일(토)
am7		기상	기상
am8	집합 및 말씀의 전례	아침 후 휴식	아침 후 휴식, 짐 정리
am9	베어스타운으로 출발!		
am10	차량 내 주의사항 및 캠ป์장 이용 안내 (숙소, 나들이, 식당 이용 등)	포천 나들이! 1. 백운산 등반 2. 내촌 숲가마 3. 광릉수목원/배상면주가 4. 허브아일랜드/깊은산초가집 (캠ป์ 신청 시 4개 코스 중 선택)	설문지 작성
am11			집합 및 마침기도
pm12			집으로 출발!
pm1	도착 및 방 배정	자유 시간	
pm2	점심 후 휴식		
pm3			
pm4	아자재! 신나는 공동체놀이(OX퀴즈)	저녁 후 휴식	
pm5	자유 시간		
pm6	자유 시간	공동체 미사 (초, 페이퍼 봉헌, 복음서 입장 등)	
pm7	저녁 후 휴식		
pm8	우리는 한가족(구역 소공동체 모임, 구역나눔 페이퍼 작성)	해피투게더! (캠ป์파이어, 불꽃놀이, 팀별 공연 및 신상옥 공연, 바비큐파티)	
pm9			
pm10	여름밤 풍경 속으로 (야외카페, 영화 상영, 풍물시장, 구역별 노래자랑)	꿈나라로	
pm11			
pm12	꿈나라로(일정 미팅)		

캠프 결과와 보완점

비교적 만족스러운 캠프였음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많은 신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너무 많은 단체와 진행을 함께하다 보니 전달상의 착오와 독자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팀들을 방지하려면 간단한 일을 맡는 단체라도 몇 번의 설명과 리허설이 필요하다. 또한 주일학교가 프로그램에 지장 받는 일은 없지만 장소의 부적절함은 있다. 아무래도 전 신자가 갈만한 곳을 찾다 보니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하기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니라면 같은 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만의 장소를 찾아 별도의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전 신자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은 보람과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지만 만약 실패했을 경우 공동체에 좋지 않은 분위기만 조성하기도 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 신자 캠프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캠프인 것 같다. 본당 교우간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2006년 한울캠프 설문지

1. 2006년 한울캠프를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① 공동체놀이(OX퀴즈) ② 우리는 한가족(구역모임) ③ 여름밤의 풍경 속으로
④ 포천 나들이 ⑤ 공동체미사 ⑥ 해피투게더(공연/바비큐파티)

3. 위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캠프 기간 동안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없다 ② 숙소 ③ 식사 ④ 빡빡한 일정 ⑤ 기타

5. 한울 캠프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음 신앙 캠프 ‘거리 마당극’

– 수원교구 울전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3년 9월 호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울전동 본당 전 신자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 내설악 미리내 캠프장을 찾았다. 캠프 이틀째 저녁 식사 시간. 600여 신자들이 6명씩 모여 앉은 바비큐장 탁자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중앙 무대에서는 울전동 본당 찬양팀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었다.

총회장은 전체 신자가 이렇게 캠프를 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를 위해 1년 전부터 면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상임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연령대 건강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신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회장이 내민 캠프 팸플릿을 보았다. 기도문부터 캠프 개요, 일정표, 참가자 600명 명단, 수료증, 조직도, 숙소 배정표, 시설 안내도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내 자료였다.

특히 운영본부와 기획조정위원회를 필두로, 여름 신앙 학교 단장, 캠프 단장, 캠프 지원 단장으로 수직 구조를 짜고, 차량 숙박 관리팀, 부식관리팀, 의료팀, 안전관리팀까지 세세하게 조직을 구축했다.

미사와 성체조배, 작은 음악회, 마당극, 명랑운동회, 산행, 문화 탐방 등 프로그램을 기존 본당 단체에서 맡아 행사 진행에 만반을 기하도록 했다.

문화로 소공동체 살리기

본당 신부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다 거리 마당극을 통해 신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작정을 하고 사제 피정에 들어갔고, 강의 내용과 기도와 묵상으로 거리 마당극이 탄생하였다. 그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소공동체도 가벼운 친교만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를 위한 복음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① 첫째 날 순교 성극

대본은 김봉기 신부가 썼고 공연은 청년부에서 맡았다. 남양 순교성지의 박 마리아, 김 필립보 순교 성인에 대한 성극이었다. 청년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삶, 신자들의 마음이 교감했기 때문일까, 가상의 공연인데도 순교자들이 처형당할 때 신자들은 모두 “안 돼! 안 돼!”라 외치며 눈물을 흘리고 난리였다고 한다. 거리마당극의 호응도가 이렇게 클 줄이야!

② 성체조배

순교 성극 프로그램 이후, 전 신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렬을 하며 성체 거동 후 설악산 계곡 근처 하얀

천막으로 만든 성체 장막에 성체를 모셨고, 새벽 6시 전 신자가 야외 미사를 드렸다. 캠프장에서 성체조배라니! 장막 옆으로 수많은 촛불들, 성체를 중심으로 호롱불 몇 개도 운치 있게 만들어 놓았다.

③ 둘째 날 저녁식사 후 '십자가의 길 14처 거리 마당극'

1처는 빌라도의 사형선고, 2처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3처는 막달레나의 독백, ...14처는 신자들의 기원 등의 주제를 담았다. 현대인의 상황을 담은 극을 감상하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해나가는 방식이라 관객들의 호응도와 내용, 연기에 따라서 신자들 전체가 울고 웃으면서 함께 몰입해 갔다. 거리 마당극은 서양극과 달리 무대도 참여도 열려있는 전통극이라 모두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었다. 김봉기 신부가 쓴 대본 50여 쪽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했지만, 총 10개 지역 신자들이 개성과 창의력에 맞게 각색해서 가능하면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도록 꾸몄다. 한 처마다 기본적으로 20-30명이 등장하니 전체는 수백 명의 신자가 등장인물이 된 셈이다.

④ 캠프를 마무리하는 미사 시간

한쪽에서 30여 명의 성가대가 지휘자 아래 아름다운 성가로 찬양이 시작되었다. 미사 강론을 위해 김봉기 신부가 제단 아래로 내려와 오늘 성경 말씀 나눔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캠프를 보낸 후의 감회를 발표하게 했다. 치매 언니와 함께 온 할머니도, 아버님 제사 때문에 늦게 참석했던 부부도, 수술 후 회복기 때문에 참석을 고민했던 중년 형제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즐거웠다는 중학생 꼬마도 모두 기쁨으로 상기된 채 소회를 말했다. 이후 캠프 여정을 사진 영상물로 살펴보면서 2박 3일을 추억의 책장에 고이 담았고 여러 시상상을 통해 또 한 번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보냈다.

한마음 한뜻으로

캠프를 다녀온 후 김영오 비오 운영본부 총무의 후일담을 들었다. “이번 캠프는 개인적인 치유, 냉담자 회두, 외딴교우 권면, 소공동체 활성화 등 신앙의 은총에 흠뻑 젖은 캠프였습니다. 지금 울전동 성당은 미사 후나, 반모임, 레지오 등 둘 이상만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캠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부담을 하거나 봉헌을 많이 하여 내년에도 또 가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치면 성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신앙 캠프 일정표

첫째 날: 믿음의 날			
시간	일정		
알파α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묵시 22.13)		
08:30~	지역별 집결		
09:00~	캠프장으로~(묵주기도와 함께)		
12:30~	입소식(생활 안내)		
13:00~	점심식사		
14:30~			(중고등) 북천카약 (북천)
15:30~	(성인) 명랑운동회(운동장)	(청년) 청년찬양 순교극 연습	(초등) 생태체험 (북천)
18:00~	저녁식사		
19:30~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은하수홀)	야간추적놀이 (캠프장)	장기자랑 포크댄스
21:00~	마당순교극(운동장)		
21:30~	성체거동(나는 굳게 믿나이다) (운동장 → 장막)		
22:00~	취침	장기자랑 리허설 (은하수홀)	취침

둘째 날: 희망의 날					
시간	일정				
06:00~	야외미사(솔밭)				
07:30~	아침식사				
08:00~	(성인/청년)				
09:00~				(중고등) 챌린지코스 (잔디운동장)	(초등) 미니올림픽
12:00~	점심식사				
13:00~	1. 산행A: 상급 오색약수-대청봉 2. 산행B: 중급, 초급 십이선녀탕-안산 3. 래프팅: 내린천(오전만 진행) 4. 해수욕장: 삼포 해수욕장 5. 문화탐방, 온천 6. 캠프장내: 장막성체조배/커피교실/ 음악피정/카약/ 고기잡이/영화상영	래프팅 (내린천)	수영장, 산책 및 사진찍기		
17:30~	저녁식사(화로구이)				
19:00~	(성인) 마당극	(청년) 청년프로그램 (사랑과 봉사)	마당극	야간추적놀이	
20:30~	캠프파이어 (희망, 성령의 불꽃)			캠프파이어 (잔디운동장 옆)	
21:00~					
21:30~				장기자랑 (은하수홀)	취침
22:00~	취침				

셋째 날: 사랑의 날	
시간	일정
06:30~	기상 및 세면
07:30~	아침식사
09:00~	사색의 시간
10:00~	파견미사(사랑으로 한마음) (은하수홀)
11:30~	점심식사
12:30~	집으로~
오메가Q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묵시 22,13).

마르코 복음을 따른 영성 캠프

- 서울대교구 삼성동 본당

■ 출처: 심흥보 신부(서울대교구), 『사목정보』 2012년 10월 호

1.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영성 캠프를 준비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몇 명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가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현존하실 수 있을까?’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지상 교회의 일이다. 삶 속에서 마주치는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2. 영성 캠프·마르코 복음에 따른 영성 캠프의 영적 여정

2012년 영성 캠프의 표어는 “일어나 가자”(마르 14,42)이다.

■ 첫째 날 주제: ‘가정 공동체’

마르코 복음 7장 24-30절에 나오는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교도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26절) 청한다. 우리는 딸이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청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된다. 그런데 같은 부모의 마음이라도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 중에는, 내가 부모로서 너를 만들어주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프로그래밍한 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소개해준 배우자와 내가 제시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마음은 둘 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는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라는 타인이 기대하는 자녀가 되도록 요구하는 마음이다.

‘영성. 복음 나누기’

첫날 ‘복음 나누기’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며, 주님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우리 감정과 생각과 의도로부터 그를 놓아주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몸소 임하시도록 합니까?

-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께서 왜 나를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엮어주셨으며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따르렵니까?

묵상을 마치고 우리는 ‘촛불 예식’을 통해 우리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의 힘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힘을 달라고 청한다.

■ 둘째 날 주제: '교회 공동체'

마르코 복음 2장 1-12절에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어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어 그분께 가까이 내려 보내 살려달라고 청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영성2. 묵상'

둘째 날 오전 성체 현시를 하고 성체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의미를 새긴다.

- 내 인생의 순간마다 영육 간에 나를 인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을 통해 나를 이끌어 오신 주님과 의 정을 되새기며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금까지 받아온 은총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앞으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배려하고 희생으로 함께하며 갚고자 다짐합니다.
-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가 고쳐줄 것인가, 어떠한 상황이 오늘 우리 사회의 중풍 걸린 상황인지, 또 주님께서서는 그 중풍적 상황을 어떻게 치유하고자 하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영성3. 복음 나누기'

저녁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기적 이야기들을 구역별로 하나씩 되새기고 오늘 우리의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된 실생활에 맞추어 표현하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존재와 삶의 참 기쁜 소식이신 주님을 살피게 된다.

■ 셋째 날 주제: '파견'

'영성4.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어떻게 본당 공동체에 기여할지를 모색한다.

2박3일의 영성 캠프 동안 영적으로 충만하게 양성된 우리가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사회의 현실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4-18).

세상을 죄악의 어둠에서 구해 살리시고자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세상을 구하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바치고 돌아가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형제자매들을 구하는 사랑의 선교를 살아가라고.

■ 일정표

시간	7/27(금)	7/28(토)	7/29(주일)
07:00	8:30 출발	기상	
07:30		전례/미사	전례/아침 기도
08:00		아침식사	
09:30		영성2	영성4
11:00		구역놀이	전례/파견 미사

12:00	점심식사		청소&짐 정리 후 귀가
13:00	- 성인과 초등부는 연풍성지 순례 - 중고등부는 봉사활동	〈자유선택〉 법주사 문화탐당 문장대 등산 영화관람	
17:00	전례/말씀 전례	전례/저녁기도	
17:30			
18:00	저녁식사		
19:30	영성1	영성3	
21:00	자연1 풀벌레 소리에 (가정공동체-촛불예식)	자연2 밤 별 헤기 (촌극 발표) (교회공동체-캠프파이어)	
22:30	자유취침		



루카 복음을 따른 영성 캠프

- 서울대교구 삼성동 본당

■ 출처: 심흥보 신부(서울대교구), 『사목정보』 2013년 9월 호

영성 캠프

영성 캠프는 기도와 놀이와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도하고 놀고 밥 먹고 잠자는 일상이다. 우리는 회사와 일이라는 짐과 활동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십자가 등등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힘들어한다. 일상을 떠나 영성 캠프를 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구현'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할 수 없었던 하느님 나라를 직접 설계해보고 실현해 보는 것이다.

주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빵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전의 예수님을 알아 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루카 24,29)라고 청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깨닫게 되고 성체성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게 된 제자들의 이 말씀이 영성 캠프의 주제이다. 영성 캠프의 기도와 놀이와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영성 캠프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살아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목표이다.

일정별 세 주제

■ 첫째 날 주제: '소명'

주제 성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느님의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전언에 마리아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의탁을 시작하게 된다.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하느님의 초대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본다.

- 우리는 언제 어떤 경로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까?
-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다가온 주님의 초대와 축복을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까?

■ 둘째 날 주제: '양성'

주제 성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루카 9,57)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 나라와 제자들이 바라는 하느님 나라는 사뭇 다른 나라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왕위에 오르실 영광의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처절하게 돌아가실 분이였다. 새 시대의 부귀영화를 기대하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봉사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간직하고 의지해 왔던 모든 가치관과 처세술을 버리고 복음 말씀을 선택하며 회개한다. 제자들의 신앙고백과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본다.

-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는 주님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청합니까?
- 우리가 주님의 참 모습을 뵈오며 지키고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셋째 날 주제: '파견'

주제 성구: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며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이르셨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먼저 해 주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뭔가 도와주어야 하고 또 내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 신자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구현해 본다. 우리가 성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할 이웃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의 한 명에게 쏟아붓는 사랑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영성 캠프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총과 평화를 형제자매들과 나누기로 한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본다.

-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 우리는 그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원동력이자, 지치지 않는 활동과 상처받지 않는 신앙의 원천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한 방법인 기도 생활에서 얻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흘러넘치는 사랑의 힘으로 무장하여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주님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 하느님께서 몸소 활동하시도록 우리를 봉헌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한다.

■ 일정표

시간	첫째 날 - 소명	둘째 날 - 양성	셋째 날 - 파견
07:30	성당 출발 도착과 방배정	전례/미사	기상
08:00			전례/아침기도
08:30			아침식사
09:00		아침식사	영성 4. 묵상과 나눔(루카 10,29-37)
09:30		영성 2. 주님 현존 체험과 나눔(루카 9,18-27, 57-62)	
11:30			
12:00	점심식사		파견미사(구역별 발표)
12:30			점심식사

13:30	영성 캠프 안내 및 조별 모임	추적놀이와 물놀이	청소&짐 정리 후 귀가
14:00	전례/미사 (조별 발표-조깃발, 조구호)	자유시간	
17:30		전례/저녁기도	
18:00	저녁식사		
19:30	영성 1. 복음 나누기(루카 1,26-38) 주님의 뜻 헤아리기(가정)	영성 3. 주님의 가르침 구현(촌극) 주님의 뜻 헤아리기(공동체)	
21:00	촛불봉헌	그룹 놀이와 촛극 발표	

사목 아이디어 모음

– 본당 전체 행사 –

■ 냉담 교우,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성전 봉헌 60주년 기념 프로젝트 ‘성지순례 800’이란 제목 아래 배터 성지로 전 신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일반 신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냉담 교우, 비신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9명, 냉담 교우 90여 명, 비신자 90여 명, 총 830여 명 참석)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전동차 3대와 휠체어 7대를 지원받았다. 프로그램으로는 버스 안 묵주기도와 성지 해설, 성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 최양업 신부 박물관 관람, ‘가족 사진 찍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교구장 주교 주례로 성지 미사를 봉헌하였다.

– 전주교구 요촌 본당, 가톨릭신문 2016.10.19.

■ 본당의 날 비전 선포식 개최

본당 설립 23주년 본당의 날에 2020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목표로 ‘비전 25’를 설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본당 설립 25주년 기도문 낭독, ‘비전 25’ 발표, 전 신자의 ‘마태오의 다짐’ 구호, 축하공연, 강의와 음악 피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포한 ‘비전 25’ 핵심 비전으로 ▲ 회심: 영적 쇄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 사도직 활동: 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넓히기 ▲ 거룩한 성전: 성전, 안전하고 기도하고 싶은 성전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수원교구 분당 성마태오 본당, 가톨릭신문 2018.9.23.

■ 본당 설립 25주년 도보 성지순례

2020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준비하며 개인 성화와 공동체 일치를 위해 교구 내 16개 성지를 연결하는 디딤길 도보 성지순례를 진행하였다. 4월부터 11월까지 총 23차례 도보 순례 여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아 도보 성지순례를 비롯하여 열린 음악회, 250만 단 묵주기도 봉헌, 성체조배 2만5천 시간, 신·구약 성경 지역별 필사, 말씀 사탕 나누기 등을 하고 있다.

– 수원교구 분당 성마르코 본당, 가톨릭신문 2018.9.9.

■ 본당 자유 시장

본당 공동체의 단합과 성전 건립 시 받았던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가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본당 신자 및 이웃을 대상으로 한 프리마켓을 실시하였다. 본당 주보를 통해 일시를 공지하고 신자들과 제 단체의 가족 및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 참여 인원과 판매 상품을 접수받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본당과 본당 주변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였다. 프리마켓 당일에는 본당 마당에 천막을 친 뒤 탁자를 두고 돗자리를 깔아 상품별로 자리를 배정하였다. 행운권 상품은 본당 신자들로부터 기증을 받았으며, 자그마한 물건들은 가정위원회에서 직접 구입을 하여 충당하였다. 판매자들은 판매 수익 중 70% 정도를 프리마켓을 실시한 취지에 맞게 본당 건축 현금으로 납입하였다.

– 대구대교구 구평 본당 제공(2017.12.)



본당 사목 계획서 실천 가이드

- 서울대교구 한강 본당/인천교구 옥련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09년 11월 호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는 대림시기에 각 본당에서는 내년도 연간 사목 계획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본당 사목에 유용한 사목 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는 모든 본당 사목자의 고민이기도 하다. 사목 계획서가 단지 연간 행사 일정표로 끝나버릴지, 아니면 한 해 본당 구성원의 신앙생활 지표가 되어 본당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는 사목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 넣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강 본당(서울), 옥련동 본당(인천)의 2009년 본당 연간 사목 계획서를 예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의 2010년 사목 계획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009년 본당 사목 계획서 「한강 본당(서울), 「옥련동 본당(인천)

	1월	2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평화의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주님 공현 대축일 • 설 • 주님 세례 축일 • 해외원조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봉헌 축일 • 세계 병자의 날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재의 수요일 • 판공계획수립
한강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하례 미사 • 합동위령미사 • 혼인면담(매월 첫 주일) • 성체 강복 • 유아세례 • 예비신자 환영식 • 청년연합 NT • 예비신자 교리 • 부설유치원 개학 • 사목 목표 설명(강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 척사대회 • 복음나누기 • 사목회 • 사제 서품 20주년 • 지구 사제(새남터) • 3개 꾸리아 임원 회합 • 성소자 모임(보좌 신부 인솔) • 지역 사제 평의회 • 성찬 봉사자 갱신 교육 • 재의 수요일-금육과 금식 • 구역별 구역미사 • 청년 피정

<p>육련동 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공헌 대축일 미사 • 대축일 미사 및 성모신심 미사 • 구반장의 날(신년행사) • 여성분과회의 • 성가대/전례단 회합 • 명절 상차림(헌화회) • 예비신자 입교식 • 선교활동 입교식 • 3꾸리아4간부 간담회 • 2008 결산 감사 • 예비 신학생 상반기 모임 • ME • 여성분과 신년교례 미사 • 요아킴회, 안나회 식사 준비 • 노인대학 개설 준비 • 첫영성체 자모회 교사 피정 • 중고등부 자모회 신입생 환영 • 청년 연수 지구모임/MT • 본당 연혁자료 수집 및 정리 • 우리농 임원 회의 • 성탄구유 철거 • 본당 설비 유지보수 전년 결산 및 1년 예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봉헌 축일 미사 • 재의 수요일 전례 • 선교분과 간부 피정 • 주일헌금 장부 검사 • 사순 저금통 배부 • 구역 등산 사전 답사 • 첫영성체 자모회 교사 연수 • 중고등부 자모회 종업식 •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음식바자회) • 동계 청년 MT • 비활동 청년 엽서 보내기 • 신임 교리 연수 • 졸업미사(초, 중, 고) • 교사연수 • 어르신 접대(본당) • 주일학교 교사연수 • 청년부 해병대 선교 방문 • 소방 점검
-------------------	--	--

	3월	4월
<p>전례력 (본당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순 기도 • 성시간(성체강복) • 성모신심 미사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신심 미사(성모의 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성유 축성 미사 • 주님 수난 성 금요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 부활 성야 미사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 성소주일 • 성시간(성체 강복) • 장애인의 날
<p>한강 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전체 OT • 사순 특강 • 유아부 입학식 • 봉성체/성체강복 • 지구 사제(삼각지) • 뿌레시디움 단장 교육 • 노인대학 개강 • 구역별 구역미사(매주 금 17:30) • 3개 꾸리아 임원회의 • 십자가의 길(매주 금 17:30) • 유아부 학부모 면담 • 여성 복음나누기 • 구반장 월례교육 개최미사 • 지구별 초등교사 월례교육 • 지역 사제(연회동) • 예비신자 교육(매주 일 9:00) • 아치에스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자 교육(매주 일/수) • 판공성사 • 성주간 예식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미사 •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 • 부활절 직원회의 • 부활달걀 콘테스트 • 부활 성야 미사 • 부설유치원 부활절 행사 • 지구 사제(외국인) • 복음 나누기(매주 화) • 지역 사제(불광동) • 부설유치원 학부모 교실 • 교구 사목방문 • 부설유치원 연령별 소풍 • 성소후원회 모임

옥련동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시간(성체강복) • 성유 축성 미사 • 사순기도 • 요셉성월 기도 • 성소후원회 수납 • 홍보분과 교구 회합 • 성가대 산행 • 예비신자 피정 • 재정분과 1/4분기 자체 감사 • 판공성사표 배부 • 구반장 피정 • 청소년분과 아카데미 개강/교리교육 • 차 봉사(녹차/커피, 레지오) • 성주간 교리(중, 고) • 중고등부 주일학교 개강 • 주일학교 교장단 연수 • 중고등부 부활달걀 • 청년부 성지순례 및 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례분과 부활성가 연습 • 성주간 전례 • 예비신자 성지순례 세례식 • 전신자 피정 • 자연정화 활동 • 구역대항 족구 대회 • 판공 시 교무금 독려 • 회계 장부 검사 • 남성분과 구역 맞이 대청소 • 연령회 불우이웃돕기/1차 연수 • 초등부 자모회 야유회/ 부활 달걀 만들기 • 홍보분과 부활사진 촬영 • 청년부 부활 행사 협조 • 농촌 일손 돕기 • 조경 살균 • 정확초 청소
-------------------	--	--

	5월	6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승천대축일(홍보주일) • 성령강림대축일 미사 • 삼위일체대축일 • 성모성월 기도 • 성모의 밤 행사 • 교황주일 • 청소년주일, 생명의 날(마지막 주일) • 이민의 날(5월1일 주일 또는 그 전 주일) • 어린이날 행사 • 어버이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 • 예수성심대축일 • 사제 성화의 날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강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의 밤 행사 • 부설유치원 교사 연합 피정 • 혼인면담(매월 첫 주일) • 안나회 성지순례 • 3개 꾸리아 임원회의 • 남대문시장 사목방문 • 여성레지오 야외행사 • 남성레지오 야외행사 • 꾸리아 간부교육 • 지역 사제(해화동) • 사무장 연수 • 1지구 구반장 월례교육 • 사무원 연수 • 후암동 사목방문 • 예비신자 성지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심회 월 모임 • 레지오 전단원 교육 • 부설유치원 어머니 참여수업 • 3개 꾸리아 임원회의 • 1일 여성 피정 • 지역 사제(수유동) • 사제성화의 날 • 본당 소속 학사부제 서품 • 사제 서품 • 1지구 구반장 월례교육

옥련동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의 밤 행사 • 전례 봉사자 합동 야유회 • 성가대 성모의 밤 특송 • 예비신자 입교식 • 신자 재교육 • 첫영성체 • 건진 특강 • 성모의 밤 꽃대 접수 • 연령회 야외 미사 봉헌 • 초등부 자모회 어린이날 행사(마술, 레크리에이션) • 중고등부 연수지구 농구대회 • 청년부 야외미사 협조 • 홍보분과 성모의 밤 사진 촬영 • 선풍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 재교육 수료식 • 전반기 결산 감사 • 여성분과 교구 구반장 교육 • 연령회 바자회 개최 • 봉사분과 본당 방역 작업 • 초등 자모교사 여름 레크연수 • 중고등부 교사 여름 캠프 • 제습기 점검
-------------------	---	--

	7월	8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승천대축일
한강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심회 월 모임 • 혼인면담(매월 첫 주말) • 부설유치원 여름 캠프 • 지구 사제-야외 • 종합교리(7/15~7/17) • 부설유치원 여름방학 • 세례식 • 어린이 성경학교 • 새 영세자 봉사활동 • 초등부 여름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복사단 하계 연수 • 중고등부 캠프 • 부설유치원 개학 • 1지구 구반장 월례교육 • 초임 꾸리아단장 직책 교육 • 청년캠프 • 새 영세자 첫 고해성사 • 성서모임 개강총회 • 주일학교 피정
옥련동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담교우, 예비신자 기도 • 건진성사 • 복사단 피정 • 첫영성체 혼인 갱신식 • 회계장부 검사 • 봉사부 본당 방역작업 • 초등부 성지순례 • 가족 성경캠프 • 가정 미사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초등부 고학년 여름연수 • 중고등부 교사 여름캠프 연수 • 청년부 해병대 선교 • 중고 교리 방학 • 어르신 접대 • 독거노인 봉사활동 • 오이지 나눔 • 제습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학교 하계수련회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예비신자 모집 • 가두선교 • 연령회 야유회 • 홍보분과 여름캠프 사진 촬영 • 성모승천대축일 사진 촬영 • 가정을 위한 기도 • 교사MT, 청년MT • 청소년분과 교사 피정 • 청년 차봉사, 일일 호프 • 여름밤의 중고등부 락밴드 연구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학부모 모임 • 어르신 성경읽기 개강 • 불우 이웃 반찬 나눔 • 주일헌금 장부 검사 • 에어컨 점검 • 장마 준비

	9월	10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합동위령미사 • 전 신자 체육대회
한강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심회 월모임 • 환자 봉성체 • 지구 사제(용산) • 예비신자 환영식 • 지역 사제(노원) • 부설유치원 가을 소풍 • 남성피정: 여정, 그 완성을 향해 • 부설유치원 학부모 교실 • 부설유치원 민속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뿌레시디움 전 단원 교육 • 지구 사제(이태원) • 여성 꾸리아 4간부 피정 • 남성 꾸리아 4간부 피정 • 부설유치원 가족과 함께 예정 • 지역 사제(중서울) • 받아들이는 예식 • 예비신자 교리(매주 수요일)
옥련동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례 해설단 모임 • 성가대/전례부 아우회 • 선교부 전 단원 영성교육 • 3/4분기 자체 감사 • 본당 성지순례 봉사 • 본당 연혁사 자료 정리 • 초등부 아카데미 2학기 미니 체육대회 • 중고등부 교사 아카데미 • 청년 성지순례 • 지구교사 체육대회 • 영정사진 촬영 • 여성 건강 교양 강좌 • 신앙학교 • 성인전 읽고 나눔의 피정 • 가을맞이 특강 • 사과, 단감 특판 • 우리농 임원회의 • 옥상 배수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합동위령미사 • 추석 상차림(헌화회) • 작은 음악회(성가대)-10/31 • 온 신자 가정 방문 축복 기도 • 성경 봉사자 특강 • 선교부와 자연보호 활동 • 초등부 꽃봉우리제 참가 • 교리교사의 날 행사 •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 • 청소년 사목 기금 마련 바자회 • 본당 역사 사진 전시회 • 초등부 목주 만들기 • 영정사진 촬영 • 경로잔치/불우이웃 돕기 • 가을맞이 도농 교류: 고구마 외 판매 • 농촌 추수감사제 • 보일러 점검 • 소방 점검

	11월	12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령의 날 • 그리스도 왕 대축일 • 추수 감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성탄 대축일 • 송년미사
한강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령의 날 합동 위령 미사 • 부설유치원 연령별 학부모 면담 • 견진교리(매주 화 저녁미사 후) • 성심회 월모임 • 환자 봉성체 • 지구 사제(한강) • 예비신자 교리(매주 일/수) • 교구 사목지침 설명회 연수 • 지역 사제(중서울) • 견진교리 마지막 강좌 및 예절 연습 • 견진성사 • 1지구 구반장 월례교육 • 2010 사목 계획 수립 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특강(매주 화 17:30) • 부설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 레지오 연차총친목회 • 판공성사 • 부설유치원 구유 조배 • 부설유치원 산타 행사/방학 • 성탄 전야미사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시간 조정) • 예비신자 교리(매주 일/수)

옥련동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행사 계획 • 2009년 결산 보고 • 첫영성체 세례식 • 선교를 위한 매일 묵주기도 • 성경 퀴즈 대회 • 성경 통독 • MBTI 교육 • 위령의 날(백석묘지 방문) • 신자 재교육 • 본당 제 단체 행사 파악 지원금 확보 • 추수감사 구역 봉헌 대림초 준비 • 청소년/청년 열린 미사 • 젊은이 생명 교육 • 초등부 은총시장 • 초등부 전례 지도자 교육 • 중고등부 부모님 초대 미사 • 중고등부 교사 겨울 연수 • 고3 수험생 미사 • 중고등부 교리 경시대회 • 사회복지분과 사랑의 쌀 수혜자 • 성탄 트리 작업 • 김장용품 예약 공급 • 우리농 임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성탄 대축일 전례 • 대림특강 • 예비신자 성지순례 • 신자 재교육 수료 • 연차총친목회 • 내년 예산 책정 • 교무금 조정/결산 감사 • 남성분과 성탄 맞이 대청소 • 여성 구역분과 판공성사표 배부 • 여성 구역반 모임 교재 배부 • 구역별 성가대회 • 봉사분과 성탄 예술제 • 외딴교우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피정-사목위원 성탄 송년 준비 • 복사단 겨울 피정 • 전례자 연말 성탄 준비 모임 • 성가대 성탄 성가 연습 • 바오로회 송년회 • 초등부 성탄 선물 준비 • 중고등부 교사 총회 • 청년 송년의 밤 • 도농분과 전체 봉사자 모임 및 연말 보고
-------------------	--	--

■ 2010년 가상 본당 사목 계획서

	1월	2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평화의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주님 공헌 대축일 • 주님 세례 축일 • 해외원조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봉헌 축일 • 세계 병자의 날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재의 수요일 • 설 합동 위령미사 • 판공 계획 수립
가상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단 야유회 • 전 신자 국수 잔치 • 신년 인사회 • 귀농 가족모임 • 평협 1차 상임위원회 • 고등부 성서모임 • 산악회 신년 정기총회 • 본당 내 소공동체 홈페이지 개설 • 다문화가정 대상 언어 교육 • 결혼 이주민 한글 성경 모임 • 한중 문화 체험 • 이주민 노동/의료 서비스 • 이주민 대상 한국어 학교 동계학기 개강 • 성경 100일 묵상 시작 • 노인대학/빈첸시오회 전년 결산 모임 • 본당 빈민사목 조직화 구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의 수요일 준비 • 제대초 봉헌 및 꽃꽂이 • 본당 내 직업 봉사인 자원 확보 위한 설문 조사 • 장학재단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 • 꾸리아 직책 교육 •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 미사 전례 교육 • 쉬는 교우 다과 모임 • 어린이, 청소년 거리 선교 • 주일학교 교사 1년 계획 회의 • 신입교사 연수 • 노인대학 봉사자 피정 • 노인대학 교과 과정 수립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미사 • 설맞이 나눔 행사 • 주님 봉헌 축일 미사 • 세계 병자의 날/환우 미사

	3월	4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요셉 성월 • 사순기도 • 성시간(성체강복) • 성모신심 미사 • 주님 수난 성지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신심 미사(성모의 밤)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성유 축성 미사 • 주님 수난 성 금요일 • 부활 성야 미사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 성소주일 • 성시간(성체강복) • 장애인의 날/이민의 날
가상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연합 미사 • 전례분과 교육 • 환자 봉성체 • 어린이 녹색 체험 감자 심기 • 봄맞이 성가정 나들이 • 본당 내 전문 직종 평신도 사목 모임발족 • 본당 행사 기록 관리위원 모집 • 청년성서 연구 • 그룹성서 수료미사 • 신앙인의 '인성교육' 4주 코스 • 이웃 종교와의 친선 축구/다과 • 새학기 축복식 (어린이 청소년 미사 후) • 노인대학 접수 및 개강 • 어린이 체험: 가난한 이와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간 준비 • 주님 부활 대축일 준비 • 부활 계란 초 판매 • 어린이 녹색 체험 텃밭 분양 • 성지 개발위원회 회의 • 산행 선교(자연보호) • 평신도 사목인 직업별 세분화 양성교육 및 영성 훈련 코스 개강 • 주말 어린이 수도원 생활 체험 • 장애우/장애우 가족 치유 특별미사 • 성서모임 직장인 봉사자 교육 • 지역 주민 성전으로 초대하기/다과 • 청소년 상담 주간 • 은금훈식 부부 시상 • 아름다운 동행 (시각장애인과 산행 길벗 체험)

	5월	6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 성월 •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 삼위일체 대축일 • 성모성월 기도 • 성모의 밤 행사 • 교황 주일 • 청소년 주일, 생명의 날(마지막 주일) • 어린이날 행사 • 어버이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 성심 성월 •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 예수 성심 대축일 • 사제 성화의 날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가상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모 성월 준비 • 성모의 밤 공연 • 성체 분배권 수여 교육 • 다문화 가정의 날 기념 특별 미사 및 회합 • 어린이 녹색 체험 손 모내기 • 어린이 카네이션 만들기 • 성가정 성지순례/레지오 단원 교육 • 장애인 가족 체육대회 • 여름신앙학교 교사 연구 • 가정의 달 맞이 성가정 미사 • 어린이날 기념 성전 마당 어린이 놀이터로 꾸미기(첫째 주일) • 어버이날 어르신 초대 국수잔치 마당 (둘째 주일) • 독신 신자 대상 신앙 강좌 '주님 안 온전한 나' • 이혼/사별인 대상 치유 강좌 및 축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 피정 • 견진성사 준비 모임/견진성사 • 풍년 기원 미사 • 어린이 녹색체험 감자 캐기 • 차 축복식(교중미사 후) • 젊은이 성령 묵상 • 30~40대 성령 묵상 피정 • 직장인 주말 성령 묵상 • 예비신자 성지순례 • 예비신자 환영식 • 어르신 공동체 연수 • 노인 영육 건강 강좌 • 노인 걷기 건강 강좌(외부 강좌) • 사회복지 실무자 연수 • 사회복지 시설장 회의

	7월	8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농민주일(셋째 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모 승천 대축일
가상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가대 피정 모든 신자를 위한 하루 피정 주일 예비신자 입교 환영식 신자가족 연령을 위한 위령 기도회 성체조배 기초 교육 아이스커피 가두 선교 연도 교육 중고 폐품 모집 냉방기 청소 장마 대비 점검 여름 신앙학교(초) 초등 영화 상영 어린이 녹색 체험: 고구마 심기, 사과꽃 따기 수화 기초반 모집 어르신 성경 공부 한 끼에 100원 나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모 승천 대축일 준비 성모 승천 대축일 9일 기도 세례식 봉사자 시상 및 격려 전 신자 기차 타고 성지순례 봉쇄수도원 체험 가족 피정 냉담자 회도와 행복자 찾기를 위한 고해성사 참부모가 되는 길잡이 1일 피정 성가정 선정 시상과 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본 정신 강좌 견진교리(중, 고) 초중고 여름 캠프 교리교사 엠티 중고 여름 신앙학교 여름방학 중고등부 공부방 운영 사회복지분과 회원 피정 환경지킴이 EM 제품 매장 개설 본당 소방 설비 점검

	9월	10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교자 성월 추석 합동 위령미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전 신자 체육대회 군인주일(10월 첫 주일) 전교주일(10월 마지막 전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가상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교자 대축일 준비 전례분과 교육 전 신자 명랑 운동회 전 신자 선교 특강 순교자 성월 성화 영화 상영 새터민 한가위 잔치 추수감사제 순교자 현양 대회 주일 예비신자 피정 가정 방문 선교 전 신자 기도 봉헌 구반장을 위한 미사 구반장 성지순례 첫 고해 교리교사 아카데미 103위 성인 알기 노인을 위한 교양 강좌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모집 불우이웃 결손 가정 지원 본당 대청소 추동복 헌옷 수합 가정폭력 쉼터 설립 기금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주일 행사 견진성사 준비 성가대 초청 가을음악회 성극 공연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당 외딴교우 초대 다과 조상과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전 신자 쉬는 교우 1명 봉헌 떼제기도 모임 본당 봉사수기 백일장 및 시상 쉬는 대자녀에게 메일 보내기 성인 성서문화 교실 개강 직장인 소공동체 모임 꽃봉오리 성가제 미니올림픽 근속교리 교사 피정 견진성사(중, 고) 노인분과 성지순례 사회분과 활동회원 피정 성전 증개축을 위한 나눔 바자 기증품 접수 환경보전을 위한 폐휴대폰 수거 겨울철 대비 시설물 점검 관리

	11월	12월
전례력 (본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령 성월 • 위령의 날 • 평신도 주일 • 그리스도 왕 대축일 • 추수감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주일(대림2주일) • 자선주일(대림3주일) • 주님 성탄 대축일 • 송년미사
가상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례식 • 주님 성탄 대축일 전례 교육 • 지구 연합 미사 • 대림환 만들기 • 사목 엠티 • 대림성탄 특강 • 전 신자 음악 피정 • 타 본당 합동 성지순례 • 위령성월의 밤(연도 대회) • 초중등 대림 겨울 전례 연수 • 전례 꽃꽂이 전시회 • 주부들을 위한 신바람 노래 교실 •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 • 청년 신앙 강좌 •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 • 초중고 성경 경시 대회 • 독거노인 목욕 봉사 • 독거노인들을 위한 짹 만들기 • 연중 내내 월 모임, 성미 및 동전 모으기 • 결손 가정 자매결연 맺기 운동 • 생활 보조금 지원, 결식아동 돕기 • 겨울철 시설물 점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치유기도 • 주님 성탄 대축일 및 세례식 • 구역별 대림환 순회 기도 • 혼인 갱신식 • 대림 피정 • 본당 문집 발간 • 연차총천목회 • 가두 선교 및 성탄 맞이 대청소 • 성탄 예술제 • 성탄 사진 전시회 • 본당 소식지 기자 봉사자 모집 • 행복한 부부 삶을 위한 미사 • 본당 교우 군인 자녀 위문품 • 김장 • 성탄 전야 떡국 나눔 • 성탄절 사랑 나누기 행사 • 복지시설 단체 방문 •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 • 송년 음식 판매 바자회 • 불우 이웃 돕기 일일 호프 • 성탄 장식 준비



본당 사목 평가 방법

■ 출처: 신현만 신부(원주교구), 『사목정보』 2010년 12월 호

영적이면서도 가시적 조직체(교회 현장, 8항)인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표지로서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시기별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통해 성장을 가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계획과 평가를 실행하는 교회는 내·외적으로 복음적 향기와 활력이 넘쳐나리라 확신한다.

MBW 사목 평가

1952년 시작된 MBW(Movement for the Better World,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 그리스도교 공동체 수련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구와 본당의 사목 현장에서 보다 실제적인 사목 방법을 제시하면서 여러 수련 과정을 통해 교회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MBW에서는 각 과정마다 ‘자각’과 ‘회심’과 ‘실천’의 3단계로 수련을 시키면서 현실을 진단하여 중장기 목표와 계획 아래 단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명시하며 마침내 평가를 통해 점진적 성장을 추진하도록 안내한다.

여러 MBW 과정 중 하나가 ‘새로운 본당상 혹은 이상적 본당상’이라는 코스다. 이 과정에서는 ① 본당을 진단하고 ② 이상적 본당상을 제시하며 ③ 사목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④ 이상을 방해하는 장애 등을 조사하여 ⑤ 이상적 본당을 꾸며가기 위한 단기, 장기 계획에 돌입한다. 또한 <계획 수립·프로그램화·평가 안내서>라는 자료에서는 계획과 실행과 평가의 의미와 사례를 들어주고 있다. MBW에서는 중장기 계획(10년 정도)을 3년씩 3단계로 나누어 각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향하도록 이끈다. 여기에서는 MBW의 사목 평가 방법을 한국 교회의 일반적 상황에 맞추어 간략히 소개한다.

사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목 목표와 계획

연간 사목 평가의 기준은 본당 구조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MBW에서는 본당 사목 계획이나 평가를 위하여 본당 구조를 5개 분야 11영역(차원)으로 나누어 예시한다.

분야	영역
A. 사목 대상	1. 전체 신자 2. 소공동체 3. 가정 4. 특수 영역(청년, 여성, 전문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단체)
B. 사목 봉사	5. 교리교육(청소년, 성인), 전례위원회, 사도직 신심 단체, 사랑, 정의, 봉사 등
C. 사목자	6. 사제, 수도자, 사목 임원 봉사자
D. 참여 조직	7. 의사 결정 기구 8. 연구-기획 분야
E. 기술적 봉사	9. 홍보 10. 재정 11. 사무

평가는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목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교구나 본당에서는 대림 시기나 연초에 신년 사목 교서나 지침을 발표하면서 “선교의 해”, “나눔의 해”, “성체 신심의 해” 등으로 한 해의 목표를 선정한다. MBW에서는 한 해의 전체 목표를 정할 때 “무엇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 것을 주문한다. 예를 들면 〇〇년 한 해 동안 성 베드로 본당은 모든 신자들이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새싹 교우들을 인도하여 공동체를 성장시킨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 설정은 구체적으로 관심사와 주체 그리고 방법, 장소를 설정해 준다. 이처럼 전체의 목표를 지향하여 11가지 영역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평가의 기준도 설정하게 된다.

평가 방법

1) 연간 목표와 각각의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모든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주요 영역(실행된 영역) ‘1. 전체 신자’, ‘7. 의사결정 기구’(대의원회-구역장 반장 회의 같은 것), ‘9. 홍보’(주보나 소식지) 그리고 ‘2. 소공동체’ 부터 평가한다.

- ① 기획팀 혹은 평가단에서 전체 신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1차 평가서를 작성한다.
- ② 소공동체 보고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료화한다.
- ③ 홍보물과 홍보 수단(주보, 소식지)의 활용과 효과 여부를 분석 평가한다.
- ④ 의사결정 기구(대의원회의, 구반장회의)에서 평가 회의를 갖고 심도 있는 평가에 임한다.

2)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성취된 사항과 이유를 기록한다.

3) 성취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를 기록한다.

4) 성장의 표지인 긍정적인 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5) 성장의 장애 부분이 되는 부정적인 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6)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음 계획에 고려할 특별 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각 개별적 영역(차원)에 대한 평가

[대상1] 전체 신자: 전체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한 주요 활동과 각 행사에 대한 평가

- ① 참석자(많음, 평균, 적음)
- ②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 - 그 이유
- ③ 제안

[대상2] 소공동체에 대한 사목

- ① 소공동체 활동 참가자 수: 참여도 증가(감소) 이유
- ② 성과는?
- ③ 반응

[대상3] 가정 사목

- ① 성취 목표
- ② 성취된 것
- ③ 안 된 것
- ④ 제안

[대상4] 단체 사목: 청년, 여성, 전문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특수 단체

- ① 성취한 것
- ② 성취하지 못한 것과 그 이유?
- ③ 제안

[대상5] 사목 봉사: 어린이/청소년/성인 교리교육, 전례, 영성 운동 등

1. 어린이/청소년/성인 교리교육

- ①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교리교육 등에서 연간 목표와 연계 활동 여부
- ② 어려움은?

2. 전례: 주일 또는 축일의 전례에서 연간 목표가 강론이나 훈계, 성가 등에 반영되었는가?

3. 영성 운동: 영성 운동 또는 사도직 단체에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 기획되고 시도되었는가?

4. 사회 발전과 행동을 위한 봉사들

- ① 계획
- ② 실행된 것
- ③ 제안들

[대상6] 사목자와 협조자

- ① 사제, 수도자, 사목 임원과 봉사자 등의 상호 협조 활동
- ② 협조자 양성 계획의 수립 실천
- ③ 항구한 협조 구조가 형성되는가?

[대상7]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 기구

- ① 본당 협의회 위원들의 협동 정신 - 활동과 인간 관계
- ② 구역, 소공동체(반) 안에서 협동 정신
- ③ 대의원회의(구역장·반장 회의) - 출석, 참여도, 주제에 대한 흥미도

[대상8] 연구 기획 기구: 협력을 위한 구조, 기구

- ① 연구 기획단이 있는가?
- ② 무슨 일을 하는가?
- ③ 제안들

[대상9] 소식 홍보: 통신 수단

- ① 회보(본당 소식지)의 내용이 목적에 적합하며 상호 통신 기능이 활발한가?
- ②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공동체 행사 불참자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는가?
- ③ 편집위원회: 기초 작성 조직과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는가?

[대상10] 기술(사무)적 협력: 사무직 존재와 효과적 운영에 대한 평가

[대상11] 재정 및 경제: 재정 운영에 대한 조직과 기능은? 어려움은 없는가?

연간 전체 목표에 대한 평가 - 본당 총회

1. 사람들의 참여도: 사목 활동, 각종 총회, 소공동체, 재정 보고에 대한 평가
2. 각 영역별 참여자의 수 집계와 분석(종류별로 구별)
3. 과년도와 비교하여 증가(감소)한 사람들의 수(의견과 행동 등)
4. 영역별 이끌었던 임원(협조자)들의 의견
5. 이루어진 행사에 대한 반향(반응) 종합, 제안들

위와 같이 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1차적으로 영역별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단(기획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든다.

본당 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평가 회의를 갖는다. 이때 최종 평가는 새해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새해 계획은 이미 중장기 목표 안에서의 단계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다음 해 평가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면 본당의 연속적 발전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이나 평가는 가능한 전 신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동체별 평가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또한 사도직 신심 단체, 활동 단체들의 평가서에서도 계층별, 직능별 관점이 투사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연말 평가와 별도로 대부분 본당에서 각종 행사나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예고해 주지만, 정작 실행 후 그 결과를 그때그때 보고해 주는 예는 흔치 않다. 만약 주보라든가 소식지를 통해 활동 내용이 항상 보고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첨부한다면 연말 평가에 앞서 연간 본당 활동에 큰 자극을 얻게 되리라 본다.

평가의 효과와 의미

평가에 의해 중장기 목표의 수정이나 변경은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한 해의 계획을 설정하고 매년 평가회를 갖는다면 신자들의 관심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모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주임 신부들의 이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중장기 계획이 있고 연중 계획과 평가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안정적인 본당이라 하겠다. MBW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복음적 공동체라는 장기적 비전과 이에 모든 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당 사목 진단

- 서울대교구 옥수동 본당

■ 출처: 정진호 신부(서울대교구), 『사목정보』 2010년 12월 호

‘평가’는 계획과 실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당에서는 사목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인 평가는 계획의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지만, 이는 곧 본당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즉 본당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사목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서울대교구 옥수동 본당은 이러한 사목 진단을 철저하게 실행하여 2009년 성탄 대축일에 『서울대교구 옥수동 본당 사목 진단보고서』(이하 『사목 진단 보고서』)를 펴냈다.

『사목 진단 보고서』 작성 계기

정진호 신부는 2008년 9월 옥수동 본당에 부임하면서 경제적으로 각기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목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그리하여 본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사목 진단’을 제안했으며, 신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 옥수동 본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등을 총정리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본당 사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본당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사목 진단의 전제와 목표

사목 진단의 전제 조건은 본당 구성원이 사목 진단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이며, 사목 진단과 관련한 모든 것은 본당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목 진단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진단 결과는 하나의 초석일 뿐 모든 본당 구성원의 인식과 실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목 진단의 세부 목표로는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옥수동 본당의 영성을 확립하고 사목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것,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본당 사목 운영 방안과 정책 수립, 단기와 중·장기 본당 발전 계획 수립, 본당 구성원들이 본당 사목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 본당 사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삼았다.

사목 진단 실행 과정

- ① 사목 진단의 필요성을 본당 구성원과 공유하고, 기존 사목협의회 임원들로 사목진단위원회를 꾸렸다.
- ② 주임 신부는 위원장, 보좌 신부와 원장 수녀, 전교 수녀가 기획 위원을 맡고, 사목협의회 임원들을 실행 위원으로 임명했다.
- ③ 서강대학교·교리신학원 강사인 유혜숙 씨를 책임 연구원으로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시켰다.

④ 자료조사, 설문조사, 현장 관찰, 포커스 그룹회의,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진행하였다.

- i) 자료 조사는 옥수동 본당 30년사, 사목계획서, 주보, 단체 회의록 등 수집 가능한 본당 주요 자료를 총망라했다.
- ii) 설문조사는 여건 상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구반장과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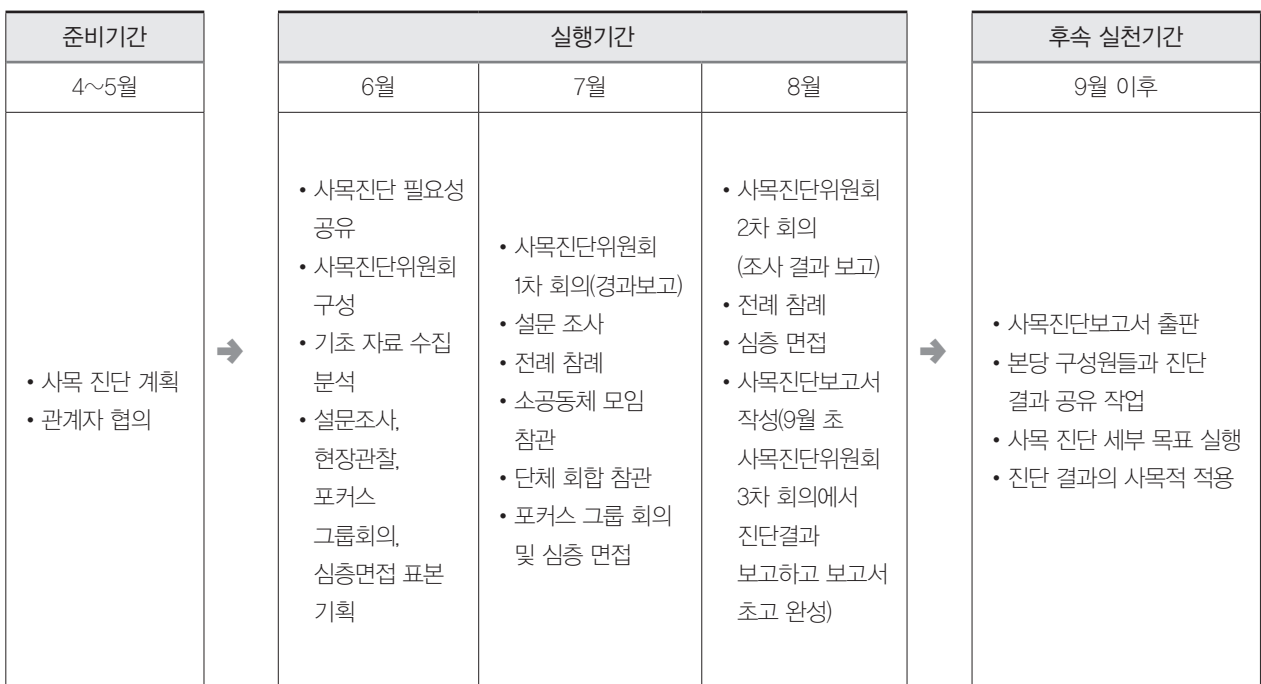
※ 설문지 문항 내용

개인사항(공동)	성, 연령, 신앙기간, 배우자 신앙 여부
신앙생활(공동)	영성 생활, 선교 활동, 단체 활동 정도
소공동체(구반장)	참석률, 모임 빈도, 동기, 덕목, 만족도, 영적 성장 정도, 보람, 어려움, 공동 활동 여부, 활성화 방안, 소공동체 인식도, 교재 도움 정도, 교육/모임 참석 이유, 경력
단체활동(단체장)	동기, 덕목, 만족도, 영적 성장 정도, 보람, 어려움, 공동 활동 여부, 활성화 방안, 경력, 건의사항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본당 현황 기초 자료는 다른 단위와 비교 분석하되, 가능하고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보여주었다.

- 한국 천주교-서울대교구-옥수동 본당
- 서울대교구-8지구-옥수동 본당
- 구반장-중장년 단체장-청년 단체장
- iii) 현장 관찰은 2009년 7~8월에 있는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 구역 소공동체 모임과 구역·반모임, 단체 회합 등에 참여하며 이루어졌다.
- iv) 포커스 그룹회의는 사목협의회 임원, 구역·반 소공동체 참가자, 단체 회원,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v) 심층 면접은 성직자, 수도자, 사목협의회 상임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사목 진단 일정



『사목 진단 보고서』 내용

제1부 옥수동 본당 사목 현황

제1장 기본현황

본당의 역사 및 환경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본당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기초 통계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일반 신자들의 복음화율 추이를 한국 교회, 서울대교구와 비교하고 연령별 비율과 추이를 보여주었다(성직자에 대한 건의사항도 정리하여 포함).

제2장 조직 체계

본당 사목협의회와 각 단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3장 성사와 기도 생활

관련 통계를 여러 형태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구반장-중장년 단체장-청년 단체장 사이의 비교로 각 집단의 특징이 잘 나타났다.

제4장 소공동체와 단체 활동

설문조사의 소공동체와 단체 활동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제5장 교육과 양성

청소년/청년 교육, 성소자 양성, 일반 신자 교육,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평가 및 건의사항과 어려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6장 가정과 사회 복음화 활동

가정 사목과 선교, 사회 복음화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7장 운영 체계와 공동체성

재정과 행정, 시설 운영 관리, 삼위일체 공동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제2부 옥수동 본당 사목 전망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임 신부가 옥수동 본당에 부임해 있는 동안 펼치고자 하는 사목 방침이 들어있다. 옥수동 본당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그러기 위해 사목 체계를 정비하며 구체적인 각 사목 부분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본당 조직 체계를 사목협의회에서 사목평의회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조직을 복원하거나 신설한 것은 사목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목은 사목자와 신자의 관계, 즉 만남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만남, 올바른 만남을 위해 사목 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하지만 성과와 업적을 위주로 수치와 계량화만을 앞세우는, 정형화된 사목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러한 정기적인 사목 진단을 실시한다면 본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공동체 중심의 본당 사목(말씀터 이야기)

- 서울대교구 등촌3동 본당

■ 출처: 정진호 신부(서울대교구), 「소공동체와 본당 사목 연수」 워크북,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15년

지난 시기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본당 사목의 핵심 키워드는 ‘소공동체’였다. 그런데 이 소공동체 중심의 본당 공동체 성공 여부를 떠나 지난 20여 년 동안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 ‘소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라고 봤다. 반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채워줘야 새로움으로 변화될 것인가가 중요했다. 이에 대해 힌트를 얻은 것이 ‘말씀터’였다. 그래서 대방동 본당의 ‘말씀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목 시스템을 본당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게 되었다.

사실 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말할 수 없었다.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나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정되어 버린다면 실시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다. 그 지혜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들이 받아들이는 과정,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목의 프레임을 짰다.

1. 알리기

① 사목 지침

새해 사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자들에게 소공동체 관련 부분을 설명하였다.¹⁾ 이때 처음으로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말씀터를 배우자’고 하였다. 단언하건데 이때 이것을 알아들은 신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② 피정준비위원회 구성

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정 준비부터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사목회의를 통해 ‘피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정준비위원회는 피정

1) 2015 사목계획 중, 2015. 1. 11 발표.

*3. 소공동체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맛보자

소공동체는 우리 본당의 중심 뿌리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중심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공동체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신자들이 말씀 맞들이기에 부합한 삶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면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 말씀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소공동체를 통해 하느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① 매 미사 전 성경 읽기(성경을 가지고 성당 오기)

② 매 미사 때 화답송으로 시편 읽기

③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활성화(말씀터 배우기)

④ 여정을 통한 예비신자 교리의 활성화(소공동체와 연계)*

기획,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향후 '말씀터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목의 지속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피정과 말씀터는 바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피정준비위원회

자 문 단: 주임신부, 원장수녀, 총회장

준비위원장: 교육분과장

준비 위원: 기획분과장(서기), 전례분과장(회계), 여성총구역장, 여성지역장(2), 남성총구역장, 사목총무

③ 전 신자 피정 준비 기도

사순시기에 전 신자 피정을 권하였다. 신자들은 피정은 이해했지만, 그 의도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쨌든 성과 유무를 떠나서 신자들과 좋은 마음으로 피정을 하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터'를 접근시키고 받아들이는 장(場)이 되길 바랐다.

사순시기 전 신자 피정을 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2달 동안 매 미사 전 기도를 바쳤다. 신자들에게 본당 사진을 배경으로 상본으로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다.

본당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

사랑의 주님!

하느님은 마치 이웃처럼, 항상 저희 곁에 동행하시며
저희 성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소서.

한마음으로 모여 빵을 떼어 나누고
술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저희 본당 공동체도 강한 믿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인 소공동체가 새롭게 변화하여
본당의 모든 신자가 한마음 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무관심했던 이웃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④ 전 신자 피정

전 신자 피정은 1박2일의 개념을 도입한 피정이었다. 이 전 신자 피정을 통해 ‘말씀’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또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신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본래의 정서적 피정(음악피정)과 말씀에 대한 강조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신자들의 감수성과 이성을 자극하면서 신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성경 안치식”은 상당한 의미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피정 일정표²⁾

	시간	내용	담당	장소
첫 째 날	18:30-19:00	피정준비	교육분과, 구역장	
	19:00-19:40	십자가의 길	전례분과	대성전
	19:40-20:00	성경 안치식 준비	이 비아 수녀(원장)	
	20:00-20:30	성경 안치식	원장수녀, 전례분과	대성전
	20:30-22:00	음악피정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 배난시아 수녀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대성전
	22:00-	귀가		
둘 째 날	09:30-10:00	피정준비	교육분과, 구역장	
	10:00-12:00	말씀터 이해 돕기 (영상자료 시청)	박기주 신부(석촌동 주임) (사목총무)	대성전
	12:00-13:00	중식	여성총구역	대강당
	13:00-14:40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성경이야기	정진호 신부(주임신부)	대성전
	14:40-15:00	휴식	구역장	
	15:00-16:00	구역별 나눔	구역장	각 교리실
	16:00-16:15	미사 준비	전례분과	
	16:15-17:30	파견미사(성경 안치식)	소감발표	대성전

2. 받아들이기

① 피정 강의

박기주 신부님의 강의는 영상자료와 신자들의 체험 나눔, 사례발표를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말씀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말씀터, 말씀 나누기, 말씀 여행 등 다양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어느 본당의 사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부님의 강의는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시간(티닝 포인트)이 되었다. 이때 어느 구역은 ‘매주 복음 나누기를 하겠다’, ‘성경 쓰기를 하겠다’ 등 나름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신자들이 생겨났다.

2) 2015년 3월 사순시기 금,토(6-7/13-14/20-21/27-28)

제1주차 : 3월6일-7일-5,6,10,16구역 제2주차 : 3월13일-14일-4,7,13구역

제3주차 : 3월20일-21일-1,3,8,15구역 제4주차 : 3월27일-28일-9,11,12,14,기타구역

② 말씀터를 위한 홍보전

이제는 신자들이 말씀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본당 공동체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여성구반장, 남성구역장을 소집하였다. 여성구반장 15개 구역, 80명 중 65명, 남성구역장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들에게 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 말씀 나누기를 하자고 하였다. 높은 참여율과 말씀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전 신자에게 말씀터를 위한 특별 강론³⁾을 하기로 하였다. 강론 원고는 후보에 넣어 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유는 말씀터, 말씀여행 등 생소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말씀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 본당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사목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③ 말씀지기 첫 모임

말씀 나누기를 위해서는 말씀지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지기는 구역장, 반장, 일반 신자 등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감퇴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살리고, 말씀터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지기의 의미⁴⁾를 높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첫 모임을 하였다. 첫 모임에 90여 명의 말씀지기가 참여하였다. 지금까지의 본당 분위기를 봤을 때 매우 높은 참여율이라고 생각한다.

④ 말씀 나누기 견학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가능성을 확인할 때 생긴다. 따라서 매주 말씀 나누기를 하는 신자들, 실제로 말씀 나누기가 복음 나누기 7단계와 유사하고 그보다 좀 더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대방동 본당으로의 견학을 실행하였다. 견학은 두 번에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여성 말씀지기 중심이고, 두 번째는 남성 말씀지기 중심이었다. 여성 말씀지기는 수요일 저녁 8시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였고, 남성 말씀지기는 주일 오전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였다.

첫 견학은 17명이 가서 남성 말씀터, 여성 말씀터, 청년 말씀터 등에 함께 하였다. 각 말씀터 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를 위한 인위적인 모임이 아니고 평소에 매주 말씀 나누기를 하는 신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교육이라는 의미를 두었다.

⑤ 말씀지기 피정

말씀지기를 위한 피정을 준비하였다. 말씀터 실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피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말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이다. 이는 왜 신자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전원 신부에게 부탁하였다. 둘째는 실습이다. 실습은 실제적인 말씀 나누기를 위한 결심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신자들이 말씀터를 위한 당위성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식 교육이 되었지만 실제로 말씀 나누기를 위한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방동 본당에서 말씀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총구역장과 교육분과장이 봉사하였다.

그리고 피정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서로 친교와 일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형제애로 승화되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이 혼자가 아닌 더불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3)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2015. 5. 24. 성령강림대축일 강론.

4) 말씀지기를 위한 강의, 2015. 5. 30

피정 일정표

시간	내용	담당	장소
09:30-10:00	피정 준비	교육분과위원	대성전
10:00-12:00	말씀의 중요성, 필요성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	대성전
12:00-13:00	점심 식사		요셉방
13:00-13:30	울동 및 성가연습	수녀님	대성전
13:30-15:00	말씀지기의 역할과 말씀터 나눔 방법	총구역장(대방동) 교육분과장(대방동)	대성전
15:00-15:20	휴식		
15:20-16:30	말씀터 실습	조 편성	각 교리실
16:30-17:00	미사 준비	전례분과장	대성전
17:00-18:00	파견미사 (특전)	나눔 발표	대성전

3. 참여하기

(1) 말씀터 구성

말씀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신자들이 ‘둘이나 셋’이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다. 이 자리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구역 말씀터

말씀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반모임 소공동체의 구조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반을 중심으로 또는 구역을 중심으로 말씀터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구역 말씀터라 한다.

② 본당 말씀터

말씀터는 기존의 본당 구역 중심으로 구성된 구역 말씀터와 부득이하게 구역에서 말씀터를 구성하기 어려운 신자들이 본당 공간을 활용하여 말씀터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구역 말씀터 이외의 말씀터를 구성한 신자들을 본당 말씀터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매주 말씀터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긍정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내용 중심으로 배려하고자 하였다.

③ 개인 말씀터

개인 말씀터는 의미상 ‘말씀터’라고 부를 수 없을지라도 부득이한 경우 본당공동체와 더불어 혼자서라도 성경을 함께 읽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개인 말씀터는 개인이 스스로 말씀 나누기를 하는 경우이다.

(2) 말씀터 운영위원회 구성

말씀터 운영위원회는 피정준비위원회를 확장하여 조직을 개편하였다. 말씀터 운영위원회는 말씀터를 진행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자들이 말씀터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세 파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교육분과장이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말씀터를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제, 수도자, 총회장은 '자문단'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 ① 기획부: 말씀터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한 일정을 매주 주보를 통해 신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전 신자가 말씀터를 중심으로, 부득이한 경우 혼자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 또한 예비신자, 견진자들을 위한 말씀터를 기획한다.
- ② 출판부: 말씀여행지 인쇄를 위한 수정 파일 편집 및 출력, 말씀여행지 관리, 말씀터 관련 영상자료 제작,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말씀여행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한다.
- ③ 홍보부: 말씀여행지(대방동 본당 제공) 수정·보완, 말씀터 진행 사항 홍보·공지, 말씀터 관련 자료정리 등을 한다. 또한 홈페이지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3) 말씀여행지 자료 비치

성당의 지정된 곳에 매주 말씀여행지 자료를 인쇄하여 비치한다. 신자들에게 말씀나누기 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인쇄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는 말씀터 운영위원회 출판부에서 담당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한 주간 필요한 양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긴급 시 신속하게 추가로 제공한다.

(4) 성경 비치

구역 말씀터는 개인 성경을 지참하도록 하고, 본당 말씀터는 직장 관계 때문에 성경 소지가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말씀 나누기 자료와 더불어 비치한다. 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5) 말씀터 확장

본당의 제 단체를 말씀터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① 노인대학: 현재 노인대학은 「어르신 성경 공부」를 교재로 사용하나 앞으로는 말씀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룹별 봉사자가 말씀지기가 된다.
- ②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월 1,2회 말씀 나누기를 한다.
- ③ 예비신자: 입교 후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구역 말씀터에 편입하여 말씀 나누기를 함께 하도록 권유한다.
- ④ 견진 교육: 신자 재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견진자들을 위해서 전 신자와 더불어 말씀 나누기를 한다. 견진자는 지정된 성경 말씀 나누기를 해야만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⑤ 제 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학교 자모·자부, 첫영성체 자모, 청년 모임 등에서 말씀터를 한다.

(6) 말씀터 실시 현황

말씀터는 마태오 복음으로 2015년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을 기점으로 시작하였다. 전 신자들이 매주 주보에 게시되는 말씀터 내용을 따라, 비치된 말씀여행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재 시작하는 말씀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말씀터 전체 구성 현황

(2015. 8. 30 현재)

구분	구역	구역(가정)말씀터				구역(본당)말씀터				가족말씀터				단체말씀터				합계			
		터수	남	여	계	터수	남	여	계	터수	남	여	계	터수	남	여	계	터수	남	여	계
구역	1	5	1	22	23			1	1							1	1	5	1	24	25
	2	2	1	7	8				0									2	1	7	8
	3	1	1	4	5				0							5	5	1	1	9	10
	4	6		34	34				0							3	3	6		37	37
	5				0	4	7	17	24	1	2	1	3			5	5	5	9	23	32
	6	3	1	17	18	1	1	3	4									4	2	20	22
	7	3		13	13			1	1									3		14	14
	8	1		10	10	1		8	8							1	1	2		19	19
	9	5		18	18				0							1	1	5		19	19
	10	1		7	7	2		11	11									3		18	18
	11	1		4	4	2		12	12							1	1	3		17	17
	12	1		4	4	4	7	17	24							2	2	5	7	23	30
	13	1		6	6	4	8	23	31	4	6	7	13			5	5	9	14	41	55
	14				0	2	6	8	14							6	6	2	6	14	20
	15	2		9	9	3	5	15	20	1	1	3	4			4	4	6	6	31	37
기타															2	2			2	2	
단체														7			7				
계		32	4	155	159	23	34	116	150	6	9	11	20	7	0	36	36	68	47	318	365
중고등부														5			35	5			35
합계																		73	47	318	400

말씀터를 시작하면서 본당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소공동체 활성화가 어떻게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을 찾아 나선다는 데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톨릭 신앙이 성찬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앞으로의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작된 전례 개혁의 정신인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말씀터를 시작함으로써 신자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사제도 말씀 전례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신자들도 말씀 전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전례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본당은 말씀터를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미사에 있어서 말씀 전례는 독경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매주일 강론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강론 동영상도 모든 신자가 볼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서 미사 참례가 어려운 신자들을 위한 미사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런 과정이 신자들이 말씀과 성찬의 결합을 통한 미사의 풍요로움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는 신자들이 공동체, 더 나아가 소공동체 안에서 체험되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씀터가 소공동체의 근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본당 사목 위원 연수

■ 출처: 서울대교구 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목 위원 양성』, 2000년

〈프로그램 1〉

우리 본당 사목협의회회의 공동체 정신은 어떠한가?

- 목적: 사목협의회회의 여러 유형을 통하여 우리 본당 사목협의회회의 공동체 정신을 진단한다.
- 준비물: 칠판이나 전지, 분필, 필기도구, 성경, 성가책
- 진행시간: 2시간

[1단계] 사목협의회회의 여러 유형

시작 성가

시작 기도

목적: 사목협의회회의 여러 유형들의 특징을 구별하도록 한다.

진행방법: 조별 토의(4-5명 단위)나 즉석 모임(옆 사람과 2-3명씩 짝을 지어 대화)

- 1) 진행자는 각 조에서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자료1의 내용을 읽도록 한다(아래 '사목협의회회의 여러 유형' 참조).
- 2) <자료1>에 제시된 각 사목협의회회의 특성을 알아보고 여러 유형을 비교해 본다.
- 3) 각 조에서는 다음에 제시된 다섯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한 사람씩 한 본당의 특성을 살펴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본당의 특성을 기록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사제의 역할	사목협의회의 역할	지도력 (결정은 누가 하는가?)	본당 신자들의 참여 (사목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신자들이 알고 있는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가 본당					
나 본당					
다 본당					
라 본당					
마 본당					

〈자료1〉 사목협의회의 여러 유형

① 가 본당: 사목협의회가 유명무실하고, 사제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본당

가 본당에는 사목협의회가 있으나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본당에서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한다. 사목협의회는 자주 열리지 않으며, 열린다 해도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본당 행사나 성지순례에 필요한 버스 대절과 같은 일들을 주로 다룬다. 사제는 사목협의회가 본당 내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기만 한다. “이곳 교우들은 아직 사목협의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 능력이 없고 신앙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백지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까닭에 거의 모든 일을 제 자신이 해야 하고 결정도 대부분 제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② 나 본당: 사목위원들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사제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본당

나 본당에서는 사목협의회가 매월 열리며 본당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문제가 논의된다. 그러나 사목협의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목위원들은 모두 사제가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제 한 사람이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사목위원들은 사제가 자신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기여할 뿐이다. 대부분의 본당 교우도 사목위원들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사목위원들은 본당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인 적이 있다. 그러던 중에 본당 사제가 혼자 힘으로 다른 여러 본당으로부터 많은 돈을 모금해 왔고 성전 신축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었다. 그때 이후로 사목위원들은 사제에게 더욱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정말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③ 다 본당: 사제와 사목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못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본당

다 본당은 큰 의욕을 가지고 사목협의회를 창립하고 매월 한 차례씩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사목위원들은 본당 연중 사목 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 ▶ 주일에 미사를 한 차례 더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 ▶ 사제가 매주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을 직접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사제는 매년 최소한 한 번은 본당의 모든 가정을 방문해야 하고, 장례미사뿐만 아니라 교우 상가도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제는 이 모든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목위원들이 모든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원안(原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제는 투표 결과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반대함으로써 사목위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사목위원들이 살펴보니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불평을 토로하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제는 점차 의욕을 잃기 시작했고 사목협의회 모임도 줄어들었다.

④ 라 본당: 사제가 사목위원들을 양성하고, 사목위원들이 그들의 직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본당

라 본당은 여러 해 동안 사제가 모든 일을 다 해왔다. 그러던 중에 사제는 본당 교우들이 지극히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목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사목협의회가 활동하기 시작하자 사목위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제가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랐고, 나머지는 새로운 변화들을 요구하면서 방법들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했다. 사제는 모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발언을 자제했고, 과거에 본당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목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단히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을 도왔다. 그러다 보니 사목협의회가 일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사제는 이처럼 지루한 진행 과정을 수용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다. 사제는 본당의 재정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목위원들은 자신의 직분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의도 보다 잘 준비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정사항들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했다.

⑤ 마 분당: 사목위원들이 그들의 직분과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분당

마 분당 사목협의회는 첫 모임에서 사제는 '복음 전파와 성사 집전에 모두가 책임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제로 격려사를 했다. 격려사가 끝나자 사목협의회 회장이 일어나 말했다. "신부님, 신부님은 사제이며 따라서 사제의 직분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신도이며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영적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신부님을 찾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도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부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님 또한 신부님의 고유 직분과 무관한 저희의 책임 사항들을 간섭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부님이 필요로 할 때 저희는 언제든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목협의회에 몸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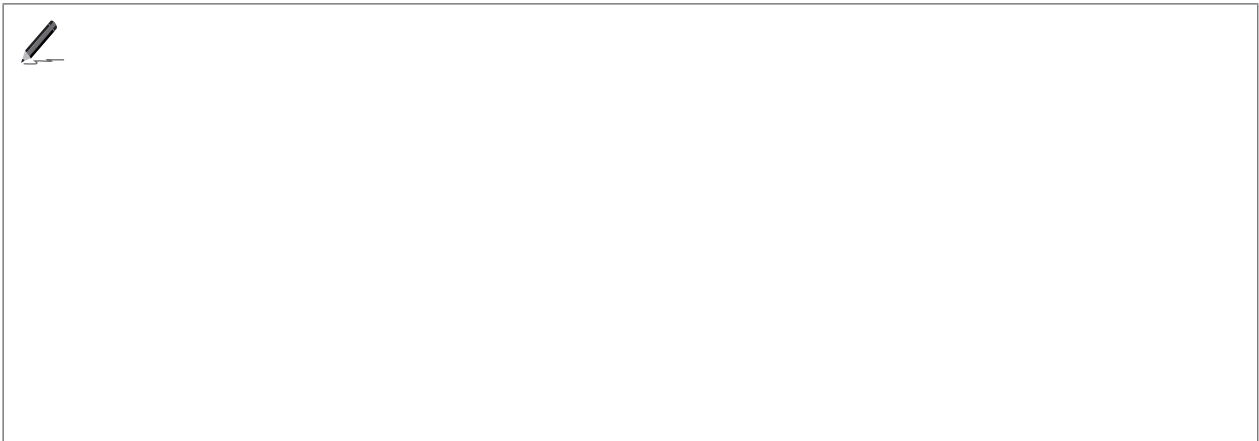
결과 발표

- 1) 각 조별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 2) 발표된 의견들을 서로 비교한다.
- 3) 만일 다른 견해들이 나올 경우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2단계] 우리 분당 사목협의회는 현실은 어떠한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우리 분당의 사목협의회는 앞의 어떤 분당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칠판에 기록한다.

※ 유의점

- 1)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데 부담이 없어야 한다.
- 2) 장황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을 설득시켜서는 안 된다.
- 3) 참가자들이 다시 만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아래 문헌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십시오.

- 1) 평신도 사도직이란 무엇입니까?
- 2) 평신도 사도직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습니까?
- 3) 평신도 사도직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33항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이며, 모든 이는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 (...)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더욱 널리 가 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빛나는 짐을 지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들도 각자의 능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1-2항

1.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코 교회 안에 없을 수 없다.
2.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 한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도직을 실천한다. (...)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1코린 12,12-20, 27-31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함께 읽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묵상하도록 한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마침 기도

〈프로그램 2〉

사목협의회와 본당 공동체 간의 협력

- 목적: 사목위원은 본당 공동체와 사목협의회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 준비물: 그림1, 그림2, 칠판이나 전지, 분필, 필기도구, 성가책
- 진행시간: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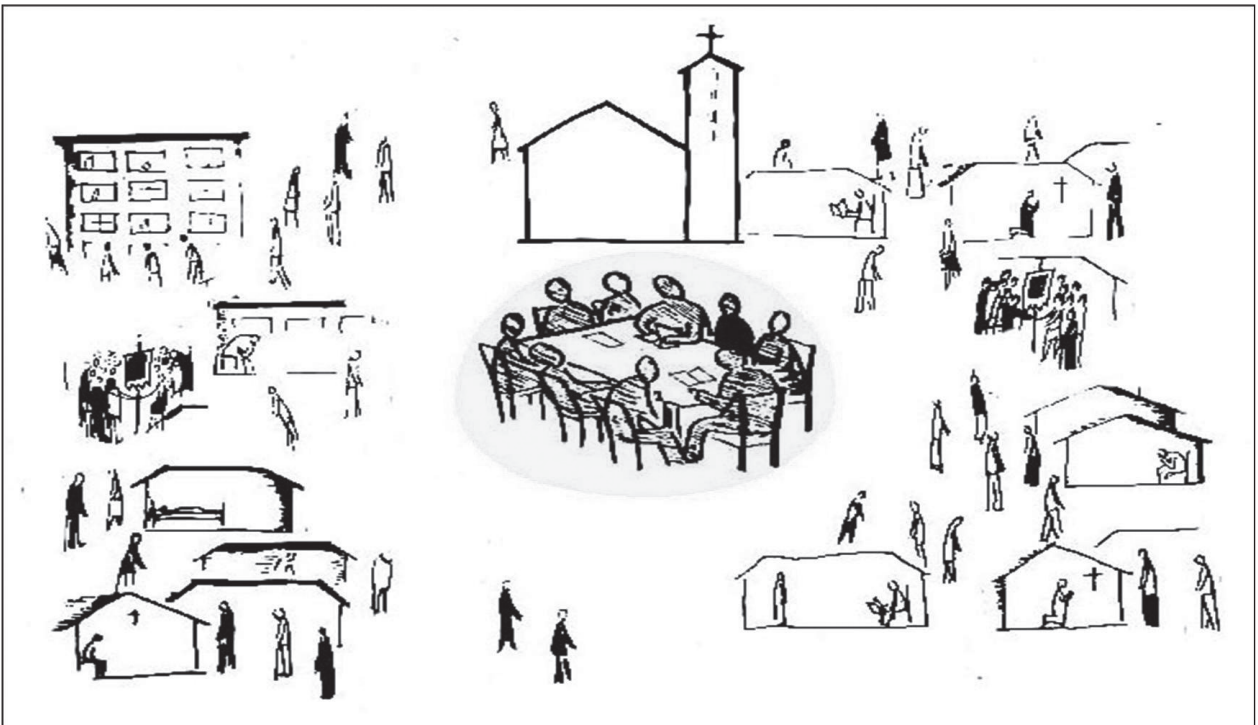
[단계] 서로 다른 두 본당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교해 본다.

시작 성가

시작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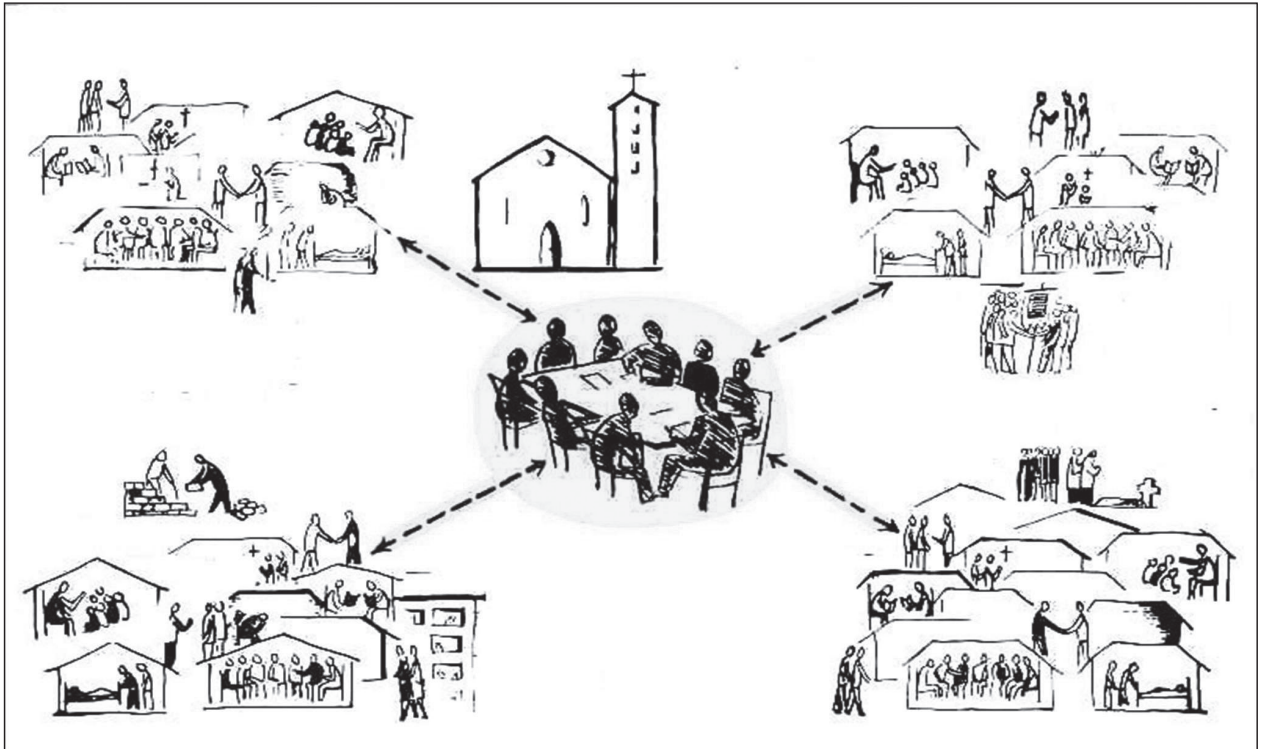
1) 그림1과 그림2에 묘사된 본당의 특징을 알아본다. (전체 진행)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그림1과 그림2를 자세히 보고 그림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한다. 진행자는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칠판에 기록한다.



(그림1의 질문 사항)

1. 원 안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2. 신자들은 함께 활동합니까? 개인적으로 활동합니까?
3.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4. 그림의 하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목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5. 단체와 사목협의회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6.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단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7. 그림 안의 신자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8. 사목협의회는 무엇을 고민하고 논의하겠습니까?
9. 본당 신자들이 사목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시행되는 일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10. 사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제가 신자들을 알겠습니까?
11. 각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적이겠습니까? 개별적이겠습니까?
12. 이 본당에 공동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림2의 질문 사항)

1. 원 안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2. 신자들은 함께 활동합니까? 개인적으로 활동합니까?
3. 가정에는 사람들이 혼자 있습니까? 함께 모여 있습니까?
4. 그림 안의 신자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5. 이 그림에서 화살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6. 이 그림의 사목 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7. 사목협의회는 무엇을 고민하고 논의하겠습니까?

8. 사목 위원들은 누구의 추천을 받아 어떻게 선출되었습니까?
9. 본당 신자들이 사목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시행되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10. 각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1. 이 본당의 신부님은 신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12. 이 본당에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까?

2) 그림1과 그림2에 묘사된 두 본당을 비교해 본다.

진행자는 각 조별로(6-7명 단위) 다음 질문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우리는 앞에서 서로 다른 두 본당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1과 그림2에 묘사된 본당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림1의 본당	그림2의 본당
본당 신자들의 입장		
사목위원들의 입장		
사제의 입장		

진행자는 각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전체 진행).

진행자는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칠판에 기록한다.

[2단계] 사목협의회가 본당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진행자는 각 조별로(6-7명 단위) 다음 질문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사목협의회가 본당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행자는 소그룹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정리하여 칠판에 기록한다(전체 진행).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보고 제시된 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본다(전체 진행).

[3단계] 사목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진행방법: 조별 토의(6-7명 단위)

※ 자료2를 읽고 아래에 제시된 대로 각 항목에 ×, ○, △를 표기한다.

- 사목협의회의 책임이 아닌 일: × 표기
- 사목협의회의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 ○ 표기
- 사목협의회의가 관심을 갖되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일: △ 표기

1) 먼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개인' 칸에 표기한다.

2) 조별로 서로 의견을 나눈 후, 합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조별' 칸에 표기한다(서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해 주고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3) 진행자는 각 조에서 정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사목협의회의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전체' 칸에 표기한다(의견이 왜 다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2〉

항목	개인	조별	전체
1. 예비신자 및 냉담 교우를 본당으로 인도하고 소공동체에 소개한다.			
2. 단체의 간부를 임명한다.			
3.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 활동을 한다.			
5. 본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해 제안하고 심의한다.			
6. 외딴 교우들을 성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7. 구역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 신자 재교육 및 피정을 한다.			
8. 지역 내 노인들, 한자들, 불우이웃들을 방문하고 돕는다.			
9. 성소자 육성과 성소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10. 지역 및 본당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11. 성당의 신축 계획 및 시설 관리와 보수 대책을 논의한다.			
12. 본당 신자들의 바람, 의견,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본당 사목 계획에 반영한다.			
13.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한다.			
14. 본당 역사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15.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한다.			

[4단계] 사목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문제들과 오늘날 본당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6-7명 정도의 조로 나누고, 각 조를 ‘가 조’와 ‘나 조’ 둘로 나눈 후, 아래 제시된 과제를 토의하게 한다.

각 조에서는 한 사람을 서기로 정하고 토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1) ‘가 조’ 토의 과제

우리 본당 안에서 신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본당 신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희망사항 등).

2) ‘나 조’ 토의 과제

사목협의회가 지난 몇 달 동안 논의했던 주제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목록은 논의에 ‘소요되었던 시간’ 순서로 기록해 주십시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주제를 목록의 맨 처음으로 하여 차례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논의된 사항들을 기억하시기 어려울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해 온 직무들을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 발표

각 조에서 작성한 목록을 정리하여 전지나 칠판에 기록한 후, ‘가 조’와 ‘나 조’에서 발표한 내용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한다.

본당 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가 조)	사목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주제들(나 조)

질문

- 1) 본당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사목협의회가 소홀히 대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본당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사목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요약

진행자는 참가자들 중 몇 사람이 위의 비교를 통해 배운 것을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마침 기도

교회 지도자 선출 방법

■ 출처: 조재연 신부, 『활기찬 젊은 성당 만들기』, 가톨릭출판사

※ 선출 후보로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된다.

※ 선출 진행 순서

1. 시작 기도

2. 회칙에 의한 선거의 필요성과 선거 방법 안내

3. 선출

1) 필리피서 2장 1-5절을 읽는다(일치와 겸손에 대한 말씀).

2) 사도행전 1장 23-26절을 읽는다(주님,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3) 침묵(3분)

4) 선거

5) 비밀 개표: 개표는 주임 신부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다.

6) 선출 방법

(1안) 주임 신부가 다수 득표자 중 한 사람과 비밀 면담을 진행하고 그가 수락할 경우 그를 임명한다.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람과 비밀 면담을 진행하여 임명한다.

(2안) 주임 신부의 동의하에 다수 득표자 2~3인끼리 나눔을 한 후 그 안에서 대표, 부대표를 선출하고 주임 신부가 승인한다.

(3안) 주임 신부의 사전 동의하에 최다 득표자를 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4. 선거 결과 발표



본당 공동체장 면담

-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의 출발

■ 최윤복 신부(광주대교구) 제공

본당 부임 이후, 본당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당 공동체장 면담을 한다. 공동체장과 만남은 ‘들음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했던 것처럼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1열왕 3,9)라고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공동체장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핵심 그룹과 함께’ 공동체장과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목평의회 회장단, 청소년위원회 총책임자, 소공동체협의회장(구역분과장), 기획분과장, TF팀장’ 등 핵심 그룹을 사목자와 공동체장의 만남에 동석하도록 초대한다.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갈 사목의 협조자들이며 주체인 이들은 ‘본당 사목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동반자들’이다. 이들과 함께 사목자가 공동체장과 만남으로써, 본당 사목의 성실한 협조자(마태 25,14-30 참조)로서 평신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목자와 교우들의 만남에 동석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을 열어주게 된다.

우선 본당 공동체장들의 이야기를 평신도 지도자들이 직접 들으면서 본당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이해력을 갖게 된다. 둘째, 본당 공동체장들의 애환을 직접 들으며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진 견해를 밝힘으로써, 본당의 현재와 과거 유산을 전부 사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셋째,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목자가 교우들과 대화하는 동안 사목자의 사목 마인드를 직접 들음으로써, 본당 사목 계획 수립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당 공동체에서 사목자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이들은, 공동체의 뿌리로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 ① 반장, 구역장이다. 그리고 나서 ② 사목 위원/사도직·신심 단체장과 만난다. 이렇게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본당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사목 계획을 수립할 토대를 갖추게 된다. 그런 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나야 할 이들이 있다. ③ 가난한 이들 ④ 지역민들이다. 본당 주임 신부는 그 지역에 파견된 존재이기에, 본당 공동체 교우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고 그런 연후에 지역민들도 만나야 한다.

1. 사전 준비

본당 공동체와 만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래 순서에 따라 사목자와 공동체장의 만남 시간표를 작성한다.

만남 전 교우들 준비 사항

(1) 만남 시간표 작성

- (2) 4-6명 그룹 구성
- (3) 반장, 구역장 만남 시간표
- (4) 사도직, 신심 단체장 만남 시간표 작성
- (5) 만남 시간표 작성 후에는 '주임 신부 만남 전 공동체장 준비 사항' 쪽지 배부

본당 현실 진단을 위한 주임 신부와 공동체장의 만남 전 준비 사항

- (1) 기획분과장은 사목평의회 각 분과장과 사도직·신심 단체장을 직무의 연관성에 따라 묶어, 만남 시간표를 작성한다.
- (2) 가능하면 한 그룹을 4-6명으로 구성한다. 그룹원이 너무 많으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없고 너무 적으면 이야기가 곁돌 수 있다. 비슷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함께 만날 때 본당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 (3) 구역분과위원장(소공동체협의회장) + 구역장 + 반장
구역분과위원장(소공동체협의회장)은 가능하면, 모든 만남에 함께 한다.
예) 1구역분과장 + 반장, 2구역장 + 반장 /혹은 1,2구역장 + 반장
- (4) 사목평의회 각 분과장 + 관련 사도직 단체장이 함께 만난다.
예) 청소년위원회장: 초등부 대표교사, 중등부 대표교사, 첫영성체 대표교사, 청년회장, 학생회장,
초등부 자모회장, 중등부 자모회장...
전례분과장: 해설자회장, 독서자회장, 성가대단장, 성인복사단장, 복사단장...
선교분과장: 꾸리아 단장
- (5) 주임 신부 만남 전 공동체장 준비 사항 배부 (아래 표)

주임 신부 만남 전 공동체장 준비 사항

- (1) 기록 제출: 반·소공동체 현황/사도직·신심 단체 현황, 회원 명부, 회칙.
- (2) 기록 제출: 공동체장으로서 본당 공동체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3) 기록 제출: 공동체장으로서 본당 공동체의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4) 기록 제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 본당 공동체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사목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5) 생각: 현재 우리 반(단체)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 (6) 생각: 현재 우리 반(단체)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 (7) 말씀: 주임 신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공동체장으로서 본당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으니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2. 사목자 준비 사항

신자들의 만남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는 사목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목자는 면담 전후로 주님 대전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

신자 면담 전후 바치는 기도

주님! 제가 이 만남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만남 때에 지지 않게 해 주시고, 교우들과 만남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사목자로서 제가 사제 직무 안에 맡겨진 본당 교우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면담에서 나누는 모든 내용은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본당 공동체로 활동해 온 지도자들은 본당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장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본당 공동체가 나아갈 사목적 방향의 90% 이상을 공동체장과 만남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만남 안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주임 신부와 본당 핵심 그룹은 교우들이 가진 견해들을 모으기만 해도 아주 현실적인 사목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눈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보지 못한다. 사목자와 핵심 그룹 가운데에 몇 명만이 남은 10%를 발견하고 공동체가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철저한 기록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반드시 사목자와 공동체장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기록할 이가 없다면 사제 자신이 기록한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한데 모으면, 본당의 중요한 현안을 파악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목 계획은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나온 중요한 현안들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시기만 조절하면 된다.

새 가족 모시기 운동

- 마산교구 옥포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2년 6월 호

2012년 4월 20일 마산교구 옥포 본당에서는 선교 선포식이 열렸다. 전년도의 '모실 분(냉담 교우) 찾기 운동'에 이어 꾸준한 선교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선교선포선언문 낭독과 선서가 이어졌고,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선교하자!"라는 선교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선교 의지를 다졌다.

'1세대 당 한 분 모시기'를 목표로 5월 한 달간 1차 운동으로 예비신자 입교를 위해 노력하고, 2차 운동으로는 5월부터 연말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선교 운동을 진행한다.

옥포 본당의 상황

옥포 본당은 대우조선소 직원과 가족들이 신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무지 이동에 따른 교적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타지에서 흘러온 신자가 많아 다같이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숨어 있는 신자나 행불자, 냉담 교우가 많고, 같은 지역 출신이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었다.

주임 신부는 본당의 주의 환기가 필요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성당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연령별 단체와 레지오 마리아를 활성화시키고 한 달에 한 번 있던 주일 음식 나눔을 매 주일로 확대하면서 이와 함께 모실 분 찾기 운동을 시작했다.

모실 분 찾기 운동

옥포 본당의 '모실 분 찾기 운동'은 300명 회도와 300명 영세를 목표로 2011년 3월 6일 '모실 분 찾기 운동 선포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새 가족 찾기 운동도 병행하여 입교식 전 한 달간 진행하되, 모실 분 찾기 운동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행했다.

이를 위해 ① 어깨띠와 현수막, 포스터, D-DAY 간판 등을 만들어 선교 운동 분위기를 띄웠고, ② '모실 분 찾기 운동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 전 신자에게 배부했다. ③ 또한 냉담 교우 집 방문 시 전달할 주임 신부 편지와 리플릿을 제작했다. 편지 내용에는 그동안 본당에서 신경 쓰지 못해 실망하도록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과 모실 분 초청의 날에 꼭 와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 ④ 선교 운동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각 가정을 잇는 고리 기도를 매일 실시하고, ⑤ 선교 특강, 사순 특강, 소공동체장 교육, 레지오 단장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실 분 찾기 추진위원회가 격주 화요일에 회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5월 27일에 모실 분 환영의 밤과 고해성사를 하고 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에 모실 분 찾기 운동의 종료 선언과 함께 본당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했다.

모실 분 환영의 밤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 성과는 계속 이어져 한 해 100여 명의 모실 분이 성당을 찾아

고해성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전년도 성과를 이어 2012년에는 내 형제, 내 주위, 우리 동네 냉담 교우들을 성당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냉담 교우와 친한 사람들을 소공동체와 레지오 브레시디움에서 찾아서 1대1로 멘토를 붙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냉담 교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냉담 교우 명단을 뽑아 구역반장과 레지오 단장, 복음화분과장이 만나 배분을 했다. 분류 기준은 ① 같은 지역 사람일 것, ② 친한 사람일 것, ③ 대부모-대자녀 관계일 것 등이다.

1인 1멘토를 원칙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교류하면서 다시 성당에 나올 수 있게끔 이끌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선교 방법은 자유롭게,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또한 매주 모여서 성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지원 검토를 하도록 했다.

본당 내의 선교 분위기

본당 전체에 선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밤 10시에 각 가정에서 주모경을 바치고 선교 구호를 외치도록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본당 전체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선교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구역반과 브레시디움에서는 냉담 교우 회두 실적을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냉담 교우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을 찾아 투입하는 것이 좋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직장 상사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사람의 직장 상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찾아 부탁하되 만약 타 본당 신자라면 잠시 데려와서라도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는 대우조선소 직원과 가족이 신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본당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물론 가두 선교도 천주교를 알리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그 사람을 성당에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끼는 끈끈함과 결속감은 이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양분이 된다. 어렵게 데려온 사람일수록 제대로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냉담 교우 모시기 방안

- 미래사목연구소 세미나

■ 출처: 『사목정보』 2010년 3월 호

미래사목연구소는 2010년 2월 22일 <냉담 교우 모시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는 앞서 2008년 12월에 열린 <선교 대안 발표회>에 이은 두 번째 선교 관련 세미나로, 냉담 교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과 본당 차원의 맞춤형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본당에서 냉담 교우를 회두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해도 문제 원인이 제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요인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1. 냉담 교우 발생 원인 분석

최근 30년간 냉담 교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냉담 발생 원인과 질적 성찰을 통한 미시적 관점과 냉담 발생 원인을 종교 환경 변화, 종교 심성 변화, 포스트모던 세대의 혼합주의 유희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본당 차원 대안

1) 구조 개선

① ‘의무 신앙’ 구조에서 ‘신바람 신앙’ 구조로

가톨릭 신자 대부분은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이제는 자발적 참여와 신앙 안에 행복 찾기 등을 통한 신바람 신앙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② ‘혼자 하는 사목’ 구조에서 ‘함께하는 사목’ 구조로

혼자 하는 사목에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양분화되어 ‘전하는 이’는 들으려 하지 않고 ‘주는 이’는 받으려 하지 않으며 ‘가르치는 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주는 이가 되고 ‘모두’ 받는 이가 되는, 함께하는 사목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

③ ‘오라’ 구조에서 ‘가라’ 구조로

지금까지 가톨릭교회 구조는 본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교회 운영 구조, 즉 ‘오라’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오십시오” 해도 와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공격적으로 찾아가야 하고 정성을 다해 ‘감동’을 주어야 한다. 즉, ‘복음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 찾아가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2) 본당 차원 프로그램(선교 매체 공급)

- ① 소공동체
- ② 리플릿
- ③ 소책자
- ④ 주보

3. 맞춤 대안(개인 차원)

냉담 교우 다시 모시기에 있어서 키워드는 상처, 성사, 포스트모던 세대다.

1) 상처

냉담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짚어본다. 성직자, 수도자와 본당 신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2) 성사

죄책감으로 고해성사에 부담이 있는 냉담 교우에게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3) 포스트모던 세대

포스트모던 세대의 특징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동기 부여 방안을 제시한다.

4. 5단계 매뉴얼 훈련

냉담 교우를 교회로 다시 데려오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매뉴얼화하고 훈련하는 것은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 ① 0단계(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인도자(냉담 교우 모시는 신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말씀 암송, 긍정적 언어 습관, 칭찬의 말하기, 긍정적 제스처, 밝은 미소 짓기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습관이 들도록 훈련을 시킨다.
- ② 1단계: 기도 나눔(대상자 확인 및 기도)
- ③ 2단계: 사랑 나눔(선교 매체 전달 방법)
- ④ 3단계: 은총 나눔(방문 시 대화 요령)
- ⑤ 4단계: 복음 나눔(원인별 맞춤 대안으로 신앙 체험 위주로 전달하는 방법)
- ⑥ 5단계: 환영식을 통해 회개하고 교회로 초대한다. 환영식 때 특히 중요한 것은 환영식 날이 축제이고 잔치가 되도록 음악회나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자신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감동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는 냉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소공동체와 연결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실 분 찾기 운동

- 부산교구 안락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0년 7월 호

많은 본당들이 냉담 교우 회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교구 안락 본당에서는 냉담 교우 703명을 찾아 냉담을 풀게 하였다.

안락 본당은 발상의 전환으로 '냉담 교우'라 하지 않고 교회에 등을 돌린 '고객'이라고 생각했다. 신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돈 낼 일은 많고, 신자들은 불친절하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 교회의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해 떠난 '고객'으로 여겼다. 그런 연장에서 안락 본당은 '냉담 교우 회두 운동'의 명칭도 <모실 분 찾기 운동>이라 했다.

안락 본당의 관할 구역 내 인구는 대략 10만 명이다. 교적에 등록된 신자는 6천 200명 정도, 성사 생활을 하는 신자는 3천 100여 명, 그렇다면 3천 100명 정도가 냉담 중이었다. 이들을 분석했더니 3년 이상 냉담 중인 교우가 1천 200여 명으로 추려졌다. 이들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안락 본당만의 '고객을 사로잡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주임 신부는 먼저 '기도'와 '내 탓이오' 영성으로 신자들의 의식에 변화를 주었다. 다음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서 냉담 교우를 회두시킬 역량을 키워주었으며 끝으로 단계적 <모실 분 찾기 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내 탓이오' 신자들의 의식 교육

주임 신부는 가장 먼저 안락 본당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 탓이오' 영성을 심어주었다. 그들의 냉담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다보면 "우리가 신자답지 않았거나, 잘 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다거나, 성숙된 신앙의 길로 안내하지 못하면서 신앙적으로 차별했다거나,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주임 신부는 신자의 자세에 관한 의식 교육에 나섰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교육 훈련과 선교 시스템 구축

주임 신부가 중점을 둔 것은 사목적인 훈련이었다. "선교 훈련 때문에 몇 달 내지, 몇 년 이상 실행이 지연된다 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성과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내 탓이오' 영성으로 신자들의 의식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실행에 앞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다는 남민식 선교분과장은 "모실 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이 있는지 자문해 보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선교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우선

구역·반장을 열정 가득한 신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모실 분 찾기 운동 실행

〈모실 분 찾기 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 구성과 부서별 업무 분담도 필요했다. 미사 시간을 통해 전 신자 발대식을 했으며 현황판과 상담카드 그리고 활동일지, 회의록 등을 섬세하게 기획하고 제작했다. 운동 기간 내내 상설 상황실도 운영했다.

〈모실 분 찾기 운동〉의 모토는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로 정했으며 전략으로는 ‘먼저 좋은 신자가 되자. 그래서 입소문을 내자. 축복을 나누어 주자. 한 번만 더 부탁을 해보자.’가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방문자들에게 활동 요령을 익히고 주의사항들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방문 시 준비물은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책자와 신부님의 편지, 초대장 등이며 활동 전 기도 와 방문기도 그리고 활동 후 기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방문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경청 또 경청’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시작

〈모실 분 찾기 운동〉의 성과는 본당의 ‘신자 증감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6년과 2007년에 각기 2천 909명과 2천 973명으로 고점을 달리던 냉담 교우 수가 2009년 말 통계에서는 796명으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본당 신자들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

1차 〈모실 분 찾기 운동〉을 마친 후 주임 신부는 회두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상태를 구역·반장을 통해 체크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와 신자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다양한 돌봄을 주문한 것이다. 교회의 문에 다시 들어선 이들이 형제, 자매들의 관심 어린 조력에 힘입어 은총의 여정을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모실 분 찾기 운동 활동 계획표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준비	분류	교육	모실 분 찾기 운동		모셔오기	
9월 1일~ 9월 24일	9월 25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18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0일: 반별 모실 분 명단 정리 14일: 현수막, 포스터, 어깨띠 제작의뢰, 각종 인쇄물 의뢰 19일: 현수막, 포스터 부착 23일: 인쇄물 입고 24일: 구역반 봉사자 교육, 인쇄물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출, 냉담, 개종, 행불 등 분류 모실 분 상담 카드 작성: 인적사항 모실 분 현황 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동체 교육 및 활동 요령 숙지 모실 분 진도 현황판 제작 부착 	9월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18일 발대식(교중미사 후) 10월 19일~11월 2일: 1차 활동 11월 3일~11월 17일: 2차 활동 11월 18일~12월 2일: 3차 활동 (방문 활동 시 2인 1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1조 차량 모셔오기 12월 11일 오후 8시: 고해성사 환영 다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 전 모실 분을 위한 기도(평일미사 포함) • 이 기간 동안은 평일미사도 전 신자 동참 안내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살기도, 묵주기도, 주모경 • 면담 후 상담카드 작성 • 주 단위 소공동체 모임 실시 • 주 단위 활동 결과 추진위원회 보고 • 결과에 따라 성사표 및 각종 홍보자료 활용 						

매주 금요일 오후 8시10분 분과별 회의/8시40분 전체 회의

모실 분 찾기 운동 추진 일정표

추진 단계	활동 계획	활동 내용
제1추진 9월 25일~ 10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자, 모실 분 파악 • 모실 분 카드 작성(인적사항) • 반별 교육 및 활동 요령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실 분 현황표를 작성하며 모실 분을 분류(행 불, 개종, 전출, 냉담 교우) • 분류된 모실 분은 카드 작성
제2추진 10월 19일~ 12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실 분 방문 활동 • 1차, 2차, 3차까지 방문한다. 한 번 방문으로 반응이 없더라도 다음 방문을 기대 • 활동 전 방문 대화 요령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모실 분 카드를 기초로 활동하되, 본인은 모르도록 메모 후 집에서 기록 • 방문 내용, 냉담 사유, 반응 등을 기록하여 추진 본부에 제출, 추진 본부에서는 다음 방안 강구
제3추진 12월 3일~ 12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실 분 모셔오기 • 활동 결과 나오시기로 한 분들의 명단 작성 • 구역 판공성사 일에 모셔올 인도자 조를 2명 씩 편성 • “온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모셔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모실 분을 모셔오는 데 차질이 없도록 1인 당 2명 이상 동행 인도자 조 편성 • 인도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추진 본부에서 활동 단체 지원 인력 파견 • 판공성사 일정

모실 분 찾기 운동 추진 계획

시기	구분	내용
1차	완료	기간: 2009년 10월 12일~12월 11일 목표: 1,220명, 실적: 703명 주최: 반모임을 통한 <모실 분 찾기> 방문 활동 준비물: 초대장,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2차	추진 중	기간: 2010년 3월~7월 목표: 343명, 실적: 진행 중 주최: 레지오 단원을 통한 <모실 분 찾기> 방문 활동 준비물: 초대장, 기념 선물(선교 밴드)
3차	예정	기간: 2010년 10월~12월 목표: 453명 추정 주최: 반모임을 통한 <모실 분 찾기> 방문 활동 준비물: 초대장, 『소중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공동체 선교 활동 자료

■ 출처: 『공동체 선교 방법』, 서울대학교 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2001년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선교열은 언제나 교회 활력의 표지였으며, 반대로 선교열의 감퇴는 신앙 약화의 표지였다. 선교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견고케 하며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때 더욱 커져 가는 신앙의 활력을 교회 안에 불어넣어 준다.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더욱 견고해진다(교회의 선교 사명, 2항).

주님께서는 선교 사명을 위하여 “파견되셨고”(루카 4,43), 모든 시대의 당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동체 선교 활동

공동체 선교란 본당 공동체나 구역·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그 장애를 극복하려면 본당 공동체 모든 사람의 참여 속에 잘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역·반 소공동체나 레지오는 본당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일치된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의 목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다. 공동체 선교는 이웃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며 이렇게 선교하는 전 과정에서 신자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다. 신자들이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 나약한 태도 등을 극복하고 선교에 자신 있게 참여하도록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

- ① 본당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촉진해야 한다.
- ②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 ③ 신자들이 ‘선교는 신앙의 문제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 신앙의 확실한 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 ④ 구역·반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가 선교 활동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 ⑤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선교 자료와 각종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의 단계별 진행 내용

본당 전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선교 계획을 마련한다.

여기서는 “예비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총력 단계, 결실 단계,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운다. 각 본당에서는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참고하여 본당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예비 단계(2~3주)

공동체 선교 운동을 위한 전 신자 공감대 형성

<p>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p> <p>예비 단계 ____월 ____일 ~ ____월 ____일</p> <p>천주교 _____성당</p>
<p>“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p>

(성당이나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자들이 자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본당 선교 책임자(사제, 수녀, 선교분과장, 총회장)는 적극적인 선교에 성공한 본당을 방문하여 자세한 과정을 알아보고, 선교 체험 사례를 사목회나 본당 교우들에게 알린다.
- ② 본당 사목회나 구역·반장 모임에서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선교의 문제점과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의논한다.
- ③ 구역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구역이나 반 소공동체에 선교의 중요성을 알린다. 구역·반 소공동체에 친교는 잘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활동이나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의논한다.
- ④ 본당 전 신자를 대상으로 주일 미사 강론에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한 본당의 예를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공동체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 ⑤ 전 신자 “명찰 달기 운동”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운동”을 실시하여 신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⑥ 선교 운동 표어를 선정하여 본당 입구나 대성전에 게시한다.(예: 새 가족 찾기 운동, 새로운 양 찾기 운동, 냉담 교우 찾기 운동, 잃은 양 찾기 운동 등)
- ⑦ 이미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본당의 신자나 사제를 초대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가능하면 많은 교우가 참여하도록 주일미사 시간을 활용해서 체험 사례를 듣는다.

2) 준비 단계(2~3주)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기도 운동, 선교 자료 제작 및 홍보 활동, 입교 대상 예비신자 선정, 교리교사 양성

<p>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p> <p>준비 단계 ____월 ____일 ~ ____월 ____일</p> <p>천주교 _____성당</p>
<p>“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루카 10,2)</p>

(성당이나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자들이 자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 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 ① 준비 단계에서 선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한다. 다른 본당에서 나온 선교 자료들을 활용하여 본당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 ② 본당에 선교 운영 조직(선교추진위원회)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선교위원 모임을 갖는다.
- ③ 선교분과장과 본당 총회장, 총구역장, 책임 있는 분과장, 꾸리아 단장, 선교위원들을 중심으로 매주 정기회합을 갖고 역할 분담,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한다.
- ④ 선교운영위원 중 선교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교 활동 촉진팀'을 구성한다. 이들이 구역·반을 순회하면서 신자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게 한다.
- ⑤ 본당에서는 선교 사무실을 개설하여 개소식을 하고 선교위원 및 봉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자료 공급이나 상담, 계획 추진 등 선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게 한다.
- ⑥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신자들의 수를 증대시켜야 한다. 보통 전체 신자 중에 1-2%만이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데, 본당에서 적극적인 공동체 선교 활동을 전개하면 선교에 투신하는 신자 수가 2-3배 증가하게 된다.

(2) 기도 운동

- ① 기도 운동에 돌입한다. 전 신자에게 선교 기도문을 배포한다. 개인적으로나 미사 전후에 매일 선교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다.
- ② 개인별, 반별로 기도를 시작한다. 9일기도를 시작하여 각 가정 기도 운동을 일으킨다.

(3) 선교 자료 제작 및 홍보 활동

- ① 어느 주일의 미사 때마다 본당 신자들에게 선교 운동 계획을 요약해서 나누어주고 홍보한다.
- ② 본당 신자들이 '개인 선교 임무 카드'를 작성하여 각자 간직하도록 한다('개인 선교 임무 카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 세례명, 선교 기도문, 평화의 기도, 40일 금식 기도문, 21일 고리 기도문, 알아야 할 복음 말씀, 선교 표어, 선정한 입교 대상자, 입교 날짜 등)
- ③ 본당 선교 운동에 대한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전 신자에게 배부한다.
- ④ 천주교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홍보물을 활용한다.
- ⑤ 천주교 및 본당 알림지를 작성하여 일간지의 간지로 배포한다.
- ⑥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거리에 부착한다.
- ⑦ 모든 신자가 "1인 1장 포스터 붙이기 운동"에 참여하게 한다(신자 수대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⑧ 설문지를 작성하여 볼펜과 함께 개인별로 10장씩 돌리게 한다(예비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어 이웃을 방문하게 한다).
- ⑨ 입교 대상자 가정에 본당 주임 신부 사목 초청 편지를 제작하여 배포한다(신자 수의 2-3배).

(4) 입교 대상 예비신자 선정

- ① 개인당 한 가정이나 한 분 이상을 선정한다.
- ② 반별, 구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합동으로 방문하고 만날 때마다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대책을 수립한다.

(5) 기록 사항

- ① 본당 차원에서 선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선교 사무실에 배치한다.
- ② 선교 일지(회의록)에는 오늘 실시사항, 내일 실시사항, 토의사항, 건의사항, 입교 대상자 등을 기록한다.
- ③ 반장은 반장 수첩에, 레지오 단장은 서기록에 기록하여 반원들과 회원들이 선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지원한다.

(6) 교리교사 양성 준비

- ① 교리교사나 봉사자를 할 사람을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파견한다.
(한 반에 2명 정도의 예비신자 봉사자가 필요하다.)
- ② 본당 차원에서 사제가 직접 교리교사와 봉사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평신도들을 더욱 잘 양성할 수 있다.

3) 실행 단계(2-3주)

선교 활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단계

<p>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p> <p>실행단계 ___월 ___일 ~ ___월 ___일</p> <p> 천주교 _____성당</p>
<p>“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사도 5,20)</p>

(성당이나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자들이 자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40일 금식기도로 실질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한다.
- ② 공동체 선교 활동 지침서를 작성하여 각 구역장, 반장, 레지오 단장들을 통하여 교육시킨다.
- ③ 미사 중에 전 신자 대상으로 선교 교육을 한다.
- ④ 구역·반별로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고 본당에 부착한다.
- ⑤ 반별로 선교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역에서 집계하여 선교 사무실로 제출하고 선교추진위원들이 분석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 ⑥ 본당의 선교추진위원들은 실무 책임자들과의 정기회합을 통해 선교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보완한다.
- ⑦ 유인물 및 플랜카드 설치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 ⑧ 선교 파견식을 하고 가두 선교를 전개한다.

4) 총력 단계(2-3주)

뿌린 씨를 거두어들이고 결실을 맺기 위해 공동체가 모두 함께 온 힘을 기울이는 단계

<p>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p> <p>총력 단계 ___월 ___일 ~ ___월 ___일</p> <p> 천주교 _____성당</p>
<p>“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p>

(성당이나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자들이 자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 분당 차원

- ① 각 구역·반별 및 단체별로 21일 고리기도를 시작한다.
- ② 그동안 방문했던 대상자를 전 구역원이 일제히 방문하여 입교서를 작성하고 선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 ③ 입교 대상자 가정을 집중적으로 3회 이상 방문하고, 선교위원들과 레지오 단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한다.
- ④ 가두 선교 활동을 구역별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 ⑤ 각 구역·반별로 선교 활동 보고서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2) 홍보 활동

- ① 선교 플랜카드를 거리에 설치한다.
- ② 신자 “1인 1장 포스터 붙이기 운동”을 실시한다.
- ③ 각종 선교 홍보물을 구역별로 배포하여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3) 선교 운동 격려

- ① 선교 활동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도록 식사를 제공한다. 선교추진위원, 책임 실무자, 구역·반장, 레지오 단장 등과 대책 모임을 갖고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평가서를 작성한다.
- ② 분당에서는 구역별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 분당에 부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한다.
- ③ 사제는 미사 때마다 선교 활동을 홍보하고 격려한다.

5) 결실 단계(2-3주)

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	
결실 단계	___월 ___일 ~ ___월 ___일
	천주교 _____성당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2티모 4,5)	

(성당이나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자들이 자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① 입교서를 접수받아 집계를 내고 미진한 구역·반에는 레지오와 선교위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결실을 얻도록 노력한다.
- ② 예비신자 관리와 방문에 주력한다. 각 구역장, 반장과 반원, 레지오 단원, 선교위원들이 입교한 예비신자들을 자주 방문한다. 또한 구역·반 공동체에서 이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잘 돌본다.
- ③ 행정 관리: 접수받은 입교서를 구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가능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구역별, 반별, 개인별로 통계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 ④ 교구장이나 교구 평신도 사목국 선교-전례 담당에 연락하여 중간결과를 보고한다. 교구장을 초대하거나 축전을 부탁한다.

- ⑤ 본당 사제나 수녀가 공동체 신자들을 격려한다.
- ⑥ 예비신자 교리교육 및 교리교사, 봉사자 양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
- ⑦ 입교식이 본당 공동체의 잔치가 되도록 잘 준비한다.

6) 마무리 단계

- ① 선교 담당자들과 본당 여러 공동체가 감사의 9일 기도를 봉헌한다.
- ②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공동체나 신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교구장상, 주임신부상 등을 마련한다.).
- ③ 선교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종합한 다음 그 결과를 본당 사제와 수녀에게 보고한다.
- ④ 공동체의 적극적인 선교 운동 결과를 정리하고 문서로 보관한다. 이러한 기록 자료는 다른 본당에도 도움을 준다.
- ⑤ 예비신자 교리교육 및 관리에 대한 종합 계획서를 작성한다.
- ⑥ 구역·반에서는 입교시킨 사람의 책임 하에 새 입교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한다. 대부모를 예비기간 초기에 정해주고 견진 받을 때까지 공동체가 함께 동반한다.
- ⑦ 협조 기관 및 본당 단체, 구역·반장 및 본당의 모든 신자에게 사목 협의회 명의로 가마 서한을 발송한다.

〈선교 활동 유의사항〉

1) 태도

- ① 항상 친절하게 미소로 대한다.
- ②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한다.
- ③ 상대방을 사랑과 인내로 대한다.

2) 복장

- ① 옷차림은 깨끗하고 검소하게 한다.

3) 방문

- ① 같은 사람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자주 방문하고 만난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방문을 싫어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자주 찾아주면 끌리게 된다.
- ② 둘이 짝지어 방문하면 서로서로 격려와 힘이 된다. 혼자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지만 둘이 가면 서로 협력하여 대화를 잘 진행할 수 있다.
- ③ 가정에 들어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간단히 자기를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말한다(“어디 사는 이웃입니다.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 ④ 방문 후에 나올 때에는 “다음에 들리겠습니다. 자매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

4) 대화

- 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귀담아 듣고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 ③ 비신자에게서도 겸허하게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선교의 큰 무기가 된다.
- ④ 부담을 주는 말이나 행동, 경솔한 태도나 말을 삼간다.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과한다.
- ⑤ 대화를 하다 보면 토론하거나 말다툼을 하기 쉬운데 토론에서 양보하고 인내와 친절로 대하고 다음날을 기약한다.
- ⑥ 교리 지식이나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아는 대로 답하고 대답이 힘든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알아 와서 다시 대화합시다.”라고 말한다(신부나 수녀, 선교분과장에게 그 교리에

관한 지식을 문의한다.)

5) 마음가짐

- ① 처음부터 어떤 결실을 맺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부를 당하더라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한다. 열 번 방문하여 한 번 성공할 각오를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 ② 박해와 거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같은 박해를 받으셨다.

6) 하느님 말씀과 기도의 힘

- ① 하느님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전한다.
- ② 모든 활동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 ③ 평소에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비 선교에 해당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

〈선교 대상자 예시표〉

1. 선교의 첫 대상은 나 자신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시고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2.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일차 대상자들이다.

특히 이웃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받는 사람, 환자, 연로하신 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웃	① 집주인 ④ 아파트 같은 동	② 세든 사람 ⑤ 아파트 같은 층	③ 앞집, 뒷집, 옆집 ⑥ 동네 반상회 회원
가족 및 친척	① 조부모 ⑤ 형제자매 ⑧ 외갓집, 사돈댁, 처가, 고모댁, 이모댁	② 부모 ⑥ 형부, 처제, 동서	③ 아내, 남편 ④ 자녀 ⑦ 삼촌, 사촌 ⑨ 기타 친척
친분 관계	① 친구 ⑤ 종친회 회원	② 동창생 ⑥ 친목회 회원	③ 선후배 ④ 고향 사람 ⑦ 계모임 회원들
직장 및 생업 관계자	① 직장 동료 ④ 단골 손님 ⑦ 이웃 가게, 시장의 단골 가게 주인	② 직장 상사, 부하 직원 ⑤ 거래처 사람들	③ 동업자 ⑥ 종업원 ⑧ 기타

〈선교 활동 과정(개인 및 소공동체 차원)〉

- ① 선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메모지에 써서 집의 벽이나 주방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고 볼 때마다 화살기도를 한다.

주님! OO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제가 주님과 함께 그를 만날 때에 그의 마음을 당신께 기울게 하소서.

- ② 대상자를 위하여 집중 기도를 한다.
- ③ 사전 준비를 확보한다(본당 안내지, 홍보물, 주임 신부 사목 서신, 천주교 안내 책자, 화장지, 스티커를 준비한다).
- ④ 평소에 대상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며 만날 시기를 계획한다.
- ⑤ 방문하여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선교를 시작한다.
- ⑥ 구역·반 소공동체(쁘레시디움)에 보고하고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배려한다.
- ⑦ 입교 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예비신자 교리반에 함께 동반한다.
- ⑧ 구역·반 소공동체 모임에 초대하여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한다.
- ⑨ 대부모가 되거나 소개해 준다.
- ⑩ 견진성사를 받도록 배려하고 그들도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선교 활동 평가서(개인 및 소공동체 차원)〉

- ①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 ② 나 자신 안에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나와 함께 힘차게 선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 ③ 복음 전파는 제자의 첫째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 ④ 주님께서 나를 가정이나 이 세상에 파견하신 목적이 “선교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 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
- ⑥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 ⑦ 선교의 동기는 어떠한가? 나의 욕심이나 인기를 채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이고 그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까?
- ⑧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⑨ 선교하는 태도나 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⑩ 부지런하게 활동합니까? 방문하고 전화하고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⑪ 반원들이나 레지오 단원들의 협력을 구합니까?

〈공동체 선교(새 가족 찾기) 운동 자료〉

다음의 자료들은 여러 본당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자료1 공동체 선교 운동 신자 재교육 및 피정 실시 현황

(인천교구 만수2동 본당: 새로운 양 찾기 운동)

구분	실시 방법	
단계별 신앙학교	대상	본당의 모든 신자
	회수	월 1회(매월 첫 목요일) 낮반(주부 대상)과 저녁반(남성 및 직장인 대상)으로 구분 운영
	기간	2~12월(8월은 방학)
	수료증	단계별 신앙학교 수료식과 수료증 교부 → 교적에 교육 이수 내용 기재
	재정	수강자들의 미사 헌금과 본당 보조금
	수강료	중식 제공비 차원에서 매회 00원
	주안점	전 신자를 대상으로 월 1회 피정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재교육 및 피정	전례주기별 재교육 및 피정	사순시기 특별 강론 성소주일 특별 강론 송년 철야 기도의 밤
	대상별 재교육 및 피정	사목 기도의 밤 사목위원 피정 노인 피정 구역별 피정(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을 구분해 진행)
	내용별 재교육	선교 특별 강론 사회복지 관련 특별 강론 현대인의 정신 건강 관련 특별 강론 성령 기도 일일 대피정 우리 농산물 살리기, 생활협동조합 관련 교육 여성 교양 강좌 자녀 교육 관련 교양 강좌 여호와의 증인 관련 교육

자료2 공동체 선교 운동 교육 일정표
(수원교구 상록수 본당: 우리 가족 찾기 운동)

교육명	대상자	교육일	교육내용
우리 가족 찾기 운동에 관한 집중 교육	사목위원 단체장 교육	4/3(오후8-10시)	우리 가족 찾기 운동 계획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자세 역할 분담
	구역장 반장 교육	1차: 4/7(10-11시) 2차: 4/14(10-11시/20-21시) 3차: 5/12(10-11시/20-21시)	
	레지오 전 단원 교육	4월 8일(20-22시)	

우리 가족 찾기 운동 의식 고취 및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	전 교우 교육	1차: 4/5 주일미사 강론 2차: 4/12 부활미사 강론 3차: 4/12 선포식 강론 4차: 4/19 주일미사 강론	우리가족 찾기 운동 계획 구역반원으로서의 기도와 활동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자신과 새 성전
		5차 4/26 주일미사 강론 6차: 5/3 주일미사 강론 7차: 5/10 주일미사 강론 8차: 5/17 주일미사 강론 9차: 5/28 주일미사 강론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 복음 선교의 삶 본당과 가족 공동체
제2단계 신앙학교	신앙학교 교육 430명	3/31 13-17시/19-23시 4/21 13-17시/19-23시 5/19 13-17시/19-23시	신앙학교 교육을 통한 우리가족 찾기 운동의 의식고취와 평신도로서의 사명 강조 우리 가족 찾기 운동 활동 방법
성경공부	이수학생 80명	4,5월 매주 목요일	성경공부를 통한 복음 선교 의식 고취

자료3

〈선교 기도문〉

항상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을 갈망하오며 주님의 나라를 애타게 기다리나이다.
저희 모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게 하시며
없는 이들과 약한 이들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저희 모두 초대 교회 신자들처럼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으로써
한 형제 되어 한마음 한 몸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며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펼쳐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도와주시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용감하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게 하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바오로 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선교의 모후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료4

〈새 가족 찾기 40일(9일) 금식 기도〉

40일(9일) 금식 기도는 공동체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40일(9일)간 하루 한 시간씩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함께 기도한다.

그동안 각자는 순서대로 한 끼만 거른다. 반이나 레지오 단체에서는 9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

1) 성호경

2) 성가: 236번, 422번, 445번, 518번 중에 한 곡 부른다.

3) 기도 지향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고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여! 오늘 한 끼 식사를 굶고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이런 작은 희생과 기도가 세상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신자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선교를 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지금 선교하는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소서! 주님, 간절히 비오니 지금 선교하는 형제자매들의 발걸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도 만나는 사람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4) 선교 기도문

5) 성경 읽기: 아래 각 구절을 읽고 3분간 묵상하고 성가 한 곡을 부른다.

① 마태 28,16-20

② 루카 10,17-23

③ 필리 2,1-11

④ 예레 1,4-10

(성가: 35번, 63번, 151번, 236번, 422번, 445번, 446번, 450번, 451번, 518번 중에서 선택)

6) 묵주기도: 당일 해당 신비 5단

7)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8) 영광송

자료5 새 가족 찾기 21일(3일) 고리 기도

21일(3일) 고리 기도는 공동체의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서 시간별로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21일(3일)간 기도한다.

1) 성호경

2) 취지 기도문

주님! 선교를 위한 이 고리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와 선교를 위한 노력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말씀과 사랑이 널리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더 복음화되게 하소서.

3) 선교 기도문

4) 성경 읽기: 아래 각 구절을 읽고 3분간 묵상하고 성가 한 곡을 부른다.

① 마태 28,16-20

② 루카 10,17-23

③ 필리 2,1-11

④ 예레 1,4-10

(성가: 35번, 63번, 151번, 236번, 422번, 445번, 446번, 450번, 451번, 518번 중에서 선택)

5) 묵주기도: 당일 해당 신비 5단

6) 평화를 구하는 기도(앞의 내용 참조)

7) 영광송

8) 인수인계

① 시간표에 의거 다음 기도할 사람에게 전화로 인수인계한다.

② 다음 기도할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인계가 안 되면 반장에게 인수인계한다.

자료6

21일 고리 기도 명단과 시간표

(24시간X21일=504명 필요)

날짜	시간	성명	세례명	전화번호	단체/구역
8/19	20-21시				주임신부
	21-22시				총회장
	22-23시				부회장
	23-24시				전례분과
8/20	24-1시				기획분과
	1-2시				

자료7 주임 신부 초대장

_____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 _____성당 주임 신부 000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시는 분은 저희 본당 신자입니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동안 잘살아 보려는 일념으로 갖은 노력을 다 했으나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평화를 잃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잃었던 아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는 그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 성당에서 이번에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이런 큰 사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천주교회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성당에 나오시려고 해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바쁘시겠지만 부디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뻐노라.”(시편 122,1)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네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사도16,31)

초대일자: 201__년 __월 __일(일) __시

장 소: 천주교 _____성당

201__년 __월 __일 천주교 _____성당
주임신부 000 드립니다.

예비신자 환영식 준비

- ① 대대적인 공동체 잔치가 되도록 한다. 예비신자 명단을 잘 써서 성당에 부착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
- ② 정장이나 한복을 입은 봉사자들이 예비신자들을 친절하게 환영하고 꽃을 달아주고 성당 안의 자리로 안내한다.
- ③ 자리는 예비신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신자들은 뒤나 마당에 따로 자리를 배치한다.
- ④ 신자들은 가슴에 꽃을 단 예비신자를 보는 대로 환대하는 인사를 한다.
- ⑤ 신자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비신자들을 환대하는 내용과 이들을 안내한 신자들의 뜻과 정성이 반영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성가는 쉽고 마음을 울리는 것으로 선택한다.
- ⑦ 강론은 예비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고 편안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한다.
- ⑧ 미사 후 예비신자 반 편성을 위한 안내를 하고 반 편성 용지를 써서 제출하게 한다. 말씀의 전례 때까지

참여하고 성찬의 전례 전에 예비신자는 퇴장한다.

- ⑨ 2부 식사 시간은 사물놀이나 음악을 준비해서 흥겨운 시간이 되도록 한다. 예비신자가 먼저 식사한다. 신자들은 예비신자와 함께 먹거나 그들 후에 식사한다.

예비신자 환영식 초대의 글과 진행 순서

〈초대의 글〉

_____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_____성당 주임 신부 _____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는 형제자매님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인생여정을 놓고 볼 때 어떤 기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새 생명을 움트게 할 이 만남의 장에서 서로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바라며 입교식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입교일시: _____년 ____월 ____일(____요일)____시

장소: 천주교 _____성당

환영식 진행 순서

1부

1. 환영인사
2. 즐거운 시간(흥겨운 노래 또는 비디오 시청, 오락시간)
3. 천주교의 역사와 현황 소개(간단히)
4. 본당 소개(간단히)

2부

5. 다과 및 레크리에이션
6. 나눔의 시간(선물 증정)

3부

7. 교리반 소개, 교리 봉사자 소개, 교리실 안내

사목 아이디어 모음

- 선교 -

■ 새 가족 찾기 운동

연중 본당 사목 목표를 “1인 1명 주님 품으로”로 정하고, 선교활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선교를 위해 노력한다. 운동을 전개하기 전 9일 고리기도를 하고,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40일 금식 운동도 실시한다. 매 주일 미사 때 금식했다는 봉헌서를 바친다.

구역에 따라 5인 1조로 20개 조를 구성하여 매주 구역별 방문, 가두 선교 등을 전개한다. 여기에 노년과 청소년 등 대상별로 선교 팀을 구성한다. 이 선교활동을 통해 예비신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서를 낸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진행한다. 한명의 예비신자마다 책임자를 선정해 수시로 연락하고 방문한다.

본당 내 선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선교 활동에 관한 모든 사업을 이곳에서 실시한다. 예비신자 상담은 물론 선교 사업을 위한 자체 회의도 이곳에서 열고 있다. 특히 선교활동추진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소위원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며 효율적인 선교 운동 방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15일을 ‘새 가족 친교의 날’로 정해 이날 새 영세자, 예비신자를 위한 잔치를 열고 그동안 선교에 헌신한 신자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선교왕을 선정한다.

- 서울대교구 풍납동 본당, 가톨릭신문 2000.3.26.

■ 새천년 대희년 새 가족 찾기 운동

1월 24일부터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던 3월 18일 전날까지 총 54일 동안 새 가족 찾기 운동을 진행했다. 구역반 조직과 레지오 마리아가 함께 노력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역 반에서 입교 대상자를 찾아내면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2~3명씩 조를 지어 가정을 방문하여 천주교 소개 책자를 나누어 주고 끊임없는 기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게 하였다.

먼저 선교에 무관심한 신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선교 의식 고취를 위한 신자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동시에 본당 전체가 참여하는 고리 기도를 처음부터 끝날까지 봉헌함으로써 이 새 가족 찾기 운동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 결과 불과 54일 만에 450명의 예비신자들을 봉헌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와 사후 관리를 위해 교리교사들을 집중 양성했다. 이들이 결국 36개 반의 모든 예비신자 교리반을 도맡고 있다. 아울러 새 입교자들이 탈락 없이 영세하고 영세 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도 세워 두고 있을 정도다.

- 서울대교구 수유동 본당, 가톨릭신문 2000.4.2.

■ 우리 가족 찾기 운동

본당 사목협의회를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중 미사를 통해 선포식을 가진 뒤 50일 동안 ‘우리 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했다. 본당의 사목위원들과 단체장이 먼저 7일간의 단식기도를 먼저 봉헌하고, 한 달 동안 교적을 통해 신자 수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1,750명의 쉬는 교우를 확인하였다. 531명의 신자들이 참가해 21일 동안 고리기도를 바쳤고, 40일 동안 전 신자가 금식기도를 실시하며 금식한 뜻을 봉헌하였

다. 특히 반장들을 중심으로 레지오 단원들이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쉬는 가족을 직접 찾아가 방문활동을 벌였다. 이때에는 주임신부가 쉬는 교우에게 전하는 서한을 직접 들고 가 전달하였다.

- 수원교구 분당마태오 본당, 가톨릭신문 2000.4.9.

■ 기도를 통한 선교 활동

2년간 고리 기도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매일 아침 9시에 모여 기도를 하였다. 곧 전년도 11월 29일부터 당해년도 4월 13일까지 137일간 고리 기도를 바쳤으며, 2월부터는 금식 금연 고리 기도를 바쳐왔고 매월 성시간 성체조배를 해왔다.

또한 본당에서 자기 소개서를 받아오면 미사 중에 이들을 기억하고 본당 신자 전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선교를 하는 이들은 더욱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만나고 만난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신자들은 선교를 하게 되면서 기도의 맛을 들였고, 기도 중에 하느님을 알게 돼 이제는 기도가 생활의 1순위가 되었다. 성당 담을 낮추고 교회가 선교에 적극 나서는 열린 교회상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도가 선교활동의 원동력임을 감안해 반별 지역별로 다양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불교세가 강한 경주에서 441명의 예비신자를 봉헌할 수 있었다.

- 대구대교구 경주 황성본당, 가톨릭신문 2000.4.30.

■ 생활 속 선교

주일미사 때마다 파견예식 전에 사제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한 주 동안 새기며 살아야 할 선교 구호를 함께 외친다. 선교 활성화를 목표로 본당 모든 신자들이 선교 일선에 나서도록 독려하면서 신자들이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간접 선교 등 '생활 속의 선교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 속 선교"는 거리에서 홍보물을 건네고 인도하는 직접 선교는 물론 간접적인 선교를 통해 신자들의 생활 속에 선교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교에 뜻은 있으나 직장 문제나 개인 사정 등으로 직접 선교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들이 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교를 지향한 '특별 헌금'과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화살 기도 등 다양한 특별 기도는 물론 성경 공부, 평일 미사 봉헌, 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선교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대교구 암사동본당, 가톨릭신문 2001.2.25.

■ 쉬는 신자 화해의 밤

쉬는 신자 회두 운동 차원에서 「쉬는 신자 화해의 밤」 행사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씩 열었다. 신자들은 한 달여 전부터 다양한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쉬는 신자들의 명부와 주소를 파악해 구역장 반장과 레지오 단원들을 중심으로 방문 계획을 짜는 것으로 화해를 위한 여정은 본격화된다. 주위에서 쉬는 신자의 존재를 파악한 신자들은 화해의 밤 행사가 있기 한 달여 전부터 거의 매주 한 차례 이상씩 쉬는 신자의 가정을 방문한다. 가정 방문을 위해 참기름, 타월 등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성당 성모동산에서는 전 신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30일간 고리 기도가 이어진다. 교회를 잠시 떠나 있던 형제를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꾸준한 만남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쉬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쉬는 교우 화해의 밤'. 교회를 다시 찾기로 결심한 쉬는 신자들은 본당 교우들의 안내를 받아 미사 한 시간 전에 성당에 나와 신부의 주례로 강의와 묵상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동안 성당 곳곳에서는 마치 다시 찾은 형제를 환영이라도 하듯 촛불을 든 신자들의 묵주기도가 바쳐진

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본 쉬는 신자들은 화해와 하나 됨을 상징하는 촛불의 길을 걸어 올라와 고해소에
서 그간 응어리졌던 마음을 녹여낸다.

- 서울대교구 명일동 본당, 가톨릭신문 2002.12.22

■ “부활을 쉬는 교우와 함께”

“부활을 쉬는 교우와 함께”라는 구호 아래 쉬는 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쉬는 신
자들을 3단계에 걸쳐 방문해 교회로 초대했다. 구역별로 쉬는 신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우선 구역반장과
반원들이 주임신부의 초대장과 참기름 등의 선물, 판공성사표를 전달했고, 레지오 마리아 단장들이 교회 신
문과 도서 등을 전달하며 2차 방문을 실시했다. 3단계에서는 본당 신부와 사목위원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였다.

직접 쉬는 신자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기도, 성경 묵상 쓰기 등을 통해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미사와 단체 모임 전후 선교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고리 기도와 9일 금식 기도에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또 금식을 통해 선교 헌금을 봉헌, 활동을 뒷받침했다. 특히 각 가정마다 쉬는 신자 모셔오기 스티커를 부
착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기를 권고하였다.

- 대구대교구 만촌 본당, 가톨릭신문 2002.3.3.

■ 쉬는 교우 모셔오기

‘쉬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며 사목회와 선교분과, 구역분과 등이 중심이 되어 이들을 일일이 방
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쉬는 교우 가정을 처음 방문할 때는 본당에서 정성스레 마련한 참기름을 한 병씩
선물로 나누어 주면서 본당 교우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참기름을 선물한 뒤 1주일쯤 후, 본당 신
부와 수녀, 사목회 공동의 이름으로 간절하고도 정중한 편지를 모든 쉬는 교우들에게 발송했다. 본당 신부
는 편지를 통해 성직자, 수도자, 교우간의 문제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교우들에게 본당 신부로서 죄송
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바쁘게 사느라 성사의 기회를 놓친 쉬는 교우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하느님과, 본당
신부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자고 호소했다. 쉬는 교우들이 돌아오면, 공동 참회 예절과 개인 고
백을 통해 성사의 기쁨을 선물하고 레지오 마리아 등 각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배려한다.

- 서울대교구 구파발본당, 가톨릭신문 2001.9.2.

■ 냉담 교우 봉헌 미사

본당에 ‘냉담 교우 봉헌함을 설치하고 추천을 받았다.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한 다음 “여러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싶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카드와 함께 녹차 티백 2개씩을 넣어서 발송하였다. 초대
받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한 날,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축복받은 묵주를 선물하였다. 선교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본당의 모든 신자가 54일 기도로 힘을 보태고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서울대교구 남대문시장 준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06.7.23.



입교에서 세례 후까지 전 과정 토털 서비스

- 수원교구 상현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1년 4월 호

수원교구 상현동 본당에서는 평신도 예비신자 교리교사회(회장 송수근)가 가급적 이론에 치우친 교리를 절제하고 입교에서 세례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눔과 체험 중심의 교리를 실현하면서 예비신자가 좀 더 수월하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교에서 세례 후까지 토털 서비스

상현동 본당 교리교사회는 숙련된 교사들이 예비신자 모집에서부터 세례 그리고 세례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비신자들의 영적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상담, 피정, 종합교리, 참회 예절 등의 단계까지 예비신자들이 신앙을 체험하고 천주교 신자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모든 과정 전반을 토털 서비스 하고 있다.

예비신자는 서로 마니토를 정해 한 달간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영화를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세례식 후에는 교리교사와 함께 3번 정도의 모임을 갖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점은 상현동 본당 교리교사회만의 노하우가 되어 있다.

교리교사회 구성원 모두 상당한 교리교육의 노하우가 있지만 교리교육과 활동을 위해 매주 1회 연수 시간을 갖는다. 교리와 관련된 문제나 성경 등의 다양한 공부를 통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교리교육

상현동 본당 교리교사회는 영상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교리교육 과정에 필요한 영상 교리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0년 말에 영화를 통한 교리교육을 우선 시작하기로 내부 협의를 마쳤으며 교리교사회 회장 송수근 씨가 성바오로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영상미디어지도자교육>을 이수해 영상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준비도 끝냈다.

교리교사회의 태동과 성장

상현동 본당은 2003년 본당 설립 때부터 평신도 교리교사들이 예비신자 교리를 도맡아 해왔다. 초대 주임 김동원 신부가 선교분과 산하에 '교리강학회'라는 이름으로 선교 봉사 단체를 신설해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교사를 양성하고 예비신자 관리, 돌봄, 교리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상현동 본당은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선생의 기념 성당으로, 평신도로서 왕성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신 권일신 선생을 본받자는 당시 주임 신부의 뜻이 평신도 교리교사에 대한 관심과 의지로 나타났다.

교리교사회는 매주 1회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여기에 물이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가지고 교리교사회 전원이 돌아가며 교안을 발표하고 자체 토론, 평가해 왔다.

주임 신부 역시 교안 발표에 참석해 최종 정리와 평가를 했는데 이 모두가 교사의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 본당에서는 원하는 교사들을 수원교구 하상 신학원에 입학시켜 2년의 과정을 수료하고 선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수업료의 절반을 본당에서 지원했는데 이 제도는 현재 2011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제2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안형노 신부는 ‘교리강학회’를 ‘예비신자 교리교사회’로 개칭하고 예비신자 교리교육에 더욱 전념토록 했다. 예비신자의 모집과 입교 그리고 세례식 등은 선교분과에서 봉사토록 일을 분배했다.

이렇게 두 사목자를 잇는 사목의 연속성 안에서 교리교사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복음 선포의 열정도 자랐다. 초창기 7명으로 시작한 교리교사회는 현재 12명으로 늘었다. 상현동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교육 과정은 1년에 2회 운영된다. 2011년에는 총 8개 반 중에 1개 반을 보좌 신부가 강의하고 나머지 7개 반을 평신도 교리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교회 차원의 역동적 프로그램 마련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위한 상현동 본당 교리교사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교리교사 이재야 씨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구차원에서 〈예비신자들의 날〉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 교구 내 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수도회, 연구소, 매체 등이 부스를 갖추고, 예비신자와 교구장 주교님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열자.”고 했다. 이를 통해 예비신자들이 교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깊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상현동 본당 교리교사회의 〈본당 교리교육이 잘 되려면〉

- ① 획일적인 교육 과정 진도표에 의존하지 않고 예비신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한다.
- ②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은 사전에 교리교사회 연구모임을 통해 지도한다.
- ③ 지식 전달보다는 관심과 정성 그리고 소통을 통한 체험 중심의 교리를 한다.
- ④ 예비신자 모집에서부터 세례 그리고 세례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토털 서비스 한다.
- ⑤ 교리교사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리교육을 수행한다.

세례 후속 교육

- 청주교구 용암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2년 5월 호

본당 신부는 새 영세자들을 1년 정도는 돌봐주고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앙생활 지속 상황을 체크하고, 후속 교리를 따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미는 새 영세자 주보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12월 세례식 다음 주부터 당장 '새 영세자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출석부 역할도 하는 새 영세자 주보

새 영세자 주보는 A4 용지 앞뒷면을 신부님 말씀과 교리 상식, 기타 읽을거리 등으로 채워 컬러 프린트로 인쇄한다.

그리고 성당 복도 게시판에, 세례받은 지 1년이 안 된 새 영세자들의 사진과 이름, 구역을 적은 칸을 만들어 새 영세자 주보를 한 장씩 게시한다.

새 영세자들은 주일미사에 오면 자신의 이름 아래에 게시된 새 영세자 주보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새 영세자가 눈에 띄게 된다.

물론 주보만 붙여두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본당 사목협의회에 새영세자관리부를 두고 새 신자의 출석 상황을 점검한다.

주일을 넘긴 신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해당 구역이나 대부모에게 연락하여 새 신자를 살펴보게 한다.

1년 개근한 신자에게 선물도 주는 등 관심을 갖다보니 다른 성당에서 미사를 보더라도 꼭 본당에 와서 보고하는 신자도 있다.

새영세자관리부는 매월 사목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출결 현황과 통계,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대부를 서더라도 대자에게 따로 관심을 가지기 힘든데, 새 영세자 주보를 챙겨 가는지만 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구역에서도 새 영세자 돌보기가 수월해졌다고 좋아한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입교 대기 시간은 3개월 이내

선교부를 세분화해서 예비신자관리부, 전입자관리부, 쉬는교우관리부, 새영세자관리부로 나누었다. 선교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본당 레지오 마리아에게 쉬는교우관리부를 맡기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여, 일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새영세자관리부가 1년 동안 새 영세자를 관리한다.

용암동 본당에서는 예비신자 교리반이 1년에 4개 기수가 있다. 예비신자 모집을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번 하

는 것이다. 교리 과정은 6개월이기 때문에 평소에 2개 기수의 교리반이 상시 운영되고, 새영세자관리부는 항상 4개 기수의 새 영세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난 기수가 관리가 끝나면, 새로 영세한 신자들이 관리 대상에 들어가므로, 3개월 간격으로 빠지고 충원되면서 60~80명 정도가 유지된다.

6개월 단위로 교리를 시작하면 중간에 입교 희망자가 있을 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교사도 힘들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겠다 싶어 아예 모집 시기를 4번으로 늘려 3개월 단위로 시작해서 교리 중간에 새 희망자를 받는 것은 일체 없도록 했다.

전문화·표준화된 교리 강사진

교리 수업은 과목별 답임제를 시행하여 기수마다 같은 강사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리 수업을 2~3과목씩 묶어서 과목 담당 교사가 있는 것이다.

보통 한 반이 마칠 때까지 10명 정도의 강사가 거쳐 간다. 이는 전문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예비신자의 입장에서 교육에 있어 반별로 별 차이가 없는 교리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

강사의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 예비신자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명도회(예비신자 교리 봉사회)를 운영하며 교구 교리신학원을 나온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 당시의 반 분위기가 세례 후 미사 참석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신자 교리반의 분위기를 화목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큰 관건이다.

쉬는 교우 명단은 사무실 앞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를 신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각자 주변의 쉬는 교우에게 관심을 갖고 분당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다.

이 외에도 외곽교우 배우자 단기 교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중고등부에 한해 인터넷 교리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선교 사목이 펼쳐지고 있었다.

새 영세자 후보를 발행하며 관리를 해보니 기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0%는 1년 개근, 40%는 가끔 주일을 빠지고 30%는 냉담을 한다. 판공성사 10%도 안 되었던 때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또한 새 영세자 후보는 한 해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 시작했던 문화동 분당에서는 김 신부가 떠난 뒤에도 새영세자관리부가 지속적으로 새 영세자 후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새 영세자 교육(하느님께 가까이!)

- 부산교구 화봉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0년 7월 호

새 영세자의 재교육을 통해 신앙의 진리와 교회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알며 그 가르침에 따라 내적으로 성장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또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본당 내에 적응하게 하고 본당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한다.

- 일시: 주일 미사 후 (아래 일정 참고)
- 대상: 새 영세자 및 신자 중 희망자
- 장소: 성전
- 진행: 성인교육분과장
- 교재: 새 영세자 신앙 적응 교육 자료집

교육 일정

구분	대상	기간	시간	봉사자
1차	2009년 새 영세자 22명	3~8월 월 1회 총 6회	첫 주 주일 미사 후	성인교육분과 중심
2차	2010년 새 영세자 전원	9~3월 월 1회 총 6회		1차 이수자를 보조 봉사자로 활용

세부 일정

일정	주제	내용	담당
제1주	본당에 대해 알아보시다	본당역사, 사목방침, 본당조직과 운영	본당회장
제2주	교회의 연중 흐름	교회의 전례력	전례분과장
제3주	신자의 임무와 교회 살림	신자의 6가지 임무와 교무금 책정 등	성인교육분과
제4주	성경	성경이란? 성경 읽을 때	성인교육분과
제5주	미사예절	성당에서는 이렇게, 미사 예절	전례분과
제6주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방법, 성체조배	전례분과

※ 천주교 부산교구 선교사목국 발행 '신 영세자 신앙적응 교육 자료집' 참고

진행 순서(예: 2주차-교회의 연중 흐름)

① 도입

매주 주제에 따라 신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 질문으로 관심을 끌며 교육을 시작한다.

예) 전례력은 교회의 달력이라고 했는데 일반 달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② 전개

전례력, 신자의 의무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도록 하되 지루한 강의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퀴즈 등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진행한다.

예) 매주 첫날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교회의 전례력에서 새해는 언제입니까?

③ 마무리

내용 정리를 통해 그날 배운 것에 대한 신자로서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한다.

예) 이렇게 교회의 달력에 의해서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함께 드리는 공식적인 의식이 전례입니다. 이 전례를 위해서 우리 성당에서는 전례분과와 제대회에서 늘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전례 꽃꽂이는 주일의 복음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주며, 묵상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꽃꽂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예비신자와 새 영세자 돌보기

- 대구대교구 범어 본당

■ 장병배 신부(대구대교구)·범어 본당 선교위원회 제공(2017년 12월)

범어 본당에서는 일 년에 세 차례 예비신자 교리반을 개설하고, 주님 부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성사를 거행한다.

예비신자 교리반은 화요일 오전과 오후반, 그다음 기수에는 목요일 오전과 오후반, 주일에 성인과 학생반으로 4개 반이 반복하여 개설된다.

보통 한 기수에 50명에서 90명의 예비신자들이 등록하며, 교리반 한 반에 최소한 2명의 봉사자를 두어 한 기수에 봉사자가 4명에서 12명 정도가 된다. 예비신자들이 많으면 분반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에 따라 봉사자가 충원되기도 한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예비신자들의 교리 출석과 미사 참례를 관리하고 피정과 성지 순례 등에 동참하여 그들을 돕는다. 또한 세례를 받은 뒤에도 첫 고해에서부터 3년간 계속해서 예비신자들을 돌본다. 주일미사 참례와 신심 단체에 가입, 판공성사 제때에 받기, 세례 첫 돌 잔치와 두 돌, 세 돌 잔치에 동반하며 공동체와 함께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하고 세 달이 지나면 대부분을 정하여 예비신자들의 협력자로서 활동하게 한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주 단위로 돌아가며 교리반의 간식을 담당하고, 피정과 돌잔치 음식은 꾸리아와 성모회의 협조를 받는다. 본당 공동체가 예비신자들과 새 영세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분위기가 된다.

여기서 본당 신부의 적극적인 인도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비신자만이 아니라 새 영세자의 신앙생활 돌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봉사자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새 영세자들 집중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

1. 새 영세자 환영식
2. 대부모와 만남의 날: 교리 기간 중 대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녁미사 후 비신자들과 예비 대부모들이 모여 게임도 하면서 서로의 친교를 나누도록 배려함.
3. 종합 교리 및 제 단체 소개
4. 성지순례: 교리 기간 중 한티 순교 성지, 관덕정, 성모당, 유스티노 신학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등을 방문하여 성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함.
5. 피정: 세례 받기 직전 본당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하고, 경건한 피정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모두가 영세 전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줌.
6. 세례식
7. 후속 교리

8. 첫 고해성사

9. 후속 반 모임

10. 돌잔치

11. 두 돌, 세 돌 기념 축하

- 매 교리시작 전 레지오 마리아에서 방문하여 떡과 차를 나누어 주면서 레지오를 홍보.
- 새 영세자들에게 카톡으로 매일 성경 그림 말씀을 전달하여 신앙의 끈을 연결시켜 주고자 함.
- 교리 시작 전 성가 연습을 하여 가톨릭 성가에 친숙하게 함.
- 대부모 선정 시 구역반 및 꾸리아를 연계하여 대부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제 단체 가입을 권유함.
- 모든 영세자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를 보내 성탄 판공을 보도록 유도.

■ 첫 고해 안내 편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형제, 자매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세례 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또 다른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지 못한 사랑의 기회를 성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선물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의 자리인 첫 고해성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첫 고해성사 -

일정: ○월 ○일(○요일) 저녁미사 참례로 시작 (성당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 (성찰과 방법 등)

21:00 고해성사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다면, 담당 봉사자님께 ○월 ○일(수)까지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간사: ○○○ (☎)

○○○○년 ○월 ○일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임 신부 ○○○

고해성사 준비를 위한 도움의 글

고해성사는 “성찰 - 통회 - 결심 - 고백 - 보속”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성찰

구체적으로 하느님과 나, 이웃과 나의 관계를 나누어서 성찰하며,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살피고 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며 잘못을 알아봅니다.

2. 통회

고해성사의 핵심은 통회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여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는 단계입니다. 통회가 크면 클수록 자신이 더 많이 변화되고 은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심

진정한 통회를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고 자신의 잘못을 교회를 통해 용서받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바꾸어 신앙생활을 새롭고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갖게 됩니다.

4. 고백

겸손한 마음으로 고해 사제 앞에 나아가 자신이 알아낸 죄를 하느님께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되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기승전결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낸 잘못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고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죄의 고백보다, “누구를 어떻게 미워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잘 못 고치는 나쁜 습관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수룩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면 은총을 통해 변화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은 하느님의 자비로 채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5. 보속

고백을 통해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해 사제가 정해 주는 보속을 충실히 실천해야 비로소 완전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속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만일 다음 고해성사까지 고해 사제가 정해진 보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고해성사를 볼 때, 이를 고백하고 다시 보속을 받아야 합니다.

고해성사 순서

1. 먼저 고해자는,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성찰)
2. 진정으로 뉘우치며(반성)
3.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결심)
4. “고백기도”와 “통회기도”를 바친다.
5. 고해소에 들어와서(고백)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고백한 지 (며칠, 몇 주일, 몇 달) 됩니다.
(알아낸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 다음)

-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제의 훈화와 보속이 있습니다.)

(사제의 사죄경)

+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 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몹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 아멘.

- 감사합니다.

십계명에 따른 양심성찰(고해성사 준비)

다음은 십계명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안내입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 보시면 성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 매사를 신앙의 빛으로 보고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자 노력하였는가?
-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 욕망과 쾌락, 돈이나 물질 등 세속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살지는 않았는가?
-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나?
-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의심하였는가?
- 하느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가?
- 이단이나 미신(굿, 점, 사주, 택일, 궁합, 부적) 행위를 하였는가?
-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지는 않았는가?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하느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한 적은 없는가?
- 하느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 신심 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는 않았는가?
- 신자임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겨냈는가?

제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주일과 대축일과 같은 공적 미사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주일미사를 빠진 적은 없는가?
-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보다 오락이나 휴식을 위한 날처럼 지내지는 않았는가?
- 전례주기에 생활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는가?
- 교회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부모에게 안부를 드림에 소홀한 적은 없었는가?
- 부모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았는가?
- 부모에게 대들거나 차라리 돌아가셨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
- 부모에게 효성과 존경과 순명을 드렸는가?
- 형제자매간에 서로 도우려고 노력했는가?
-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과 교훈을 주려고 노력했는가?
- 자녀를 편애한다든가 맹목적으로 두둔한 일은 없었는가?
- 자녀들을 주일미사와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았는가?
-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는가?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 싸우고 다툼으로 타인의 몸과 마음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
- 타인에게 원한, 미움, 복수, 질투, 악담, 욕설, 험담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 고의로 유산을 시키거나 낙태에 협조하지는 않았는가?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가?
- 불의하게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평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는가?
- 위선 행위, 자찬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 허위를 진실로 만든 적은 없는가?
-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는가?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정을 품거나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 의식적으로 타인과 혹은 혼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 음란한 생각이나 말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 의식적으로 음란한 그림, 영상, 글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제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가?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고용주나 고용인에게서, 누구에게서나)
- 도둑질이나 뇌물이나 불의에 협조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는가?
- 고의로 혹은 게으름으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
- 고의로 정당한 계약을 어겼는지? 청구서, 빚, 세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는가?
-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교육받을 수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 이웃사랑에 대한 성찰(추가 내용)

- 분별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 지나친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불편을 주었는가?
-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이 있는가?
-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통이나 시련을 지나치게 거부하였는가?
-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것만 챙기고 나눔에 인색하였는가?

- 짜증이나 성을 자주 내어 가족과 공동체에 불편을 주었는가?
- 나의 지나친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의 평화를 깨고 금이 가게 했는가?
- 나의 위신이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직했는가?
- 섬세한 사랑과 섬세한 관심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했던 이웃에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 가족과 이웃에게 친절했는가?
- 잘못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는가?

◎ 첫 돌잔치 초대장

+ 주님의 사랑과 평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범어 공동체는 세례성사로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분과의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러분의 세례 돌잔치를 위한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아 래 -

다가오는 성모승천대축일은 13기 세례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본당에서 여러분의 세례 첫 돌잔치를 정성껏 준비하고자 하오니 모두 함께하시어 신앙생활의 기쁨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모님께도 연락하셔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〇〇년 〇월 〇일 주일 교중미사 참례 후 11시 40분

장 소 : 1층 카나홀

행사 내용 : 본당 공동체 축하와 13기 세례자들의 신앙 사례 발표
점심 식사

※ 아주 특별한 일로 참석을 못하실 경우 〇월 〇일(주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식사 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연락처)

〇〇년 〇월 〇일

주임신부 〇〇〇 〇〇〇

선교위원장 〇〇〇 〇〇〇

◎ 두 돌 편지

+ 주님 찬미!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_____ 형제(자매)님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두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 본당 공동체는 세례 두 돌을 기념하며,
작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항상 본당 공동체와 함께 신앙 여정의 삶을 충실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빌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 ○○○ ○○○ 드림

◎ 세 돌잔치 초대장

+ 주님의 사랑과 평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2013년도에 세례를 받은 3기, 4기, 5기 여러분의 세례 세 돌이 되는 해입니다.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출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라도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년 ○월 ○일 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1층 카나홀

※ 아주 특별한 일로 참석을 못하실 경우 ○월 ○일까지 선교위원회에 연락주시면 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 ○○○ ☎)

○○○년 ○월 ○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임신부 ○○○ ○○○
선교위원장 ○○○ ○○○

◎ 교리 봉사자 활동 지침 및 내용

범어 본당 선교위원회

1. 목적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예비신자들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사귀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을 실현하도록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2. 자질

신앙을 바탕으로 주님을 따라 살며,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갈망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어야 하며 하느님의 뜻에 맞는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월례회의

1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월례 회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4. 교리 봉사자의 할 일

※ 예비신자 환영식 준비

준비물: 다과, 장미꽃(행사 당일 성전 제대 앞에 준비), 신청자 명찰, 신청서, 예비신자 봉헌서, 필기구,
미사통상문

환영식 당일 신규 접수대 따로 마련

- 1) 1~2주 전에 사전 회의: 사전 접수하신 분께 환영식 안내 문자 후 전화하기(환영식 전에 접수한 사람들에게 환영식 장소와 시간, 교리 시작 날짜, 시간을 미리 안내)
- 2) 예비신자 봉헌서, 필기구 준비
- 3) 사무실에 접수된 전체 명단 준비와 명찰 만들기
- 4) 예비신자 입장 시 전체 명단에 출석 표시 및 당일 오신 분 명단 작성
그 전 기수 봉사자들이 나와서 접수 받음
당일 접수한 예비신자는 입구에서 명찰을 만들어 줌
해당 기수 봉사자들은 명찰을 달아 주고 미사통상문, 주보 나누어 줌
- 5) 자리 안내(해당 기수 봉사자들이 안내함)
예비신자 자리를 별도로 마련(예비신자 옆자리에 인도자와 함께 앉아 미사 안내)
- 6) 봉사자들은 미사가 시작되면 예비신자석에 함께 앉아 미사 참례를 한다.
- 7) 미사 후 환영식 장소로 안내한다.
- 8) 환영식장에서 봉사자 소개를 통해 예비신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 첫 교리 시간 전 준비 사항

- 1) 환영식 후 반별 명단 작성되면 담당 봉사자가 첫 교리 시간 전에 전화로 연락.
- 2) 명찰 만들기: 사무실 컴퓨터에 양식 있음.

- 3) 전체 출석부를 선교위원회 양식으로 준비.
- 4) 예비신자 면담카드 작성.
예비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작성 후 수거해 보관(사진 1장 제출).
- 5) 가톨릭 주요 기도문: 인원 수보다 넉넉히 준비.
- 6) 개인 출석 카드에 봉사자 연락처 기재해서 배부.

※ 교리실에서 해야 할 일

준비물: 명찰, 출석부, 개인 출석 카드, 예비신자 면담 카드, 기도문, 출석 도장, 미사통상문, 필기구, 보드마카, 지우개, 마이크

- 1) 예비신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리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리 시작 30분 전 강의실 청소. 차 준비 완료. 교리실 입구에 '교리 중'이라는 안내 팻말 준비.
- 2) 출석 카드는 미사와 교리 출석 체크 후 예비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예비신자들이 휴대함.
- 3) 예비신자들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출석 카드를 받아 출석 확인함.
이때 주일미사 참례 여부도 함께 확인해 참례하지 않은 분들은 미사를 참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는 점을 강조.
- 4) 교리 시작 전에 간식과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친절히 권유.
- 5) 교리가 시작되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리 중에 들어오는 예비신자들을 자리로 안내.
- 6) 교리가 끝나면 다음 주 준비물과 전달 사항 등을 이야기해 주시고, 친근하게 인사(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비신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도록 노력).
- 7) 교리실 마무리 정리.
- 8) 교리 후 기수 봉사자 단체톡 방에 출석 인원을 올림. (예: 목요 오전반 총 20명, 출석 18명, 결석 2명)
- 9) 교리 수업 전날 예비신자들에게 교리 참석 독려 문자를 보냄(늦어도 당일 아침 전까지).
교리 시작 30분이 지나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예비신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출석 가능 여부 확인하고 결석한 예비신자에게는 다음 교리 시간에 꼭 참석하도록 권유.
- 10) 예비신자 교리서는 2주째에 전체 인원 파악해 사무실에 주문해 3주차 배부.
- 11) 출석은 환영식을 제외하고 첫 교리 시간부터 적용.
결석은 3회까지 허용하는데 2회 결석하면 담당 교리교사(신부님, 수녀님)께 보고해 면담을 거쳐 교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의로 대응하지 않음.
- 12) 혼인 관계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는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서류는 봉투에 넣어서 이름 적은 후 제출하도록 하고, 오직 신부님 면담 시 참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밝힘.
대부모 기재 사항 확인 - 이름, 세례명, 생년월일(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본당, 전화번호 - 가끔 견진 받지 않은 대부모, 기재 사항과 다르거나 냉담 중인 대부모를 만나기도 한다. - 사무실에서 확인.
- 13) 세례받기 전까지의 일정은 진도표와 월례회의 결과를 참고, 궁금한 사항은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문의.
- 14) 결석으로 인한 출석 문제나 예비신자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교리교사(신부님, 수녀님)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대처.
- 15) 교리 중도 포기자는 간사에게 예비신자 면담 카드와 명단 알려주어 다음 기수에 교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함.

※ 대부모/대자녀 만남의 날

- 1) 저녁 미사 후 성전에서 함.
- 2) 간식 준비(떡과 음료수).
- 3)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물품 준비(A4 용지, 색연필).
- 4) 진행은 수녀님, 선교위원장
- 5) 첫 영성체자들은 참석 안 하기로 함(사유: 대부모 찾기가 쉽지 않음).
- 6) 대부모가 오지 않은 예비신자는 봉사자들이 도와줄 것.

※ 성지순례

- 1) 참가 인원 파악: 예비신자, 재수강자, 동반가족(미취학 아동 구분), 봉사자, 지도 수녀, 기사 등. 한 달 전에 공지하고 순례 2주 전 참가 인원 확정.
- 2) 차량 예약(사무실에 부탁), 성지 예약, 점심식사 예약.
- 3) 일정표 만들어 봉사자별로 역할 분담(십자가의 길 기도 및 승차 시 인원 확인).
- 4) 동반 가족 회비 걷기.
- 5) 준비물 챙길 것(묵주, 성지순례 책자, 주보, 비상약 등).
- 6) 간식 준비(1인당 3천 원)
- 7) 예비신자 개인 준비물 공지.
모자, 운동화, 편한 복장, 묵주, 주일 봉헌금, 겨울에는 따뜻한 옷차림 강조.
- 8) 출발 기도(신부님 강복), 도착 기도(신부님 강복 후 해산).

※ 선발 예식

선발 예식이란?

예비신자들은 선발 예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세례 후보자가 된다.

교회는 대부모와 교리교사(1차 면담)의 증언을 듣고

- 예비신자 자신의 신앙과 세례를 받으려는 결심은 물론
- 예비신자의 삶의 변화를 보고 세례 후보자로 선발하는 것
- 예비신자는 입교성사 준비(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최종 준비 예식)

- 1) 선발 예식에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 후 꼭 참여토록 해야 함(대부모도 필참).
- 2) 각 반 봉사자들은 9시 50분까지 세례명이 적힌 명찰을 준비해서 성전 입구에서 예비신자들에게 나누어 줌.
- 3) 첫 영성체자들은 선발 예식에서 제외함.
- 4) 성전에 좌석표 붙이기(예비신자석, 대부모석)
- 5) 예비신자 선발 청원서 작성 시(000외 0명) 당일 온 사람 숫자를 적고 그 아래 명단에는 세례 대상자 인원 전체 이름을 다 적을 것.
- 6) 11기부터 선발 예식과 피정을 같은 날 함.

※ 피정

- 1) 선발 예식부터 시작 ~ 오후 4시까지
- 2) 점심식사(소고기국 또는 비빔밥)
- 3) 성가 부르기(선창자와 반주자는 원장 수녀님 담당 가톨릭 성가책 준비).

- 4) 피정 프로그램(원장 수녀님 담당) - 피정 시 필요한 물품 준비(A4 용지, 색연필, 전지, 봉투).
- 5) 예비신자 본인 후보 성인에 대해 공부해 오기.
- 6) 환영 글귀 부착.

※ 제 단체 소개

- 1) 제 단체 소개는 각 반 교리 시간에 해당 단체가 찾아가서 함.
- 2) 새 영세자가 레지오 마리에 가입 시 반드시 해당 레지오 단장에게 부탁할 것.
(새 영세자 입단 후 2년 안에 간부를 시키지 말 것과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함.)
- 3) 꾸리아, 전례위원회, 사회복지, 성가대, 청년위원회에서 참여하고 있음.

※ 종합 교리, 세례식 예식 연습

- 1) 주임 신부님 종합 교리 시간 - 대부모와 함께 참석.
- 2) 저녁미사 후 실시함. 간식 준비: 떡과 음료수 준비단, 겨울에는 따뜻한 차가 좋음: 간사 담당/떡 비용은 꾸리아에서 부담함.
- 3) 종합 교리까지 전 출석을 해야 성실상 대상이 됨(각 반 개근자 파악해서 보고).
- 4) 10기부터 종합교리와 세례식 연습을 같은 날 함.

※ 세례식 전 준비

- 1) 준비 서류: 혼인 관계 증명서 1통,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사진 1장
혼인 관계 증명서(미혼일 경우에도 받아야 함)를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
 - 비신자가 사회혼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혼을 한 경우에 세례 받기 전에 주임 신부님과 첫 번째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봉사자가 서류를 받을 때 본인이 보는 앞에서 절대 펴보지 말며 봉투 그대로 파일에 넣는다.

〈면담 카드 작성 시 주의사항〉

- 첫 교리 시간에 면담 카드를 주로 작성하는데 많은 예비신자들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빈칸이 많은 경우가 있다.
- 1차 면담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 면담 카드를 나눠줘서 빈칸 없이 상세히 적을 수 있도록 함.
- 대부모님의 성함 및 세례명 그리고 본당,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상세히 적는다.
- 출석 체크 및 미사 참례(주임 신부님께서 참고 및 면담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는 예비신자가 갖고 다니는 출석부와 똑같이 작성토록 해야 함.
- 미사 참례는 주일 미사임.

〈교무금 신립서, 감사 예물, 초값 및 사진값〉

- 세례식 2주 전 완료.
- 세례식 전 초값 및 세례 사진값 받음.
- 가족이 함께 세례받을 경우 사진은 1장 값 받고, 초값 각 5천 원 받음(본인 의사 확인).
- 교무금 신립서와 감사 예물, 초값 및 사진값 받아서 사무실 제출.

※ 세례식 준비

- 1) 사무실: 꽃과 명찰, 좌석표 만들기, 사진사에게 연락.
각 반 봉사자들은 세례식 전에 예비신자 이름과 세례명 꼭 확인할 것.

- 2) 초 준비(수녀님 담당).
- 3) 성실상 준비: 명단 만들어서 제대에 1부, 선교위원장에게 1부
- 4) 세례식 연습 (종합교리 후, 대부모와 함께 참석)
 - 좌석표대로 앉기.
 - 신부님 진행.
 - 양형 영성체 연습(대부모도 양형 영성체 함).
 - 세례식 당일 복장 준비.
 - 세례식 때 대부모는 대자녀 세례명을 불러줌(예: 김 마리아입니다).
- 5) 세례식 당일 준비물 공지
 - 자매(미사보 준비), 봉헌금 봉투
 - (성탄 때는 아기 예수님 구유 경배 예물도 준비, 이때 미리 구유 경배에 대해 설명할 것.)
- 6) 세례 대상자는 세례식 당일 1시간 전 명찰과 코사지 달고 자리에 착석.
- 7) 세례 후 다음 주일 신 영세자가 전례를 담당함.
 - 예물 봉헌 2명, 독서 2명, 신자들의 기도 4명
 - (미리 정해서 종합교리 후 봉사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연습시키고 전례 당일에도 도와줌.)
- 8) 첫 영성체자들은 예식 일절 없음(대부모 오지 않아도 됨). 단, 촛불만 본인이 나와서 갖고 가면 됨
- 9) 성물은 단체 축복 받음.
- 10) 해당 봉사자들은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같이 찍어야 함.

※ 후속 교리

- 1) 세례 후 2주간 새 영세자 교리 진행함(교재: 새 영세자를 위한 생활 교리).
- 2) 후속 교리 전 사무실에서 세례식 사진, 교무금 통장 받아서 배부함.
불참자에게는 따로 연락해서 배부하는데 늦어도 첫 고해까지는 꼭 배부하도록 함.
- 3) 후속 교리 시 첫 고해 날짜 공지.
- 4) 간식 준비.

※ 첫 고해성사

- 1) 첫 고해 대상자 앞으로 2주 전 성찰의 필요성을 담은 편지 발송함. 편지는 선교위원장 명의로 보냄.
- 2) 후보에 공지.
- 3) 1~2주일 전 전화로 인원 파악 및 참가 독려.
- 4) 첫 고해 때 결석한 새 영세자는 계속 연락해서 꼭 첫 고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5) 첫 고해 인원 보고(각 반 담당 봉사자).
- 6) 첫 고해를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해당 교리 반 봉사자들이 판공성사 독려 및 관리.
 - 첫 고해, 첫 판공, 첫 돌과 각 판공 후 월례회의에는 각 기수 봉사자 참석해서 판공 결과와 행사 참석에 대한 보고를 직접 함.

※ 돌잔치

- 1) 대상자 앞으로 4주 전 편지 보내기.
대부모에게도 봉사자들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기.
- 2) 후보에 2주 이상 공지.

- 3) 2주일 전 전화로 인원 파악 및 참가 독려.
- 4) 신앙 사례 발표자 수명 선정, 발표 준비.
- 5) 참석자 명찰 만들기(대부모 포함): 각 반 봉사자.
- 6) 주임 신부님 선물과 감사 카드 준비(손 카드 작성 후 주임 신부님 사인 받음).
- 7) 교중 미사 때 성가대 특송 부탁.
- 8) 참석자 반별 명단 준비. - 행사 후 참석자 체크해 기록.
- 9) 교중 미사에 별도 좌석 마련(앞자리로 봉사자 안내함).
- 10) 점심식사 준비(꾸리아에서 준비).
 - 메뉴: 밥+미역국+반찬 5가지+고기 한 종류+과일+물 준비.
 - 떡은 팔시루떡(케이크식)으로 준비(초와 성냥 준비).
 - 미리 케이크 절단할 대표 선정.
- 11) 돌잔치 때 결석한 새 영세자는 계속 연락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
- 12) 교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신 영세자 돌보기.
- 13) 성가 부르기: 선창자와 반주자(노래는 가톨릭성가)
- 14) 환영 글귀 및 풍선
- 15) 단체사진 촬영.

※ 두 돌 축하

- 1) 축하 선물로 신앙 서적 보냄.
- 2) 3~6기: 송용민 신부 저, 『세상 속 신앙 읽기』(주임 신부님 축하 글 함께)

※ 세 돌 축하

- 1) 3기 합동 축하 다과회
- 2) 2016년에는 8월 말에 3, 4, 5기 합동 다과회 진행.

※ 세례자 돌봄

- 1) 각 반 봉사자는 세례 후 3년간 판공성사 전 연락해 독려 바람.
- 2) 특히, 첫 일 년 동안은 첫 고해, 첫 판공, 첫 돌 등 밀착해서 관리를 부탁.
- 3) 판공 결과는 사무실에서 받아서 따로 작성해 관리.

※ 예비신자 환영식 선교위원회 준비 사항

- 1) 1~2주 전에 봉사자 O.T. 실시. 사전 접수 명단 배분해서 연락하도록 함.
- 2) 예비신자 봉헌서, 볼펜 준비.
- 3) 사무실에 접수된 전체 명단 준비와 명찰 만들기.
- 4) 예비신자에게 나눠줄 꽃 준비(장미꽃 준비).
 - 교중 미사 공지사항 시간에 주임 신부가 예비신자들에게 직접 나눠줌. 이때 성가대는 특송.
- 5) 예비신자 입장 시 명단 체크, 당일 접수대 따로 마련 - 환영식 인원 보고.
 - 전 기수 봉사자: 접수 담당

- 해당 기수 봉사자: 안내 담당
- 명찰을 달아 주고 주보, 미사통상문 나눠 줘.
- 6) 성전 앞자리에 마련된 좌석에 예비신자, 인도자와 함께 앉아서 미사.
- 7) '환영'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사무실에 부탁) - 환영식 1개월 전에 부착.
- 8) 환영식 후 다과 준비
 - 음식: 떡, 과일, 과자류, 음료수, 겨울에는 따뜻한 차(옥수수차 등)
- 9) 환영식 후 반별로 명단이 작성되면 담당 봉사자가 첫 교리 시간 전 전화로 연락.
- 10) 첫 교리 시간 준비 사항: 명찰, 반별 출석부, 예비신자 면담 카드, 출석 도장, 가톨릭 주요 기도문, 개인 출석 카드 준비.
- 11) 다과회장에 환영 글귀

※ 교리반 중도 포기자 명단 관리해서 환영식 전 연락해서 교리 받도록 함. - 간사 담당.



신자 재교육-성모 신심 세미나

- 수원교구 동백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0년 7월 호

동백 본당은 수요일 저녁마다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모 신심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200명에 가까운 신자들의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7주간 진행되는 성모 신심 세미나는 1~4주까지의 교육과 5주째 드리는 봉헌 예식을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과 신심을 새롭게 하며, 6, 7주 교육을 마무리로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2010년 4월 7일~5월 26일, 매주 수요일 19시 30분~22시

장소: 동백 제2성당 성전

교재: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성모신심 세미나

성모 신심 세미나 일정표

주간	일자	주제	1일 교육 시간표
1주	4월 7일	성모 신심에 초대된 분들에게	18시~19시 30분 봉사자 기도모임, 준비 19시 30분~19시 50분 찬양 19시 50분~20시 15분 묵주기도 및 묵상 20시 15분~21시 15분 강의 21시 15분~21시 50분 그룹 대화 및 나눔 21시 50분~22시 파견
	4월 7일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	
2주	4월 14일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3주	4월 21일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	
4주	4월 28일	봉헌 준비	
5주	5월 12일	봉헌 예절	
6주	5월 19일	성모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7주	5월 26일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릅니다	
		파견 미사	

그 외 프로그램

① 성경 필사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 매주 교중 미사 공지 사항 시간에 새로운 공책 수여식이 있다.
- 2010년 11월 21~27일(성서 주간)에 필사 노트 전시회가 있다.

- '쓰기 성경'공책 구입 → 신부님 싸인 받기 → '성경 쓰기 수여자 명단' 인적 사항 기록

② 그룹 성경 공부반

직장인반, 어르신반 등 연령별, 특징별로 공부반을 운영하며, 어르신반은 차량 운행도 함께하여 참여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③ 부모 교육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앙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차: 2010년 2월 1일(월) 10시~14시 20분 강연, 조별 대화, 토론 및 질문

- 2차: 2010년 2월 6일(토) 20시 30분~22시 강연

- 주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 방법 I, II

④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본당 홈페이지 안에는 다양한 코너들이 있다. 그 중 '가톨릭이란?' 코너 안에 동영상 교리, 가톨릭 교리, 칠성사, 전례와 문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신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자료실' 속에는 성체조배, 성경, 성인, 성화 등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올리고 있다.

사목 아이디어 모음

- 교리교육 -

■ 새 영세자 재교육

약 8개월에 한 번 세례식이 있는데(6개월 교육→세례→2개월 예비신자 모집), 예비신자 모집을 위해 전 신자가 54일 기도를 하고, 레지오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약 20여 명 정도가 입교하는 상황이다. 예비신자 환영식은 본당 선교분과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환영 미사 후 6개월 교리교육 안내와 교리반 편성을 한다. 세례성사 후 후속 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 영세자 재교육'을 6개월 이상 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은 세례식 후 1~2주 후부터 주 1회, 모세오경, 마르코 복음(『거룩한 독서』 1권을 교재로 이용)을 통독하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다. 새 영세자들이 재교육이 끝난 후 단체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레지오에 가입하도록 한다.

- 서울대교구 장안동 본당 제공(2017.12.)

■ 세례 첫 돌 행사

선교위원회의 선교위원들이 세례받은 지 1년 된 새 신자와 대부모에게 연락을 한다.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새 신자가 못 오면 대부모라도 오도록 초대한다. 주일 교중 미사 때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미사 공지사항 후에 앞으로 나오게 해서 소개를 하고, 큰 초를 선물로 준다. 미사 후에 따로 준비된 다과회 자리에서 첫돌 케이크를 자르게 하고, 미리 준비된 성경 말씀 구절을 선택해서 뽑도록 한다. 그리고 세례성사 후 1년 동안 신앙생활에 관한 체험담을 나누도록 한다. 대부모도 함께 참석해서 대자녀와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마친다.

- 청주교구 사창동 본당 제공(2017.12.)

■ 새 영세자 후속 생활 교리교육

새내기 신자들에게 5주에 걸쳐 신자의 의무와 지켜야 할 축일, 신심 단체 소개와 고해성사 하는 법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준다. 세례 동기 모임의 회장도 선출하여 만남을 이어가도록 장려한다. 기존 신자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며, 신심 단체에 가입하는 등 초기에 튼튼한 신앙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당에서 12년째 지속하고 있다.

- 제주교구 연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3.1.20.

■ 영시니어 아카데미

영적 심화를 위한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40대 이상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강좌를 개설하여, 개강 미사를 시작으로 1년에 2학기(학기당 12주), 주 1회 1시간 30분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1) 오리엔테이션: 한국의 교리서
2	(2) 하느님 앞에서 인간: 삶의 목적
3	“숲에서 만나는 하느님과 나”
4	(3) 진리의 원천: 성경과 성전, 신문
5	“하느님의 아들”
6	“100세 신인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	(4) 하느님의 정체: 삼위일체론과 창조론
8	(5) 인생의 현주소: 인간론과 원죄론
9	“100세 시대의 안정적인 가계 자산 운영”
10	“마더 데레사”
11	(6) 구세주의 정체: 그리스도의 강생
12	(7) 구세주의 역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종강식)

– 부산교구 남산 본당, 『본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 모듬』(부산교구 선교사목국)

■ 5분 교리, 공의회 읽기

주일 미사 공지사향 시간을 이용해 짙막한 교리교육 시간을 갖는다. 주보와 함께 교리 내용을 담은 간지를 배부해 신자들이 공지사향 시간에 소리 내어 이것을 읽은 후 사제가 짙막한 해설을 곁들인다. 교리 내용은 주임신부가 직접 준비하는데, 5년 과정으로 계획하여 사회교리, 혼인법 내용까지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공의회 읽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진행되는 이 교육은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의회 문헌을 직접 읽고 이를 교회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올바른 평신도의 역할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연초에는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 분과장, 지역장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두 번 반장 교육이 실시된다.

– 수원교구 광복 본당, 가톨릭신문 2001.2.18.

■ 찾아가는 ‘선교봉사단’

선교봉사단은 노약자 및 환자, 지체 부자유자들을 직접 찾아가 예비신자 방문 교리를 시행하고 있다. 교리를 받는 이들의 대부분은 병원 환자들로서 말기 환자부터 입원 환자까지 다양해 교리 내용과 기간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교리를 받은 환자들은 본당 신부가 면접한 후 개별적으로, 또는 본당 세례식에 맞춰 영세를 주고 있다. 선교봉사단 봉사자는 모두 7명으로 교리 담당과 사후 관리 담당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단원 자격은 성서와 교리지식을 갖춘, 병원 봉사 경험이 있는 신자들로서 본당 신부로부터 일정 교육을 받은 이들로 구성돼 있다. 봉사 단원들은 교리를 받는 대상자들의 처지를 감안, 4대 교리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리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체 교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교안은 성서에 근거를 두고 예비신자 교리서를 참조, 본당 신부의 인준을 거친 것으로 선교봉사단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서울대교구 오금동 본당, 가톨릭신문 2002.2.24.



떼제 기도

■ 출처: 『사목』 2006년 9월 호

순한 노랫말과 쉬운 곡조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떼제 노래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피정, 캠프, 연수, 미사 시간 등 청소년, 청년 사목을 하는 데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기도할 줄을 모르거나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때, 또 기회가 좋건 나쁘건, 공동체가 함께 마련하는 소박한 기도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삶에 샘물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떼제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 이 기도의 시간에 이웃의 교회를 초청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교회 일치를 위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기도를 바치는 것이 일치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 참조).

1. 떼제 기도의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떼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사목자가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 모임을 열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많은 수가 참여하길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기 내면의 삶을 발견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소망한다면 무언가 가능성을 발견한 셈이다. 비록 아주 멋진 기도가 아니라 해도 몇몇 사람이 함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도가 일상생활 속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며,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기도 모임은 각기 흩어져 있던 한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다.

1) 장소

이런 종류의 소박한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의 수가 적다면, 공간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커다란 방은 친밀감을 주지 못한다.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기도에 집중하려면 침묵이 매우 중요하므로, 밖에서 나는 목소리나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방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책상 또는 탁자가 있는 강의실 같은 곳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당의 성체조배실이나 소성당 등이 안성맞춤이다.

떼제 기도 중에는 참석자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앞쪽 공간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이콘을 한두 개 놓아둔다. 기도 속에서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할 필요가 있는 나눔 시간에만 서로를 향해 앉도록 하고, 기도 시간 중에는 서로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눈을 감거나 반쯤 뜬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된다. 또한 초를 몇 개 밝혀 둔다. 온화하게 떨리는 촛불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조명은 눈부시지 않고 은은하게 악보를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로 한다.

2) 떼제 노래 익히기

떼제 노래들은 『주님을 찬양하라』(가톨릭 출판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떼제 노래집에서 뽑는다. 새로 나온 떼제 노래들은 서울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구할 수 있다. 그날 부를 노래를 복사해서 한 페이지에 편집한 뒤 그것을 사람 수에 맞게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기도 시간에 책장을 넘길 필요가 없게 된다. 좀 더 생기 있는 찬미의 노래는 처음과 끝에, 고요한 노래는 침묵 시간 앞뒤에 배치하도록 한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두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한다.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베이스나 다른 파트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멜로디를 정확한 박자에 맞추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전체의 기도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도록 한다. 어떤 떼제 노래도 강한 비트에 맞추어 부르지 않으며, 리듬에 따라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노래를 『가톨릭 성가』에서 뽑아 한두 곡 정도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비트 있는 노래는 피한다.

떼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상을 위하여 반복하는 것이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노래가 노랫말 이상의 기도가 될 때까지 거듭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른다. 몇 번을 부를지 미리 정해 둘 필요는 없다.

- ① 악기: 오르간이나 기타처럼 잘 어울리는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주를 할 수 있다. 반주는 너무 크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며, 드럼이나 타악기는 쓰지 않는다.
- ② 솔로: 떼제 노래 CD에서는 솔로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쳐 주는 노래가 탄탄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 몇 가지 솔로 악보는 서울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구할 수 있다.
- ③ 반복: 떼제 성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데에) 어떤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목상 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순간이 있게 마련인데, 여덟 번 이하로 반복하는 것은 너무 짧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반복을 멈추어야 할지 구분하는 것인데, 한 명이 마지막 소절에서 ‘아멘’을 노래하며 마침을 이끌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몇 번 반복하겠다고 횡수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신 숫자를 세는 데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2. 기도의 순서

1) 시작 성가: 1~2곡 정도를 부르며 주님을 초대한다.

2) 시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시편을 한 구절씩 읽는다.

한 구절씩 읽고 그 뒤에 ‘알렐루야’를 노래하여 응답한다. 정해진 시편 전체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해하기 쉽고 가슴에 더 와닿는 구절들을 잘 골라 읽거나 노래한다.

3) 복음: 이런 기도 모임에서는 대개 한 편의 독서면 충분하다. 성경의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길지 않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는 것으로 한다. 그날의 복음, 또는 그 전 주일이나 다가오는 주일의 복음을 읽는 것도 좋다. 성경 본문은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다. 미사 때 쓰는 화답송을 독서 전후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정할 수 있다.

4) 떼제 노래: 성경 말씀에 대한 화답송으로 묵상 노래를 부른다. 한 곡 이상 할 수 있다.

5) 침묵(10-15분): 사람들은 처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침묵하는 것을 힘들게 여긴다. 독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한다. 그렇지만 침묵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도(正道)가 없다. 침묵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우리 마음의 침묵 속에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침묵 속에 그저 '머무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인생에 대한 심각한 질문, 중대한 결정, 그리고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 삶의 모든 것과 모든 이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시간이다. 분심이 드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그 안에서 평화를 간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간에는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잔잔한 음악을 흐르게 하면 좋겠다는 유혹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한다. 가능한 한 완전히 침묵하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10분 정도는 침묵 시간을 갖는다.

6) 떼제 노래

7) 청원 기도: 한두 사람이 미리 준비한 기도를 바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기도를 자유롭게 바칠 수도 있으며, 둘 다 바칠 수도 있다. 특별한 축일이나 전례 주기 때에는 성무일도에 나와 있는 청원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떼제 노래의 'Kyrie eleison' 모음 부분에서 한 가지를 고르거나 '주님, 들어주소서.'를 노래한다.

자유 기도는 간결하게, 소리 내어 기도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지향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지나치게 개인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례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의 보편성과 교회의 일치성을 드러내고자, 뉴스에서 듣게 되는 세계 곳곳에서의 고통스런 상황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준비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욱 깊은 기도의 삶으로 초대받게 된다. 섬세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고통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민에 더욱 예민해지고, 거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8) 마침 기도: 로제 수사의 기도를 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잘 아는 짧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으며, 그날 미사의 본기도를 바칠 수도 있고,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사제가 강복을 줄 수도 있다.

9) 마침 성가(한 곡 이상 할 수 있다.)

10) 기도의 마침: 기도 시간을 갑작스럽게 끝내는 것은 좋지 않다. CD로 떼제 노래 한두 곡을 틀어 두면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즈음에 공동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도가 끝난 뒤에는 나눔 시간을 갖는다. 나눔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한 내용들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과를 차려 두고,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

※ 그 밖에: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예식을 하는데, 이를 기도 모임에 참가하여 할 수 있겠다.

- ① 십자가 경배: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동방 교회의 전통을 따라 십자가 이콘 주위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십자가 이콘을 교회의 중앙에 놓고, 긴 시간 동안 각자 나와 손이나 이마를 십자가에 대고 기도한다. 이는 각자의 짐과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며, 고통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 ② 빛의 예식: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예식과 철야 기도를 하며 부활을 고대한다. 입장하면서 받은 작은 초를 손에 들고 부활 노래에 맞추어 복음이 낭독되는 동안 하나씩 돌아가며 불을 밝힌다. 이는 자기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맞이하고, 교회와 함께 '세상의 빛'이 되리라는 소명을 경축하는 축제이다.

3. 떼제 기도의 지향

이와 같은 묵상 기도는,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이것은 내면의 원천을 새롭게 해 준다. 침묵 가운데 듣는 한 소절의 말씀이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어떤 것의 결과가 때로는 아주 극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때에는 함께 침묵하는 시간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떼제 기도의 밑바탕에서 살아 숨 쉬는 그리스도인 비전은 내면의 삶과 인간적 연대의 순환적 관계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 등 사회 속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과 관련한 인간적 연대들로 짜여 있다. 이러한 연대에는 기도뿐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도 포함되어 있다. 내면의 삶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하느님 현존의 신비로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원천을 거기에서 찾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친교는 핵심적인 그리스도교의 신비이다. 많은 이들은 이런 종류의 소박한 기도가 그 일치, 친교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렇지만 떼제 기도가 강하게 솟구치는 감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도 뒤에 얻어지는 느낌은 흥분보다는 평화로움이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바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한 번에 그치는 실험적인 시도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물론 한 달을 주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기회를 갖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규칙적인 실행을 통해 각각의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국면으로 더욱더 철저히 진입해 들어가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구체적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결정적인 투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 떼제에 관한 정보

※ 프랑스 떼제 홈페이지: www.taize.fr

떼제에 관한 소개, 기도 방법 등의 안내가 있으며, 떼제 노래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부분의 정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 한국 떼제 공동체 홈페이지: <http://org.catholic.or.kr/tejegong/main.htm>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한국 떼제 공동체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하는 공동체 수사들의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관련 도서

로제슈츠, 『떼제-일치의 비유를 실천하는 공동체』, 분도출판사, 1984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묵상 찬미』, 분도출판사, 1984년.

『이 세상 끝까지 순례자가 되어』, 떼제 공동체 엮음, 분도출판사, 1987년.

『님의 사랑은 불이어라』, 로제 수사의 일기와 묵상 모음, 생활성서사, 1990년.

호세 발라도, 『떼제 이야기』, 분도출판사, 1997년.

『주님을 찬양하라』, 떼제의 묵상 노래 모음, 가톨릭출판사, 1999년.

※ 카세트와 CD

〈칸타테〉, 〈알렐루야〉, 〈부활〉,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이 있는 곳에〉 5종, 성 바오로 다솜미디어

※ 비디오

〈떼제-신뢰가 있는 곳〉, 28분, 분도 시청각

떼제 기도와 영화를 이용한 수난 묵상

■ 출처: 김영주 수녀(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 『사목정보』 2008년 2월 호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해야 하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봄 직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삶을 바라볼 때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숨을 내놓는 사랑: 포기, 수용, 희생, 용서...,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그 사랑으로 투신할 용기를 갖게 할 것이다.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와 ‘떼제 성가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그분의 고통과 성부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수난 묵상 프로그램은 성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 정도 성당이나 경당에서 기도할 수 있다.

준비물

소품: DVD(<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 CD(장사익, <하늘 가는 길>, 1995), 떼제 성가 악보, 대형 십자가 1개, 소형 십자가 5~6개, 행렬용 초와 촛대 2개, 기도 분위기를 위한 여러 개의 초, 해설·선창자를 위한 손전등 3개, 마이크 3개

기자재: 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노트북, CD 플레이어

봉사자: 해설 2명, 성가 선창 1명, 오르간 반주 1명, 십자가 복사 4명, 초 복사 2명

환경 준비

- ① 기도 분위기가 나도록 성당(경당)을 꾸민다. 떼제 기도 사진을 참조할 수 있다.
- ② 제단 위나 적당한 곳에 작은 십자가 5~6개를 거리를 두고 놓아둔다.
- ③ 신자들이 침묵 중에 성당(경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촛불들에 불을 당겨놓고 묵상 음악도 틀어 놓는다.
- ④ 성가 악보를 준비해두고 떼제 성가를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 묵상 시작 전에 성가 연습을 미리 해두면 좋다.

진행 순서

- ①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바로 상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단 주위를 묵상을 도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다. 대형 십자가를 세울 자리를 미리 정해놓고 작은 십자가들은 미리 가져다 놓는다.
- ② 신자들이 성당(경당)에 모이면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준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겿세마니 길을 걷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돌아가시는 장면’까지만 보여준다(50분 정도 소요). 고개를 떨어뜨린 장면에 화면을 고정해둔 채 끝날 때까지 그

대로 둔다.

- ③ 영화 상영이 끝나면 바로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장사익의 〈하늘 가는 길〉을 틀어놓는다. 성당(경당)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형 십자가를 든 4명의 신자들이 두 명의 초 복사와 함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음악에 맞추어 신자들 사이로 천천히 입장한다. 십자가가 입장하는 동안 신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본다.
- ④ 행렬하여 모셔 온 대형 십자가를 제대 가운데 혹은 신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적당한 곳에 세워두고 그 옆에 두 개의 초를 놓는다. 복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 ⑤ 복사들이 자리로 돌아가면 음악 없이 흐린 조명 아래 준비된 묵상을 시작한다. 묵상하는 동안 신자들은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 ⑥ 두 명의 해설자가 한 단락씩 교대로 묵상 글을 읽는다.
- ⑦ 묵상 글이 끝날 때마다 떼제 성가를 함께 부른다. 선창자가 신자들을 이끄는 것이 좋다. 반주는 오르간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기타가 함께 있어도 좋다.
- ⑧ “묵상 3-성모님을 만나심” 부분에서 묵상 글을 읽고 난 후, 신자들은 앞줄부터 제단으로 나와 준비된 십자가를 끌어안으며 기도한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며 모두 끝날 때까지 떼제 성가를 계속 불러주거나 떼제 경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다.
- ⑨ “묵상 4-십자가에서 돌아가심” 부분에서 해설자의 지시에 따라 떼제 성가를 부르는 동안 모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성가를 부르며 높이 쳐든 손을 서로 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
- ⑩ 마침 기도 직전에 해설자는 잠시 침묵 시간을 주어, 하느님께서 저마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고 사순시기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희생을 결심하도록 이끌어준다.
- ⑪ 마침 기도로 마친다. 신자들이 성당이나 경당을 나가는 동안 침묵할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묵상 내용

1. 겐세마니에서의 절규: 순명(받아들임)

아버지,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무지막지한 병사들은 저를 이토록 함부로 다루었고 저는 그들 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밤새 당신께 애원했습니다.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치워달라고. 철저히 인간이었던 저는 진정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보다 더 큰 아픔은 당신께 버림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떠나시는 듯한 그 죽음을 대면하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고독한 밤,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엇갈리는 투쟁의 밤. 우리도 그 밤을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사 고집을 부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도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수락하도록 도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도전에 응답하게 될 것이며 순명을 통해 얻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우리의 ‘일생’이 소요되더라도 그 응답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명·받아들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떼제 성가: 〈나와 함께〉

2. 십자가를 끌어안으심: 회심(거짓 자아를 버림)

아버지, 너무 많은 때를 맞아 이미 제 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무시와 모멸로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로마 병사들은 무겁고 거친 십자가를 제 어깨 위에 짓눌러 얹고 계속 채찍질을 해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사정 없이 저를 후려했습니다. 내려치는 채찍에 묻어나는 그들의 깊은 어둠과 아픔, 무서운 고독과 죄의식을 지고 저는 제게 마련된 길을 걸었습니다. 피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제 얼굴 위에 그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음을 아마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으로 다른 누군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을 다른 누구는 진정 누구입니까?

혹시 나는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를 그 전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거나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혹은 자식들에게 배반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더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며 소중한 이들로부터 잊혀졌거나 버림받은 존재라는 듯한 느낌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여전히 외롭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고뇌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뚤어진 자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 인간의 잣대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진정한 나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유함과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타인에게 나의 생각과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과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뚤어진 자아에 묶여있는 삶은 고통스런 십자가의 삶과도 같습니다. 나의 왜곡된 자아로부터 죽을 때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을 다른 누군가는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폐제 성가: 〈우리는 예수를〉

3. 성모님을 만나심: 상실(성모 통고)

나의 어머니, 그토록 자애로우신 당신께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저는 당신의 눈앞에서 온갖 모욕과 매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었고 곧 당신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히 죽을 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워야 하는 기구한 운명의 어머니, 제가 발가벗기고, 뼈가 드러나고 거친 바닥에 나뭇잎 때 당신께선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애간장이 타들어갔으나 아들의 고통 때문에 울기조차 못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릎에 힘을 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장하신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속수무책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온몸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오히려 죄스럽고 아들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의 부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있었던 그가 오늘 없음은, 어제까지 귀에 쟁쟁하던 그의 목소리가 오늘 들리지 없음은, 그의 사랑스런 손길뿐 아니라 어린아이 같았던 응석과 투정, 그의 반항까지도 이토록 그림고 간절함은 살아남은 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의 현존을 매 순간 느끼며 결코 그와 다시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부재중의 강력한 현존을 삽니다. 이제 어머니는 결코 그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여 '순간'이라는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 안음) - 이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받아 안으신 성모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앞줄부터 나오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품에 안으며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떼제 성가: 〈십자가로〉, 〈두려워 말라〉, 〈항상 주님께〉, 〈Jesus remember me〉

4.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신뢰(내어 맡김)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제 곁을 떠나는 것은 견디겠으나 당신께서 저를 버리심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녕 당신께선 어디에 계십니까? 제 온 몸의 피와, 심장의 혈떡임과 공중에 매달린 어지러운 안에 당신께서 계십니까?

아버지, 저는 잃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였기에, 제가 당신을 버리지 않았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 당신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죽더라도 살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순간, 그 어떤 힘으로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과 병고, 죽음과 이별, 경제적 파산과 실직 등의 고통은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체험입니다. 그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것들을 잃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은 죽음과 같아 보이지만 순리를 따름이고 순리를 따를 때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를 따를 때 우리는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가치를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유를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리를 따름은 비로소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기꺼이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두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합시다. 힘에 겨우면 서로의 팔을 들어주며 힘이 되어 줍시다. 지치신 예수님을 도와드립니다.

떼제 성가: 〈아버지 당신 손에〉

주님, 울게 하소서. 나의 설움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으로 울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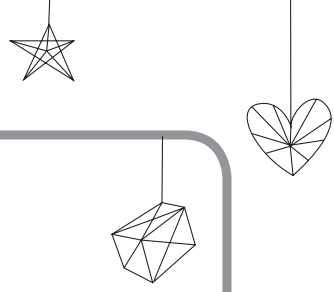
주님, 기뻐하게 하소서. 나의 영예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희망하게 하소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한 사랑으로 희망하게 하소서.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오니 제가 당신께 대한 사랑을 주소서.

마침 기도: 주모경

성탄 프로그램

- 춘천교구 임당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08년 12월 호

1. 대림시기 9일 기도

(1) 1인(9일 기도 3차례 - 주일 포함)

차수	날짜	내용	
1차	11.29.(토) ~ 12.7.(주일)	9일 기도 노트에 ② 주요 기도문 12개 쓰고 외우기 ③ 결심 하나씩 쓰고 다음날 점검	① 미사·영성체·가정을 위한 기도 - 평일미사 나오는 분에게는 노트에 스티커 붙이기 - 평일미사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목주기도 5단으로 대체
2차	12.8.(월) ~ 12.16.(화)	9일 기도 노트에 ② 암송 성경 구절 9개 쓰고 외우기 ③ 결심 하나씩 쓰고 다음날 점검	
3차	12.17.(수) ~ 12.25.(목)	9일 기도 노트에 ② 암송 교리 9개 쓰고 외우기 ③ 결심 하나씩 쓰고 다음날 점검	

(2) 2인(9일 기도 2차례 - 평일로만)

차수	날짜	내용	
1차	12.1.(월) ~ 12.11.(목)	9일 기도 노트에 ② 암송 성경 9개 쓰고 외우기 ③ 결심 하나씩 쓰고 다음날 점검	① 미사·영성체·가정을 위한 기도 - 평일미사 나오는 분에게는 노트에 스티커 붙이기 - 평일미사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목주기도 5단으로 대체
2차	12.12.(금) ~ 12.23.(화)	9일 기도 노트에 ② 암송 교리 9개 쓰고 외우기 ③ 결심 하나씩 쓰고 다음날 점검	

2. 대림시기 판공 면담(참고) - 판공성사표 교부 - 판공성사

1) 기간: 약 한 달간 일정

2) 방법: 구역(반)별로 면담 및 판공성사표 교부 - 판공성사

- ① 성당에 세대주가 와서 면담(참고): 판공성사표를 받을 수 있다.
 - 면담에서 암송 기도문, 암송 성경, 암송 교리를 물어볼 수 있다.
 - 가정 예선전: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도문, 성경 및 교리를 암송하는 가족 대표를 뽑아 면담(참고)에 나가고 가족 전체의 성사표를 받을 수 있다.
 - 면담에서 가족 확인(사진/주소/전화번호), 자녀 신앙생활 확인, 교무금 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구역별로 방문해서 구역미사를 드리며, 구역별로 면담: 성사표를 배부할 수 있다.
- ③ 반별로 가정 방문을 하면서 면담: 성사표를 배부할 수 있다.

3. 올해의 성모와 성 요셉 뽑기

- 1) 대림시기 9일 기도, 판공 면담을 거치면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한 자매와 형제를 올해의 성모와 성 요셉으로 뽑는다(사목평의회 및 기타 회의에서).
- 2) 올해의 성모와 성 요셉이 성탄 구유 안치 행렬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입장한다.
- 3) 성탄 구유 조배 시 아기 예수님 곁을 지킨다(성모님, 요셉으로 분장할 수도 있다).

4. 12월 24일

시간	구성 및 내용	
21:50	성탄 성가 경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별로 지정곡 및 자유곡 1곡씩 ※ 지정곡: 성탄 성가 중에서 1곡 선정 ※ 자유곡: 성가, 민요, 가곡, 동요 중에서 자유 선정 - 심사 기준: 참여도, 태도, 복장, 연습도, 음악성
	성탄 성가 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부(저학년): 율동 또는 성탄곡 메들리 - 초등부(고학년): 연극(성탄 관련 내용) - 중고등부: 수화 - 청년부(성가대): 합창
22:40	구유 아기 예수 안치식(어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치 예식 순서: ①성가, ②독서, ③묵상, ④구유 안치 행렬(성가), ⑤구유 아기 예수 안치 및 초 점화 - 안치 행렬 순서: ①복사, ②사제, ③올해의 성모 및 성요셉(아기 예수님 안고), ④사목위원(천사, 삼왕, 소, 말, 양 등을 안고)
	구유 아기 예수 조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배 예물 예: ①성탄 맞이 대림시기 9일 기도, ②선교 실천을 위한 선교 봉헌 신청서, ③불우이웃 돕기 봉투, ④교무금 약정서 - 조배기도 순서: ①사제와 복사, ②본당 소공동체를 대표하는 각 구역장, ③가정 또는 개인별 - 조배기도 예: 가정별(개인별)로 직접 작성하거나 다음 기도를 참조한다. ①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희는 희망과 기쁨 속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② 밝고 따뜻한 미소의 아기 예수님, 그 미소는 우리 이웃과 나라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③ 평화와 사랑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과 내일에도 저희 가정에 머무르소서. ④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밑에 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23:00	성탄대축일 미사	
미사 후	성가 잔치 시상식	

5. 12월 25일

시간	구성 및 내용	
10:30	구유 아기 예수 안치식(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치 예식 순서: ①성가, ②독서, ③묵상, ④구유 안치 행렬(성가), ⑤구유 아기 예수 안치 및 초 점화 - 안치 행렬 순서: ①복사, ②사제, ③어린이 대표(아기 예수님 안고)
	구유 아기 예수 조배	조배 기도 순서: ①사제와 복사, ②어린이, ③가정 또는 개인별
11:00	성탄대축일 미사	
미사 후	은총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탄 맞이 대림시기 9일 기도 스티커를 달란트로 교환해서 음식 구입할 수 있다(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달란트 은행을 개설하면 좋다). - 구역반 또는 단체별로 판매할 음식을 정해서 준비 및 음식 구입 장소, 식사 장소 미리 지정 -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할 수 있다.

복사 착의 및 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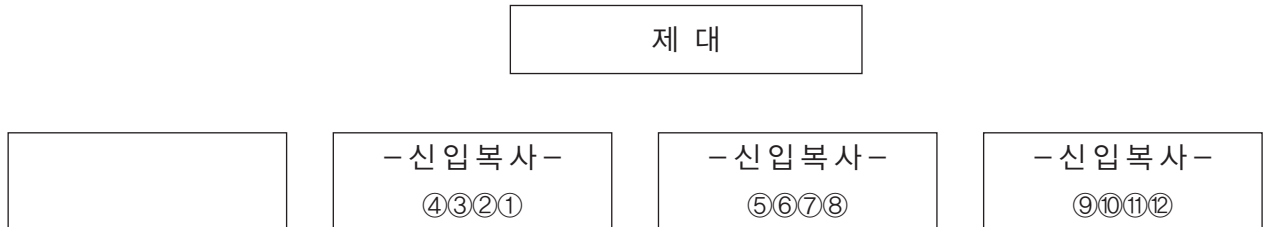
- 교중 미사 중 실시

■ 최윤복 신부(광주대교구) 제공

※ 준비 사항: 망토, 선서문(개인 이름 기재), 킵초(아이들 수대로 준비), 무선 마이크

- ▶ 입당: 두 명씩 촛불을 들고 입장한다.
들고 온 초는 제대 앞에 봉헌한다.
봉헌 후 자리로 들어가 선다. 이어서 복사, 독서자, 사제 입장.

«자리 배치» (신입 복사는 망토 없이 복사 옷을 입고 지정된 좌석에 앉는다.)



(강론 후: 주례 사제께서 일어나 제대 앞으로 나오시면 다음의 해설을 시작한다.)

◎ **해설:** 지금부터 ○○년 복사단 입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복사단에 입단하는 어린이들은 제단의 봉사자로서 신부님을 도와 복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사단에 입단할 어린이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어린이는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하며, 제대 앞으로 나옵니다.

(이름과 세례명을 부른다.)

◎ **해설:** 이제 신부님께서 신입 복사들에게 복사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하십니다. 신입 복사들은 큰 소리로 결심을 대답합니다.

† **사제:** 여기 있는 복사 후보자들은 이제 복사가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인 미사 전례 때에 제대 옆에서 사제를 도와 봉사하는 특별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은 이러한 복사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 **신입 복사:** 예, 결심하였습니다.

† **사제:** 복사들은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복사답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후보자들이 복사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에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 것을 결심합니까?

◎ **신입 복사:** 예, 결심합니다.

† **사제:** 후보자들이 장차 하게 될 복사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복사단 전체의 활동입니다. 이미 본당 복사단에는 선배 복사들이 좋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입단하게 되면 선배 복사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신입 복사:**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 **사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이 약속 위에 여러분들이 복사단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자격과 미사 전례 때에 복사할 자격을 줍니다.

◎ **신입 복사:** 하느님 감사합니다.

▶ 선서식

◎ **해설:** 이제 신입 복사 선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준비)

- 한 어린이가 '선서'를 크게 외치면서 오른손을 든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들이 '선서'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천천히 소리 맞춰 함께 읽는다.

※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각자 한 명씩 큰소리로 이름을 말한다.

- 선서문 낭독이 모두 끝난 후에 대표 어린이가 선서문을 한테 모아 신부님께 드린다.

(사제는 제대 옆에서 복사 대표로부터 선서문을 받는다.)

▶ 착의식

◎ **해설:** 이어서 착의식과 안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사제는 어린이들에게 복사 망토를 입혀주시고, 안수를 통해서 복사의 직무를 부여하십니다.

※ 주례 사제는 차례대로 복사 망토를 어깨에 입혀 주고 안수해 준다.

- 대복사는 망토가 든 쟁반을 들고 사제 옆에 서 있다.

- 단장은 안수가 끝난 어린이 망토 리본을 매어 준다.

◎ **해설:** 이제 주례 사제께서는 이 어린이들이 제단의 봉사자인 복사로서 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작은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대표자로 ○○○ 어린이가 선물을 받겠습니다.

◎ **해설:** 이제 주례 사제께서는 신입 복사들과 모든 복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복사들은 모두 일어섭니다. (당일 복사 2명은 제대 아래 복사들과 함께 선다.)

† **사제:** 기도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뽑아주신 이 어린이들이 복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복사로서

성실히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복사 활동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모든 복사:** 아멘.

◎ **해설:** 복사 친구들~ 차렷! 인사!

뒤로 돕니다. 차렷! 인사! (신자들의 박수)

이상으로 신입 복사 입단식을 마치겠습니다.

신입 복사들은 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미사는 계속 진행된다.)

▶ **퇴장:** 성가가 시작되면 신입 복사들이 먼저 나와서 제대에 인사 후, 퇴장 대열로 서고 사제, 복사, 독서자 인사가 끝나면 함께 퇴장한다.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이 안나마리 수녀(올리베타도 성 베네딕도 수녀회)·미국 퀸즈 한인 천주교회 제공

성당 입구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붙여둔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 어느 한 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2019년 올해에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앞서 걸어가시며,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24)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래 바구니의 작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 뒤 기도를 마치고 제대 위 보라색 천 위에 함께 걸은 십자가를 봉헌합니다.

- 1)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본당에서 공동으로 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 참여자들은 성당 입구에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들고 입당한다.
- 2)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동안 각자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를 안고 나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한다.
- 3) 십자가의 길이 끝나고 마침 성가 때 제대에 세워놓은 큰 십자가에 걸쳐 펼쳐놓은 보라색 천 위에 나의 십자가를 봉헌한다.
- 4) 매주 이렇게 봉헌하고, 평일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도한다.
- 5)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까지 모은 봉헌된 십자가들을 제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금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십자가로 부활 성야 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만든다.

십자가가 쌓여 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한 뒤,

- 1) 나만이 고통을 가진 듯했던 사람들이 나 혼자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위안을 받게 된다.
- 2)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더 큰 위안과 힘을 얻고, 절실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 3) 어렵고 힘들고 아픈 나의 십자가가 부활의 빈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참된 기쁨의 ‘알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되며, 부활은 이미 사순시기 시작부터 준비되어 왔음을 깨닫게 된다.
- 4) 처음에 작은 십자가를 고르던 자신의 모습에서 주어진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 5)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많이 울고 가슴 아파하면서 점점 힘을 얻게 된다.



성체조배

■ 최윤복 신부(광주대교구) 제공

1. 성체조배의 순서 (성체조배 시작 5분 전 도착)

큰절 → 시작 기도 → 자아 인식 → 거룩한 침묵 → 마침 기도 → 큰절

2. 자아 인식의 방법

- 1)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아내어 솔직하게 인정한다. (성찰)
- 2) 잘못의 원인과 동기를 찾아내어 그 뿌리를 뽑아 없앤다. (통회, 정개)
- 3)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치유해 주시도록 용서를 청한다. (고백, 화해)
- 4) 일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한다.

3. 거룩한 침묵 (성경, 성체성사, 성체조배, 성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한다.)

1) 영적 독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배운다.)

※ 하느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 진리를 알아듣도록 힘쓴다.

※ 하느님의 계시, 진리, 말씀을 마음에 새겨든다. (성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2) 묵상 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성경 말씀(오늘)을 찾아 읽고 묵상한다.)

※ 추리 묵상: 때에 따라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묵상.

①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한다.

(예수님의 필요와 관심사: 대화)

※ 성체 앞에 꿇어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체 안에 계시니까?

- 교회에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니까?

② 관상 (예수님의 팔에 안겨 주님과 합일되는 관계)

- 관상은 대화 없이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 우리 미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주실 것이라는 신뢰심을 갖는 것

-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이처럼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

4. 성체조배를 마치고 나올 때

1) 마침 기도: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를 대신하여 마침 기도를 드린다.

2) 큰절: '본당 공동체 전체가 인사드립니다.' 하는 지향으로

3) 끝 조: 문단속, 성경·서적 정리, 청소 - 성체조배실 정리

5. 성체조배에서 얻어지는 것

-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가벼워진다.
- 신앙의 참 에너지가 충전된다.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요한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

성체조배 시작 기도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엎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 아멘.

성체조배 마침 기도

오, 거룩한 예수 성심이여,
당신 사랑의 불로 저의 냉랭한 마음을 태우시고,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제 의지가 약하오니 강하게 하소서.
저의 발길을 가볍게 하시어 저로 하여금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게 해 주소서.
외로움에 떨고 가련한 처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저의 한 생을 불사르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당신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저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당신은 저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저의 문제와 소망을 아시나이다.
저의 악한 의지를 굳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당신을 더욱 사랑하여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사목 아이디어 모음

— 전례 —

■ '성시간' 활성화

전 신자를 대상으로 매월 첫 금요일 성시간을 한 시간 동안 진행한다. 성시간 봉헌카드를 마련하여 외교인과 냉담 교우 회두, 가정 성화 등을 바라는 일반 지향과 함께 개인적 특별 지향을 적어 성당 내 성모상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한다. 지향을 봉헌함으로써 성시간 참여도와 기도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매일미사 참여자 수가 증가하며 본당 신앙생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청주교구 강서동 본당, 가톨릭신문 1999.6.13.

■ 성가정상 순회 기도

구역, 반별로 신청을 받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주일에 두 가정을 순회하며 진행하였다.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다음 순회 기도회를 가질 가정으로 성가정상이 옮겨지는데 이때 구역, 반 신자들과 함께 와서 성가정상을 모셔간다. 성가정상을 모신 가정은 아침 또는 저녁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시작 기도와 가족 공동체 기도, 성경 묵상, 개인 기도 순으로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를 바친다. 가족 구성원들은 성가정상 앞에서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개인 소망을 담아 자유롭게 기도를 바친다. 낮에는 성가정상을 모신 가정이 속한 구역, 반 여성 신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기도를 바친다. 평소 기도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하던 구역, 반들도 구역 가정에 성가정상이 전달되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전체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광주대교구 봉선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06.4.16.

■ 테마 미사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아 본당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린 25개 '테마 미사'를 봉헌하였다. '사목 위원 및 본당 사도직 단체장을 위한 미사', '복사단과 그 가족을 위한 미사', '꾸리아 미사'를 비롯하여 사순시기를 맞아 '참회예절 미사', 가정의 달에 '봉성체 환자(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미사', '어르신들을 위한 미사', '부부를 위한 미사', '청소년 자모들을 위한 미사', '외국어 미사', '환자의 가족, 보호자를 위한 치유 미사', '25세, 50세, 75세, 100세 교우를 위한 미사', '본당 설립 당시 교우를 위한 미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 '송년 감사 미사'를 봉헌하였다. '부부를 위한 미사'에서는 혼인갱신식을 겸하였으며, 봉성체 환자들을 위한 미사에서는 3인 1조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와 미사를 봉헌하였다.

— 서울대교구 가양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7.5.28.; 가톨릭평화신문 2017.6.11.

■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

연령회에서 활동 회원(장례)과 일반 회원(연도봉사회)이 함께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미사 후에 기도 모임을 갖는다. 모임 순서는 연령 회원 중 선종자와 금년에 선종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성가와 독서를 봉독한다. 연도를 바치면서 차례대로 분향하고, 마침 기도와 성가를 바친다. 사제의 강복으로 마치고, 그달에 선종한 유족이 있을 경우 감사 인사를 한다.

— 서울대교구 송천동 본당 제공(2017.12.)

■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

돌아가신 분들의 기일에 맞추어 연미사 봉헌한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 고인들을 위한 미사를 한다. 이름과 세례명이 새겨진 촛불을 성전에 진열하고 사제가 제출된 고인들을 호명 후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를 계속한다.

- 인천교구 원미동 본당 제공(2017.12.)

■ 신자들과 함께하는 성무일도

성무일도 책을 일반신자용으로 제작하여 미사 전에 전 신자가 함께 성무일도를 바치고 미사를 한다. 글자를 크게 하고, 계승 표시를 했고, 시작 페이지를 찾으면 끝까지 할 수 있게 편집했다. 신자들과 함께 매일 미사 전 성무일도를 같이 하니 반응이 좋다. 전에는 미사 10분 전이나 미사가 시작될 때 급하게들 오셨는데 성무일도를 한 뒤로는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성무일도를 하고 미사를 하니 보기에 좋다. 기존 소성무일도는 여기저기 찾아야 하나 새로 제작한 성무일도는 당일 기도를 다른 데 찾을 필요 없도록 했다.

- 인천교구 고촌 본당 제공(2017.12.)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좋은 무기: 말씀 묵상(VM)

- 대구대교구 이곡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09년 1월 호

성경 구절을 단순히 성경에 활자화된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 즉 레마(Rema)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기도 하고,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나 소공동체의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활용하여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일정 기간의 공부나 훈련이 필요해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구대교구 이곡본당 주임 박영일 신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VM(말씀 묵상)”을 내놓았다. VM은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것으로, 영적 갈증에 목말라하는 신자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저 지식 차원에 머물거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방법이 어려우면 가까이 하려하지 않기에 ① 쉽게 ② 계속해서 ③ 반복할 수 있는 묵상 방법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소공동체 모임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것이 VM이다.

하느님과의 매일 데이트 -VM

VM은 라틴어 Verbum Meditatio의 약자로서 ‘말씀 묵상’이라는 뜻이다. VM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매일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훈련이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복음 나누기 7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하느님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매일 데이트를 하며 말씀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VM은 가톨릭의 수도 전통에 있는 렉시오 디비나를 평신도도 할 수 있게 현대화한 것이다. 렉시오 디비나는 일정 정도 이상의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수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네 단계를 통해 하느님과의 높은 일치를 향해 올라가야 할 영적 단계와 같은 것임에 반해, VM은 독서와 기도, 묵상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말씀을 실생활에서 열매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

VM은 개신교에서 널리 퍼져있는 QT(Quiet Time)보다 본래의 의미인 ‘말씀 묵상’을 더 잘 드러내며,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성도 더 강조하였다.

VM과 소공동체는 수레의 앞바퀴와 뒷바퀴

신자들은 같은 구역 안에 살아도 형편이 다 같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소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곡 본당에서는 구역 안에서 시간과 여건이 맞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공동체 ‘말씀 나누기 팀’을 구성하도록 했더니, 자연스럽게 구역 안에 한 개의 팀만 있는 구역도 있고, 여러 팀이 있는 구역도 있게 되었다.

구역 모임은 구역협의회 소속으로 말씀 나누기보다 활동, 전달사항, 건의사항, 친교가 좀 더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말씀나누기 팀은 복음화위원회 소속으로 주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구역과 공동체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좀 더 나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VM은 말씀을 살도록 하는 개인 성화 훈련이다. 개인이 성화되면 공동체와 함께하려는 열망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성장하게 된다. 즉,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이 들면 공동체 생활에도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VM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버린다면 공동체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며, 반면에 공동체만 강조하면 개인이 없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뿌리가 약해진다.

지극히 개인적인 영성 훈련인 말씀 묵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나눔의 자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소공동체 모임만으로는 말씀을 생활화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기에 그런 점에서 VM과 소공동체는 수레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VM을 하는 사람들이 소공동체 모임에서도 풍요롭게 나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VM의 순서와 내용

VM을 하려면 우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때마다 다른 좋은 시간이나 장소를 고르는 것보다, 처음부터 고정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하지만 초보자는 15분 정도에서 시작해도 좋다.

1) 준비 기도

VM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초대하고, 마음속에 있는 걱정, 불안, 세속적 생각, 조급함 등을 다 하느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즉, 빈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할 때는 자유 기도를 하거나, “오소서, 성령이여! 저의 마음에 임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2) 복음 읽기

그날의 복음 말씀을 천천히 3번 정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VM노트(자유롭게 만든 노트도 상관 없음)에 받아 적습니다.

3) 묵상하기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에 머물러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언제나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억지로 감정을 꾸며 낼 필요는 없겠지만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생생하게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을 다한 다음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VM노트에 기록합니다.

4) 열매 맺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은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는 묵상으로 마음에 온 감동을 인격과 생활에서 순종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느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정하고 VM노트에 적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그

날 열매를 맺을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다 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다 보면 그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그 말씀이 부딪치고 적용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5) 마침 기도

준비 기도가 들어가는 기도라면, 마침 기도는 나오는 기도입니다. 마침 기도는 한마디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받은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주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목 아이디어 모음

- 말씀(성경 읽기)-

■ 성경 읽기 운동과 매월 성경 시험

신자들의 성경 읽기 참여를 높이는 사목 계획의 하나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미사 영성체 후 미사 참여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경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2주 후 성적이 우수한 신자들을 위한 시상식을 가진다. 또한, 구역반 모임 역시 성경 말씀 중심의 교재로 진행함으로써 본당 전체가 성경 읽기라는 신앙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 서울대교구 세종로 본당, 가톨릭신문 1999.7.25.

■ 성경 통독과 나눔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여 평일 미사 후에 모여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꼽아 통독이 끝난 뒤에 각자 외닿았던 구절과 삶 속에서 느꼈던 말씀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성경 통독반을 참여 인원수에 따라 개설되 각 통독반 운영 방식은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반은 성경 필사를 하면서 통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반은 성경 읽기표에 따른 매일 성경 읽기와 신심 서적 읽기를 병행하기도 하며, 인터넷에서 성경 문제지를 찾아 통독 이후 함께 풀어보는 반도 있다.

- 전주교구 인후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4.2.23.

■ 말씀 보물함

본당 주보에 매주 성경 통독 분량을 소개하고, 신자들은 해당 부분을 읽은 다음 목상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게 하였다. 많은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려서 매월 마지막 주 주보 간지로 소개하며, 참여한 신자 중 열 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매월 선물을 증정하였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나누면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말씀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 부산교구 민락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3.6.23.

■ 120시간 성경 이어 읽기

'성경의 생활화'를 모토로 '전 신자 120시간 성경 이어 읽기'를 실시하였다. 신자들 신청을 받아 시간과 성경을 나누어 각 구절과 읽을 사람, 시간, 봉사자를 성당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신자 한 명이 성경 5~6장씩 30분 동안 성전에서 소리 내어 선포하는 방식으로 2시간마다 4명의 독서자를 두었으며, 이들을 돕는 봉사자도 배치하였다. 미사 시간과 미사 전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 조배'를 이어갔다. 신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미리 여러 번 읽고 독서대에 올랐으며, 이렇게 성경 이어 읽기에 256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였다.

- 부산교구 활천 본당, 가톨릭신문 2014.4.13.

■ 성경 통독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매일 교우들이 읽어야 할 분량 및 요점 정리, 10~20개 정도의 익힘 문제를 본당 신부가 인쇄물로 주보대 위에 두면 매주 교우들이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서 다음 주일 성당에 올 때 구역별로 배치된 수거함에 제출한다. 제출된 과제물은 구역장과 반장이 채점하고 개개인 파일을 만들어 통독이 끝나면 본인에게 돌려준다. 돌려줄 때는 통독 수료증과 소정의 선물을 함께 준다.

- 대구대교구 정평 본당 제공(2017.12.)

본당 사회 사목 활동

- 수원교구 성 마르코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0년 9월 호

수원교구 야탑동 성 마르코 본당은 종교를 초월하여 본당 관할 구역 내의 어려운 이웃들-장애인,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 극빈자, 환자 등-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 관리하고 있다. 본당이 설립된 초기부터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아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활동 내용

1. 살림살이 지원

신자가 이사를 가면서 내놓고 가는 주방용품, 가재도구, 전자제품 등 중고 살림살이와 헌 옷을 수거해 지역에 있는 미혼모 및 노숙자 기관과 복지관에 전달해 준다.

- 여성용품, 생활용품: 미혼모 센터인 '생명의 집'에 전달
- 남성용품: 노숙자 보호시설 '안나의 집'에 전달
- 기타용품: 가톨릭 복지회관에 전달

2. 장애인 신자 돌보기

본당 내 장애인 신자들에게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수원교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빈자리 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에 참가하는 장애인 신자를 위해 본당에서 간식비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본당 지원으로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간다.

3. 불우 가정 돕기

본당 관할 구역 내 어려운 가정 80가구를 선정해 음식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밀반찬 3~4가지를 만들어 전달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다음 달에 준비해 전달해 준다. 명절 때는 음식을, 김장철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 지원한다. 또한 생활, 영적 나눔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4. 독거 노인 돌보기

주 1회 이상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하고, 대화를 나누며 상담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용돈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도 함께 가고,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진행부터 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생활 대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5. 청소년 복지

인근에 있는 영덕여고와 성남정보산업고에서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별 3명씩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모자 가정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학습 지도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 방법

구·반장 및 이웃 추천 → 신청서 작성 → 가정 방문 → 신부님 허락 → 가정 선정

후원 기금 마련

1. 미사 후 후원회원 모집

평일 오전 10시, 주일 9시, 11시 미사 후 로비에서 후원회비 접수를 받는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주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드린다.

2.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할 반찬 및 김치를 만들 때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을 후원비로 사용한다.

교구와 함께하는 '이웃 사랑 실천'

- 서울대교구 송천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0년 9월 호

서울대교구 송천동 본당이 있는 지역에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은 편이다. 송천동 본당에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본당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외부 기관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1. 교구와 연계한 '이웃 사랑 실천'

서울대교구에서는 2009년 본당 사회 사목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교구의 지원 사업은 본당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당 사회 사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사목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본당의 사업 기획안을 접수받았고 내외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개 지구와 21개 본당이 선정되었다.

송천동 본당도 '이웃 사랑 실천' 기획안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여기에 본당 자체 예산 50만 원을 합쳐 사업을 진행했다. '이웃 사랑 실천'은 노후 주택을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관련 사업이어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진행하는 동안 입소문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전하게 되었고, 수혜자들과 나눔 및 친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전교 사례로 남게 되었다.

- 사업 대상: 지역 내 독거 노인, 장애인 가정, 모자 가정, 조손 가정 등 10가정

- 사업 내용: 노후 주택 내외부 수리(도배, 장판, 지붕 방수, 싱크대 수리, 방충망 설치 등)

월동을 위한 밑반찬 지원

2. 병원과 연계해 환자 돌보기

2009년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2010년에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성모 사랑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각 1명의 교구가 슬관절 및 고관절 무료 시술을 받았다. 10월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특강 및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또한 성모병원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3. 불우이웃 돕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 대한 생활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5세대를 선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5만 원을 지원하고, 매월 첫 주 대상자 15명을 방문하고 있다.

4. 후원 기금 마련

1) 사순기간 동안 본당 신자들이 금식과 절약으로 모은 정성으로 후원금을 마련하였다.

2)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벼룩시장을 열어, 그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사용하였다.



본당 사회 복지 활동

- 서울대교구 반포 본당

■ 출처: 『사목』 2006년 12월 호

‘반포 카리타스’의 설립과 준비

반포 본당은 “봉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라는 제목의 2006년 본당 사목 지침에서 “하느님 사랑의 표지인 ‘믿음’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 표지인 ‘봉사’는 결코 양분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반포 카리타스’의 설립과 이를 통한 봉사 활동 활성화를 2006년 본당 사목의 큰 축으로 삼았다. 그리고 본당 안에서 개인이나 개별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각종 봉사 활동과 물질적 후원을 하나로 통합하며, 교구 내 인력이 부족한 사회 복지 시설과 본당의 봉사 인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반포 카리타스’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반포 카리타스’라는 이름은 국제 카리타스와 한국 카리타스, 서울 카리타스(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연결되는 사회 복지 활동의 정신을 이어받으려 하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원 봉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중심으로 회장단을 꾸리고, 사순 특강을 자원 봉사 교육으로 기획하였다. 시작하기에 앞서 봉사 활동의 정신과 자세, 영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교육은 서울 카리타스의 강사진과 본당 주임 신부의 강의로 네 차례에 걸쳐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강의를 수료한 사람들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졌는데, 서울 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자원 봉사자 수첩’을 발급하고, 자원 봉사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각자의 사진과 등록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이 수첩에 자원 봉사 활동처와 활동 내용을 기록해 나가며, 활동처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열띤 호응 속에 400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이들이 후원 회원과 활동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반포 카리타스’의 활동 내용

회원 등록 시 지금까지 본당에서 연계를 맺고 있었던 단체, 시설들을 정리하여 각자 희망 활동처를 써 내고, 후원 회비를 약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인에게 각자가 신청한 활동처와 후원 금액, 후원 방법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현재 80여 명의 신자들이 활동 회원으로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연령층도 초등학교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학교 봉사 활동 점수를 따려고 자녀들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같이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회원들이 다달이 내는 후원금과 본당 지원금, 특별 기부금 등을 더해 예산이 집행되며, 본당 혼인성사 때 화환 대신 받는 쌀이 노숙자 식사 봉사 때 사용되고, 쪽방 살림살이 등 필요한 물품들은 매주 신자들의 기증을 받아 한 달에 두 번씩 전달하고 있다.

‘반포 카리타스’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는 곳은 모두 네 군데로 ‘반포 카리타스’가 생기기 전부터 몇몇 사람들과 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던 곳들이다. 10~20명 정도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모두 6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신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서울 카리타스에

문의하여 적절한 활동처를 찾아 연결해 준다. 계속해서 신청자가 늘고 있으나 활동이 정착되기까지 활동처는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봉사를 이루고자, 가족 가운데 사정이 있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대신해 나오도록 하고 있다. 회원인 동생이 시험 때문에 빠지게 되면 누나가 대신 나오는 식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함께 하는 봉사에서 흐뭇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식사 준비를 위해 무거운 냄비라도 들러 하면 자녀들이 어느새 달려와 “아빠, 제가 할게요.” 하며 돕는다. 각 활동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마음 나눔의 공동체: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두 팀이 매월 둘째 셋째 주 그리고 마지막 주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와 배식을 돕고 있다. 1,200명분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오전 11시부터 식사 준비로 분주하다. 오전에는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 배식은 성인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2) 함께하는 집: ‘함께하는 집’은 서울역 근처 동자동에 있는 쪽방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 시설로 매주 1회 30명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각 가정에서 따로 반찬, 밥 등을 한 가지씩 분담하여 만들고 이를 한곳에 모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사랑이 담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든다. 이것을 차량 지원 봉사자가 ‘함께하는 집’에 배달한다. 얼마 전 쪽방 여섯 채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봉사자들이 본당에서 살림살이와 옷가지 등을 모았다. 공지를 해서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수집을 하였는데,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던 좋은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본당 바자회 때보다도 더 많은 물품, 좋은 물품들이 수집되어 각 가정을 살뜰히 채울 수 있었다. 이후로도 주일마다 물품 수집을 하여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봉사를 하다가 보니 본당 공동체 밖에서도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의 마음이 모이기도 하는데, 인근 지역에서 수의를 만드는 분들이 노숙자를 위해 무상으로 수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비단결같이 고운 수의가 처음 도착하던 날, 장례식을 준비하던 이들이 모두 눈물을 쏟았다. 살아계실 때 좋은 옷을 못 입으셨으니 돌아가셨을 때만이라도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봉사자들의 마음이다.

3) 프란치스코의 집: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모 영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 양로원이다. 2005년부터 본당과 인연을 맺어 부활대축일 때 사물놀이 공연을 하고, 성탄 음악회도 열었다. 봉사 팀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방문하여 식사를 준비하고(짧은 직접 준비해 감), 시설 관리와 청소, 레크리에이션 봉사를 한다. 지난 4월 28일에는 본당 청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할머니들을 모시고 ‘어논 성지’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9일 기도를 함께 바치며 정성스레 준비하였으며, 성지에서는 할머니들과 자식처럼 손자처럼 팔짱을 끼고 거닐면서 봄기운을 듬뿍 받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4) JSA 부대: 성심 수녀회에서 장병 상담을 해 왔는데, 본당에 봉사를 함께 해줄 것을 의뢰해 왔다. 처음에 본당 레지오 팀에서 방문을 하던 것을 ‘반포 카리타스’로 소속을 옮겨 기존 팀과 합하여 현재 두 팀이 월 1회씩 파주 광탄에 있는 JSA(공동경비구역) 내 공소를 방문하고 있다. 처음 공소를 찾았을 때에는 20여 명의 장병들이 참석하였는데, 요즘은 80명이 넘어 장소가 비좁을 정도이다. 간식과 도서 등을 준비해 가서 함께 나누고, 사진을 찍어서 부대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한다. ‘반포 카리타스’ 봉사팀의 방문을 통해 장병들은 잠시나마 긴장된 군 생활을 잊고 여유와 따뜻함을 선물 받는다.

〈봉사 활동의 자세〉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림.)

-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그들이 풍부한 인간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연다.
-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고통에 몸소 깊이 동참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의 선물이 그들에게 굴욕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주어야 한다. 내가 주는 선물 안에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
- 올바른 봉사는 도와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봉사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웃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봉사를 받는 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곧 십자가를 선택하셨으며, 이러한 철저한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공덕이나 성과가 아니라 은총임을 깨닫는다. 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자만심을 버린다.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그 나머지는 주님께 겸손하게 맡겨 드린다.

본당 연계 가정 간호

■ 출처: 『사목』 2006년 6월 호

아픈 이들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가정 간호는 현재 몇몇 수도회와 서울대교구, 부산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는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본당 연계 가정 간호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당 단위의 실시가 어려운 곳이라면 지구 단위의 가정 간호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당 연계 가정 간호란?

가정 전문 간호사가 본당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본당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이나 소외된 계층의 환자들을 방문하여 의료 활동을 벌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본당 연계 가정 간호의 역사와 현황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96년 1월 강남성모병원에 가정 간호과를 신설하면서 가정 간호를 처음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병원의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가정 간호를 실시하였는데, 가정 간호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환자의 여러 가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자연스레 인근 본당의 봉사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가정 간호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월 4회만 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8회로 확대되었으며, 병원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었던 보험 적용 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2001년 9월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서울대교구 3개 본당(노원, 마천동, 방학동 본당)과 연계하여 가정 간호 시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본당 연계 가정 간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적극적 호응으로 현재 총 54개 본당(서울대교구 50개, 의정부교구 4개 본당)에서 가정 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2004년 2월 16일에는 가정 간호 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간호사와 봉사자 교육, 안정적 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에 '가톨릭가정간호센터'를 설립하여 각 본당의 가정 간호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총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 간호에 관심을 갖는 가톨릭 병원들의 전국 모임이 형성되고 있어 서울 외의 지역에도 가정 간호가 확산될 전망이다.

※ 가톨릭가정간호센터: <http://www.cmc.or.kr/love.homecare.sp>

본당 연계 가정 간호의 실제

1. 본당의 준비: 본당 연계 가정 간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본당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를 한다.

가정 간호 사무실과 이동 차량(보험료, 세금, 차량 유지비 포함), 컴퓨터, 기타 사무용품 등이 필요하다. 가정 전문 간호사 급여와 의료 물품 등은 병원 측에서 지원하고 있다.

2. 가정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가정 간호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이며, 병원과 연계하여 본당에서 환자를 돌보아 준다.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신자 간호사이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컨퍼런스, 각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임상 경험을 나누며, 가정 간호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3. 봉사자 모집: 사회복지분과 또는 사회사목분과 내에 가정 간호를 지원하는 별도의 봉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호스피스 팀과 같이 관련 단체가 있으면,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하도록 하며, 의료사목분과를 따로 둘 수도 있다. 봉사자들은 간호사의 의료 행위 외에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기도와 대화를 통한 영적 도움을 준다. 가정간호센터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월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환자 등록: 본당 가정 간호를 처음 시작할 때 주일 미사 시간을 이용해 가정 간호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주변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개해 줄 것을 홍보한다. 가정 간호 환자는 병원에서 의뢰하여 오는 환자와 본당에 직접 신청이 들어오는 환자로 나뉜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생활 보호 대상자 가운데 가정 간호가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가정 간호 대상으로 등록한다. 어느 지역이나 찾아보면 환자는 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활동 내용

- 1) 가정 간호 대상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암 환자와 호스피스 대상자,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특수 간호가 필요한 환자(인공 항문, 위관 영양, 유치도뇨관, 기관 절개관, 인공호흡기, 산소기, 기타 특수 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기타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등
- 2) 구체적인 활동 내용: 가정 전문 간호사가 필요한 간호와 의사 처방에 따른 제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본당 봉사자들은 이·미용, 목욕, 차량 봉사와 생활 지원뿐 아니라 대화와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신앙생활을 돕는다.
- 3) 본당 다른 단체와의 연계: 본당에 존재하는 다른 활동 단체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구역·반 소공동체, 레지오 마리아,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연령회 등의 단체가 가정 간호 팀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여 다각적으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를 도울 수 있다.
- 4) 환자 침대, 휠체어, 흡인기 등 의료 용품, 각종 물품을 기증받아 대여하고 함께 나눈다. 환자가 완치되거나 돌아가신 뒤에 용품을 기증받아 다른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해 주기도 한다.
- 5) 그 밖에도 독감 예방 접종과 주일학교 캠프 의무 활동 지원, 사별 가족 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6) 비용 문제: 가정 간호 비용에는 방문료, 치료료, 재료비, 교통비가 포함되며, 월 8회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본당과 병원의 지원으로 환자의 등급을 나누어 기본적인 재료비만 받는 환자, 전액 보조해 주는 환자로 나누어 본인 부담금을 조절한다.

본당 연계 가정 간호의 의의와 효과

- 1) 본당의 사목자와 의료진, 봉사자가 하나가 되어 본당 사목구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이며, 꼭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준다.

- 2) 교회가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을 함께 돌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사목을 실천할 수 있다.
- 3) 본당 공동체가 사랑과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본당 사회 복지 예산의 실질적 집행을 이룰 수 있다. 가정 간호 팀이 본당 사회 사목의 첨병이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른 단체와 기관에 연계하여 준다.
- 4) 간호사를 파견하는 병원에서는 가톨릭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 복음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의료의 사각 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함께하는 의료를 베푼다.
- 5) 성당에 찾아오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목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처지의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 신앙생활을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
- 6) 가정 간호는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는데, 직접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쉬는 신자를 찾아내고, 따뜻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 감화 받은 이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 7) 사목자가 병자 영성체 등을 위한 환자 방문 시 가정 간호 팀을 통해 미리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환자와 대화하고 영적 도움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8) 지역 사회 안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 활동에 기여한다. 지역 내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 9) 환자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봉사자들을 통해 연대감과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환자 가족도 환자 간호에 대한 중압감을 덜 수 있고, 정신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노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본당 호스피스 사목

- 서울대학교구 발산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1년 1월 호

발산동 본당 호스피스회

발산동 본당 호스피스회는 본당 관할 구역 내 환자 및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2002년 9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주임 신부의 권유로 본당 신자 30여 명이 서울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며 시작됐지만 활동하는 회원은 점차 줄고 있다.

신자들의 호응은 좋고, '참 좋은 일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직접적인 참여에는 소극적이다. 주변에 중환자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속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부담과 호스피스 활동 자체를 어렵게 여긴다. 환자와 함께 1~2시간 즐거운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속할 수 없다고 한다.

호스피스회에서는 외인 환자의 경우 주 2~3회 일대일 방문 교리를 하기도 한다. 교리 봉사자의 교리보다 호스피스 봉사자의 일대일 교리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환자와 연관된 가족 모두가 대상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환자의 방문은 더 어렵다. 직접 수발하기는 어렵고 남의 봉사는 자존심 상해하기도 한다. 심신이 지친 가족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마련이다. 호스피스 회원들은 선종을 앞둔 이와 가족들 사이에 대화의 창구가 되어 소통하고 화해하며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회복한다. 따라서 환자 한 사람만이 호스피스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환자와 연관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함께해 주는 것'뿐

발산동 본당 호스피스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함께해 주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일상적인 근황을 묻는다. 그러다 보면 봉사자도 자신의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등을 꺼내 '수다'를 떨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봉사로 환자는 지상에서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환자의 아들이 영세를 받아 연령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언어 기능까지 마비된 할아버지가 말문을 틔자 할머니가 영세를 받는다. 어느 환자의 며느리는 "다음부터는 목욕 봉사는 두시고 말씀만 나눠 주세요."라며 마음의 문을 연다.

"1시간만 나누면 환자는 몇 시간이 즐겁다."는 주 올리아 회장의 말처럼 이들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며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가톨릭 공부방

■ 출처: 『사목』 2007년 1월 호

부산 우리누리공부방 운영 사례

1) 우리누리공부방의 시작과 지역 여건

1980년대 후반 부산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도시 빈민 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빈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도시 빈민 지역에 공부방, 탁아방, 주민 도서실 등을 설립하게 되었다. 부산 '우리누리공부방'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설립되었다. 부산의 6개 빈곤 지역을 돌며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가구 수도 가장 많고, 특히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 가장 열악한 감천2동 산동네 지역을 선정하여 1988년에 최수연(도미니카) 씨를 중심으로 '우리누리공부방'이 문을 열었다.

처음 공부방을 시작할 때에는 실무자 두 명이 낮에 일을 하여 운영비를 벌고, 저녁에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형성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지리적 한계로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원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렇지만 가정 방문을 병행하면서 아동,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자원 교사 시스템도 체계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었다.

우리누리공부방이 자리하고 있는 부산 감천2동에는 현재 14,000명, 4,717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낮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호자가 435세대나 된다. 남성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공장 노동자가 대부분이며, 여성들은 가내 수공업, 파출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주거 공간은 대부분 3~8평이며,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집과 결손 가정이 많으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지와 관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역이다.

2) 공부방 현황과 운영

공부방 실무자는 3명이며, 대표인 최수연 씨는 공부방에서 생활하고, 두 명은 출퇴근을 한다.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일의 프로그램과 시간표에 따라 자원 교사들이 공부방에 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습을 돕는다.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60명이다. 본래 40명 정도가 적합한데, 인원이 초과하여 그렇지 않아도 그리 넓지 않은 공부방은 아이들로 늘 북적인다. 그러고도 20명의 아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더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공부방에 등록을 하면, 가정 방문을 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정 환경에 관한 60개 문항에 맞추어 주거 상태, 부모 교육 정도, 가정의 어려운 점 등을 자료화한다. 주민등록등본도 떼어 오도록 하고 있다. 일단 들어온 아이들은 보통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방에 나오게 되는데, 교사들이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므로, 아이들마다 성장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운영비용은, 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음알음으로 알게 된 30명가량의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교구에서도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공부방 학생들에게는 회비 형식으로 다달이 1만 원씩을 받고, 1년에 한두 번은 기금 마련 행사를 가져 여름 캠프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선배 교사 모임에서도 연중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너무 풍족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최수연 대표의 말이다.

또한, 공부방에서 도시락도 제공한다. 이전에는 공부방에서 급식을 했는데, 어른들이 보는 데서 밥을 먹으니 자존심 상해하는 아이들이 있어 도시락을 만들어 집에 가서 먹도록 하였다. 공부방에서 신나게 공부하고 뛰어논 아이들은 집에 돌아갈 때는 따뜻한 밥, 국,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가고, 다음날에는 빈 도시락 통을 가지고 공부방에 온다. 더불어 할머니나 어머니랑 단들이 사는 가정에는 도시락을 하나 더 제공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도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3) 자원 교사 활동

여러 공부방들에서 자원 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누리공부방에서는 자원 교사 시스템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해마다 각 대학에서 공고를 하고 새 교사를 뽑는다. 지원자들은 선배 교사들과의 면접을 통해 종교, 봉사 동기, 동아리 활동 여부를 질문 받는다. 특히, 다른 동아리 활동과 공부방 활동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신입 교사들은 한 달 반 동안 지역의 문화, 주거 환경, 교육 상황, 공부방의 필요성, 자원 교사로서의 자세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가정을 방문한다. 공부방에서만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가정 방문을 교육의 필수 과정으로 하고 있다.

1기부터 시작하여 17기까지 이어 온 자원 교사들을 모두 합하면 200명 가까이 된다. 선배 교사들 가운데는 의사, 간호사, 건축 기사들도 있어, 공부방이 어려울 때마다 너나없이 발 벗고 나서주므로 언제나 든든하다. 또 공부방 졸업생 가운데, 졸업한 뒤 자원 교사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자원 교사들은 공부방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남다르며, 가족과 같이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원 교사들을 '선생님'이 아닌, '이모, 삼촌'이라 부르는 것도 학교와는 달리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4) 공부방 프로그램

공부방은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늘 북적이다. 초등학생들은 학습지 위주로 국어, 수학, 영어 등의 학습 지도를 받고, 금요일에는 심성 계발, 창의력 계발을 위해 놀이나 작업 등 특활 수업을 한다. 중등부는 저녁 7시경부터 두 시간 동안 영어,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학생 자치 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공연, 역사 기행 등 문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작년에 마련된 도서실에는 다양한 책을 갖추어 놓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빌려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연중행사로는 5월 어린이날에 부산교구 9개 공부방이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모여 야외 행사를 갖고, 여름에는 집을 떠나 자연 속에서 공부방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 자립성, 능동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캠프를 개최한다. 또 해마다 11월이면 공부방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를 꾸미고, 준비하는 '파란 아이들 누리의 노래'

공연을 갖는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초청하여 지역의 공동체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공부방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갖는 축제의 자리가 된다.

또한 우리누리공부방에서는 공부방 소식지를 다달이 발행하여 공부방 후원자와 졸업생, 자원 교사들에게 보낸다. 공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아이들의 글, 교사의 편지들을 사진과 함께 싣는다. 이를 통해 공부방 생활을 자세히 엿볼 수 있으며, 공부방 가족간 소식 나눔의 역할을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발전되었지만, 우리누리공부방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는 데 치중하지 않고, 아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며 호흡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

5)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

공부방은 단순히 아동들의 학습 지도와 보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지역 공동체의 한 식구로, 사랑방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간다.

우리누리공부방에서는 주민 교육 사업으로 한글 교실, 아버지 영어 교실, 건강 교실, 환경 강의 등을 실시하며, 월 1회 갖는 자모회 모임에서는 자녀 교육법, 자녀들 신학기 준비 방법, 성교육과 낙태 방지 교육 외에도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취미와 부업에 대한 강좌도 연다.

또한 마을 잔치, 아나바다 장터, 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며, 일 년에 두어 차례 공부방 아이들과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손 팻말을 들고 다니며, 동네 공동 화장실을 비롯하여 거리 청소를 한다. 함께 꽃씨도 뿌리는 등 함께 사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가톨릭 공부방, 지역 공동체에 희망 만들기

우리누리공부방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부방은 단순히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차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공부방은 지역 사회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된다.

공부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우선 헌신적인 실무자가 필요하며, 자원 교사 수급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본당에서 공부방을 설립하는 경우, 물적 인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절한 실무자를 찾아낸 뒤, 지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공부방을 구상하고, 본당 청년을 포함한 신자들이 자원 교사로 활동하고, 후원 조직을 갖추면 공부방 운영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가난한 이들이 좀 더 쉽게 공부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안에 따로 시설을 갖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중에 본당의 유휴 공간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여기에 공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교구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역 공부방 간의 연대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구 차원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사 교육과 대의 협력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불편한 즐거움으로 다복한 공동체

- 서울대교구 고척동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13년 3월 호

1. 111 운동

이 운동은 1달에 1회 1시간은 전 신자가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2013년 현재 월 1회 목요일 아침 미사는 전체 소등 미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매주 목요일 미사는 소등 미사로 하기로 했다.

2. 환경과 타인을 위한 '불편한 즐거움' 운동

'불편한 즐거움' 운동은 생태 환경과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나의 불편을 봉헌해 보자는 의도다.

매주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불편한 즐거움 봉헌표에는 '()를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즐겁게 봉헌합니다.'가 쓰여 있다. 막연한 희생이 아니고,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 나의 불편을 봉헌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한다.

뒷면에는 20여 가지의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함께 기도하기, 친지 이웃에게 자주 안부 전하기, 서로 칭찬해 주기', 환경을 위해 '에너지 절약, 물 아껴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실천사항들이 적혀 있다.

매주 이렇게 봉헌표를 받아보니, 가족들과 소통에 더욱 노력하게 되면서 가정이 더 화목해졌고, 생활하며 그냥 넘겼던 에너지를 아끼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신자들은 1주마다 실천사항을 체크하여 매 주일 미사 때 영적 예물로 봉헌한다.

1명 당 스티커 하나를 붙여 본당 로비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벽화를 완성하게 된다.

3.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2010년 하반기에는 본당에 우리농 매장이 오픈되었고 현재 활동가 25명이 월요일 제외 상시 오픈하여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과 환경지킴이로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달 활동가 교육을 통해 바른 먹거리와 환경 호르몬 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 발효액인 EM(Effective Microorganism)을 직접 만들거나, 폐유로 비누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모든 수익은 4:3:3 비중으로 본당, 환경운동 및 활동가 교육, 농촌 살리기 운동을 위해 지출한다.

2013년에는 안동교구 유기 농가들의 모임인 상주 솔티 분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농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쌀 약정부터 해서 일손 돕기 운동 등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자들이 만나 협의하였다.

4. 주일학교 생태 교리

고척동 본당은 2012년 서울대교구에서 처음으로 생태 교리를 주일학교에 적용시켰다. 환경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고,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주임

신부가 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 요청했다.

첫 시도라 생각만큼 결실이 크지는 않았다. 교사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했고, 행사 위주라 교사 인력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소박한 시작을 본당 주일학교 교육에 최초로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일정

3월: 생태교육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학부모와 아이들로 나눠서 진행

4월: 환경에 관한 애니메이션 시청

5월: 즐거운 불편 글쓰기 및 그림그리기 행사

7월: 안동교구 풍양성당으로 여름 생태캠프(논 들어가기 체험, 정미공장 및 목장을 견학)

9월: 생태 교리 담당할 자모교사회 모집

10월: 만지락 양초를 직접 만들어 111 운동을 위한 소등 시 집에서 쓸 양초 만들기

11월: 낙엽이나 박스 등을 재활용하여 불편한 즐거움 실천 카드 제작

교사회 인원만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의지만 있으면 많은 본당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이미 커리큘럼,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의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의 공동체’는 고척동 본당의 모토다.

① 전 신자 점심 나눔

매달 마지막 주 친교 주일에 전 신자가 함께 점심을 나눈다.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고, 이날은 축제 분위기처럼 각 단체의 장기자랑이나 소개 순서도 있어 전 신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단체 회원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멀어졌던 본당 가족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② 전 신자에게 축일 카드 보내기

2012년부터 전 신자에게 매달 축일 카드 보내기를 해오고 있다. 본당 사진과 축하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열어보면, 위쪽에는 해당 성인의 상분과 생애를 자세히 적어놓았다. 아래에는 ‘OO님’으로 시작하는 고운 축하 메시지가 있다. ‘나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특별한 느낌 때문에 성당에 다시 나오는 이들도 있고, 생전 처음 자신의 주보성인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소감까지 반응이 뜨겁다.

사목위원들이 한 달에 500여 명에게 카드를 보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면서 떠나간 가족을 불러 모으고 함께하는 가족과 더불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여 봉사한다.

③ 전 신자 피정

2013년 3~6월 동안 11차수로 나누어 상지 피정의 집에서 1박2일간 어린이만 빼고 청년부터 노인들까지 전 신자 피정을 한다. 사목위원이나 단체장은 가끔 피정을 하지만 신자들 중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피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특별히 마련했다. 본당에서 4만 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1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된다.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즐거운 불편'

- 서울대학교 고척동 본당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1. 당신의 창조 질서 보전 지수는?

1)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즐거운 불편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모든 창조물과 함께 살아가는지 살펴보는 표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을 때는 ○칸에, 그렇지 않을 때는 X칸에 표시해 주세요.

〈표1: 창조 질서 보전 지표〉

구분	창조 질서 보전 내용	○	X
1	주일미사를 위해 성당에 갈 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2	땀을 닦거나 코를 닦을 때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		
3	음식은 덜어서 먹고, 먹다 남은 음식은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4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가져간다.		
5	야외에 가거나 모임에 갈 때 개인 컵을 가지고 간다.		
6	양치할 때 컵에 물을 받아 사용한다.		
7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꺼두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8	냉장고는 60%정도만 채운다.		
9	절전형 전구를 사용한다.		
10	편지 봉투를 분리 배출할 때 비닐 부분을 뜯어내어 버린다.		

2) 다 적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구와 창조물을 살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확인해 보세요.

〈표2: 창조 질서 보전 단계〉

구분	단계	내용
1-3개	부족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하는 창조 보전 노력이 부족합니다.
3-5개	보통	창조 보전을 위한 생각과 노력이 보통입니다.
5-7개	좋음	창조 보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세요.
7-10개	매우 좋음	모든 창조물이 당신 덕분에 기뻐합니다.

2.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앞서 우리는 자신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노력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과 함께 살기 위한 우리 교회의 창조 질서 보전과 '즐거운 불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1) 생명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선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의 확대와 재생산을 위해 모든 자연과 사물을 그 경제적 가치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물의 가치를 700~800원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 공기의 경제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00~800원 정도의 돈으로 물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인은 '생명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다"(신명 30,20)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가치로 세상 바라보기! 모든 창조물과 화해하기 위한 '초록 회개'의 첫 번째 마음 자세입니다.

2) 아깁니다.

물 한 방울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껴서 사용합니다.

3) 직접 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대행업체나 공산품에 의지하지 않고 조금 수고롭더라도 직접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괜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족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나눕니다.

아껴 쓰고 남은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이웃 간에 정을 쌓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5) 조금 불편하게 삽니다.

지구와 모든 창조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간인 나와 우리만을 생각하는 생활양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와 에어컨 등 각종 편의시설보다는 걷기와 소박함을 선택하는 조금 불편한 생활양식을 선택합니다.

3. 창조 질서 보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1) 지구 온난화 문제

기상이변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근래에 석유, 화석 연료의 사용 등으로 급증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가스들이 지구 표면 대기권에 층을 형성하면서 지구가 받아들인 태양열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행동들〉

구분	내용
1	외출하기 전 스프레이나 무스로 머리를 다듬는다.
2	주일미사에 자가용을 몰고 성당에 간다.
3	가족들과 소고기 불고기를 자주 해먹는다.
4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 에어컨을 적정 온도보다 낮게 사용한다.
5	휴지로 코를 풀거나 땀을 닦는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즐거운 불편〉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채취되어 경상남도에서 정제됩니다. 자동차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2000cc, 건강에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200cc가량 배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1회 평균 주행거리는 약 10킬로미터 미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도 적당한 거리들입니다.

〈즐거운 불편 서약 1: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구분	내용
1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산책을 즐긴다.
2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3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다.
4	성당에는 가족이 함께 걸어서 간다.
5	자전거를 탄다.
6	불필요한 운전을 삼간다.
7	매주 차로 가는 곳 중에 걸어서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확인해 본다.

2) 먹을거리 문제

미소 짓는 식탁 만들기, 행복한 하루, 만족스러운 생활의 시작은 식탁과 밥상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위해서는 음식의 맛, 만드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외식을 할 때 식탁 위에 반찬을 남기고 일어나는 기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까운 음식을 남겼다는 죄책감과 함께 방금 먹은 것들이 금세 쓰레기로 변하는 광경이 주는 허무함 때문입니다. 곧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이 음식들이 밥을 먹기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을 받고, '감사히 먹겠다.'고 기도드렸던 음식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란 말은 세계 몇 나라에 없는 이상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음식물과 쓰레기란 말의 결합이 가당하기나 한 말인지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버리는 음식물의 양은 0.52kg입니다.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음식량을 1.5kg으로 잡을 때 이것의 1/3에 해당하는 양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생각 바꾸기〉

일체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삶에서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관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의 뜻을 새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식사 전, 식사 후 기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농약과 살충제, 제초제로 만든 죽음의 먹을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땅속의 미생물과 물속의 생물 모두를 죽입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은 수송 과정에서부터 방부제와 살충제 등이 많이 사용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즐거운 불편 서약 2: 먹을거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구분	내용
1	땅과 밥상과 생명을 살리는 농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실천한다.
2	먹을 만큼만 생명의 농산물로 밥상을 차린다.
3	되도록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한다. 한 끼 식사만큼의 요리를 할 수 있어 조리시간도 줄이고, 시간이 지나서 외면 받고 결국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다. ⁶⁾
4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적당한 양을 조리하고, ⁷⁾ 남기지 않고 먹는다.
5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다. ⁸⁾
6	남은 음식물은 지렁이 화분에 넣어서 퇴비로 재활용한다.
7	압력 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줄인다. ⁹⁾
8	식당에서 먹지 않는 반찬은 미리 반납한다.
9	가톨릭 농민들이 만든 생명의 농산물을 구입한다.
10	컵라면 등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11	외식을 줄이고, 밥, 국(찌개), 반찬 3개(김치 포함)로 소박한 밥상을 차린다.
12	텃밭과 주말 농장을 이용해 가족이 먹을 야채를 직접 키워 먹는다.
13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사과, 배, 감 등의 과일은 껍질째 먹는다.
14	유전자조작(GMO) 농산물과 식품을 먹지 않는다.
15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덜 먹는다.
16	주곡과 잡곡은 가톨릭 농민들과 계약 재배해서 먹는다(1분당 1공소 운동, 도·농 공동체 운동).

3) 일회용품 사용 문제

평상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비닐봉지, 종이컵, 컵라면, 나무젓가락, 신문지, 캔, 포장지 등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이의 원료인 펄프는 주로 캐나다와 중국의 나무들입니다. 숲이 파괴되면 숲속의 많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비가 오면 토사가 강으로 흘러들어 물속 생태계 또한 파괴됩니다. 그리고 종이 1톤을 만드는 데 20그루의 큰

6) 주1회 온가족이 함께 식사할 경우 연간 함께 8,616원을 줄일 수 있고, 전국 1,500만 가구 중 10%를 적용할 경우 12,924백만 원(150만 616원), 연간 547만 달러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7) 재료를 손질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전체 음식물 쓰레기 양의 54.6%에 이른다.
 8) 음식 국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정도의 맑은 물로 바꾸려면, 라면 국물 1컵은 5,000컵, 김치찌개 1컵은 10,000컵, 우유 1컵은 50,000컵의 물이 필요하다.
 9) 압력솥은 일반 솥보다 조리 시간이 1/3 정도 단축된다. 가스용 압력솥이 전기형 솥보다 에너지 절약에서 유리하다.

나무들이 필요하고, 무려 5만 명이 마실 물이 소모됩니다. 또 비닐은 한해 4-5조 개가 생산됩니다. 그러나 이 비닐들은 5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구와 함께 하는 창조 질서 보전 운동입니다.

〈즐거운 불편 서약 3: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1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¹⁰⁾
2	피크닉, 캠프 등 밖에 나갈 때, 또는 늘 개인 컵을 소지해서 종이컵 대신 사용한다. ¹¹⁾
3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 펄프 가공을 위해 베는 나무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길이다. 표백 처리한데다가 먼지가 나는 휴지보다는 면 손수건이 건강에도 좋다.
4	이면지를 모아두었다가 노트로 묶어 재활용한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노트 필기나 수학문제 푸는 것, 낙서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5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 생리대를, 일회용 비닐 기저귀 대신 면 기저귀를 쓰면 돈도 절약되고, 환경보호와 건강에도 좋다.
6	일회용 도시락 용기(합성수지)에 담아 랩으로 싼 농축산물은 일절 사지 않고, ¹²⁾ 대형 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7	책은 바꿔 읽고, 돌려보고, 참고서나 교과서도 물려준다.
8	병은 재활용하고, 알루미늄 호일은 씻어서 다시 사용한다.
9	과대 포장된 물건은 사지 않고, 선물은 포장하지 않는다.
10	일회용 커피 믹스, 티백 차를 마시지 않는다. ¹³⁾

4) 물 문제

서울 시내 아파트 주민들의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37리터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샤워할 때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마크협회’가 환경부 의뢰를 받아 2005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155가구를 현장 조사 한 결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237.6리터로 우리나라 생활용수 1인당 하루 사용량 174리터보다 37% 더 많았습니다. 1994년 물 소비 패턴 분석 때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물 사용량 중 ‘샤워’가 차지하는 비율이 8.7%에서 22.4%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샤워 횟수는 여름철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11.04회, 겨울철에 4.86회이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샤워 횟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해, 평평 물을 쓰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반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물 부족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쓸 분량의 물을 4시간 걸려서 길어오고 그 양은 불과 20리터입니다. 이 물로 온 가족이 씻고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장실에서 한 번 볼일을 보고 내리는 물의 양은 한 번에 약 6-9리터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나 물을 받아 놓고 쓰고 잠그면서 사용하면 2/3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 전국의 6만여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구입에 지출된 돈이 연간 1,200억 원에 이른다. 매립 시에는 썩지 않고,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 퓨란 등 각종 환경 호르몬이 발생한다.
 11)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쓰면 연간 25,000톤 이상의 펄프를 절감, 연간 50억 개 정도, 103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1인당 합성수지 사용량은 106만 톤으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7위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87만 톤)보다도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 합성수지는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땅속에서 500년 이상 썩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이다.
 13) 하루 발생하는 일회용품은 1,038톤, 연간 38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일회용품 사용의 일상화로 연간 3,952억 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278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든다.

〈즐거운 불편 서약 4: 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구분	내용
1	일반 세제 대신 샴푸, 야채 데친 물, 국수 삶은 물과 친환경 수세미를 사용한다. ¹⁴⁾ (샴푸물은 화초에 주어도 좋고 기름기를 닦을 때 세제 대신 써도 좋다. 한가한 시간에 아크릴 실로 친환경 수세미를 만든다.)
2	세제를 사용할 경우 EM과 같은 유익한 미생물 세제와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
3	비누와 식초를 이용해 머리를 감는다.
4	변기 수조에 물 채운 1.5리터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한다.
5	빨래를 모아서 세탁한다.(빨래 전 세탁기에 거품 내기, 빨래를 하기 전 물에 세제를 풀고 1~2번 정도 회전시켜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빨래감을 넣으면 세제 덩어리도 안 남고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빨래가 깨끗해진다.)
6	샤워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한다.(샤워기에서 컸다, 컸다 할 수 있으므로 물 손실이 적다.)
7	세수, 양치질, 면도할 때는 물을 받아서 쓴다.
8	물은 반드시 두 번 이상 쓴다.(목욕물을 모아 세탁물로 다시 사용하거나 화초에 물주기)
9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목욕하기보다는 가급적 샤워를 물을 약하게 하고 한다. ¹⁵⁾
10	기름기가 묻은 그릇은 신문지나 헝겊으로 닦아내고 설거지를 한다.

5) 에너지 문제

화력 발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죽음의 에너지인 핵발전소를 유지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또 석유 문명은 원거리 운송의 문명입니다.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은 지구 파멸의 징후인 지구 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즐거운 불편 서약 5: 아껴 쓰고 다시 씁니다〉

구분	내용
1	재활용을 생활화한다. 이면지를 활용하고 신문지 등을 재활용하면 폐지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된다.
2	안 쓰는 가전제품은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끈다. ¹⁶⁾
3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
4	냉장고 안은 60% 정도만 채운다. 음식으로 냉장고 안을 60% 이상 채우면 공기의 순환이 방해되어 전력 낭비가 커진다.
5	온도기로 실내 적정 온도를 확인해 여름철과 겨울철에 과도한 냉난방을 피하고 단열에 신경 쓴다.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대신 내의를 입는다.
6	에어컨 대신 선풍기와 부채를 사용한다.(에어컨 1대 에너지 소비량=선풍기 30대)
7	냉장고 문을 열 때는 무엇을 꺼낼지 미리 생각하고 꼭 필요할 때만 열고 닫는다.
8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는다. ¹⁷⁾

14) 2겹의 쌀을 씻을 때는 3리터의 물이 쓰이는데, 이 물을 정화하는 데는 최소한 1톤의 물이 필요하다.

15) 우리나라 한 가구당 연간 연료 사용량은 15드림이다. 이 중 10%가 온수에 사용되고 15%를 절약할 경우 가구당 23,310원이 절약되고, 1,500만 가구에 10%를 적용할 경우 350억 원이 절약되며, 연간 1,049만 달러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절감된다.

16) 대기 시간에 버려지는 전력은 우리나라 가정, 상업 부분 전력 사용량의 10%이며, 금액으로는 약 3,000억 원이 든다.

17) 전국에서 500만 가구가 하루에 한 번씩만 음식물을 식혀서 넣을 경우 73억 원(500만 가구×4원×365일)이 줄며, 연간 308만 달러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절감된다.

9	엘리베이터를 복층 운행하고, 4층 이하는 걸어서 다니고 탈 때는 여럿이 함께 탄다.
10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다시 쓴다.
11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자판기와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12	컴퓨터는 쓰지 않을 때 반드시 끈다. ¹⁸⁾
13	TV는 계획을 세워서 시청하고, 쓰지 않을 때는 끈다.
14	캔에 든 물품은 사지 않는다. ¹⁹⁾

4. 창조 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책임, '즐거운 불편'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새로운 선택과 책임인 '즐거운 불편'은 한마디로 '가치관의 해방'입니다. 그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고, 소박한 것이 멋있는 욕망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자발적 검소와 즐거운 불편의 선택은 환경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연 질서와 야생의 황야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인간의 손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대지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불어넣으신 성스러움과 빛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인간의 능력과 마음을 쏟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 모든 만물의 생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루는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하는 '즐거운 불편'의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18)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 시간을 꺼놓을 경우 모니터와 본체를 합쳐 대당 100Wh의 절전이 가능하다. 하루에 한 시간씩만 안 쓸 때 꺼놓을 경우, 연간 전기 요금 240억 원이 절감되며, 연간 1,014만 달러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9) 땅에서 캔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한 해 동안 종이를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고철과 폐지 등 폐자원을 1조7천 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플라스틱과 캔 등의 재활용을 1퍼센트만 높여도 해마다 639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문화제

- 의정부교구 금촌2동 본당

■ 의정부교구 금촌2동 본당 민족화해분과 제공(2017)

금촌2동 본당은 의정부교구 내 북한이탈주민 특성화 본당으로 지정되어 민족화해분과와 총구역에서 함께 어떤 사목을 기획해야 할지 여러 공리를 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호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고 생각하도록 신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

그래서 민족화해분과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더 알아가기 위한 교육으로 민족화해학교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족화해학교를 하게 되면서 수강자의 인적 구성이 양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족화해학교의 시간을 저녁으로 잡으면 어르신들의 참여가 어렵고, 낮 시간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당 전체가 조금 더 집중하여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민족화해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행사와 함께 민족화해학교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문화제'로 발전했다.

주변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로 함께 소통하고 보다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마련한 문화제이다.

문화제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약 한 달여 동안 여러 행사를 나누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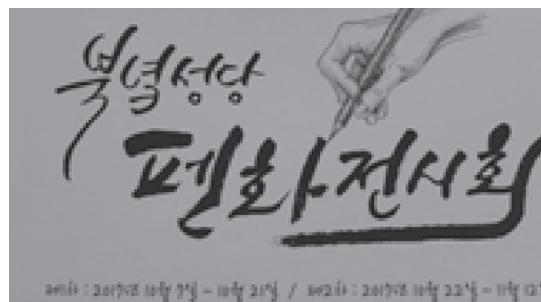
① 먼저 북한 지도에 북녘의 옛 성당을 표기해서 1층 벽면에 게시하였다.

② 주일학교 학생들은 북한 관련 책과 영화를 보고 후기를 남겨 전시했다.

어린이부 주일학교 학생들은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우리는 친구'와 '애니메이션 구름빵 수상한 할머니' 등 2편의 영상을 시청하고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청소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은 북한의 동화 작가들이 쓴 단편 동화를 읽은 소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③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북한성당 펜화 전시회가 사랑방에서 열렸다.



④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민족화해학교(평화사도)를 열어 오후 8시부터 한시간반 동안 5회에 걸쳐 다섯 분의 북한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날짜	주제	강사
10월 13일	북한이탈주민의 삶	류승순 수녀 - 민족화해센터 사무국장
10월 20일	북한 사회 이해	윤여상 박사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 -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10월 27일	민족화해와 교회의 성찰	강주석 신부 -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장
11월 3일	통일방법론, 통일 미래상	백장현 박사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11월 10일	분단을 넘어 민족의 화해와 일치로	이은형 신부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임신부 - 민족화해센터장

⑤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와 남한 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북녘에서 온 노래'를 만남의 방에서 상영하였다.

⑥ 10월 영적 독서로 북한 관련 도서 『류명성 통일빵집』을 읽었다.

⑦ 11월 5일에는 교중 미사 후 전 신자들에게 북한 음식인 김치말이 국수 나눔을 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⑧ 교우들의 관심을 더 모으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뉘이기 위해 "화해와 일치"라는 단어로 5행시 짓기를 기획했다.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신자들이 직접 지어 적은 5행시 짓기에는 재밌고 의미 있는 글들이 많이 제출되어 문화제 기간 동안 모두 성당 로비에 전시하여 함께 읽어볼 수 있게 하였고 작은 음악회 때 우수상 발표도 함께 진행했다.

⑨ 11월 11일 오후 6시 미사 후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작은 음악회'에서는 성가대를 비롯한 어린이 성가대, 청소년부 주일학교, 민족화해분과, 우쿨렐레 동아리, 색소폰 연주,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자 모두가 북한 노래 "다시 만남시다"를 함께 배우고 부르면서 문화제는 마무리가 되었다.

한 번의 문화제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웃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모두 알고 소통할 수는 없다.

금촌2동 본당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본당 신자들이 함께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바치고, 매 미사 전 묵주기도 1단을 바치며, 매월 마지막 목요일 10시 미사를 드린다. 문화제와 기도를 통해 변함없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음을 이어갈 활동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사목 아이디어 모음

– 사회 사목 –

■ 사랑의 3,000원 나눔 운동

미사에 참석한 전체 신자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도록 3,000원을 나눠준다. 이 돈은 본당 사회사목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랑의 우체통’을 마련하여 신자들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작성하여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뒤 우체통에 모아진 사연을 서로 나눈다.

– 대구대교구 삼덕 본당, 가톨릭신문 1999.5.23.

■ 전 신자가 함께 하는 사회복지활동 전개

본당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신자가 지역의 가난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본당 주임 신부, 수녀, 사도회장, 사회복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는 한 달에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한다. 또한, 본당 신자들 중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사회복지 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 원주교구 북평 본당, 가톨릭신문 1999.5.23.

■ 가정봉사단

가정봉사단은 본당 가족 단위의 봉사단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가족 모임으로 구성된다. 가정봉사단은 가정의 해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과 소외받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방문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한다. 목욕봉사, 청소와 식사 나누기, 장애인들과 함께 걷기, 강변에서 함께 먹는 바비큐 파티, 공부방을 방문하여 돈가스를 전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가정봉사단은 방문하기에 앞서 이웃이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조사한 뒤 날짜를 정하고 성당에 모인다. 함께 가정 봉헌문을 바치고 봉사를 다녀온 뒤에는 본당 주임 신부님의 안수와 강복으로 마무리한다.

– 광주대교구 호남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4.4.13.

■ 나눔의 목상회

나눔의 목상회는 1985년 6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만든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다. ‘나눔은 사랑입니다’를 모토로 서울대교구 23개 본당에 나눔의 목상회가 있고, 안동·전주 교구 등에서도 나눔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문의: 02-727-2547)

서울대교구 구의동 본당의 나눔의 목상회는 집수리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20-30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집수리가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도배와 장판, 전기배선, 싱크대와 주방가구 수리 등을 진행한다. 자재는 기업이 협찬하고 시공은 봉사팀이 맡는다. 집수리 해주는 곳이 수혜자 소유의 집이 아닐 때엔 집주인의 허락과 함께 앞으로 3년은 더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수리를 진행한다.

– 서울대교구 구의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7.1.8.

■ 천사 다키 운동

매주 천사 4명을 선정하여 교중 미사 공지 사항 시간에 발표하였다. 선발된 천사는 본당에서 주는 천사금 4,000원(거꾸로 읽으면 원천사)을 받아 천사 활동(선행)을 한 뒤 일기를 작성하고 이를 본당 소식지에 게재하였다. 본당 신부는 매주 그 주의 천사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였다. 2년 동안 327명의 신자가 동참하였으며, 이 글을 엮어 『천사 일기』 1,2를 발간하였다.

- 춘천교구 임당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0.1.3. ; 『천사 일기』

■ 자비 실천을 위한 종잣돈 5,000원

사순시기를 맞아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일미사에 참례한 전 신자에게 자비 실천을 위한 종잣돈 5,000원을 봉투에 넣어 나누어주었다. 5,000원을 밑천으로 이루어낸 육체적, 영적인 자비 실천을 기록하고 부활 대축일 미사 때 봉헌하였다. 많은 신자가 바쁘게다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 서울대교구 시흥4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6.3.13.

■ 방문 전담 수녀

본당에서 수녀회에 요청하여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사목을 전담해 줄 수도자가 부임하였다. ‘방문 전담 수녀’는 본당에서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오로지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만 한다. 구역장 반장들을 통해 아픈 사람,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추천을 받아 함께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 본당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사회 복지 주일’로 정하고 ‘사랑의 십일조’ 현금을 모아 수녀님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 서울대교구 노원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4.6.15.

■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매주 토요일 저녁에 본당에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였다. 종교 유무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인생은 65세부터 시작합니다’, ‘애니어그램’, ‘예수 영성’, ‘생태적 세계관과 우주 이야기’, ‘행복한 집짓기’, ‘생명의 살림집’ 등 새로운 삶의 형태를 모색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당에 새로 갖춘 ‘마중물 도서관’을 인문학 강좌는 물론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 대전교구 청양 본당, 가톨릭신문 2013.8.25.

■ 상설 심리상담실 운영

본당에 상담 분과를 설치하고,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에 소속된 전문 상담자를 섭외하였으며, 소파와 탁자, 소품 등을 구비해 안락한 분위기의 상담실을 꾸몄다. 개인·집단(가족) 상담뿐 아니라 우울증, 자녀 갈등, 성격 문제, 부부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과 성격 유형 및 다면적 인성 검사 등을 진행한다. 남녀노소, 종교를 불문하고 상담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당 사회복지분과와 빈첸시오회, 레지오 마리에 등의 지원을 받아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할 뿐 아니라, 주민센터와도 연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비용은 저렴하게 책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본당에서 상담 비용을 지원하였다.

- 수원교구 인계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6.8.7.

■ 사회사목실 운영

본당 교육관을 활용한 '사회사목실'에서 알코올 및 가정 문제 상담실과 A.A.A.모임, 영어 교실, 서예, 녹색 가게 운영, 청소년 자원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본당 관할 구역 내 교회 사회복지 시설,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신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당 파견 수도자 가운데 한 명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본당 사무실 직원도 본당 행정과 사목 프로그램 담당자로 나누었으며, 선교사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 지역 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수원교구 성남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7.11.5.

■ 본당 푸드뱅크 운영

본당 내 냉장·냉동 저장고와 작업 공간 '하늘곳간'을 마련하여 축복식을 가졌다. 이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본당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내 후원자를 발굴하고, 소공동체를 통해 음식을 나눈다. 한 달에 한 번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후원 물품을 꾸리고자 본당에 모인다.

- 대전교구 산성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5.4.26.

■ 거리 청소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성당 주변 거리를 깨끗이 해보자는 뜻과 참여하는 교우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계획하였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낮 미사 후 모든 미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인 1조로 집계와 자루를 휴대하고, 성당 주변 주택가, 상가, 수성못 공영주차장 주변의 모든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본당에서 재차 분리 후 처리하였다.

- 대구대교구 두산 본당 제공(2017.12.)

■ 장 담그기

본당 교우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3년째 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장독에 장을 담근다는 일이 쉽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장을 담그는 지도 모른다. 넓은 성당 옥상에 각자의 장독을 올려놓고 장독 소독에서부터 하나하나 본당 어르신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함께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당신이 직접 가르쳐주는 즐거움을,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 손으로 장을 만들었다는 성취감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성당의 문턱이 좀 더 낮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누구나 된장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집 옥상 드나들 듯이 성당 옥상에 장를 가지러 온다.

- 대구대교구 정평 본당 제공(2017.12.)

■ 찾아가는 사도직

본당의 사회복지분과와 주민센터가 연대하고 또한 수도회와도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 빈곤한 독거 노인들에게 쌀·반찬을 제공하고 식사 차려드리기, 설거지하기, 가요 부르기, 간단한 체조·운동·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본당 교우와 연대, 바람 쐬어드리기

- 다문화 가정 방문하여 자녀 신앙생활 돕기, 이웃과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 장애인 돌보기: 부모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자녀 함께 공원 나들이하기, 성당에 안내해 함께 전례 참여하기, 가끔 외식시켜 주기, 대화·차·나눔을 통해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장애인이 본인들의 삶에 작은 기쁨과 희망 주기
-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주부들에게 음악치료 희망 주기, 본당에서 진행되는 기타반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돕기
- 어려운 가정 자녀들 학자금 지원하기

- 전주교구 효자동 본당 제공(2017.12.)

신심 서적 54권 읽기

- 서울대교구 잠실7동 본당

■ 출처 『사목』 2004년 12월 호

서울대교구 잠실7동 본당은 본당 설립 11주년을 맞아 '신심 서적 54권 읽기' 운동을 펼쳤다. 10주년 성경 쓰기 운동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신심 서적 54권 읽기'를 54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54권의 책을 모두 읽은 신자는 300여 명, 본당에서 1년간 판매한 도서는 2만 1천여 권에 달했다.

1. 도서위원회 구성

먼저 신심 서적 읽기 운동을 총괄할 도서위원회를 본당 사목위원회 교육분과 내에 설치한다. 잠실7동 본당에서는 구역, 연령, 소속 단체 등을 고려하여 9명의 위원을 선발하였으며, 도서 분과장을 비롯하여, 총무, 서기, 홍보, 회계, 도서 구입과 관리, 작가 초청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매주 1회 공식 회의를 갖고, 이 시간에 도서 선정을 위해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고, 신자들의 반응을 나눈다.

2. 도서 선정

1) 선정 방법: 무엇보다 신자들이 읽게 될 54권의 도서를 선정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교우들의 추천, 각 출판사의 신간 안내 등을 참조하고, 교회 내 출판사에 문의하며, 여러 성직자, 수도자들의 조언을 들어 좋은 책을 엄선하였다. 따라서 도서위원들은 신자들보다 4-5배나 많은 책을 읽어야 했다.

2) 선정 기준

- 한 달에 보통 4-5권을 선정하되, 반드시 한 권은 '성인 전기'를 넣어 성인들의 삶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 전례력을 참조하여 그달의 성월에 맞추어 도서를 선정한다.
- 영성 수련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기본으로 한다.
- 가톨릭 교리에 맞지 않거나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도서는 피한다.
- 가능한 저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신자들의 추천 유도

- 추천 도서함과 추천 용지를 만남의 방에 비치하여, 누구든 자유롭게 좋은 책을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추천 용지에 도서명, 출판사, 지은이, 간단한 줄거리와 추천 의견을 기입하게 한다.
- 많은 책을 추천한 사람과 추천 도서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그달의 도서를 선물한다.
- 채택되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4) 도서 판매: 결정된 도서는 일괄 구입하여 본당에서 판매한다. 주일에는 본당 마당에 천막을 치고, 판매대를 설치하여 편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잠실7동 본당은 정가의 20%를 본당에서 지원하여 신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주일학교 도서 목록: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도서 목록을 만든다.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책을 선정한다.

잠실7동 본당의 월별 추천 도서 목록

월별	도서명	지은이/역자	출판사
11월 위령성월	1 내 영혼의 리필	리처드 P. 존슨/한정아	열린출판사
	2 화	틱 낫한/최민수	명진출판사
	3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야기	스즈키 히데코/최경식	생활성서사
	4 장미비, 스물넷의 약속	모니카 마리아 슈퇴거/정복례	바오로딸
	5 겨울부채	하네다 노부오/이현주	생활성서사
12월 성탄대축일	6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전광	생명의 말씀사
	7 50가지 성탄 축제 이야기	안셀름 그윈/서명옥	분도출판사
	8 마더 데레사의 아름다운 선물	마더 데레사/이해인	샘터
	9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김경온	두레
1월 새해/설	10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최영혁	청조사
	11 비오 신부의 삶과 영성	마리아 비노프스카/최옥식	성바오로
	1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렌차드/조천제	21세기 북스
	13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	송봉모	바오로딸
2월	14 일세기 교회	박태식	생활성서사
	15 학대받는 아이에서 학대하는 어른으로	낸시 벤벡가/문종원	청조사
	16 마지막 선물	데레사 로드스맥기	보보스
	17 노래하는 환경교실	이기영	현암사
3월 성요셉성월 사순시기	18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가톨릭출판사
	19 내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한상봉	바오로딸
	20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	박완서	여백미디어
	21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정채봉	샘터
	22 이 잔을 들겠느냐	헨리 나우웬/한정아	바오로딸
2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방대수	책 만드는 집	

4월 부활대축일	24	예수 내 인생의 의미	헨리 나우웬/이경우	분도출판사
	25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	안셀름 그린/정하돈	분도출판사
	26	항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해인	샘터
	27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	미셸 드 생피에르/심바로	가톨릭출판사
5월 성모성월 가정의 달	28	성모성월(5월에 드리는 기도)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출판사
	29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최인호	문예
	30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성 알폰소/남용욱	바오로딸
	31	막시밀리안 콜베	마리아 비노프스카/김동소	성바로
	32	미사, 제대로 드리기	로마노 과르디니/김영국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6월 예수성심 성월	33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여덟 가지 열쇠	메릴린 거스틴/성찬성	바오로딸
	34	영혼의 성악	루이지 주세페 가르리아노/김구정	가톨릭출판사
	35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최양업	바오로딸
	36	천국의 열쇠	A.J.크로닌/이승우	바오로딸
7월 하기휴가	37	신부님은 왜 큰 성체를 드시나요?	홍문택	가톨릭출판사
	38	고향 가는 길	최종태	햇빛출판사
	39	이야기로 배우는 모세오경	박요한	생활성서사
	40	성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	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	분도출판사
8월 성모승천 대축일	41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바오로딸
	42	이경재 신부님	곽인행	소금물
	43	삶, 아름다운 진실	패트리샤 리빙스턴/강우식	바오로딸
	44	마음의 밤과 낮	C.M.마르티니	생활성서사
	45	공관복음 사도행전	정태현	생활성서사
9월 순교자 성월 추석	46	그리스도인의 비전	J.포웰/정흥규	바오로딸
	47	순교자들의 신앙	박도식	바오로딸
	48	영원토록 당신사랑 노래하리라	스콧 한 · 김벌리 한/허종열	바오로딸
	49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정규한	성서와 함께
	50	신앙의 인간 요셉	송봉모	바오로딸
10월 목주기도 성월 전교의 달	51	기쁨을 전하는 그림	정은진	가톨릭출판사
	52	준주성범(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윤을수	가톨릭출판사
	53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김수환	사람과 사람
	54	가장 완전한 기도(시편으로 바치는 기도)	토마스 머튼/오모수	성바로

3. 독서 카드

그달의 선정 도서를 읽고 난 뒤에는 개인별로 독서 카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출한 카드는 본당 신부가 일일이 확인한다.

이에 대해 통계를 낸 뒤 이를 본당 주보와 홈페이지에 올려 개인과 구역별 신자들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게 한다.

구역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 우수한 구역에 시상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욱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독서 카드

천주교 잠실7동성당
특별모임 성모행림

54권 신심서적 읽기(4월)

권	비	저	지은이	출판사	다 읽은 날
24	영수, 내 인생의 의미	원규	박도석/이경우 역	영도출판사	월 일
25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해인	이해인	성당사	월 일
26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	안상현	김광/장학원 역	영도출판사	월 일
27	영 모친님 신부	홍문택	홍문택(영도), 성모도로 역	기독교출판사	월 일

주요신부 확인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천주교 잠실7동성당
특별모임 성모행림

54권 신심서적 읽기(9월)

주제	책	저	지은이	출판사	다 읽은 날
47	순교자들의 신앙	박도석	박도석	영도출판사	월 일
48	영원하루 영신사유 노래(12권)	스캇	김광영 역/서양영 역	영도출판사	월 일
49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정규환	정규환	영서외출판사	월 일
50	신앙의 인간 요령	송영모	송영모	비오코출판사	월 일

주요신부 확인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4. 강연회 개최

- 1) 매달 그달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하여 저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신심 서적읽기 운동의 기폭제 구실을 한다.
- 2) 본당 신부와 도서위원회가 함께 작가를 선정하고, 함께 찾아가 강의를 부탁한다. 유명인사로서가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듣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부탁한다.
- 3) 강연회 날짜가 정해지면 일주일 전에 해당 도서를 미리 읽게 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작가에 대한 소개와 미리 방문하여 작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본당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한다.
- 4)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 때마다 자주 공지하며, 주변 본당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초청한다.
- 5) 강연회 뒤에는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여 본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미처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까지도 강의 내용을 알게 된다.

잠실7동 본당의 초청 작가 목록

월	강사	강의 주제	도서명
2	이기영 교수	환경 보존의 중요성	노래하는 환경교실
3	박완서 작가	문학과 종교의 일치	님이어, 그 숲을 떠나지 마오
4	이해인 수녀	일상의 삶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5	최인호 작가	내게 필수이신 하느님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6	두봉 주교	나를 이끄시는 주님	
7	최종태 교수	성상 안에 살아계신 분	고향 가는 길
9	홍문택 신부	미사의 의미와 은총	신부님은 왜 큰 성체를 드시나요?
10	김수환 추기경	믿고 깨닫는 삶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5. 홍보 방법

- 1) 다른 사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본당 신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일단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수월할 것임을 이야기한다.
- 2) 강론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선정 도서의 내용과 감상 등을 신자들과 나눈다.
- 3) 주보의 첫머리에 그달의 도서 목록을 공지하고,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그 주에 읽을 도서명을 신자들과 다함께 큰 소리로 읽는다.
- 4) 본당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다. '이달의 추천 도서'라는 방을 만들어 도서의 표지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책을 읽은 감상을 자유 게시판을 통해 나누며, '추천합니다'에서 도서를 추천한다. 그 밖에 독서 현황과 강연회에 관한 내용을 공지한다.

6. 본당의 달라진 모습

- 1) 한 주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읽다 보니 신자들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자신과 공동체를 느끼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 2) 신자들간 대화가 많아진다. 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갔던 신자들이 책을 통한 영적 교류를 위해 만남의 방에 모여 이야기를 하며 책 속의 좋은 구절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 3) 평일미사 참례자와 성체조배실을 찾는 신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 4) 예비신자,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 5) 가정에서도 독서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기보다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 6) 책을 통해 얻은 기쁨을 나누고자 본당 선정 도서를 이웃에게 선물하기도 하며, 독후감과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들을 서로 나누며 한마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성이 담긴 구유 꾸미기

■ 출처: 강혜경 수녀(스승 예수님의 제자 수녀회), 『사목정보』 2008년 12월 호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먼저 유년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서 나타난 영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영성을 주제로 표현한 구유의 예시로 소속 수도회에서 만든 구유 세 점을 소개한다.

성탄 구유 꾸미기 영성 준비

1. 마태오 복음(1,1-2,23)

〈즐거리〉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위대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예언 성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예언대로 다윗 왕가 후손 요셉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들이, 정작 그분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배척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별빛의 움직임에 따라 메시아를 경배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기득권자들의 독세로 어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하는 이방인 신세가 됩니다. 그 후 이방인의 지역인 나자렛으로 돌아옵니다.

영성 퍼내기: 현실 안에서 하느님의 뜻 찾기/겸손/깨어있기/진리를 실천하기

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자신의 꿈(전 생애)을 모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심 깊은 여인네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수절하며 기다렸는데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에 신심 깊은 목수인 요셉과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다가 흥두깨를 맞았습니다. 요셉은 율법보다 더 높은, 사람을 살리는 일(사랑)을 선택한 길이 약혼녀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②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이시기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인생을 사시며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③ 안주(安住)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별과 '빛'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만 바라보다가 그 별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한 번뿐인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례를 통한 신앙의 빛은 우리에게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④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율법과 예언서), 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한 기다리라고 곧 오신다고 백성에게 가르쳤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한다는 것까지 전부 알면서도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힘 있는 이들의 눈치를 보며 진리 앞에 침묵하고 진리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2. 루카 복음(1,1-2,20)

〈줄거리〉

루카 복음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와 요한, 두 부모님과 밀접한 관계도 소개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나라에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일로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서 살던 요셉은 자신의 호적 등록을 위해 그들의 본향인 유다 지방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만삭이 된 아내는 거기에서 해산했습니다.

영성 퍼내기: 구원의 섭리/숨겨진 하느님의 능력/생명의 존엄성/약자 편인 하느님

⑤ 인간들이 꾸미는 역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은총의 역사도 계속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많이 받고자 호적 등록하기를 요구하는데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⑥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산할 방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아기(하느님)를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낳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문제와 연결됩니다.

⑦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는 표징은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구세주를 알아보는 표징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구유'는 동물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짐승과 같은) 우리의 '밥(=성체)'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하느님 현존 장소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산 이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⑧ 하느님의 선하심은 늘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입니다.

집도 없이 들에 살면서 밤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죽도록 노동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먼저 경배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단순한 목동들은 보고 들은 대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삶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이제 온 세상에 그 소식이 알려질 것입니다.

⑨ 하느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은 율법과 예언서를 통하여 알려주신 '다윗 고을'입니다.

⑩ 부부의 연도 맺지 않은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자식(하느님 생명)으로 키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온 정성을 다해 순명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구원 사업)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며" 항상 오늘을 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유년기 복음에서 나타난 ①~⑩이 담긴 영성, 즉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약자 편을 드시는', '하느님 뜻 찾기'를 표현한 구유 세 점 소개입니다.

영성이 담긴 구유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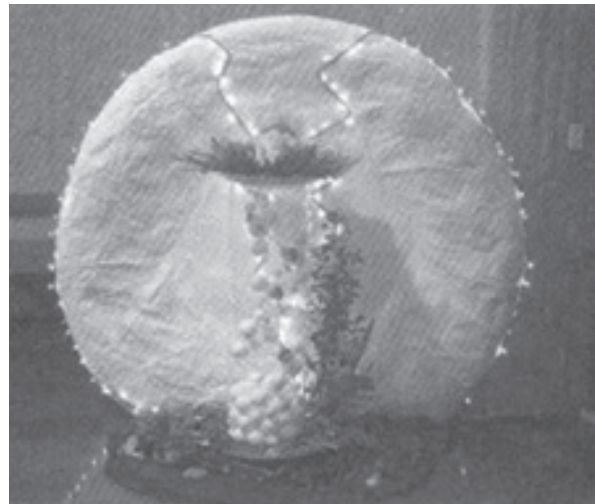
1. 주제: 성가정(2007년) - 삼위일체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 ① 별(빛): 다윗 가문의 떠오르는 메시아의 별/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 ② 성 요셉: 성모님 양 어깨에 사명감이 담긴 두 손을 얹으시고는, 눈길은 성모님 어깨 너머로 아기 예수님을 내려다보시며 당신의 소명 수행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 ③ 성모님: 아기를 당신 품에 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어주십니다. 그 자태와 두 눈빛은 모든 순간을 곰곰이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듯합니다.
 - ④ 아기 예수님: 당신께 모든 이들이 나아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 주제: 생명(2006년) - 완전한 사랑의 현존이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통하여, 생명과 함께, 생명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신 분,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아버가 자식을 어여뵈 여기듯이”(시편 103,8 참조) 교만과 허영, 그리고 명예와 권력으로 하느님께 도전하는 당신의 피조물 안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어 생명의 원천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그분 “보시기에 좋은”(창세기 1장 참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① 받침(맨 밑 받침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창세기 1장 참조)고 하신 땅을 표현합니다.
- ② 아크릴과 DNA 모형: 생명의 기본 단위인 DNA를 형상화하여 물질 만능과 전쟁, 생명 윤리를 거스르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으려는 현 시대를 나타냅니다.
- ③ 구유: 하느님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자비를 보이시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심”(요한 1,14 참조)을 표현합니다.
- ④ 성체(구유 뒷면 동그란 하얀 배경): 세상과 인류의 악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매일의 성체성사 은총 안에서 ‘다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더해 주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을 살고 세상에 내어주며 인류를 품어 안은 경건한 제자의 사명과 2006년 서울대학교의 지향인 ‘성체 안에 하나 되는 친교의 삶’을 상징합니다.



3. 주제: 평화와 생명(2001년) -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리니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이사 11,2-9 참조)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비천한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 평화와 일치를 향해 모든 이 안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① 녹색 천: 생명의 존엄성과 파손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다시 회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새롭게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② 남색 천: 순결한 동정녀의 몸이면서도 성자를 말씀으로 잉태하여 구세주를 낳아주셔서 천상 은총이 이 지상에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누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본당사 편찬 매뉴얼

■ 출처: 『사목』 2006년 5월 호

본당사는 본당 공동체가 이어져 온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목 방향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본당 공동체 안에 함께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봉헌물이 된다. 잊혀져 가는 본당 원로를 찾아내고, 본당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평신도를 양성한다는 점은 덧붙여 얻는 선물이다.

1. 팀 구성과 준비

1) 실무 팀 구성: 사목위원회 산하에 본당사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본당사 편찬과 관련한 전반 사항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당사의 실제 집필을 담당하는 실무 팀을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당사 편찬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은 본당사 편찬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도록 한다.

인원은 4~5명 정도로 하며, 교회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역사 편찬, 편집 관련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적당하다. 퇴직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신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본당 청년들을 중심으로 실무 팀을 꾸리는 것도 좋다. 팀워크를 위해 별도의 팀 이름도 정해 본다. 본당사 편찬은 평신도 양성의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사무실 마련: 본당사 편찬은 긴 시간이 드는 작업이므로 본당사 편찬 팀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한다. 필요한 기자재와 참고 도서 등을 준비한다. 사무실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필요 기기: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카메라, 녹음기 등

※ 참고 도서: 『교회법전』, 『가톨릭 교회 교리서』, 『공의회 문헌』, 『교회법 해설』, 『본당사 편찬 지침』, 『천주교 용어집』, 타 본당 본당사(특히 인근 본당의 본당사), 교회사 관련 도서 등

3) 비전 공유: 팀이 구성되면 본당 주보 등에 공지하여 본당사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본당 공동체 전체와 함께하는 작업이 되도록 한다.

또한 본당사 편찬 팀의 구성원들은 먼저 본당사 편찬이 각자에게 지니는 의미를 찾도록 한다.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다거나, 본당 공동체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등 나름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매주 회합을 가지며, 회합은 언제나 복음을 읽고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회의록을 만들어 논의 사항과 결정 사항을 정리해 나간다.

- 4) 계획 세우기: 본당사가 책으로 나오기까지 전체 계획을 세밀하게 잡는다. 집필 목적과 원칙을 정하고, 집필 단계와 방법, 집필 단계 각각의 소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중간에 수정하게 되더라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각자 담당을 정하고, 적절히 역할을 분담한다. 대표, 회계, 자료 수집·분류 담당, 인터뷰 담당, 사진 자료 담당, 단체사 담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학습

- 1) 교회사: 본당사를 집필하려면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세계 교회사를 비롯하여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특히 집필하고자 하는 본당 역사의 시기에 한국 천주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숙지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도서를 선정하여 돌아가며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 2) 「본당사 편찬 지침」: 본당사 편찬의 통일성을 위해 주교회의 문화위원회에서 마련하고 2001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승인된 「본당사 편찬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지침에 따라 본당사를 집필하도록 한다. 이 지침에는 본당사 편찬의 필요성과 목적, 본당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본당사의 시대 구분, 본당사 서술의 내용과 방향, 본당사의 내용 구성, 본당사 서술의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3) 타 본당사: 잘 된 본당사 하나를 선정하여 꼼꼼히 검토하며 나눈다.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4) ‘본당’, ‘사목’ 등에 대해 고민하기: 『가톨릭 대사전』, 『교회법전』 등을 활용하여 본당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지역 사회 안에서 본당의 활동, 사목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 5) 본당사 내용 구성: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당사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미리 스케치해 본다. 본사(本史) 내용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여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① 화보 사진: 현 본당 신부·수녀, 역대 본당 신부·수녀, 역대 사목회장, 본당 출신 성직자·수도자, 현 사목 위원 사진
 - ② 발간사, 축사: 본당 주임 신부의 발간사, 교구장, 지구장, 역대 본당 신부, 본당 원로 신자 등의 축사
 - ③ 본사(本史): 본당사의 중심 내용
 - ④ 단체사: 각 단체와 부속 기관의 연혁과 주요 활동(집필을 각 단체와 기관에 의뢰)
 - ⑤ 본당 현황: 신자 수, 신자 수 변화, 세례자 수 변화, 역대 교역자, 역대 수도자, 역대 사무장 및 관리장, 본당 출신 성직자 및 수도자, 사목 협의회 구성, 부속 기관 현황, 구역·반 현황, 주일학교 현황 등
 - ⑥ 본당 신앙생활 실태: 본당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본당 공동체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교회 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대해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6) 전문가 강의: 본당사 집필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어느 정도 계획과 학습이 이루어진 뒤에 강의 시간을 가져, 본당사 집필에 유의할 점,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류

- 1) 주보 자료: 본당사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본당 주보가 가장 핵심적인 도움을 준다. 본당 주보의 공지 사항을 바탕으로 본당사의 뼈대를 잡고, 기타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살을 붙여 나가게 된다.
주보에 나타난 주요한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집필을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주보를 발행하기 전에 본당마다 소식지 형태로 제작한 주보도 수집하여 정리한다. 주제어를 부여하여 시대순으로 정리해 나간다.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예: MS Access 등)을 활용한다. 이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므로 다른 협조자의 도움을 받는다.
※ 주제어 분류의 예: 교역자(신부, 수녀) 이동, 사목 활동, 건축 관련, 단체사, 기초 공동체 활동 등
- 2) 본당 소장 자료: 본당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분류한다. 누락된 자료가 생기면 나중에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한다. 검토할 자료 들로는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토지·건물 관련 서류, 사목 일지, 사목 계획서, 사목 보고서, 공문, 서신 등이 있다.
- 3) 지역사 관련 자료: 본당 사목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청에서 발행한 지역 역사서나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당 관할 지역의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
- 4) 교구청 자료: 교구 사무처, 문서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본당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다. 특히, 본당 주임 신부 부임 일에 대해서는 교구 자료를 반드시 확인한다.
- 5) 단체사 자료: 각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단체장에게 주임 신부의 이름으로 '원고 청탁서'를 전달한다. 원고 청탁서에는 본당사 편찬의 목적을 명시하고, 본당사에 필요로 하는 내용(각 단체의 설립일, 설립 목적, 주요 연혁, 주요 활동, 역대 임원 등)과 집필 형식, 원고 마감일, 원고 제출처 등을 기입한다. 다른 본당의 단체사 샘플과 주보에서 수집한 각 단체 관련 자료를 참고 자료로 첨부한다.
단체사의 집필은 각 단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도록 하여 각 단체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 6) 기타 자료: 주보 공지를 통해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서류와 사진 등의 자료들을 수집한다. 주일에 성당 입구에 접수처를 설치하며, 자료를 인계받을 때 반드시 제공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여 본당사 간행 뒤 되돌려 주도록 한다. 기증 자료의 경우는 따로 표시해 둔다.
- 7) 사진 자료: 수집된 사진들을 모두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파일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기와 사진 내용을 표시하여 정렬한다. 출판에 곧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파일 용량을 최대한 크게 설정하여 스캔하도록 한다. 원본 사진도 시기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보존을 위해 중성 비닐 사진첩을 이용하면 좋다.
- 8) 현재의 기록: 본당사 편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사 등의 기록을 동시에 진행한다. 본당 행사에 참여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현장 기록을 한다. 본당사가 다루는 시기는 본당 설정 기념 행사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증언 청취

- 1) 증언 청취 대상자 선정: 수집된 자료를 통해 본당사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증언 청취에 들어간다. 생존해 있는 역대 본당 신부의 증언은 필수적으로 듣도록 하며, 본당 역대 사목회장과 사무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청취 대상으로 한다. 본당 역대 신부의 연락처는 『한국 천주교 주소록』을 활용하며, 다른 인물들의 연락처는 본당 사무실의 협조와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증언 청취를 할 대상자를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한다.
- 2) 증언 청취: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미리 질문 목록과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여 기억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준다. 증언 내용을 녹음하고, 방문 일시와 장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방문 일지를 작성해 놓는다. 인터뷰 장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놓으면 편집 후기와 본당 설정 기념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3) 증언 녹취(증언록 작성): 녹음을 풀어서 증언록을 작성한다. 증언록의 앞머리에는 증언자의 성명, 나이, 주소와 연락처, 증언자의 증언 사건 당시 직위, 청취자, 청취 일시, 청취 장소 등을 함께 기록한다. 증언 내용을 본사에 활용할 경우 각주를 통해 청취자와 청취 일시를 밝히도록 한다.
- 4) 같은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도록 하며, 한 증언자에게 동일 주제에 대하여 다시 증언을 들을 수도 있다. 본당의 원로 신자들 몇몇에게는 수시로 질문거리가 생길 때마다 증언을 듣는다. 또한 방문 시 증언자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자료를 제공받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5. 집필

- 1) 본당사 개괄 잡기: 수집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본당사 개괄과 주요 내용을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편역상 역대 주임 신부 재임기로 시기를 나누고 담당 집필자를 정하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시대별로 발표 일정을 정해 차근차근 진행한다. 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선별하고, 본당 설립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거친다. 각 시기별로 주요 주제를 잡아 나간다.
- 2) 가목차 선정: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목차를 정하여 본다. 본당 역사의 전 과정을 두고 내적 발전 단계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목상하며 목차를 구성한다. 인물 중심 시대 구분(예: 제0대 주임 000 신부 시대)은 피하며, 본당 공동체 전체의 움직임에 주시하여 시대를 구분하도록 한다. 「본당사 편찬 지침」과 타 본당사를 참고한다.
- 3) 1차 집필: 본격적 집필 단계이다. 이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사를 봉헌하고, 후보 공지를 통해 신자들에게 알려 기도도 함께할 것을 부탁한다. 복음사가가 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가목차,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써나간다. 한글 맞춤법과 교회 용어(천주교 용어위원회 편찬, 「천주교 용어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참조) 등에 주의를 기울여 집필한다. 일정을 정하여 담당자가 집필하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표현되었는지 함께 검토한다. 집필 내용의 흐름과 분량, 각주 원칙, 표기법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한다.

- 4) 2차 집필과 사진 선별: 1차 집필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는 단계이다. 본사 뿐 아니라 회보와 단체사, 연혁, 본당 현황 등을 포함하여 완성된 본당사의 형식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각 장에 들어갈 사진들을 선별하고, 사진말과 사진이 들어갈 위치 등을 정한다. 사진이 들어갈 위치에 사진의 파일명을 적어 둔다. 사진은 본문 내용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요한 사진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 내용 등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사진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한다.
- 5) 독회: 원고가 모두 완성되면,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 독회를 갖는다. 늘 작업을 하던 사무실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다른 분위기에서 본당사 전체를 함께 읽어 나간다. 처음부터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서 전체 구성에서부터 사용한 단어와 문장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 6) 최종 수정 집필: 독회 결과를 가지고 원고를 최종적으로 수정한다. 집필 단계에서 최대한 완성된 원고를 만들어 편집 단계에서 내용을 수정하느라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 7) 감수: 완성된 원고에 대해 본당 신부와 편집위원회의 감수를 받는다. 가능하면 교회사 전문가의 감수도 함께 받는다.

6. 편집과 인쇄

- 1) 출판사 선정: 본당사 관련 출판 경험이 있는 업체에 출판 의뢰를 하는 것이 무난하다.
- 2) 판형, 용지, 인쇄 부수 결정: 적절한 판형과 용지, 인쇄 부수를 결정한다. 용지와 인쇄 부수는 출판 비용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인쇄 부수는 본당 세대 수, 교구 각 본당에 배부할지의 여부에 따라 정하면 된다.
- 3) 디자인 선정: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표지와 내지의 디자인 시안을 받아 디자인을 결정한다. 표지는 성당 전경이나 그림 등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본당의 옛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색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다.
- 4) 교정: 전체적인 구성, 맞춤법, 띄어쓰기, 문서 표기, 각주 표기, 용어의 통일 등을 고려하여 교정 작업을 한다. 두 번 이상 교정을 하여 실수를 줄인다. 완벽한 원고를 넘겼을 경우, 출판사에 교정을 의뢰하거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작업할 수 있다.
- 5) 인쇄, 제본 및 발행

7. 출판 기념회와 후속 작업

- 1) 출판 기념회: 역대 본당 신부와 수녀, 본당 출신 성직자, 수도자를 초청하고, 미사 봉헌 예물로 본당 공동체의 역사와 삶이 담긴 본당사를 봉헌한다. 이날 본당사를 신자들에게 배부하고, 참석하지 못한 주요 인물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수집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사진으로 보는 본당사'를 상영하면 기념행사가 더욱 풍요로워진다.

- 2) 후속 작업: 본당사가 출간되었다고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신자들이 제출한 사진과 자료들을 반납하여 주고, 수집된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본당 문서고에 보관한다.
또한, 편집용 책자를 마련하여 발견되는 오류들을 수정해 나간다. 교정을 완료한 최종 원고와 최종 사진들을 반드시 파일로 보관하도록 한다. 이후 시간이 흘러 본당사를 다시 집필할 때 큰 도움이 된다.

8. 그 밖에 고려할 점

- 1) 본당 사목자는 본당사 편찬 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며, 편찬 팀에서 집필의 자율권을 갖도록 보호한다. 또한 집필 내용과 관련하여 사목적 안내와 판단이 필요할 때 적절히 개입한다.
- 2) 본당사 편찬이 본당 전체가 함께하는 하나의 축제가 되도록 한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전 신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보 공지와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본당 OO주년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친다.
- 3) 본당사 편찬의 예산은 편찬 팀 운영 예산과 제작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며, 정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본당 신자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므로 기금 조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4) 본당에 자료의 보관과 분류가 잘 되어 있을수록 본당사를 편찬하기가 수월하다. 본당마다 문서고(교회법 535조 참조)를 설치하여 기록과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 날마다 본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목 일지를 작성하고, 해마다 정리하면, 본당사 집필에 큰 도움이 된다.

사목 아이디어 모음

- 기타 -

■ 대부모와 대자녀 만남의 날

대부모와 대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역할을 되새기고 정을 나누는 '만남의 날'을 진행한다. 이 자리를 통해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대부모와 대자녀가 만나고, 혹은 연락이 끊겼던 이들이 다시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대구대교구 동천 본당, 가톨릭신문 2001.5.13.

■ 본당 축제의 달

한 달을 본당 축제의 달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일주일 동안은 신자들의 그림과 시, 서예를 전시하는 작품 전시회를, 그다음 일주일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그 기간 두 번의 토요일에는 대성전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주일에는 본당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연다. 그리고 본당 축제의 달 마지막 주일 미사 뒤에는 신자 성악가와 연주가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연다.

- 서울대교구 행운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6.10.9.

■ 리빙 라이브러리 - '사람 책'과의 만남

'살아 있는 도서관'이라는 의미의 '리빙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책이 되어, 즉 '사람 책'이 신자들과 직접 만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해 주는 행사이다. 신부를 비롯하여 수도자, 장애인, 국회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9명이 '사람 책'으로 나서 청소년, 신자들과 둘러앉아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수원교구 일월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6.10.9.

■ 두레문자 - 신자에게 매일 띄우는 한 줄 문자

'두레문자'라고 이름 붙인 28자로 된 그날의 묵상 글과 성경 구절을 밤 9시에 전 신자들에게 발송한다. 사무원에게 문자를 보내 놓으면, 사무원은 예약 문자를 통해 신자들에게 발송한다. 문자 내용은 신부가 매일 저녁마다 느끼는 신앙 단상이나 사랑과 행복, 평화에 대한 묵상 글, 성경이나 성가 구절 중에서 뽑는다. "인생 탓하지 않기로 해요. 어쩌면 또 다른 인생이 부러워하고 있을 당신 인생.", "교회가 당신께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당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꼭.."과 같은 문장이다.

- 서울대교구 대림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6.7.10.

■ 레지오 훈화지

레지오 단원들에게 강복을 주고 한두 마디로 훈화를 끝내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훈화지 제공은 본당 신부 한 사람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좌 신부와 2명의 수녀, 총 4명이 돌아가면서 훈화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당 사무실에 훈화함을 설치하고, 매주 화요일 오전까지 훈화지를 제공받아 복사하여 훈화함에 비치한다. 각 레지오의 간부들은 주회 전에 훈화지를 가지고 가서 주회 중에 낭독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 대구대교구 경산 본당 제공(2017.12.)

■ 성소자 모임

성소후원회 주최로 매주 화요일 10시 미사 후에 신자들과 함께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개최하였다. 기도 방법은 『매일미사』에 수록된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아침기도를 참고하여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본당 신부가 강복을 준다.

- 서울대교구 송천동 본당 제공(2017.12.)

■ 본당 음악단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음악으로 봉사하고, 지역의 음악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뿌에리 음악단'을 창단하였다. 현재는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음악단으로 발전하였다. 초등부 어린이 앙상블 미사 봉헌, 본당의 특별한 날 음악단의 특송 선물, 주일학교 성탄제 음악단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 의정부교구 정발산 본당 제공(2017.12.)

■ 본당 도서관

일상에서 영성 서적을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본당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주보에 작은 도서관 설립 계획을 공지하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톨릭 영성 서적을 본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적을 확보하였다. 1층에 책장과 테이블, 의자를 설치하여 도서관을 만들었다. 도서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도서 번호를 붙이고 관리한다. 사무실에 대출 대장을 비치하여 원하는 신자는 대출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대구대교구 경산 본당 제공(2017.12.)

■ 공소 길을 순례 길로!

칠보 본당은 공소 4개와 먼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의 유적지로 먹구니 묘소가 있고, 폐허가 된 공소 2개와 건물이 남아 기도처로 쓰는 곳이 2곳이다. 그리하여 사용 가능한 공소 건물을 정비하고, 본당의 역사를 다시 보고, 거의 잊힌 문혀버린 길을 복원하였다. 곧 공소와 공소를 오고가던 신앙 선조들의 흔적을 복원한 옛길을 오늘의 순례지 코스로 정하여 걷도록 하였다.

- 전주교구 칠보 본당 제공(2017.12.)

사목 대상별



성가정을 위한 가정 사목 프로그램

■ 출처: 『사목정보』 2009년 5월 호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이다. 가정 사목이 교구 가정사목위원회나 가정사목부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목이 아닌, 본당의 주요한 사목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당 가정 사목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가정 전례 프로그램

1) 가족 세족식

※ 준비물: 성경, 대야, 수건, 물통 2개(씻을 물그릇, 씻은 물 담을 그릇), 따뜻한 물, 로션

- ① 성호경
- ② 가장의 기도
- ③ 시작 성가: 『가톨릭 성가』 113번 “성 요셉과 성 마리아”
- ④ 복음 낭독: 루카 7,36-50 혹은 7,36-42(복음 낭독은 가족 중 한 사람을 미리 정한다.)
- ⑤ 묵상
- ⑥ 세족례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족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가장이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고 가장의 발은 어머니가 씻어준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물기를 수건으로 닦은 후 로션을 발라준다. 발을 씻어주면서 마음에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한다.

- ⑦ 가정 축복의 기도 (가족이 다함께 기도한다.)
- ⑧ 가장의 축복: 가장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두 손을 펴서 얹어 하느님의 복을 빌어준다.
- ⑨ 마침 성가: 『가톨릭 성가』 454번 “기쁜 나의 집”
- ⑩ 성호경
- ⑪ 느낌 나누기

2) 가정 성모의 밤

성모성월을 맞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모의 밤’을 지내보자.

※ 준비물: 각자의 봉헌물(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은 마음의 선물), 가정 기도문, 묵주, 카메라, 음악 등

- ① 시작 노래: 가정/가족과 관련된 노래 (예) 어머니 은혜
- ② 시작 기도: 가족 중 한 명의 자유 기도(혹은 주님의 기도)

- ③ 독서: 성경 구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는다. (예) 1코린 13,4-7
- ④ 화답송: 가족 특송(한 명이 하거나 부모 혹은 자녀들이 해도 상관없다.), 악기 연주 혹은 성가
- ⑤ 봉헌: 각자 마음과 정성을 담은 봉헌물을 준비한다.
- ⑥ 묵주기도: 가족이 함께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를 바친다.
- ⑦ 가정을 위한 기도문
- ⑧ 마침 노래: 성모성월과 관련된 노래 (예) 하늘 엄마 II

2. 가정 행사 프로그램

1) 가족 봉사단

가족 단위로 봉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모집한다.

- ① 문화 봉사: 노래, 마술, 벽화 그리기 등의 문화 봉사
- ② 특기 교육: 노래 연습, 악기 연주 교육, 마술교육 등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 ③ 봉사단 친목 활동: 캠프 또는 나들이를 통해 봉사 단원 간의 친목 도모
- ④ 노력 봉사: 복지 시설에서 요구하는 청소, 목욕 봉사, 급식, 말벗 등의 봉사

2) 가족 사진의 재구성

- ①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큰 캔버스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화를 만든다. 여러 가지 오브제를 활용하여 가족끼리 의논하고, 현재 우리 가족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콜라주 형식으로 만든다.
- ② 미래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림 또는 글로 담아 타임 캡슐 상자 안에 넣어 봉한다. 가족이 함께 열어 볼 날짜를 기입하고 미래에 함께 열어볼 때 과거에 지향했던 가족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본다.

3) 가족과 함께하는 DIY

- ① 천연 비누 만들기: 천연 소재의 비누 만들기를 함께 하고 선물한다.
- ② 가족 미니 정원 만들기: 가족들과 의논하여 가족의 특성을 살린 미니 정원을 만든다. 토피어리 형식 또는 화분 형식으로 모종을 준비하여 배치하면서 심고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지어 꽃말을 짓는다.
※ 공간이 가능한 경우, 텃밭을 활용하여 가족 정원을 만들 수 있다.
- ③ 압화: 말린 꽃을 활용하여 카드를 만들어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나눈다.

4) 가족음악회 ‘가족 사랑 바이러스’

- ① 모듬별로 서로 다른 소리를 내어 하나의 화음을 만든다.
- ②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소리를 만든다.
- ③ 음악으로 이야기를 만든다.

5) 문학과와의 산책

- 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시로 담아 시낭송회를 한다.
- ② 이야기를 만들어 가족 동화책을 만들고 함께 나눈다.

6) 부부 관계 확인 워크숍

- ① 부부간의 지켜야 할 약속 사탕 나누어 실천하기

- ② 손 마사지 해주기, 발 씻어주기
- ③ 가장 소중한 추억 나누기 등

7) 문화 활동

- ① 부부 영화 데이트: 영화관 또는 강당을 활용하여 최신 또는 추억의 영화 감상
 - ② 미술 치료: 석고 손 뜨기. 부부간의 손을 어루만지며 감정을 나누고, 석고로 손을 본떠 작품을 만드는 시간
- ※ 문화 활동은 ①② 중 택일하고 부부 영화 감상 시간 동안 자녀 놀이방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돌보아준다.

3. 가정 교육 프로그램

1) 부부 여정 운영자 양성 교육

부부 행복 척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주 1회 5주 과정(28일)으로 부부 관계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 ① 첫 번째 여정: 「남녀차이-부부유별(夫婦有別)」
일반적인 남녀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차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며,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
- ② 두 번째 여정: 「성격 차이-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간의 성향적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서로의 다름으로 얻게 되는 은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 ③ 세 번째 여정: 「대화-대화는 사랑입니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성찰해 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④ 네 번째 여정: 「부부 갈등 관리-부부 싸움 제대로 합시다」
서로간의 욕구와 기대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부 싸움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⑤ 다섯 번째 여정: 「여가 시간-함께 즐기시다」
서로의 여가 시간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⑥ 여섯 번째 여정: 「가정 경제-돈!돈!돈!」
돈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⑦ 일곱 번째 여정: 「성(性)-아름다운 선물」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의 성적 특성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 ⑧ 여덟 번째 여정: 「서로의 가족-모두 한 가족」
자신의 원 가족과 배우자 가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며, 서로의 성장 과정이 지금 현재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⑨ 아홉 번째 여정: 「자녀 양육-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며, 자녀와 하느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⑩ 열 번째 여정: 「혼인성사-부부는 걸어다니는 성사」

삶의 중심이 되는 혼인성사를 주제로 다루며, 부부는 그 자체로서 작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사로서의 부부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 자료 제공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인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보 성체수도회 가정교리연구소

혼인 갱신 미사 1

■ 출처: 『사목』 2005년 3월 호

본 내용은 몇몇 본당에서 사용했던 혼인 갱신 예식과 『혼인 예식서』에서 부록으로 제시한 ‘혼인 주년 기념 미사의 축복 예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미사 통상문』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1. 미사 중의 혼인 갱신 예식

입당

“결혼행진곡”을 연주하는 동안 가족 단위로 입장한다. 자녀들이 앞에 서고 바로 뒤에서 부부가 나란히 입장한다.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은 촛불을 들고 간다. 한 가족이 한 의자에 앉는 것이 좋다. 모든 가족이 입장하면 촛불을 끄고 시작 성가(『가톨릭 성가』 45장 “참사랑”)를 부른다.

본기도

주님, 태초에 남녀를 만드시고
일찍이 여기 모인 부부들을 풀 수 없는 혼인으로 결합시키셨으니
이들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자녀들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 전례

제1독서는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창세 1,26-28,31ㄱ 창세 2,18-24 창세 24,48-51,58-67
토비 7,6-14 토비 8,4ㄴ-8 잠언 31,10-13,19-20,30-31
아가 2,8-10,14,16ㄱ; 8,6-7ㄱ 집회 26,1-4,16-21
예레 31,31-32ㄱ,33,34ㄴㄷ

화답송으로 『가톨릭 성가』 401장 “주를 찬미하여라”를 노래하거나, 『혼인 예식서』 202-208항을 참조한다.

제2독서는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로마 8,31ㄴ-35,37-39 로마 12,1-2,9-18 로마 15,1ㄴ-3ㄱ,5-7,13

1코린 6,13ㄷ-15ㄱ,17-20 1코린 12,31-13,8ㄱ
 에페 4,1-6 에페 5,2ㄱ,21-33 필리 4,4-9
 콜로 3,12-17 히브 13,1-4ㄱ,5-6ㄴ 1베드 3,1-9
 1요한 3,18-24 1요한 4,7-12 목시 19,1,5-9ㄱ
 복음 환호송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을 아는도다(1요한 4,7ㄴ).
-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세(1요한 4,8ㄴ,11ㄴ).
-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도다(1요한 4,12ㄴㄷ).
-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도다(1요한 4,16ㄴㄷ).

복음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마태 5,1-12ㄱ 마태 5,13-16 마태 7,21,24-29 마태 19,3-6
 마태 22,35-40 마르 10,6-9 요한 2,1-11 요한 15,9-12
 요한 15,12-16 요한 17,20-26

복음을 봉독하고 나서 사제는 그리스도인에게 혼인의 신비와 은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준다.

감사와 다짐

+ 부부의 인연을 맺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은
 지난날 서로 서약한 바를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에 강복하시고
 여러분의 서약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그 서약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제, 그리고 자녀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밝혀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 나는 ()가 보여준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거듭 약속합니다.
 주님, ()를 아내(또는 남편)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부부가 함께〉

○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보살펴주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어
 주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의 성실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사제〉

+ 주님, 이 부부들을 평생토록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에는 위안을 주시고, 수고할 때에는 도움을 주시어
이 부부들의 가정을 주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묵상

한 부부가 대표로 나가 묵상 글(〈첨부 자료〉 참조)을 번갈아가며 읽는다. 묵상하는 동안 조명은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다. 다른 부부들은 한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은 채 묵상한다.

반지 교환

혼인 예식 때 나누었던 반지를 다시 주고받는 경우,

〈사제〉

+ 주님, 이 부부들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일찍이 이 반지를 신의 표지로 서로 주고받은 이들이
혼인성사의 은총을 언제나 간직하게 하소서.

◎ 아멘.

남편이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나서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드렸던 이 반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내도 똑같이 말한 다음에 남편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반지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경우,

〈사제〉

+ 주님, 이 부부들의 사랑을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반지를 신의 표지로 삼는 이 부부들이
서로의 사랑과 성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남편과 아내〉

-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면 다함께 『가톨릭 성가』 46장 “사랑의 송가” 1절을 부른다.

보편 지향 기도

+ 교우 여러분, 부부의 사랑과 신의와 자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오묘히 드러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자비를 청합니다.

○ 주님, 이 부부의 신의를 새롭게 하소서.

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계약에 충실하시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혼인 서약을 새롭게 하는 이 부부에게
주님의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

② 성자와 성령과 함께
생명의 완전한 일치와 사랑의 나눔을 영원으로부터 누리시는 주님,
혼인성사로 맺어진 이 부부가
사랑의 약속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

③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인생의 모든 경험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 부부가 좋은 일, 궂은일을 평온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자 힘쓰게 하소서. ◎

④ 부부의 일치된 삶을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삼고자 하신 아버지,
모든 부부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자의 신비를
세상에서 증언하게 하소서. ◎

+ 가정의 튼튼한 기초를 놓으신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이들이 성가정의 표양을 따르고,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며
끝없이 아버지를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예물 봉헌 때에는 부부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한다.

예물기도

하느님, 인간이 새롭게 다시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으니
오늘 혼인 갱신을 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바치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부부들에게 주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주소서. 우리 주…….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애로이 창조하신 인간을 존귀한 품위로 들어 높이시어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주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이다.

아울러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의 길로 이끄시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며

부부의 거룩한 혼인성사가 주님 사랑의 표지가 되어

인간의 사랑을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 사제는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는 생략하고, 팔을 펴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찬미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는 한처음에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도록 강복하시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 부부의 결합을 지켜주셨으니

오늘 자애로이 굽어보시어 이 부부의 혼약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며 더욱 화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언제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에는 먼저 사제에게 인사하고 나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영성체를 할 때에는 되도록 양형 영성체를 한다.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음식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주님 종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이들의 가정이 미덕과 평화의 보금자리가 되고

사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장엄 강복

+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이 부부들에게 당신 기쁨을 내려주소서.

◎ 아멘.

+ 천주 성자께서는 이 부부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 아멘.

+ 천주 성령께서는

이 부부들의 마음에 언제나 사랑을 부어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마침성가로 『가톨릭 성가』 414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를 부른다. 이어서 성당 마당이나 적당한 곳에서 기념촬영을 한다.

2. 제안과 유의사항

- 혼인 갱신을 하려는 부부들은 예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으면, 하루 전에 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한다.
- 신청자뿐만 아니라, 쉬는 교우들을 비롯하여 특별히 사목적인 이유로 혼인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부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권한다.
- 30쌍이 넘지 않도록 하며, 부부와 가족들만 미사에 함께하는 것이 좋다. 축하객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거나 어린이가 있어서 미사 분위기가 소란해지면, 예식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의 혼인 갱신식에서 자녀들은 새로운 증인이 된다.
- 복장은 통일하는 것이 좋다. 자칫 웨딩드레스와 같은 화려한 복장을 허용하면, 그러한 옷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 제대나 좌석에 꽃 장식을 하여 성당 안에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겠다.
- 미사를 마친 다음에 음식을 나누거나, 간단하게 축하 행사를 가지는 것도 좋다. 그러나 축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도 새길 수 있게 한다. 이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는다. 25주년이나 50주년이 된 부부들은 따로 좌석을 마련해 주고, 특히 50주년이 된 부부들의 덕담도 들어본다.
- 일 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날을 정해서 혼인 갱신 미사를 하되, 혼인한 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그 달에 결혼기념일을 맞는 신자 부부들을 위해 미사를 집전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혼인 갱신을 했던 신자들은 적어도 5년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자주 하게 되면, 혼인 갱신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본당에서 가정 봉헌식과 혼인 갱신식을 함께 거행하면서, 외딴 교우들도 혼인 갱신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외딴 교우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반별로 몇몇 가정이 한 집에 모여서, 미사 없는 혼인 갱신 예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3. 혼인 갱신의 의미와 이후의 모습

1) 혼인 갱신의 의미

- 혼인생활을 되돌아보고, 혼인성사의 은총을 기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

- 혼인 미사를 하지 못하고 관면혼을 한 경우에는 또 다른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다.
- 자녀를 키우느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난 뒤에 하는 혼인 갱신은 부부의 첫 마음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온 날들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혼인생활을 봉헌하는 것이므로, 부부들은 혼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가족애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자녀들이 새로운 증인이 되는 것이다.

2) 혼인 갱신 이후의 모습

- 배우자에 대해 예전에 느꼈던 애뜻한 마음이 되살아나 좀 더 잘해주고자 노력하며, 더 많이 배려하게 되었다. 또한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졌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꼈다.
- 온 가족이 모여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하게 되었으며, 저녁기도 때에는 묵주기도도 함께 바친다.
- 예식 때 나누었던 반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반지를 볼 때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첨부 자료〉 부부의 손

남편 글

당신이 잡고 있는 이 손은 당신이 저를 배우자로 맞아들이던 날,
당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손입니다.
그날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행복한 날을 꿈꾸며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겠노라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인 당신께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언행을 하기도 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저를 중심으로 행동하며,
직장생활을 핑계 삼아 집안일에 소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이 손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기쁜 날과 슬픈 날도 당신과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당신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아내 글

당신이 잡고 있는 이 손은 당신이 저를 배우자로 맞아들이던 날,
나의 일생을 당신께 맡겼던 손입니다.
그날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행복한 날을 꿈꾸며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인 당신을 귀찮아하거나 미워하기도 하고
집안일에 지쳐있는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무시하는 것 같아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 손으로 당신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기쁜 날과 슬픈 날도 당신과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당신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혼인 갱신 미사 2

- 광주대학교구 본촌동 본당

■ 최윤복 신부(광주대학교구) 제공

시작 전 해설(양식)

혼인 갱신식이란 혼인할 때 하느님 앞에서 서로 다짐했던 서약을 갱신하는 예절을 말합니다. 혼인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주고 서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진실된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 곧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원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마태 19.6)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은 인간적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친히 축복하신 거룩한 성사이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 곧 부부는 육체의 일치를 넘어 한마음과 한 영혼을 이루는 깊은 인격적 일치를 끊임없이 도모하는 가운데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능력에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불리움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 갱신식은 부부에게 혼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통해 혼인 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혼인의 서약을 하고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이 부부와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전례에 참여합시다.

(또는 아래의 시작 전 해설로 할 수 있다.)

시작 전 해설(2양식)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귀중한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옵니다. 하느님께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가정 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로 보내시어 가정 안에 당신이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하였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계명을 지켜 성가정을 본받으며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에페 5,21-6,4)라고 당부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도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형제로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으로 당신께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당성가:

시작 예식

본기도 (1양식)

+ 기도합니다.

하느님,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남녀의 결합을 바라셨으니 혼인 계약으로 맺어진 이들 부부를 사랑의 끈으로 다시 묶어주시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또는 아래의 2양식으로 할 수도 있다.

본기도(2양식)

+ 기도합니다.

성가정의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신 하느님,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말씀 전례

독서는 갱신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가 함께 나와 독서를 봉독해도 좋다

독서: 아래의 독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에페 5,22-33(남편과 아내)/집회 26,1-4,16-21(떠오르는 태양같이)/ 1코린 13,4-13(사랑의 찬가)/로마 8,31-35,37-39(누가 감히 우리를 사랑에서)/로마 12,1-2,9-13(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1코린 6,13c-15,17-20(너희 몸은 성령이 계신 궁전이다)/에페 4,1-6(일치)/콜로 3, 12-17(새 생활의 인간 관계)/1베드 3,1-9(너희는 한 몸이 되어 형제처럼)/1요한 4,7-12(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복음: 아래의 복음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요한 17,20-26(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15,9-12(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요한 19,26-27(예수와 어머니)/루카 6,46-49(말씀을 듣고 실행하라)/마르 10,1-12(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마태 19,3-6(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

강론

〈혼인 갱신 예절〉

해설: 이제 혼인 서약 갱신 예절이 시작됩니다. 혼인 서약 갱신을 하시는 부부(들)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 오늘 두 분(여러분)이 함께 이 성당에 온 것은 교회의 사제와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것을 주님께 인정받고 또한 축복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여러분)의 사랑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여러분)은 앞으로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들을 성심껏 교육하여 여생을 기쁨과 평화 중에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께 특별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혼인 동의 갱신

+ 여러분은 결혼생활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랑과 신의를 지켜 온 것처럼 남은 여생을 서로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에 이른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고 도와가면서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 예, 사랑하겠습니다.

혼인서약 갱신

+ 두 분(여러분)은 거룩한 혼인의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니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여러분)의 합의를 고백하십시오.

남편: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사랑하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내: 나()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사랑하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 주님께서 두 분(여러분)이 서로에게 고백한 이 합의를 당신 주님께서 친히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여러분)에게 축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 주님을 찬미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반지 축복과 교환

해설: 이제 하느님 앞에서 서약된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일 반지를 축복한 후 서로 예물로 교환하겠습니다.

+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서로 주고받는 이 반지에 주님 친히 + 강복하소서. ◎ 아멘.

반지 교환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한다.)

남편: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남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한다.)

아내: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해설: 혼인을 갱신하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혼인 때의 서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뜻깊은 이 시간,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제 조용히 그동안 우리들의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서로 사랑 안에서 참아 주고, 감싸주며, 이웃에 봉사하는 거룩한 성가정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침묵)

모두 한 마음으로 “부부의 기도”를 바칩시다.

부부의 기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살피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혼인성사를 통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시고
오늘까지 혼인의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장애물을
당신 손수 치워 주시고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만을 주십시오.
베풀면 베풀수록 받는다는
어리석음의 지혜를 갓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쳤을 때는 용기와 힘을,
낙담과 실패에는 위로와 격려를,
언제나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친절로
늘 변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서로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보완하여 완성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언제까지나 소중한 존재로서
곁에 머물며
늘 변함 없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 아멘.

보편지향 기도

+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성가정의 모범을 통하여 인간의 품위를 드높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참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침묵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게 하소서. 저마다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이 욕심과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희망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랑으로 덕을 실천하는 가족이게 하소서.

2.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들을 혼인의 풍성한 은혜로 감싸주시는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모든 부부들이 혼인의 서약에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 혼인갱신 서약과 함께 축복을 청하는 이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3.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모든 자녀들이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갖은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시고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4.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일꾼이 되게 하소서.

+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청하는 이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가정들을 굽어보시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우리 주 ...

예물기도

주님, 저희가 봉헌하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서 축복하신 부부(들)와 그 가족들을 은총과 평화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

감사송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영광스러운 성가정을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낳으신 당신 아들을
 때가 되어 우리에게 구세주로 낳아 주셨나이다.
 지극히 깨끗한 동정녀는 의로운 사람 요셉과 동정으로서
 깊은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성가정을 이루시어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에게 빛나는 생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나이다.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성가정을
 주님의 노래로 찬양하며 침묵으로 흠송하고
 생활로 찬미하며 노동으로 현양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영성체 후 묵상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랑이 지극하신 하느님 아버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힘이요 지탱이며
 위로자이자 자랑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 주시고
 더 큰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끼면서
 우애를 돈독히 키워가게 하소서.
 어려움은 함께 나누어서 반으로 줄게 하고
 기쁨은 나누어서 배로 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평화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영성체 후 기도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천상 성사로 힘을 얻은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현세의 고통이 끝난 다음 영원한 성가정에서 한 몫을 차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

마침 강복

+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들 안에 깃들여 그 집안에 길이 머물게 하소서.

◎ 아멘.

+ 이 부부가 자녀를 통하여 복을 받고 친지들에게서는 위안을 받으며
모든 이와 더불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이 부부가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 고통과 가난을
겪는 이들을 너그럽이 보살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이 부부를 반가이 맞이하게 하소서.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마침 성가

해설: 축하객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혼인 갱신한 부부(들)는 내빈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갱신한 부부가 돌아서면)

이제 혼인 갱신한 부부가 가족들과 축하객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갱신 부부 내빈께 인사”

성가대: 축가

해설: 이것으로 갱신 미사를 마치고 혼인 갱신 부부(들)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 초대 의 글

부부의 사랑과 첫 마음을

새롭게 기념하고자 하는

“혼인 갱신식”에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사랑의 인연인 혼인을 통하여
두 분이 서로 나누셨던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목숨처럼 소중히 살아오신
그 사랑과 첫 마음을
하느님과 자녀들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있는 날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혼인 갱신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혼인의 삶을 더 깊고 넓게 이끌어
주님의 축복 안에 사시도록
이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 시 : 〇〇년 〇월 〇일

장 소 : 〇〇〇 성당

준비물 : 열린 마음·뜨거운 마음·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가집과 성경

옷 : 가장 멋진 옷(한복 또는 정장)

〇〇년 〇월 〇일
천주교 〇〇〇 성당
주임 신부 〇〇〇 〇〇〇

봉쇄 수도원 체험 가족 피정

- 서울대교구 양천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09년 8월 호

성전 건립을 위한 염원과 일치

서울대교구 양천 본당은 2005년 사목 계획에서 구역 활성화와 소공동체 확립을 목표로 매달 구역별로 돌아가며 성지순례를 갔으며, 갈 때마다 성모송을 2000번 바쳤다. 이렇게 구역이 기도로 일치되는 모습을 통해 성전 건립의 염원을 모았고, 이런 열기를 이어 2006년에는 지역특성화 계획이라 하여 2007년 새 성전 준공식 전까지 각 구역이 500일 묵주기도, 70주간 매주 성지순례, 성경 필사 등 다양한 특성화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전 신자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아름의 사다리'라는 주제의 성전이 마련되었다.

거룩한 미사를 찾아

오랜 기간 성전 건립을 준비하다 보니 어수선한 주변 환경으로 미사 분위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이 마련된 2007년 당시 주임인 이찬홍 신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과 일치할 수 있을까?'로 집중되었다.

주임 신부는 성전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아온 어수선한 미사가 아니라 미사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미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찾다가 봉쇄 수도원 체험 가족 피정을 실시했다.

'거룩한 미사 참여 및 가정 성화'를 목적으로 총 6개 구역이 구역별 2회, 총 12차로 시행하게 되었고 수용 가능한 인원은 54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외딴 교우·쉬는 신자·전업자·새 신자 가족을 우선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강화도에서의 하룻밤

가족 피정은 강화도에 소재한 예수의 성모 관상 수도원에서 1차(5월 26~27일)부터 12차(12월 8~9일)까지 1회 당 4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도 및 고해성사 신부는 주임 신부가 직접 섭외했다.

피정 첫날의 포인트는 침묵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다. 평소에는 시간과 순서에 쫓겨 고해성사를 급하게 보곤 하지만 이곳에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느님과 대면하도록 했다. 수도원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밤을 보내고, 둘째 날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도원 미사를 통해 진정한 미사의 맛을 느끼게 했다.

피정 준비 과정

예산은 크게 버스 차량 대여, 식사 및 숙박비, 피정 강의로, 여행자 보험, 개인 회비로 구성되었다. 버스 차량은 1년 계약으로 해서 출발 1~2주 전에 확인하고, 피정 공시는 주보에 2회 이상, 참가 신청은 각 구역에서 받되 2주 전에 인원을 확정하고 여행자 보험 가입 준비를 했다. 안내 봉사자를 1~2명 선정해서 방 배정 조정과 강의 및 식

사 안내, 고해성사 준비 및 안내, 미사 준비 등을 맡았다.

피정을 다녀온 교우들은 미사에 임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으며 성전 건립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사목 가운데 봉쇄 수도원 체험 가족 피정은 본당의 분위기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가족 피정의 어려운 점

수도원은 기도하는 곳인데 많은 인원이 체험하러 가겠다고 해서 수도원 측에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가 가까운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주일 미사만 참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은 등 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본당 내 제 단체의 일정과 중복되기도 한다.

2회에 걸쳐 피정을 참여해야 하는데, 1차 참석 후 2차에 불참하는 사람이 있다.

피정 일정

일자	1차		2차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첫째 날 (토)	14:00	인원 점검	14:00	인원 점검
	15:00~17:00	이동(성당→수도원)	15:00~17:00	이동(성당→수도원)
	17:00~18:00	방 배정	17:30~18:00	성시간 성가 및 저녁기도
	18:0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8:0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21:00	강의(전례)	19:00~20:30	성시간 및 제1강의
			20:40~21:00	고해성사 준비 강의
	21:00~23:00	상담 고해성사	21:00~23:00	고해성사 및 묵상
23:00	취침	23:00	취침	
둘째 날 (주일)	07:00	기상	07:00	기상
			07:30~08:00	아침기도
	08:00~09:00	아침식사 및 휴식	08:00~09:30	아침식사 및 산책
	09:00~10:30	강의(묵상과 기도)	09:30~10:30	신부님 강의
	10:30~12:00	미사	10:30~12:00	미사
	12:00~13:00	점심식사	12:00~13:00	점심식사, 청소
	13:00~14:00	산책	13:00	출발
14:00	출발			

피정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비고
사전 준비	버스 배차	차량 배차 확인(1주일 전) 소요 경비 신청 및 정산	남성총구역장
	참가신청	인원 확정 및 회비 납부 여행자 보험 가입	여성총구역장
	출발 전	방 배정표 작성 배포 참가자 명찰 작성 유인물 및 필기구 준비 커피 및 녹차 준비 안내 봉사자 선정	여성총구역장 남성구역장 중에서
피정 준비	출발 시	인원파악 일정 및 개요 설명 묵주기도 5단	
	도착 시	방 배정표 부착 및 조정 수녀님 협의 - 피정 일정 및 지시 사항 - 신자들의 기도 3명 선정 - 설거지 봉사 3명 선정	유인물 2장 성시간 3식
	피정 시	강의 및 식사 안내 고해성사 준비 및 안내 고해성사 후 신부님 배웅 취침 전 소등 확인(강당 등)	
	미사	성당 이동 신자들의 기도 3인 선정 헌금 및 미사 예물 안내	매일미사 책
퇴소 준비	퇴소 시	식사 및 설거지 정리 부착물 철거 및 정리 정돈 신부님께 인사 후 차량 이동	
	차량 출발 시	식사 전 차량 도착 확인 명찰 및 볼펜 회수 묵주기도 5단 나눔의 시간(차량 안)	사무실 반납

가족 피정 프로그램

■ 출처: 조한수(서울대교구 교육국), 『가톨릭 디다케』, 1998년 11월 호

〈프로그램 개요〉

- 부담 없이 각 가정의 가장이 전체를 이끌 수 있도록 한 '작은 가족 기도 모임' 형식
- 장소: 본당의 교리실 또는 넓은 공간이 있는 교우의 집
- 식사와 숙박은 각자 집 또는 인근 식당 이용
- 인원: 5가정 20명 이하
- 역할 분담(예시): 아버지-전체 피정 진행/ 어머니-식사 및 간식 준비/ 큰 자녀-장소 준비 및 준비물 담당/ 작은 자녀-전례 프로그램 및 기록과 발표 담당

〈피정 프로그램〉

■ 마음을 모으는 시간/ 첫째 날 저녁식사 전

목적: 피정에 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우선 주제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피정 참가자 서로 간에 마음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준비물: 땅콩 친구용 이름 쪽지, 묵상 음악 테이프

방법: 1) 자기소개 및 땅콩 친구 정하기

전체 참가자가 모여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 미리 준비된 이름을 적은 쪽지를 하나씩 뽑고 자신의 '땅콩 친구'로 정한다. 정해진 땅콩 친구를 위해서는 피정 기도 동안 묵주기도 10단을 드리며, 마지막 미사 시간에 발표한다.

2) 가족 원 만들기

- 가족끼리 원을 만든 다음, 서로 엇갈리게 손을 잡되, 두 사람이 마주 잡지 않고 한 손 한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이 되도록 잡는다.
- 지도자의 신호에 의해 손을 풀어서 원이 되도록 한다. 손을 풀기 위해서는 머리 뒤로 돌려서 풀고,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 하나의 원이 되면 그 자리에 앉는다(프로그램을 위해서 바닥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좋다).

3) 마지막 과정으로 가족끼리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면, 지도자는 미리 준비한 묵상 음악을 틀어 주며, 묵상을 유도한다.

- 묵상 내용은 교회 신심 서적이거나 피정 자료집에 실린 가정과 관련된 글을 사용하면 좋다.

■ 우리 집-남의 집/ 첫째 날 저녁식사 후

목적: 자기 가정의 자랑거리를 찾아내어 다른 가정과 비교해보고 나아가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도록 이끌어준다.

방법 1) 우리 집 자랑거리 찾기

- 먼저 개인별로 자리에 앉아 각자 가정의 자랑거리 열 개를 찾아 쓴다.
- 자랑거리 찾기가 끝나면 가족이 모여서 각자 작성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서로 비교한 다음 '우리 집 자랑 10선'을 만든다.

2) 우리 집 자랑 나누기

- 가족끼리 만든 자기 집 자랑 10선을 가지고 또래별 그룹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즉, 아빠는 아빠끼리, 엄마는 엄마끼리, 큰 자녀는 큰 자녀들끼리, 작은 자녀는 작은 자녀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대화를 나눈다.
- 이 시간에 자기 집 자랑과 다른 집 자랑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집도 역시 같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 집 자랑으로 생각한 것 역시 다른 집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 가족 화해의 시간/ 첫째 날 취침 전

목적: 참회 예절 프로그램으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으로 가정에 화해하고,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에 화해하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화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 더불어 신앙인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특히 가족 피정하기에 우리가 가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시간에 특별히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준비물: 스티로폼으로 만든 십자가, 인원수만큼의 못과 꽃

방법: 1) 가급적 전체 피정 참가자가 원을 만들어 자리에 앉게 한다. 만약 의자에 앉게 되는 경우에도 원을 만들어 앉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좋다.

2)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고 음악과 함께 성찰할 시간을 준다, 진행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찰할 시간을 갖는 식으로 한다.

이 성찰은 십계명을 주제로 한 성찰문이다. 단지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니 본당 실정에 맞게, 또 참석자의 수준과 주제 및 전례 시기에 맞게 적당한 성찰문을 만들 수 있다.

- ① 하느님께서 가정생활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도외시키고 그분이 흠송되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시다.
- ② 하느님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그리고 자녀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혹 가장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③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모여 일 년 삼백예순 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날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한 적은 없으며, 더욱이 주님의 날을 게을리하거나 주님의 잔치 자리를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④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했습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습니까? 가족의 일치와 화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 ⑤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도록 미워하거나 또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⑥ 하느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로서 자녀를 기르고 있으며, 자유 의지란 이름으로 생명을 경시하거나 성의 목적을 외도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⑦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피해를 주거나, 특별히 가족 안에서 재산을 손해 보게 하거나 시간과 물질을 손해 보게 한 적은 없었나 생각해 봅시다.
 - ⑧ 자신의 말에 신중을 기했는지, 또 내 말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가족 안에서 내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는지, 옳다고 할 자리에서 옳지 않다고 하고 틀렸다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 ⑨ 배우자에게 약속한 신의를 배반한 적은 없었는지, 또 내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거나 게을리해서 피해를 준 일은 없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낮은 것 같고, 가족간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족의 일치와 회목을 깨뜨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 3) 성찰이 끝나면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허락된다면 고해성사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 고해성사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뉘우침과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 4) 고해성사가 끝나거나 또는 뉘우침과 다짐의 시간을 마친 사람은 제대 앞에 마련된 십자가에서 못을 하나 뽑은 다음 그 자리에 꽃을 대신 꽂는다.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진 화해의 십자가를 제단에 봉헌한 다음, 마침 성가를 부르면서 이 예절을 마치도록 한다. 그리고 파견 미사 때 제대 십자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 가족 십계명 만들기/ 둘째 날 아침식사 후

목적: 이 프로그램은 가훈 만들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거기서 자신의 가족 십계명을 만듦으로써 가족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준비물: 헌 잡지, 모조 전지, 크레파스 등 필기구

- 방법: 1) 가능하다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신부님이나 수녀님 등의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강의가 있다면 강의를 끝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으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 십계명'을 작성하게 한다.
- 3) 각자 가족 십계명 작성이 끝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자기가 작성한 십계명을 발표하고 이유를 설명한 다음 서로 상의해서 자기 집 가족 십계명을 작성한다.
- 4) 십계명 작성이 끝나면 콜라주나 차트 등으로 만들어 복도나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5) 프로그램의 정리로 전체가 모여서 전체 십계명을 만든다. 방법은 각 가정이 정한 십계명을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 10개를 골라서 참가자 전체 십계명을 만든다.
- 6)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은 참가자가 만든 전체 십계명을 모두 모아서 정리한 다음 미사 때 봉헌한다.

■ 가족 피정 파견 미사/둘째 날 점심 식사 후

목적: 파견 미사는 피정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피정을 정리하고 피정 이후의 삶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더불어 함께 피정에 자리한 가족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누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피정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 파견 미사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더 좋다.

준비물: 미사 도구

- 방법 : 1) 가능하다면 피정에 참가한 가족끼리 따로 미사를 갖고, 신부님의 형편이 허락되지 못하는 경우 본당 저녁 미사를 피정 파견 미사로 봉헌할 수 있다.
- 2) 미사는 일반 미사와 같지만, 특별히 예물 봉헌 때 피정 중에 만든 화해의 십자가를 봉헌하거나 평화의 인사 때 땅콩 친구 나누기를 하고, 파견 예식 때 특별히 사제 안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가족 캠프

■ 출처: 『사목』 2003년 7월 호

가족 캠프는 그동안 대화 부족으로 소원했던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가정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연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당에서 가족 캠프를 할 때는 주일학교, 청년회 등의 캠프를 모두 통합하여 전 본당 차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만 신청을 하게 하여 소규모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당의 모든 신자가 참여하는 확대된 형태의 가족 캠프일 경우에는 외딴 교우 가정이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보통 가족 캠프는 참가 인원도 많고 대규모로 실시되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캠프를 위한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이 조직을 통해 사목협의회와 교사회 간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며, 캠프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충분히 가져 캠프 참가자들이 캠프의 목적과 알아야 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가족 캠프의 장소로는 가족 단위로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을 갖춘 곳이나 텐트를 설치하여 생활하는 야영장이 권장할 만하다.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신문 만들기, 가족에게 편지 쓰기, 가족 기도·묵상 나누기, 가족 대항 장기 자랑, 추적 놀이 등을 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여유롭게 두는 것이 좋다. 다음 프로그램은 화곡본당을 비롯한 각 본당 자료와 제4차 세계가정대회 자료를 참조하였다.

가족 캠프 기도문

캠프 기간뿐만 아니라 캠프를 떠나기 전부터 다음 기도를 하면서 가족 캠프를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가족 캠프를 하면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 모습을 본받고자 하오니,
저희 모두 섬김과 사귄,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하여
가정의 의미를 새로이 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

가족 캠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족 문패, 가족 구호, 가족 노래 만들기

1. 가족 문패 만들기: 가족을 상징할 수 있는 가족 이름을 만들고, 커다란 판자에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가족원 얼굴(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문패를 만든다. 각 가족의 숙소 앞에 붙인다.
2. 가족 구호, 가족 노래 만들기: 캠프 기간 동안 사용할 가족 구호와 노래를 만든다. 이로써 가족의 단합을 도모한다.

용서, 화해, 사랑의 편지 쓰기

1. 아버지 반, 어머니 반, 자녀 반을 나누어 각각 다른 곳에 모인다.
2. 각각 준비된 문구와 음악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 소홀하거나 부족했던 일, 아내(남편, 자녀)가 사랑스런 이유 등을 생각하게 한다.
3. 자기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편지를 쓴다.
4. 흠어졌던 가족이 자신이 쓴 편지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다.
5.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 준다.
6. 함께 둘러앉아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한다.
7. 전체가 모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 자녀 바로 알기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기준에 따라 자녀의 특성을 단정하고 무조건 부모의 희망에 따르도록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부모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불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만 요인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적어 보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적어 보는 자녀의 특성표〉

부모 이름:	자녀 이름: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운동	가장 싫어하는 운동
가장 좋아하는 놀이	가장 싫어하는 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싫어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옷	가장 싫어하는 옷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싫어하는 책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장 싫어하는 TV 프로그램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친구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즐거워하며 하는 일	가장 못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교과목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친구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싫은 선물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것 가장 괴로워하며 하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녀의 성격 내 자녀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녀의 성격 내 자녀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때
기타	내 자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 내 자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자녀가 적어 보는 자신의 특성표〉

자녀 이름:	부모 이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운동 가장 좋아하는 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옷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장 싫어하는 운동 가장 싫어하는 놀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가장 싫어하는 옷 가장 싫어하는 책 가장 싫어하는 TV 프로그램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친구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즐거워하며 하는 일	가장 못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교과목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친구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싫은 선물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것 가장 괴로워하며 하는 일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때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때
어른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어른이 되어서 가장 하기 싫은 일
기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내 가족 찾기

시각 장애와 대중 속의 혼돈 가운데서도 음성이나 감촉으로 자기 가족을 찾아 나서면서, 가족의 만남과 소중함을 피부로 느껴 볼 수 있다.

준비물: 안대(인원수만큼)

1.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인원이 많다면 두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다.
2. 모든 참석자가 안대를 하고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자기 가족을 찾아 나선다.
3. 가족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람을 만나 감촉으로 확인해도 된다.
4. 가족을 찾으면 그와 함께 다른 가족을 찾아 나선다.
5. 가족 전체를 만난 팀은 구호나 환호를 외치고 밖으로 나온다.
6. 가족 모두 만난 가정부터 순위를 매겨 최종 판정 때 참고한다.

가족 기도

준비물: 성가책, 가톨릭 기도서, 성경

1. 자유롭게 장소를 정해, 가운데 촛불을 켜고 가족끼리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앉는다.
2. 시작 성가로 「가톨릭 성가」 45 감사랑, 416 좋기도 좋을시고, 453 푸르른 시냇가의, 454 기쁜 나의 집, 456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가족이 좋아하는 성가를 노래한다.
3.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4. 한 명이 차분하게 복음(루카 1,26-33:예수님 탄생 예고)을 읽고 다른 가족은 조용히 듣는다.
5. 어른 가운데 한 명이 다음 글을 천천히 읽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가정의 품 안에서 태어나 자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아닌 '하느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흔히 "온 집안 식구와 함께"(사도 18,8 참조)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개종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사도 16,31;11,14 참조). 하느님을 믿게 된 이러한 가정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성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흔히 신앙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우리 시대에도 신앙인 가정들은 살아 있는 빛나는 신앙의 중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전통적인 표현을 빌려 가정을 '가정 교회'(Ecclesia domestica)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말과 본보기로써 자녀들에게 신앙의 첫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저마다 고유한 소명을 격려하고 모든 성소를 특별한 관심으로 키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6.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주도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어 본다.
 - ① 일상생활에서 '가정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② 훌륭한 가정 교회를 이루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 ③ 우리 가정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안해 보자.
7. 돌아가면서 왼쪽에 앉은 사람을 위해 자유 기도를 바친다.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으로 자유 기도를 마무리한다.
8. 성모송을 바치고 마지막에 다음 기도로 마무리한다.
"가정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9. 가정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를 바친다.
10. 마침 성가를 한다. 이때 '2'에서 제시한 성가를 참조한다.

사별 가족 모임

■ 출처: 『사목』 2006년 11월 호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가까운 이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은 없다. 사별로 겪게 되는 고통의 기간과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사별은 누구에게나 큰 내적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노환이나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거친 뒤 맞게 되는 죽음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각종 사고 등으로 맞게 되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또한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사별한 이들이 받게 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르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사별 뒤 겪게 되는 변화가 각각 다르며, 자식과 사별한 경우에 부모가 겪는 고통은 더욱 극심하다.

흔히 사별한 뒤 1~2년간 유족들은 힘든 시기를 지낸다. 슬픔과 외로움, 분노, 자책감, 무력감, 고립감, 절망감 등의 감정이 일어나며, 하느님과 자기 자신, 배우자나 친척, 의료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고인과의 추억이나 고인이 임종한 시간에 몰두하는 경향도 있다. 심리적 이상이 구강 건조, 잦은 한숨, 수면 장애 등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화적 풍토 때문인지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가 때로는 무시되고 은폐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히 묻히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사별 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들은 충분히 느껴지고 밖으로 충분히 표출되어야 건강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감정의 앙금이 부정적 에너지로 남아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청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변에서 내미는 손길은 큰 도움이 된다.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의 동반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 체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만큼 좋은 것이 없다. 사별한 사람들만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 안도하게 된다. 체험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본당의 사별 가족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자녀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기분이 든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잊지 않고 찾아 함께 기도해 줌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모임을 주최하는 측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별 가족들의 아픔을 공연히 다시 들추어내어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만, 참석자들이 함께 엄청난 눈물을 쏟아 내고 나서 후련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이것이 기우였음을 깨닫는다.

공동체 안에서 사별로 어두운 굴속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절실하다.

사별 가족 모임 프로그램

(서울대교구 청담동 본당 사례)

1. 사전 준비: 사별 가족 모임은 본당의 연례회나 호스피스팀(또는 가정 간호팀)에서 주최할 수 있다. 임종 시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도 된다. 사별 가족 모임의 날짜를 정하고, 한 달 전쯤에 올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정에 초대장을 보낸다. 초대장을 받았을 즈음에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한다. 준비 과정에서 모임을 할 때 대표로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 사람을 선정하고, 편지를 준비해 오도록 미리 부탁을 한다.

2. 장소 준비: 고인을 기억하고, 슬픔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소성당, 강당 등에 자리를 마련하고, 앞쪽 벽면에 고인의 이름과 세례명을 붙여 놓는다. 십자가, 병풍, 탁자, 흰 천, 촛대, 꽃, 화분, 향로, 향, 컵 초, 화장지 등을 준비한다.

3. 진행

- 1) 시작 성가(예: 『가톨릭 성가』 65장 “예루살렘 복되고”)
- 2) 시작 기도: 연례회 회장 등이 대표로 시작 기도를 한다. 마음을 담은 기도를 미리 준비한다.
- 3) 성경 봉독(예: 요한 5,24-28)
- 4) 분향과 촛불 봉헌: 가족 단위로 나와 향을 드리고, 미리 나누어 준 초를 봉헌한다. 향을 드리는 것은 죽은 이의 육신이 성령의 궁전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자가 고인의 이름을 호명하면 가족이 나와서 봉헌한다. 이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다. 본당의 악기 연주자에게 도움을 청하면 더욱 좋다(현악 합주 등).
- 5) 봉헌 성가(예: 『가톨릭 성가』 2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 6) 추모시 낭독: 죽음과 사별에 관한 좋은 시나 글을 낭독한다.
- 7) 편지 낭독: 미리 준비해 온 가정에서 나와 대표로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다. 두세 명 정도가 읽도록 하며, 어린이나 청소년도 참여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참석한 가족들이 이때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이 된다.
- 8) 연도: 『상장 예식』의 짧은 위령 기도를 바친다.
- 9) 신부님 말씀, 강복: 유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전한다. 사목자 본인의 체험을 함께 나누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10) 마침 성가(예: 『가톨릭 성가』 68장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활기분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경쾌한 분위기가 나는 성가로 선곡한다.

4. 그 밖에

- 1) 사진 이야기: 고인의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인과의 추억을 나눈다. 마음속의 죄책감이나 원망, 그리움을 모두 쏟아 낼 수 있으면 좋다. 참석자가 많은 경우에는 몇 개 그룹으로 나눈다.
- 2) 전문가 초청 강의: 사별 상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을 가짐으로써 사별 가족이 겪는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임을 알게 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 3) 편지 쓰기: 모임 시간에 각자가 고인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마련하여 이를 봉헌하는 순서를 가질 수도 있다.
- 4) 개별 상담 알선: 우울증 증상이 보이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도록 한다.
- 5) 음식 나눔: 모임이 끝나고, 저녁 식사나 간단한 다과를 마련하여 못 다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사별 가족의 기도

조만나스 지음 / 류해옥 옮김

이 눈물을 저의 기도로 받아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의 이 마음을
당신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당신은 저의 절규를 들으시기 위해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겉이 나고 외롭습니다.

물론 죽음이
언젠가 저희를 갈라놓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가온 지금
사별의 고통이 이토록 처절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의 분신이 죽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저는 다만 저의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품에 받아 주십시오.
제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가 영원한 모든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자신에게 말해 주려고 애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건너감이라고
영원한 삶과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인간일 뿐
고통스럽고 외로운 작은 인간일 뿐입니다.
제가 바라다볼 수 있는 것은 저의 눈높이일 뿐
그 너머에서 빛나는 빛은 아닙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며

당신의 뜻을 받아들하려고 애쓰는 이때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겼던 상처들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삶과 죽음과 영원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자비에서 나오는 넘치는 선물들인 까닭입니다.

당신의 팔을 펼쳐 저의 어깨를 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의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저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저의 고통을 희망으로
저의 외로움을 지혜로
저의 두려움을 새 날을 위한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에서
저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삶의 나날들을 감사로 채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이 제게 해 주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알아들으려고도 애쓰지도 않았습시다.
이제 당신께 청합니다.
희망을, 힘을, 평온함을.
이 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제가 지닌 전부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 희망을 주십시오!
저의 슬픔으로부터
저와 제가 사랑하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새 삶을 주십시오.

가정 방문

■ 출처: 김준영 신부(의정부교구), “가정 방문 체험 사례”; FABC AsIPA, “Pastoral Visiting”(B/10) 참조

■ 가정 방문에 필요한 사항

1. 사전에 가정 방문 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가정 방문이 주님의 파견 받은 사목자의 중요한 사명임을 알려주어 그 방문을 받아들일도록 알린다.
2. 가정에서 준비할 것은 가족들이 사제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며, 음식이나 차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을 알린다.
3. 구역장 반장들에게 알려서 방문하여 준비하고 방문 순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4. 방문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사목에 자료로 보관한다.
5. 가정 방문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가정 방문을 평가하면서 가정 방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실을 키워간다.

■ 가정 방문 순서(예시)

1. 집에 도착하면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2. 가족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가족들의 이야기를 청취한다. [15분]
3. 상황에 맞는 “우리 가정 기도”를 함께 정한다. (여러 가지 기도 안내문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각자 한 가지씩 선택하게 한다.) [10분]
4. 기도 하는 법 알려준다. [10분]
5. 위에서 정한 “우리 가정 기도” 함께 바친다. [15분]
6. 기록과 사진 촬영 후 가정 축복기도로 마무리 한다. [5분]

■ 가정 방문 지침

1. 방문을 위한 준비

- (1) 그 가족에 대한 무언가를 찾아라.
- (2) 본당 활동이나 봉사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 (3) 방문 전에 당신의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라.

2. 방문 동안

- (1)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의 목적을 말하라.
- (2) 대화하며 잘 관찰하여 사람들의 재능을 발견하라.

(3)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다시 와도 되는지 물어라. 만약 가족들이 기도하길 원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3. 방문 후

- (1) 방문했던 세부사항을 기록하라.
- (2) 당신이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 (3) 방문했던 동반자와 함께 방문한 것을 평가하라.

■ 방문 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1) 사랑 가득하고 행복한 자세를 취하라. 당신이 누군지 말하고 왜 왔는지 설명하라.
- (2) 진실하라.
- (3) 즐거워하라.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아라. 설교나 훈계하지 말아라.
- (4) 조건 없이 사랑하라.
- (5) 가족 구성원들을 칭찬하고, 관심을 보여라.
- (6)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라.
- (7) 비밀스러운 일은 비밀로 취급하라. 민감하게 반응하라.
- (8) 문제가 있을 때 관심을 보이고 근심과 배려를 보여라.
- (9) 소문과 심문, 아부를 피하라.
- (10) 당신 자신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내어 그들을 즐거움, 사랑, 확신 그리고 감사의 감정으로 대체하라. 당신의 마음과 눈을 방황하게 하지 말고 산만해지지 말아라.

사목 아이디어 모음

- 가정 -

■ 혼인 갱신식

매월 마지막 주일에 혼인 갱신식을 진행한다. 혼인 갱신식은 본당 성인교육분과와 M.E에서 준비하며, 매주 혼인 갱신식에 참여할 부부를 접수받아 준비한다. 혼인 갱신식이 끝나면 축하 자리를 마련하여 케이크를 나누고 부부 소개의 시간을 갖는 등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산교구 가야 본당, 가톨릭신문 2014.5.25.

■ 작은 가족미사

매주 수요일 구역별로 나눠 봉헌하는 가족 미사를 드린다. 둥글게 둘러앉아 성가정을 위한 전체 지향 외에, 각자의 지향을 말로 하고 미사를 시작한다. 강론 전에는 서로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며, 예비신자들도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좋다.

- 대구대교구 매호 본당, 가톨릭신문 2001.5.27.

■ 가정 기도 운동

이 운동은 주 1회 가정기도, 월 1회 가족 미사의 두 축으로 진행되는 가정 중심의 기도 활동이다. 가정 기도문 양식을 신자들에게 배포하여 가정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성시간에 가족이 미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매주일 오전 10시, 11시 미사에 참여하는 가족에게는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 가정 기도문 양식은 「부모, 자녀를 위한 기도」, 「주일복음 낭독」, 「온가족 나눔」, 「대화과 화해」, 「다른 가족을 위한 자유기도」, 「가장의 안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대교구 잠원동 본당, 가톨릭신문 2000.7.9.

■ 가정 방문 세족례 사목

세족례 사목은 사제가 신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기도'를 한 뒤에 '발 씻김 예식'을 해주면 이어 부자가 혹은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겨 준다. 그리고 '가정과의 대화'를 나눈 뒤 성모상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가정 방문을 마친다. 가정 방문은 주로 평일 저녁 때 진행한다.

- 수원교구 배곧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8.8.19.



주일학교 선택 수강제

- 서울대교구 동대문 본당

■ 출처: 『사목정보』 2008년 10월 호

다른 본당처럼 학년별 교리를 했던 동대문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매년 같은 내용과 방식의 일률적인 기존 교리교육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선택 수강제'를 시행했다. '선택 수강제'는 학년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교리 과목 중 학생 자신이 관심 있고 알고 싶었던 것 하나를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방식이다.

선택 수강제라는 아이템을 내놓은 사람은 동대문 본당의 주일학교 교장(초·중·고등부 총괄)인 김재관(도미니코) 씨다. 선택 수강제를 시작한 2006년, 김 교장은 우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과목 7개(세계 교회사, 명화로 배우는 교회사, 한 권으로 읽는 신약성경, 영화로 보는 교회사, 한국 교회사, 구약 모세오경, 복음 나누기)를 아이들에게 제시한 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1학기에 '세계 교회사 I, 성경 이야기(신약) I, 성인 성화 이야기 I, 영화로 알아보는 천주교' 이렇게 4과목을 시작으로 선택 수강제를 시행하게 됐다.

[표1] 서울 동대문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선택 수강제 시행 과목(2006년 ~ 2008년)

	1학기	2학기
2006년	세계 교회사 성경 이야기(신약) I 성인 성화 이야기 I 영화로 알아보는 천주교	성인 성화 이야기 II 천주교 기본 교리 성경 이야기(구약)
2007년	학년별 교리	교회 전례력 보득술 기도 탈출기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고등부)
2008년	성경 이야기(신약) II	목상을 통한 기도 성가로 배우는 천주교 II Y.T=Y.F(Your Think=Your Faith)

[표2] 2007년도 2학기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수업 구성

날짜	주제	날짜	주제
9월 16일	결혼에 대한 관점 토론	11월 11일	다빈치 코드의 오류
9월 23일	청소년 온라인 게임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11월 18일	마리아에 관한 교리
9월 30일	안락사에 대한 찬반 토론	12월 2일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10월 14일	배이줄기세포 vs 성체줄기세포-천주교의 입장은?	12월 9일	'3'에 얽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10월 21일	너도나도 좀 베끼면 어때?-커닝에 물든 학교	12월 16일	너희가 가진 꿈과 희망은 무엇이니?
10월 28일	사랑만이 삶의 포기를 막을 수 있다!	12월 23일	영화 '네티비티 스토리' 감상

선택 수강제를 시작한 첫째 1·2학기 수업 모두 아이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다. 김 교장은 “아이들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선후배와 함께 새로운 테마의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숙제도 잘 해오고 교리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집중도 잘 합니다. 또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고 챙겨줘서 이전 방식의 교리 시간보다 수업 분위기도 좋습니다. 지구 내 본당들은 주일학교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선택 수강제를 시행한 2006년에 우리 본당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중·고등부 주일학교 과정의 교리 내용을 내포하는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택 수강제는 교리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세계 교회사를 가르쳤던 김 교장에게 아이들이 역사를 지루해하지 않는지 묻자,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 속에 가톨릭 교회가 함께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기회도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교회를 알게 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교리 방식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교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 때문이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한 교사들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 교사들은 청소년이 관심 있어 할 교리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책과 자료를 독파해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안을 작성했다. 교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나 교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교사들은 교리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교장은 훗날 교사들이 필요할 때 참고하거나 사용하기 쉽고 시간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 교안과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후 교사들 사정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는데, 보다 나은 수업을 준비하고자 주임 신부와 많은 의논을 하며,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상을 통한 기도, 성가로 배우는 천주교, 토론 수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동대문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에는 4명의 교사가 있다. 교사가 학년별로 한 명씩 담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선택 수강제는 이전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다. 교사가 적은 본당에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PESS 프로그램

■ 출처: 『사목』 2006년 7월 호

PESS 프로그램은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 상황 안에서 청소년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전인적 인간 교육을 바탕으로 신앙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제주교구, 인천교구, 청주교구, 서울대교구 등지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등 교회 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PESS 프로그램의 시작

PESS 프로그램은 대전교구 강석준 신부(논산대건중고등학교 교장)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인 신체적(Physical), 정서적(Emotional), 영성적(Spiritual) 그리고 지적·봉사적(Study·Service) 측면의 균형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전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오랜 기간 학교에서 일하다가 안식년을 지낸 뒤, 공동 본당에 부임하게 된 강석준 신부는 주일학교 침체 상황을 보고, 기존의 주일학교 교육에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곧, 교사가 교안을 만들어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사 생활이 어렵다는 점, 부모들이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에만 열중하는 점, 청소년들의 의존적, 수동적 태도 등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교회와 부모, 청소년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교회의 신앙 교육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루고, 이와 함께 부모의 신앙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종합적 사목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PESS 소공동체 주일학교

1. 진행 방법

PESS 프로그램은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PESS 플래너에 주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산 삶을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이와 함께 연구소에서 개발한 EQ(Emotional Quotient), SQ(Spiritual Quotient), 명상 자료를 활용한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모임은 5~6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며, 지도 교사 한 명이 함께한다.

- 1) 시작 기도: 모두 동그렇게 둘러앉아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와 자유 기도로 시작 기도를 바친다. 자유 기도는 돌아가며 단순하게 짧은 기도로 바치도록 한다. 교사가 거창하게 기도하여 아이들이 주눅 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PESS 생활 나누기: PESS 플래너에 기록한 주간 생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혼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 나눔으로써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자극을 받으며, 타인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 PESS 플래너: 플래너의 시작하는 페이지에는 10년 뒤 나의 모습을 그려 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맞추어 주간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각 주장은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 '학습·봉사'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옆에는 계획 실천 여부를 체크하는 칸을 두어, 지켰으면 ○, 못 지켰으면 ×, 연기는 —, 일주일 동안 동일한 계획은 ↓로 표시한다. 덧붙여 일주일에 한 번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한 바를 적는 칸도 마련되어 있다.

3) EQ, SQ, 명상 나누기: 이 시간에는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토론과 묵상,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제공되는 자료는 EQ, SQ, 명상 자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 자료에는 교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교안이 첨부되어 있다. 학생들이 나누어 보는 활동지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과 디자인에 신경을 썼으며, 각 자료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며 나누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전체적으로 자아 의식, 친교 의식, 생명 의식, 존재 의식, 역사 의식, 직관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EQ 자료: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언어 습관, 생활 습관 등에 관한 성찰을 하도록 한다.
- SQ 자료: 성경 말씀(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서)을 묵상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명상 자료: 좋은 글, 시 등을 음악과 함께 읽고 들으며, 명상하고 나눈다.

4) 3분 교리: 전례 주기에 맞추어 짧고 핵심적인 교리 내용을 전달한다.

5) 공지 사항: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간단히 설명해 주며,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주간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한다. 본당 전체 행사 소식 등을 전달한다.

6) 마침 기도: 함께 손을 잡고 마침 기도로 마무리한다.

2. 교사 기초 교육

PESS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교사들이 PESS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PESS청소년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본당에 강사를 초청해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연구소에서 제작한 PESS 기초 교육 강의 동영상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초 교육을 받으면, 각자 고유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 고유 번호로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구소에서 올리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성직자, 수도자에 한해서는 연구소 측에 요청하면 별도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PESS청소년교육연구소: 대전교구 공동 본당 PES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05년 10월 발족한 PESS 연구회가, PESS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본당과 교구의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2006년 4월 비영리 사단 법인 연구소로 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에서는 홈페이지(<http://www.pess.kr>)를 운영하며, PESS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자가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PESS 프로그램의 특징

- 1) 전인적 인간 교육: 자신의 삶을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 지적·봉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돌보게 함으로써, 각 측면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리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신앙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각자가 갖는 고유함을 발견하게 된다.
- 2) SQ 리더십 함양: 강석준 신부는 이 PESS 프로그램이 SQ 리더십의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IQ, EQ를 넘어 SQ(영성 지수)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였는데, 21세기의 리더에게는 SQ, 곧 본질을 직시하는 직관 능력과 사고의 유연성,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속에서 자연스레 이러한 능력이 함양된다. 곧, 교회에서 신앙 안에 양성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3) 자율성, 주체성, 표현력 함양: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서게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친구들과 함께 모여 나눔으로써 의지가 강화되고, 서로 배우며, 자신의 생각에 대한 표현력이 길러진다.
- 4) 학업 향상: PESS 플래너에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학업 향상에도 도움을 받는다.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성적도 오르면 부모님들에게도 호응이 좋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바로 ‘공부’인데, 신앙 교육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제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져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돕는다.
- 5) 교사 역할: PESS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자신을 비우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진행자, 조력자, 촉진자이며, 아이들을 ‘위한’ 사람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다. 학생들과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며, 따로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아 교사 생활을 하는 데 부담도 덜게 된다. 또한 수시로 아이들의 상태를 살펴 부모님과 대화한다.
- 6) 부모의 참여: PES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PESS 플래너를 쓰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 등에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게 된다.
- 7) 소공동체 지향: PESS 소공동체는 5~6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자극받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 규모가 작으므로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프로그램



■ 출처: 『사목』 2003년 7월 호

성경 캠프

성경 캠프라고 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성경과 연관시켜 꾸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들 안에 성경 내용을 가미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경 가운데서 대본을 꾸며 역할극을 한다든가, 광고 꾸미기를 한다든가, 성경 내용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가요제를 연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바오로의 선교 여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캠프를 떠나기 전에 교리 시간을 이용해 성경 묵상 나누기를 함으로써 성경 캠프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들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캠프를 마친 다음에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성경 캠프를 하려면 성당 주변이 좋겠지만, 어떠한 캠프 장소라도 상관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생이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장난스럽게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자가 분위기를 잘 이끄는 것이 좋다.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대전 가톨릭 대학교 청소년사목연구회와 각 분당 캠프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었음을 밝힌다.

성경 뉴스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1. 조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서로 다른 부분을 맡아, 그 부분을 읽게 한다.
2. 조원은 읽으면서 뉴스거리 하나씩을 찾아 뉴스 기사로 꾸민다.
3. '개그 콘서트' 가운데 '언저리 뉴스' 형식을 따라 재미있게 꾸미고, 발표자 두 명을 정하여 연습한다.
4. 한곳에 모두 모여 조별로 뉴스를 발표한다. 발표할 때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따온 뉴스인지 밝힌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준비물: 영사기, 하드보드(마귀 게임판), 색종이, 호루라기, 점수판, 매직

- 배경 음악이 흐르게 한 뒤 아래 내용을 실감 있게 녹음해 둔다. 내용에 맞게 그림을 10장 정도 그려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준비하면 더욱 좋다. 학생들을 모아 놓고, 시청각 도구를 이용해 그림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이야기도 들려준다. 다음은 마태오 복음 4장 1-11절(마르코 복음 1장 12-13절, 루카 복음 4장 1-13절)을 각 색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지요? 실은 제가 사십 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요.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저는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어? 저기 악마가 오네요. 저는 악마랑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에요. 악마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나 봐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빵이라고라…….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배가 고프는데, 이 악마가 저를 괴롭히네요. 저는 지금 소보로빵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래도 저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마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악마가 흠칫 놀라네요. 비쩍 마르고 지칠 대로 지친 제가 먹을 것을 거부하는 게 조금은 놀라웠나 봐요.

악마가 더러운 손으로 제 손을 잡네요. 저는 악마랑 손잡는 것도 싫는데……. 악마가 저를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네요. 도대체 어디로 나를 데려가려는 건지……. 어? 사람이 보여요. 차도 보이네요. 나무도 보이고, 새도 보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네요. 여기가 아마도 성당 지붕인가 봐요. 모든 것이 제 아래에 있네요. 또 악마가 말을 시키네요.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당신을 도와주러 올 테니…….” 저야 물론 뛰어내릴 수 있지요. 제가 여기에서 발을 떼는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 주실 것이 틀림없지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언제나 저를 지켜 주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악마가 또 흠칫 놀라네요. 악마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닌가 봐요.

어? 악마가 또 제 손을 잡고 자꾸만 올라가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와! 정말 멋있네요. 저긴 여러 가지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또 저기엔 정말 화려한 궁전이 우뚝 서 있네요. 아름다운 바다도 보이네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악마가 또 말을 거네요. “당신이 내 앞에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제가 왜 악마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제가 악마한테 굴복할 만큼 나약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본데, 이 악마가 저를 몰라도 정말 모르네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대답했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님이신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야 악마가 저를 흘깃 쳐다보며 뒷걸음질 치네요. 하하하!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지요? 여러분도 저처럼 강해지세요.

- 하드보드에 아래 그림을 그린 다음, 칸마다 색종이로 덮개를 만들어 붙인다. ★표시가 있는 곳에는 간단한 마귀 그림을 그려 넣고, 진행자는 축소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1	1	0	1	★	★	2	2	2	1	0	1	★	1	1	1
★	1	1	2	3	2	2	★	★	1	0	1	1	1	2	★
1	1	1	★	1	0	1	2	2	1	0	0	1	1	3	★
0	0	1	1	1	0	0	1	1	1	0	0	1	★	3	2
0	0	1	1	2	1	1	1	★	2	1	1	1	2	★	1
1	1	1	★	2	★	2	2	1	2	★	1	0	1	2	2
★	1	1	1	2	2	★	1	0	1	1	1	1	1	2	★
1	2	1	1	0	1	1	1	0	0	1	1	2	★	2	1
0	1	★	2	2	2	2	2	2	1	1	★	2	1	1	0
0	1	2	3	★	★	2	★	★	1	1	1	1	1	1	1
1	1	1	★	3	2	2	2	2	1	0	0	0	1	★	1
★	2	2	2	1	1	1	1	0	1	1	1	0	1	1	1
1	2	★	1	0	1	★	1	0	1	★	1	0	0	1	1
1	2	2	2	1	2	1	1	0	1	1	1	0	0	2	★
2	★	1	2	★	2	1	1	1	0	1	1	1	0	2	★
★	2	1	2	★	2	1	★	1	0	1	★	1	0	1	1

- 게임 방법은 컴퓨터 게임에 있는 ‘지뢰 찾기’를 그대로 적용한다. 게임판에 나온 숫자는 그 주위에 있는 마귀 숫자이다.
-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가려진 종이를 1장씩 떼어 낸다. 떼어 낸 사람은 줄 뒤에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 5초 안에 하나씩 떼어야 한다. 만일 5초를 초과하면 줄 뒤에 서서 다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 마귀를 뽑은 사람은 10점씩 감점을 당한다.
- 0을 뽑은 사람은 0과 접하고 있는 주위의 칸을 다 떼어 낼 수가 있다. 또한 0과 접한 칸의 종이를 떼어 내

- 다가, 또 0이 나오면 그 0을 둘러싼 종이도 다 떼어 낼 수 있다.
8. 마지막에 마귀만을 남기고 모두 떼어 내면 게임을 끝낸다. 다 떼어 내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게임을 마친다. ★는 모두 39개이다.
 9. 반칙자에게는 감점을 한다. 예를 들어, 실수로라도 두 장 이상을 떼어 냈을 경우는 10점 감점, 들춰 보는 사람은 10점 감점, 들춰 본 것이 마귀였을 경우 20점 감점 등.
 10.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한 명 정해 마귀로 분장시키고, 오늘 하루 종일 마귀의 모습을 하고 다니게 한다.
 11.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본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들을 잘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 캠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느님께서 창조 사업을 다 이루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성경은 전한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참 좋지’만은 않게 변했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연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죽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캠프를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자연을 되살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주위에 산이나 강, 냇물, 갯벌이 있다면 좋겠지만, 일반 캠프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5,6학년생이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든다거나 자연물을 이용하여 목주를 만드는 작업도 추천할 만하다. 분당에서 여름 행사로 하게 되는 환경 캠프는 일반 환경 단체에서 진행하는 흥미 위주나 인간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 프로그램은 그린아이 홈페이지와 각 분당 캠프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환경 십계명 만들기

준비물: 종이, 사인펜, 가위

1. 조별로 모여,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하나씩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들로 십계명을 만들어 본다.
2. 십계명이 결정되었으면, 각자에게 계명판을 나누어 주고, 환경 계명판을 꾸미게 한다.
3. 계명판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실천하게 한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준비물: 컵, 식초, 간장, 소금, 설탕, 생수

1. 식초나 간장, 소금, 설탕 등을 섞어 놓은 물컵을 조원 수만큼 준비한다.
2.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 차례대로 물컵을 선택해서 마시게 한다.
3. 조원 모두 이상한 물을 마셨으면, 마지막으로 생수 한 컵을 주면서 좋은 물맛을 느끼게 한다.
4. 두 가지 물을 마신 뒤의 느낌을 서로 나눈다.

5.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생활하수 등으로 물이 더러워지면, 결국 우리가 더러운 물을 먹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6. 진행자가 프로그램 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나무심는사람 출판사)라는 책을 읽으면 더욱 좋다. 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아하, 그렇군요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 보면서, 몰랐던 사실도 깨닫고, 잘못된 습관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KBS 1TV '도전 골든벨' 형식을 따를 수 있다.

문제 1) 우리가 하루에 냉장고 문을 몇 번 정도 열고 닫을까요? 정답:③

- ① 5번 이상 ② 15번 이상 ③ 22번 이상 ④ 34번 이상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조사하여 평균을 내어 보니 하루에 22번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백만 가구가 여닫는 횟수를 하루에 4번씩만 줄여도 28억 원이 절약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전기 요금 가운데 4분의 1은 냉장고 사용료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 뜨거운 것은 식혀서 넣고, 냉장고의 6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문제 2)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가운데 화장실 용수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정답:③

- ① 50% ② 68% ③ 72% ④ 80%

가정마다 양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1.5리터 페트병을 넣어 놓으면 연간 4천8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71만 5천 달러의 외화 비용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양치질을 할 때에는 컵을 이용하십시오. 양치질할 때 물을 틀어 놓으면 적어도 50리터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를 모으면 연간 34톤이나 됩니다.

문제 3) 간장으로 오염된 물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깨끗한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④

- ① 1,000배 ② 10,000배 ③ 20,000배 ④ 30,000배

수질 오염원과 수질 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요네즈 - 240,000배	식용유 - 198,000배	간장 - 30,000배
어묵 국물 - 15,000배	우유 - 15,000배	된장국 - 7,200배

문제 4) 자전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②

- ① 독일 ② 네덜란드 ③ 미국 ④ 우리나라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 초에 현재 우리와 같은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난 뒤 자전거 타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공해 방지는 물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므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 가지 그리기

준비물: 종이, 필기도구, 색종이, 가위, 잡지, 매직

1. 학생들에게 물은 모든 생명체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주지시킨다.

사람 체중의 75%,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바위틈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개울을 이루고, 개울과 강은 들판과 호수, 습지를 적신다. 나무들은 지하에서 물을 빨아들여 줄기와 잎으로 올려 준 뒤 공기 중으로 내뿜는다. 구름은 하늘에서 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은 순환한다. 땅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린 뒤 다시 증발한다. 우주인들이 우주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바다에 사는 가장 작은 생물 가운데 하나인 플랑크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소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한다.

2. 학생들에게 잡지를 나누어 주면서 물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찾게 한다. 학생들이 찾은 사진들을 보면서 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활용되며, 왜 물이 중요한지 등을 물어 본다.
3. 오늘 어떤 방법으로 물을 사용했는지 물어 본다. 무심결에 물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한다. 또한 주변에서 물을 마구 써 버리는 사례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본다.
4. 학생들에게 물과 관련된 낱말을 말해 보라고 한 뒤 큰 종이에 50여 가지의 낱말을 적어 본다. 어떤 형태로든 물과 관련된 낱말이면 된다. 학생들이 낱말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할 경우, 진행자가 '목욕탕, 주방, 동물, 식물, 강' 등의 중심 낱말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낱말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호수, 강, 바다, 빙하, 구름, 비, 증발, 수증기, 플랑크톤, 물고기, 철새, 수돗물, 지하수, 세수, 빨래, 목욕, 양치질, 찌개, 국물, 수영장, 농업용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 하수도, 정화조, 가뭄, 사막, 기근, 댐, 나무, 약수터, 우물

5. 낱말 50개 정도를 모은 뒤 물과 관련된 낱말로 학생들 각자가 종이에 나뭇가지를 그리도록 한다. 물 가지는 '수돗물 - 빨래 - 강물 오염'과 같은 아주 간단한 예로 시작한 뒤 점점 복잡한 물 나무를 그리도록 한다.
6. 물 가지 그리기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림에 나타난 낱말을 중심으로 문장 1개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 '물'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름 - 비 - 폭풍' 등으로 물 가지 그림을 그렸다면, '물은 여름철에 폭풍우를 동반하는 회색 구름으로 변한다.'는 식이다.
7. 학생들이 문장을 완성하면 그 내용에 맞는 색깔의 종이에 다시 쓰도록 하고 색종이도 문장 내용과 어울리게 자르도록 한다. 한 명씩 발표한 다음 색종이 문장을 게시판이나 유리창에 붙여 둔다.

도보 성지순례

도보 성지순례의 목적은, 순교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하느님 사랑을 본받고, 현재 우리 자신이 놓여 있는 삶의 환경과 문제들을 묵상하는 데 있다. 아래의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의 1999년 여름 도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그곳을 찾아라!!

준비물: 각 성지 사진, 카메라

1. 도보 성지순례를 시작하는 날, 각 조에게 그 조가 갈 성지 한 부분을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나눠 준다.
2. 학생들이 성지에 도착했을 때 그 사진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서 조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게 한다.
3. 나눠 주는 사진이 어느 성지의 어느 부분인지 사전에 알려 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그곳을 찾기 위해 모든 성지를 잘 둘러볼 수 있게 한다.

아침 전례

준비물: 여러 가지 색 카드, 목상 테이프, 카세트, 빈 통

하루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루 동안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한다.

1. 목상 음악을 틀어 주고 학생들을 넓은 공터로 모이게 한다.
2. 전례 담당자가 복음을 읽는다(마르 2,1-5: 중풍 병자를 고치신 예수).
3. 아래 내용으로 복음을 묵상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웃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웃들은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는 수고를 하면서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웃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복음에 나오는 중풍 병자도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통해 이웃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도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순례의 길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재능과 성의를 다해 서로서로 보살핍시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길이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작은 걸음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4. 통 속에 있는 색 카드를 한 장씩 뽑는다. 이 색 카드를 통해 순례 중에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 된다. 색 카드에는 각각 “친구의 무거운 짐 들어 주기”(빨강), “친구의 어깨 주물러 주기”(주황), “친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 해 주기”(노랑), “저녁 식사 시간에 친구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봉사하기”(초록), “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 주기”(파랑), “식사 시간에 기도하기”(남색), “아침 전례 뒷정리 도와주기”(보라) 등을 적는다.

고문 추적 놀이

준비물: 나무 색깔로 칠한 신문지 2개(첫째 고문), PVC 막대기 2개, 의자 5개, 2m 노끈 5개(둘째 고문),

빨래집게 20개(셋째 고문), 물, 간장, 후춧가루, 겨자, 시큼한 음료수, 설탕, 소주 종이컵 20개, 눈금이 그려진 500cc 생수통 3개(넷째 고문)

초대 교회 신자들의 고통과 하느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추적 놀이 형식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조별로 순서와 관계없이 시행한다. 진행자들은 모두 포졸 복장을 하고서 학생들을 맞는다.
2. 첫째 고문은 '곤장'이다. 학생들을 엎드리게 하고 나무 색깔로 칠한 신문지 막대로 한 대씩 내려친다.
3. 둘째 고문은 '주리 틀기'이다. 5명 정도씩 뽑아 의자에 앉히고 발목을 끈으로 묶은 다음, PVC 막대기 2개를 이용하여 30초 정도 주리를 튼다.
4. 셋째 고문은 '빨래집게 집기'이다. 빨래집게로 조원의 양 볼을 집고 약 2분 뒤에 떼어 낸다.
5. 넷째 고문은 '사약 마시기'이다. 준비물에 제시한 재료로 사약을 만들어 생수통 표시 선까지 붓는다. 그리고 나서 종이컵에 따라 조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마시게 한다.

나는 성인들이 옛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준비물: 마이크 2개, 앰프, 조명 시설, 제비뽑기

1. 프로그램 시작 전에 교사들이 촌극, 무언극, 노래 개사, 광고 꾸미기, 춤 등이 적힌 제비를 각 조가 한 가지 씩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장들을 시켜 제비를 뽑게 한다.
3. 학생들에게 자신의 조가 다닌 성지 중 한 곳을 정해 그 성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뽑은 제비의 형태로 표현하도록 준비시킨다. 이때 필요한 소품들은 반드시 학생들의 소지품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4. 모든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별 장기 자랑 형식으로 발표한다.

초등부 주일학교 환경 교육 프로그램

- 서울대교구 고척동 본당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 목적

하느님 창조 질서 보전의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생명 가치의 회복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를 돌아보고, 모든 창조물과 함께 하는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 하느님 나라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조금 불편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의 풍요로움에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생태적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그리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 때: 3월 중, 오전 10시 - 늦은 3시

■ 장소: 성당 마당 및 교리실

■ 대상: 유아 및 초등부 주일학교

■ 내용(안)

1. 미사: 3월 중 토요일, 어린이 미사

- 미사 강론 : “불편하지만 즐거운 초록 운동”

※ 준비물: 즐거운 불편 봉헌용 체크 리스트

2. 즐거운 불편 마당(총 9개 부문)

1) 생명의 밥상 차림, GMO FREE ZONE

- 우리의 밥상에는 어떤 먹을 거리들이 올라오며, 생명의 밥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마당

- 아이들이 직접 평상시 먹는 밥상을 차려본 후, GMO가 들어간 음식이 무엇이며, GMO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어 생명이 깃든 밥상을 다시 차려보기

※ 준비물: 먹을 거리 사진, 생명을 먹을 거리 사진, 짹짹이 판넬, GMO 사진 외

2)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기약의 대표적 성분으로 ‘피페트린’이나 ‘사이크로메트린’이 있는데, 이는 살충제 농약의 성분이기도 하다. 이 성분들은 성인들을 자극할 정도는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유해 성분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준비물: 스프레이 용기, 무수에탄올, 저울, 에센셜 오일, 시트로넬라·페퍼민트·라벤더·티트리 오일

■ 만들기

- ① 스프레이 용기에 무수에탄올을 계량한다. 12g
- ② 준비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준다. 시트로넬라 10방울, 페퍼민트 5방울, 라벤더 3방울, 티트리 2방울
- ③ ①과 ②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다.
- ④ 정제수로 나머지 용량을 채워준 뒤 흔들어 섞는다.

3) 천연 염색(전 학년 대상): 양파염, 메리골드염

저학년: 흰 면티 염색하기

고학년: 손수건 만들어 염색하기

■ 염색 방법

① 양파염

※ 준비물: 양파껍질, 휴대용 가스렌지 4, 국 냄비 4, 주걱 2, 큰 합지박 4개 또는 세숫대야 10개, 천일염, 빨랫줄, 체

- 양파 껍질을 모아 물기가 없도록 말려둔다. 분량은 40-50명 한 망이 적절하다.
- 말린 껍질을 한 냄비에 넣고 물에 잠기도록 부은 후 약 30분간 끓인다.
- 끓인 양파물을 체에 걸러 껍질과 분리하여 준비해 둔 합지박(혹은 대야)에 나누어 붓는다.
- 미온수가 되도록 차가운 물을 50대 50으로 섞은 후 매염제로 천일염을 한 주먹 넣어 잘 섞는다.
- 섞은 양파물에 가지고 온 손수건 혹은 흰 면티를 넣어 약 30여 분간 손으로 주물 거려 염색이 고루 잘 되도록 한다.
- 맑은 물에 한 번 이상 수세한다.
- 염색된 티 혹은 손수건을 그늘에 말린다.

② 메리골드(금송화)염 (구입처: 원주 천연염색학교 033-732-6562)

※ 준비물: 메리골드, 휴대용 가스렌지 4, 국 냄비 4, 주걱 2, 큰 합지박 4개 혹은 세숫대야 10개, 천일염, 빨랫줄, 체, 하얀 면 천, 바늘과 실

- 손수건으로 쓸 면으로 된 흰 천을 25cm 정사각형으로 끊어 가장자리를 울이 풀리지 않도록 감치기를 한다. 그리고 자기 이름 혹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을 실로 나타낸다. 하얀 천은 구입 후 염색이 잘 되도록 한 번 세탁을 하도록 한다.
- 준비한 메리골드를 냄비에 붓고 물에 잠기도록 담근다.
- 약 30여 분간 끓인 후 색이 잘 나오도록 10여 분간 더 끓여 낸다.
- 끓인 메리골드물을 체에 걸러 껍질과 분리하여 준비해 둔 합지박(혹은 대야)에 나누어 붓는다.
- 물과 반반 섞은 후 천일염 한 주먹을 넣어 잘 섞는다.
- 메리골드염에 가지고 온 손수건 혹은 흰 면티를 넣어 약 20여 분간 손으로 주물 거려 염색이 고루 잘 되도록 한다.
- 맑은 물에 한 번 이상 수세한다.
- 염색된 티 혹은 손수건을 그늘에 말린다.

4) 재생 종이 만들기

① 우유곽으로 재생 종이 만들기

※ 준비물: 우유곽 1000ml 또는 200ml 여러 개, 플라스틱 통, 책받침, 색종이, 신문지, 김발이, 믹서, 손수건 2장, 가위

- 우유곽을 잘게 찢어 물을 넣고 믹서기로 간다.
- 색을 넣고 싶으면 색종이를 찢어서 넣고 함께 간다.
- 수조에 곤죽이 되게 간 종이를 붓고 물을 적당량 붓는다.
- 김발이나 체를 이용해 곤죽을 건져내어 물기를 뺀다.
- 신문지 위에 건진 종이죽을 얹은 후 꺾꺾 눌러 물기를 뺀다.
- 김발을 종이죽에서 떼어내어 말린다.

② 신문지로 재생 종이 만들기

※ 준비물: 신문지, 옷걸이, 못 쓰는 스타킹, 플라스틱 통, 김발이, 믹서, 손수건 2장, 가위

- 신문지를 작게 찢은 후 잠길 정도로 물을 붓는다.
- 물에 담가둔 상태로 하룻밤 재운다.
- 믹서기에 신문지와 물을 갈아 놓는다. 물이 저으면 종이가 빨리 마르고 두꺼우며, 물이 많으면 종이가 늦게 마르고 얇다.
- 신문지는 휴지처럼 채반에 안 걸러도 된다.

5) 재활용품(우유곽)으로 냄비와 컵받침 만들기

※ 준비물: 우유곽 500ml 2개, 가위, 종이테이프, 나뭇잎 혹은 꽃잎, 친환경 목공 본드

- ① 우유곽의 이어진 부분을 손으로 찢어 가로로 잘 편다.
- ② 펼친 우유곽을 손가락 넓이로 세로로 길게 자른다.
- ③ 자른 우유곽 종이를 세로와 가로로 엮는다. 가장자리는 풀어지지 않도록 파지로 붙여 고정시킨다.
- ④ 받침대로 쓰기에 더 단단하기를 원한다면 엮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 양면을 붙여 사용해도 좋다.

6) 대안 에너지 체험

① 친환경 자가 발전 자전거 타기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드는 체험이다. 지구 온난화, 에너지 낭비를 다시금 의식하고 대안 에너지를 생각해 보는 장. 인력으로 30분 동안 생산한 전기는 10시간 남짓 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 발을 굴러 만든 전기로 전등이나 카세트를 틀 수 있다. 전기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

② 태양열 조리기로 계란 삶기

※ 준비물: 태양열 조리기, 냄비, 유정란 한 판

말 그대로 태양열로 음식을 익힐 수 있는 장비로, 햇빛이 강한 여름날에 자동차 본넷이나 맨홀 뚜껑 등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에 착안해서 발명된 것이다. 움푹 파인 모양으로 태양열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온도를 높인다. 아무런 연료 없이 그냥 햇빛만 있으면 섭씨 100도 정도로 요리를 할 수 있다. 종이에 은박을 씌운 간이 태양열 조리기의 경우 계란 프라이는 약 15~30분 정도가 걸린다. 라면 박스 크기의 태양열 조리기로 라면을 끓일 경우 15~20분 정도 걸린다.

7) 기후 변화 관련 애니메이션

① 내버려두지 맙시다. (1분 30초)

90초만에 뜨개질의 실처럼 흔적도 없이 풀려버리는 세상을 표현함.

② 냉장고 (6분 30초)

기후 변화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6분 안에 보여 줌. 냉장고 안의 식물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들을 재미있게 그려 냄.

③ 지구를 살리는 동물들의 이야기

11편 시리즈로 이어가는 각기 다른 동물들의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재미있으면서도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만화 영화.

④ 콜록콜록 (4분 44초)

지구를 의인화하여 지구 온난화와 각종 환경 오염으로 병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 냄.

⑤ 펭귄의 비명 (3분 26초)

빙산이 녹아들어가는 그 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펭귄 한 마리의 모습을 그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내용.

8) 즐거운 불편 운동 서약

※ 준비물: 탁자 2개, 서약나무, 서약증, 볼펜, 즐거운 불편 포스터, 리플렛 등

- 즐거운 불편 운동 소개

- 서약 나무에 서약증 붙이기

3. 놀이 마당(총 2개 부문)

1) 전통 놀이 마당

① 딱지치기

※ 준비물: 재생 종이, 잡지 등 두꺼운 재활용 종이

② 제기차기

제기는 보통 두 사람 이상 서너 사람이 어울려 편을 지어 노는 놀이.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로 많이 차올리는 편이 이기는데, 차올리는 수를 먼저 정하고(50번, 100번 등) 교대로 서로 정한 약속에 따라 놀이를 진행시킨다.

ㄱ. 개척구: 한 발을 땅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발 안쪽 옆면으로 제기를 차올린다. 이때 제기 차는 발은 공중에서만 올렸다 내렸다 하며 땅에 닿지 않게 한다.

ㄴ. 맨제기: 차는 방법은 ㄱ과 같으나, 차는 발은 땅에 댔다 올리며 차올리는 것이 다르다.

ㄷ. 쌍발제기: 두 발을 번갈아 가며 제기를 차올린다. 차는 발 부분이 달라 발등을 쓴다.

ㄹ. 차는 법은 ㄴ과 같으나 역시 차는 발 부분이 달라 발등을 쓴다.

ㅁ. 차는 법은 ㄷ과 같으나 발등을 쓴다.

ㅂ. 한 발은 발 안쪽 옆면으로 차고 다른 발은 발 뒤쪽 옆면 또는 발등으로 번갈아 두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찬다.

☞ 차는 순서에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대개 개척구(한 발 떼서 차기), 맨제기(두 발 번갈아 차기), 쌍발제기(두 발 딛고 차기)의 순으로 놀이를 하면 좋다.

③ 투호 놀이

- 먼저 화살과 통을 준비하고 통을 적절한 곳에 놓은 다음, 색 테이프나 돌을 이용하여 통에서 가까운 곳과 조금 먼 곳에 시작 선을 만든다.
- 상대방과 각각 화살을 나누어 가진 뒤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 각자 시작선 안쪽에서 화살을 던져 넣는다. 시작선을 밟거나 넘은 상태에서 화살을 던지면 무효이다.
- 화살을 모두 던진 후에는 몇 개를 던졌는지 세어본다.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이긴다.

④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 가위바위보(발로 하는 가위바위보)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진 모듬이 줄을 돌린다.
-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노래에 맞춰 한 명씩 줄을 넘어가도록 한다.
- 많은 인원이 성공한 모듬이 이긴다.

☞ 함께 줄넘기

- 가위바위보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진 모듬이 줄을 돌린다.
- 한 사람씩 줄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숫자를 센다.
- 많은 인원이 많은 수를 넘은 경우에 이긴다.

2) 떡메 치기

※ 준비물: 떡판, 어린이용 떡메, 콩가루, 떡살, 플라스틱 접시, 사각 쟁반

3) 어린이 농부 ‘콩나물 기르기’

※ 준비물: 500ml 우유곽 2개, 콩나물 콩(유태)

- 모든 포스트를 다 마치면 집에서 콩나물을 기를 수 있도록 재료 나누어 준다.
- 콩나물이 자라면 이후 주일학교 수업 후, 콩나물 요리(비빔밥, 콩나물밥 등)를 함께 하여 먹어본다.
- 체크 리스트에 콩나물이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며, 가장 잘 기록하고 잘 기른 아이에게 12월에 시상한다.

4. 행사 운영 방법

- 성당 앞마당과 교리실을 이용한다.
- 1모듬 10명씩 하나의 포스트를 약 15~20분간 머물며 총 15개 포스트를 체험한다.
- 행사 시작 전 각 모듬장에게 아래의 체크표를 나누어 주어 각각의 포스트에서 체험을 완료하면 스탬프 또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간식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콩나물 기르기 재료	

마지막 마무리는 오후 3시 어린이 미사 때, 즐거운 불편의 의미를 다시 전달하며, 매월 즐거운 불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즐거운 불편 체크 리스트를 봉헌 때 제출하도록 한다.

1년 동안 즐거운 불편을 실천한 소감문을 심사하여, 마지막 달 12월에 실천상을 시상한다.



주일학교 여름 생태 캠프

- 서울대교구 고척동 본당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1. 생태 캠프란?

1) 생태 캠프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법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 배우는 자리이다. 따라서 캠프의 장소는 자연이 함께 하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농촌의 야영지나 폐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농사 체험을 통해 땅의 중요성을 알고 연로하신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도심지와는 다른 생태적 감수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볼만한 곳: 금산 생명학교(031-278-6492~4), 원주 녹색체험마을(033-763-6112), 풍수원 금대생태 귀농학교(033-345-7552), 양평 용문 청소년수련장(031-774-3587), 의정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031-840-0018), 강화 바다의 별 청소년수련원(032-932-6318), 횡성 도미니코 청소년수련장(033-343-0201)

2) 생태 캠프는 모둠을 이루어 진행된다.

한 모둠당 10명 이내가 적당하다. 모듬의 아이들은 연령이나 성별이 치우치지 않게 고루 편성한다. 교사는 모듬별로 배치한다. 교사가 많으면 각 모듬에 보조 교사를 두는 것이 더욱 좋다. 그 외 프로그램별 준비 조를 따로 두어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아이들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듬 안에서 학년이나 힘으로 어리거나 약한 아이들을 누르지 않고 배려와 이해로 함께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그램 진행이 늦더라도 모듬이 함께 움직이도록 한다.

3) 생태 캠프에서는 '즐거운 불편'을 실천한다.

'즐거운 불편'은 오늘날 온갖 매체를 통해 '소비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실천 운동이다. 불편한 것이 힘든 오늘날 사회에서 조금 불편해도 즐거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캠프 참가자 전원이 스스로 다양한 실천 사항들(예: 양보하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어린 동생 먼저 챙겨주기, 일회용품 안 쓰기, 친환경 세제 쓰기, 물 받아서 세수하고 양치하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초록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

4) 생태 캠프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

단순히 즐겁게 노는 것만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눔을 하고 마지막 날은 꼭 미사 전례(시작 성가, 제1독서와 제2독서, 예물 준비 성가, 신자들의 기도, 마침 성가)를 각 모듬이 준비하고 미사 때 이를 봉헌한다.

☞ 생태 캠프 생활 수칙

〈참가자 어린이 혹은 청소년〉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자연, 동물, 식물, 인간 등) 속에 내재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생명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작은 개미, 풀 한포기라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안미도감’ 표현을 자주 쓴다.

- 안미도감은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란 표현을 줄인말로, 이 말을 습관화하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을 배우고 익힌다.

함께 한다

-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수고해 주신 하느님과 모든 분들(자연, 농부, 부모님, 생명학교 선생님 등)께 감사함으로 써 함부로 음식물을 대하지 않도록 한다.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스스로 떠서 먹되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도록 한다.

〈담당 교사〉

- ① 교사는 어린이 생명 학교의 기본 지침을 실천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 ② 교사는 각 프로그램마다 시작과 마무리는 기도로 하며 프로그램별로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연관시켜 줌으로써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준다.
- ③ 교사는 수행하게 되는 각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교육 목표, 방법, 재료 등)은 물론, 후속 학습(다음 수업 안내, 잠들기 전 하루 생활 검토와 평가, 일기 쓰기 등)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 ④ 교사는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모든 재료와 음식물을 친환경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마련하며, 아이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남기는 것이 없도록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캠프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여 캠프 기간 아이들이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도록 한다.

2. 생태 캠프 준비는 어떻게?

1) 캠프 장소 결정

캠프 장소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도 좋지만 자연과 농촌 체험이 가능한 곳을 우선시하며, 프로그램 이동

동선이 짧은 곳이 좋다. 물놀이 장소도 수영장보다는 개울, 계곡 등에서 한다면 수중 생물을 좀 더 관찰할 수 있고 물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여러 곳을 보더라도 먼저 답사를 다녀온 뒤 정하는 것이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 답사를 갈 때는 총 진행자는 물론, 예산 담당자와 모듬 교사, 보조 교사, 살림 책임자도 함께 동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행사장의 곳곳을 사진에 담아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도 좋다. 답사를 통해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보고 인원과 역량, 예산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대부분 캠프가 무더운 여름에 열리므로 참가 인원내 비해 숙소나 활동 공간이 여유 있는 것이 좋다. 1차 답사를 통해 장소가 정해지면 2차 답사를 거쳐 변화된 상황을 점검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생각과 다른 변동 요인을 만나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상 시 대처할 수 있는 인근에 있는 병원, 약국과 마트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다.

※ 선택한 장소가 농촌과 관련된 곳일 경우

-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유무 확인: 일손 돕기, 논 들어가기, 옥수수 따기, 떡 메치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두부 만들기, 풍물놀이, 솟대 만들기, 전통놀이, 천연 염색 등 고유의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의 땅을 일구어 생명의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농부의 삶을 미소하게나마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먹을 거리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다.

2) 프로그램 기획할 때 유의할 점

- ① 프로그램에 일회용품, 스티로폼, 화학용품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종이컵, 비닐,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이 땅 속에서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 중에서 산림을 제외한 가용 면적이 34.6%에 불과하다. 매년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는데 매립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태우게 되는데 이때 다이옥신이 발생된다. 다이옥신은 소각장 같은 곳에서 연소를 할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한다. 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염소(Cl)계 물질이 불완전 연소 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을 소량 배출한다. 이때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발암성을 띠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어도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이론에 그칠 뿐 환경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실천을 하지 않고 여전히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일회용품을 찾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 ② 건강한 먹을 거리와 바른 밥상머리 예절을 중요시한다.

밥 한 톨이 내 앞에 오기까지 자연과 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이 있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남기는 것 없이 먹으며, 편식하지 않도록 한다. 캠프 기간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아이에게 성취감과 지구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참고 자료〉

※ 식품 첨가물(조미료) 사용 문제

식품 첨가물은 품질을 개량하여 보존성, 기호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영양가 및 식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보존 기간을 늘려주고 색상을 좋게, 맛을 좋게, 품질 향상을 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마법의 가루라 불린다. 한스 올리히의 저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첨가물이 대략 50g이고 일 년이면 거의 20kg을 섭취한다고 하니 식품첨가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첨가물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ㄱ. 인공 화학 조미료(M.S.G.)

글루타민산나트륨 또는 글루탐산이라 하는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과량의 글루타민산이 신경 조직에 흡수될 경우 신경 세포막을 파괴하여 어린이에게는 뇌손상, 천식 유발, 아토피 질환에 영향을 주며 산혈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신장에서 칼슘 흡수를 막고 뼈 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까지 떨어져 나가게 해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외식의 경우 98%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며 특히 중국 음식, 탕류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요즘 가공식품 중에는 3無 제품이라 하여 無MSG, 無인공착색료, 無방부제라 하는데 이 가공식품을 3無 제품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해 MSG라는 화학 조미료는 안 들어 갔어도 다른 화학 조미료, 즉 핵산계 화학 조미료, 아미노산계 화학 조미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학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최근 가정에서의 MSG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외식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0월 16일을 MSG 안 먹는 날로 정하고 있다.

ㄴ. 발색제

식품의 색은 맛이나 향같이 기호상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식품을 착색시킨다.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합성착색료를 많이 사용한다. 합성색소 중 타르 색소는 과자, 음료, 사탕,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는 청색1호, 적색2호, 적색4호, 황색4·5호이며, 이 다섯 가지 타르계 색소는 독성이 강하며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 롤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빨강 파랑 검은색의 날치알 역시 타르계 색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색이 잘 스며들도록 날치알에 색소, 솔비톨, 인산염, 화학 조미료를 넣어 20시간 숙성시킨다. 오렌지 맛 탄산음료는 구연산, 백설탕, 과당, 오렌지향, 황색5호를 섞어 탄산가스를 주입시켜 만든 것으로 오렌지는 1%도 안 들어가 있다. 이 탄산음료 액에 흰 실크블라우스를 담가 5분 가열하면 염색이 된다.

ㄷ. 단백질 분해물

라면을 비롯한 인스턴트 레토르트(고압살균처리 식품) 냉동 식품, 햄, 소시지, 냉동 햄버거, 미트볼, 카레, 어묵, 소스류, 각종 조미식품, 과자 스낵류에는 소금, 화학조미료, 단백질 분해물이 반드시 들어가며 이를 가공 식품의 황금 트리오라 부른다. 단백질 분해물이란 아미노산 성분을 농축시켜 만든 조미료의 일종으로 고기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얻은 아미노산을 말하는데 고기나 콩 등 단백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콩으로 기름을 짠 찌꺼기인 탈지대두나 동물성 단백질인 젤라틴, 어분을 쓴다. 여기에 염산을 부어 가수분해 시켜 아미노산액을 만들어 농축시킨 물질이다. 라면을 비롯한 위에 적은 식품을 사면 포장지에 성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라면의 경우 면에 11가지, 라면 스프에 35가지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 문제

배불리 먹어도 남게 되는 우리의 상차림 때문에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만 5천여 톤! 8톤 대형 트럭 1400대에 담기는 양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41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다. 식당이나 학교,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들은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그런데 처음에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너무 많이 주거나, 만들 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남기게 한다. 소중한 음식들은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음식물 쓰레기들을 태울 때 쓰는 연료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태우면서 나는 연기는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들을 땅에 묻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묻게 되면 그 땅에서 악취가 나고 토양과 수질이 오염이 된다. 여러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자연이 살아나고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 앞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조상들의 건강 10훈(訓)

1.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을 것, 小肉多菜(소육다채)
2. 적게 먹고 많이 씹어 먹을 것, 小食多嚼(소식다작)
3. 설탕을 적게 먹고 곡식을 많이 먹을 것, 小糖多果(소당다과)
4. 소금을 적게 먹고 초를 많이 먹을 것, 小鹽多醋(소염다초)
5. 적게 분노하고 많이 웃을 것, 小怒多笑(소노다소)
6. 적게 번민하고 많이 잠잘 것, 小煩多眠(소노다면)
7.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걷고 운동할 것, 小車多步(소차다보)
8. 얇게 옷을 입고 목욕을 많이 할 것, 小衣多浴(소의다욕)
9. 욕심을 적게 가지며 남에게 많이 베풀 것, 小慾多施(소욕다시)
10.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행할 것, 小言多行(소언다행)

3) 사전 작업

- 아이들 각자의 연령, 성별, 체질의 특이사항(아토피,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다. 이 자료를 통하여 모둠을 구성하되 연령대와 성별이 고루 퍼지게 한다.
-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진행장과 총무, 구급처리를 할 부진행장을 뽑는다. 그 외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맡을 사람을 따로 두어도 좋다.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진행장이 담당한다.
- 모듬 구성이 끝나면 한 모듬당 담임과 이를 보조할 교사를 배치한다. 담임은 프로그램 진행을 도우며, 보조 교사는 필요한 준비물이나 간식을 조달하는 등 움직임이 필요한 것을 대행하여 담임이 모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교사진의 여유가 있다면 힘을 쓸 도우미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도록 전반적인 설치 및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숙박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 방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모듬별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캠프 기간 동안 불침번 당번을 정하여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한다. 대체로 새벽에 잠결에 화장실을 가다가 혹은 자다 아이들끼리 깔려 사고가 많이 난다.
- 진행팀간 세부 검토회의가 자주 필요하다. 캠프 프로그램 및 장소, 참가 어린이 파악이 끝나면 캠프에 참여하는 교사, 보조 교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공유와 일정에 따른 진행 방향, 준비물, 프로그램 담당 등 내용을 파악하고 세부 역할을 나누는 회의를 여러 차례 갖는다. 진행장과 모듬 담임, 보조 교사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캠프에 잦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답사를 가지 못한 교사를 위하여 행사 장소 동영상에 담아 공유하도록 한다. 캠프 동안 함께 부를 노래를 선정하여 모일 때마다 연습하는 것이 좋다.
- 이름표를 재활용품으로 준비한다. 대체로 목에 거는 비닐로 된 이름표를 사용하지만 생태 캠프인 만큼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 우유곽으로 이름표 만들기

- 1) 준비물: 우유곽 500ml 1개(4개를 만들 수 있다), 가위, 풀, 송곳, 굵은 털실, 크레파스
- 2) 만드는 방법
 - ① 우유곽은 물에 행군 뒤 잘 말린 것을 사용한다.
 - ② 우유곽 붙임면을 손으로 잘 떼어 펼친다.

- ③ 접힌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낸다.
- ④ 4개의 우유곽 직사각형 면에 2/3의 윗부분을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오린다.
- ⑤ 모서리 윗부분에 걸 수 있도록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 ⑥ 구멍에 실을 꿰어 넣는다.
- ⑦ 이름표에 각자 크레파스로 모듬명과 이름을 적도록 하여 완성한다.

4) 생태 캠프 오리엔테이션

-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다.
개인 준비물과 아이가 따라야 할 수칙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생태 캠프 생활 수칙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어 인식을 하게 한다.
개인 용돈이나 간식을 따로 마련해 오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핸드폰은 들고 오지 않도록 공지한다.
- 생활용품 중 세안용품(비누, 치약)과 주방 세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한다.
아이들이 세안용품을 따로 준비하지 않도록 해준다. 물 오염을 가중시키는 세제에 포함된 방부제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농토와 수리 체계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 캠프에 가지고 올 개인 물품들에 이름을 새겨온다.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짐을 싸 아이가 자기가 어떤 물품을 가지고 왔는지 알게 한다. 보호자가 짐을 꾸려 본인 것임에도 물품을 잃고도 몰라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 개인 행동을 자제한다.
모든 음식은 모듬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행동이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인식시켜 준다. 또한 캠프 기간 동안은 편식을 금하며 정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한 개라도 접시에 덜어 고루 먹도록 사전에 공지한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를 감안해 준다. 갈수록 더해 가는 개인주의 분위기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 비상 연락망을 알려준다.
캠프 기간이나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 가정에서 많은 문의 전화가 올 수 있다. 총진행장과 각 모듬 담임을 제외한(프로그램 진행 방해 요소 방지) 부진행장 및 보조 교사의 연락처를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3. 생태 캠프 프로그램의 예시(2박3일)

1) 식단 구성

날짜	구분	식단	비고
첫째 날	오후 간식	참외	얼음장 깨기 후
	저녁	보리밥, 된장찌개(두부, 호박), 된장깻잎장아찌, 호박전, 김치전, 배추김치	
	저녁 간식	찐 감자	
둘째 날	아침	기장밥, 시금치국, 감자조림, 깍두기, 계란찜, 김	
	점심	비빔밥(무생채 · 오이 · 호박 · 콩나물 · 상추 · 고추장), 계란 맑은 장국	생명의 밥상
	간식	어묵 떡꼬치, 자두	물놀이 때
	저녁	잡곡밥, 돼지고기 숯불구이, 배추김치, 호박쌈, 양배추 쌈, 상추, 풋고추	
	저녁 간식	옥수수, 수박	전통놀이 후
셋째 날	아침	공밥, 우거지 된장국, 멸치땅콩볶음, 시금치무침, 배추김치	
	오전 간식	복숭아	모듬별 전례 작업 때
	점심	비빔국수(오이), 콩나물국	
	오후 간식	옥수수	차 안에서

※ 참고 사항

- 생태 캠프에서는 생명의 먹을거리를 사용한다. 순수한 우리의 농산물로 식재료를 쓰며 튀기는 것보다는 조리거나 굽고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식단은 전통 한식 위주로 밥과 김치를 제외한 삼찬으로 육류와 채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간식도 일반 과자가 아닌 제철 과일과 옥수수, 감자 등을 제공한다. 마실거리는 효소 원액(오미자, 매실)을 희석하거나 보리차를 준비한다. 자체적으로 살림조(음식 조리팀)를 꾸리기 힘든 상황이거나 캠프장의 식당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식단을 점검하여 되도록 튀김이나 햄, 카레와 짜장 등의 일품 요리 종류는 피하고 좋은 먹을 거리들을 넣도록 양해를 구한다.

※ 친환경 식재료 구입할 수 있는 곳: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www.wrn.or.kr, 02-2068-0140~3)

- 캠프 들어가는 점심은 각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한다. 캠프에 들어가면서 식사를 시작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캠프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만들기 쉽다. 마실 거리도 생수나 끓인 보리차 등을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한다.
- 배식은 아이들이 각자 식판 혹은 접시에 떠 담도록 하되 생활 담당이 고루 담도록 지도한다. 한꺼번에 많이 담지 말고 자주 더 먹도록 한다. 모듬원이 모두 다 음식을 뜨고 난 뒤 다함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한다.
- 잔반통은 따로 마련해놓지 않으며 모듬 내에서 서로 도와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2) 일정표

☞ 예시(1)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07:00-08:00		기상/아침기도/명상	기상/아침기도/명상
08:00-08:30		세면	세면
08:30-09:00	집합/인원 점검	아침밥 모심	아침밥 모심/ 짐과 주변 정리
09:00-10:00	출발! 캠핑장으로 이동	농사 체험	모듬별 전례 작업
10:00-11:00			마침 예식
11:00-11:30		생명 밥상 만들기 (감자전, 수제비 만들기)	창조 질서 보전 미사
11:30-12:00			점심밥 모심
12:00-12:30	도착/방배정/짐품기		
12:30-13:00	점심밥 모심		점심밥 모심
13:00-13:30	입교식/즐거운 불편 서약		뒷정리
13:30-14:00	보금자리 만들기 얼음장 깨기	물놀이 (수중생물 찾기, 보물 찾기)	출발! 집으로~
14:00-14:30			
14:30-15:00			
15:00-15:30	천연 염색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휴식	
17:30-18:00	저녁밥 모심	저녁밥 모심	
18:00-19:00	모듬별 발표	전통 놀이	
19:00-19:30	즐거운 불편 포스트		달집 태우기
19:30-20:00			
20:00-20:30			
20:30-21:00			
21:00-21:30		하늘땅물벗 영화관	
21:30-22:00	모듬 회의, 취침 준비		
22:00-22:30	모듬 회의, 취침준비		
22:30-23:00	봉숭아 물들이기		
23:00-23:30			
23:30-24:00			

예시(2)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07:00-07:30		기상/ 아침기도/ 명상	기상/ 아침기도/ 명상	
07:30-08:00		세면	세면	
08:00-09:00		아침밥 모심	아침밥 모심/ 짐과 주변 정리	
09:00-10:00		땅 살림 문화 체험 4 post로 나뉘어 진행 1 post: 옥수수 수확 2 post: 야채 수확하고 다듬기 3 post: 고추 따기 4 post: 논에 피 뽑기	숲 체험, 자연물 이용하여 꾸미기	
10:00-11:00			파견 미사 및 시상식	
11:00-11:30				
11:30-12:00				
12:00-12:30		생명 밥상 만들기 (땀비 밥 짓고 야채 비빔밥 해먹기)	점심밥 모심	
12:30-13:00			기념 촬영 후 출발!	
13:00-13:30				
13:30-14:00				
14:00-14:30		접수		
14:30-15:00		자유롭게 물놀이 1	자유롭게 물놀이 2 간식: 우리밀 라면	
15:00-15:30				
15:30-16:00	방배정, 짐풀기			
16:00-16:30	시작기도(ppt)/ 입교식, 오리엔테이션			
16:30-17:00				
17:00-17:30	보금자리 만들기, 얼음장 깨기			
17:30-18:00				
18:00-19:00	저녁밥 모심	저녁밥 모심		
19:00-19:30				
19:30-20:00	전통 놀이 마당	대동놀이 달집 태우기		
20:00-20:30				
20:30-21:00		모듬 회의, 취침 준비		
21:00-21:30				
21:30-22:00	모듬 회의, 취침 준비	하늘땅물벗 영화관		
22:00-22:30				
22:30-23:00				

☞ 예시(3) 별자리 생태 캠프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07:00-07:30		일어나기/ 사방기도	일어나기/ 사방기도
07:30-08:00		씻기	씻기
08:00-08:30		아침밥 모심	아침밥 모심/ 짐과 주변 정리
08:30-09:00			
09:00-09:30		태양 흑점 관측	숲 체험/ 자연물 이용하여 꾸미기
09:30-10:00	집합		
10:00-10:30	천문대로 출발 (휴게소에서 점심 도시락)	우리는 한마음/ 천연 염색	창조 질서 보전 미사
10:30-11:00			
11:00-11:30			
11:30-12:00		점심밥 모심	점심밥 모심
12:00-12:30			
12:30-13:00			
13:00-13:30		기념 촬영 후 출발~!	
13:30-14:00	접수 및 방 배정, 짐 풀기		
14:00-14:30			
14:30-15:00	물놀이 1		
15:00-15:30			물놀이 2 (전체 물놀이 게임/ 본당별 물놀이/ 자유 물놀이)
15:30-16:00			
16:00-16:30	휴식		
16:30-17:00		시작기도(ppt)/ 입교식 보금자리 만들기 얼음장 깨기	
17:00-17:30			
17:30-18:00			
18:00-19:00	저녁밥 모심	저녁밥 모심	
19:00-19:30	모듬별 발표	전통놀이, 대동놀이, 달집 태우기	
19:30-20:00			
20:00-20:30	지구별 시뮬레이션 실내 강의		
20:30-21:00			
21:00-21:30	지구별 관측 (망원경 관측, 천체 투영실 강의, 별자리 및 주요 별 설명)	일기 쓰기, 취침 준비	
21:30-22:00			
22:00-22:30		하늘땅물벗 영화관	
22:30-23:00			
23:00-23:30	일기 쓰기, 취침 준비		

☞ 예시(4) 화석 연료 없이 살아보기(권장 캠프)

취지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진 오늘날, 생태주의자였던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진정한 태양(지구) 에너

지에 대한 해법을 2박3일 동안의 화석 연료 없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느끼며 그 해결책을 모색함.

기본 가치

- 작은 것을 좋아하고 청빈한 삶을 통해 즐거운 불편을 생활화한다.
-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간다.
- 직접 행동한다.
- 모든 일과 과정을 놀이로 생각한다.
- 생명과 평화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먹을 거리

-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리 방법을 모색한다. (태양 에너지, 나무, 톱밥 등)
- 지역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순환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를 한다.
- 기존의 식생활 문화(조리 방법과 과정, 축산, 농업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성찰하고 좀 더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방식으로의 식생활을 고민한다.
- 조리할 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모두 사용, 여기에 맞게 식단 준비).
- 먹을거리 준비와 먹는 행위에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천천히 먹는다.
- 기본적으로 빈 그릇 운동(발우공양)을 실천한다(남기는 음식물 제로).
- 모든 식단은 제철 먹을거리로 구성하고 육식을 최소화한다.
- 인스턴트나 포장된 음식은 쓰지 않고 가져오지 않는다.
- 설거지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천연 수제미 사용, 부득이 할 경우 밀가루 사용).

씻기

- 비누와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죽염만 준비).
- 최소한의 물을 사용한다.
- 물을 다시 쓴다.
-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생태 화장실 만들기)
- 이를 통해 오늘날 위생 개념과 수세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잠자리

- 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병자, 유아 등)은 숙소를 이용하되, 기본적으로 텐트와 침낭을 가져와 사용한다.

이동수단

-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를 이용해 행사에 참가하도록 한다.

전기

-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대안(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야간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대신 촛불을 사용한다.

- 조리에 필요한 화력도 버려진 나무(솔)나 태양열 조리기, 톱밥 화로를 이용한다.
- 이를 통해 대안 에너지 사용과 방식을 고민한다.

쓰레기

- Zero Waste Camp!
-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 그럼에도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집으로 가져간다.

놀이와 문화

- 남을 시키지 말고 자신만의 놀이를 생각하고 나눈다.
- 모두가 시인이고 가수이고 춤꾼이다.
- 삶의 구경꾼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된다.
- 모두가 참여하는 숲속 음악회

그 외 실천 사항

- 시간 나는 대로 산책을 한다.
-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놀게 한다.
- 생명 농업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농사일을 돕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나무와 꽃들의 이름을 알아본다.
- 자연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기)
- 즐거운 불편을 실천한다.
- 자율과 자치를 실천한다. (최소한의 안내, 최대한의 참여)
- 실천 우수자 시상(씻기, 빈그릇 운동 등 부문별 우수자 시상, 상품은 접히는 컵)

기본 일정(안)

첫째 날

- 14:00~15:00 접수(*모든 참가자는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참석)
- 15:00~15:30 여는 마당, * 취지 이야기
- 15:30~19:00 텐트 치기, 저녁밥 준비, 모심
- 19:00~20:30 놀이 마당
- 20:30~21:00 간식
- 21:00~22:00 우주 이야기 듣기(별자리 탐구)
- 22:00~ 씻기, 잠자기

둘째 날

- 06:00~07:00 절 기도(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몸기도)
- 07:00~09:00 아침밥 준비, 모심
- 09:00~11:00 생태 농업 체험
- 11:00~13:00 점심밥 준비, 모심

- 13:00~17:00 숲 체험, 물 체험 등
- 17:00~18:00 '화석 연료 없이 살아보기-직접 행동' * 직접 행동 체험 거리 정하기
- 18:00~20:00 저녁밥 준비, 모심
- 20:00~21:00 숲속 음악회 또는 환경 관련 애니메이션 관람
- 21:00~23:00 작은 달집 태우기, 간식
- 23:00~ 잠자기

셋째 날

- 06:00~07:00 절기도
- 07:00~09:00 아침밥 준비, 모심
- 09:00~11:00 주변 정리, 미사 준비
- 11:00~12:00 창조 질서 보전 미사
- 12:00~13:00 점심밥 모심
- 13:00~ 대중교통 이용해 귀가

참가자 준비물

텐트, 침낭, 수건과 칫솔(치약, 샴푸, 비누 가져오지 말기), 최소 여벌옷, 모자, 걷기 편한 옷과 신발, 개인 식기(컵, 수저, 밥그릇), 우산(비옷), 그 외 꼭 필요한 개인 약품(물품), 꼭 필요할 때 사용할 개인 랜턴 등

* 짐은 최대한 줄인다. 일회용품과 포장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다.

3) 예 1,2,3 캠프 프로그램의 개요

① 출발~!

- 모듬으로 나뉘어 10명이 한 조를 이룬 뒤 답십 교사와 이동한다.
- 차내에서 전체 진행자가 워크북 자료를 보면서 생태 캠프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학습을 하도록 한다.
- 캠프 기간 동안 함께 부를 노래를 율동과 함께 연습한다.

② 식사

- 각자 먹을 수 있는 만큼 골고루 덜어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 모듬별로 하느님은 물론, 하늘과 땅, 태양, 바람, 물, 농부, 부모님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하고 식사 전 기도를 한 뒤 먹는다.

식사 전 기도: 하느님, 이 음식이 저희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창조물들과 농부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아멘.

식사 후 기도: 하느님, 저희에게 내려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오니 생명을 소중히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③ 얼음장 깨기

- 입교식, 모듬별 친교 및 전체 친교 나눔

- 모듬별 구호, 노래와 깃발 제작, 모듬장 뽑기

④ 보금자리 만들기

- 모듬별 모임 장소 선정, 주변의 나무와 풀, 흙, 벌레, 소리, 촉감 등 느끼기
- 잠재된 오감을 깨우는 고요와 침묵의 장을 통한 집중력 강화
- 느끼고 새로이 발견한 체험들을 나눔, 그것을 바탕으로 한 모듬별 발표 준비

⑤ 천연 염색

- 손수건, 티, 머플러 등 염색
- 강황, 코치밀, 쪽 등 3가지 염색 중 선택

⑥ 모듬별 발표

- 각 모듬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 사물 흥내 개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 다양한 형식과 방법 이용
-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담은 환경 노래 함께 부르고 율동하기

⑦ 전통놀이

- 모듬별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통놀이를 한다. 각 놀이를 하면 포스트별 도장을 찍어주어 반복되는 놀이를 피한다.
- 모듬별 전통놀이: 사방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비석치기, 가래떡 구워먹기, 딱지치기 등
- 공동체 전통놀이: 꼬리 잡기, 오징어놀이, 꽃 따기, 줄넘기, 다방구, 실내 숨바꼭질, 얼음땀, 단체 줄넘기 등

⑧ 우리는 한마음

- 고무풍선에 물을 담아 모듬별 1:1 대항전으로 물 풍선을 서로 던져 떨어뜨리거나 터지지 않게 잘 받은 모듬이 승리
- 조그만 대접에 물을 담아 큰 함지박에 번갈아가며 부어 흘리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담은 모듬이 승리하는 모듬의 단결력을 향상하는 자리

⑨ 봉숭아 물들이기

- 봉숭아꽃에 관한 전설을 듣고 실제로 물을 들여보는 시간
- 모듬별로 꽃을 뿜아 2인 1조가 되어 서로 묶어준다.

⑩ 모듬회의(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

- 보금자리나 방에서 모여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간단한 나눔 후 일기를 쓴다.
- 다음날 있을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와 주의사항을 듣는다.

⑪ 농사체험

- 인근의 밭으로 가서 농부의 농사와 땅 이야기를 듣는다.
- 옥수수 따기, 논에 들어가 피 뽑기 등 농사일을 돕는다.
- 밭 주인에게 비용 지불

⑫ 생명 밥상 만들기

- 백설탕, 소금, 미원 등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조리
- 모듈별로 적당량의 음식을 만들어 먹되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 나오지 않게 한다.
- 먹고 난 후 모듈별로 깨끗이 설거지를 하되 쌀뜨물이나 친환경 세제 등을 사용한다.

⑬ 수중 생물 찾기

- 모듈별로 나누어준 족대, 수중 망원경 등을 이용하여 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어항에 담아 꾸민다.

⑭ 숲 체험

- 모듈별로 교사를 따라 숲 산책
- 침묵 속에서 온몸으로 숲 느끼기(새 소리 듣기, 바람 느끼기, 흙 냄새 맡아보기 등)

⑮ 보물 찾기

- 환경과 자연에 관한 퀴즈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보물을 찾는 과정

⑯ 물놀이

- 수영장이나 개울가로 가서 물놀이를 한다.

⑰ 전통 춤과 달집 태우기

- 전체가 모여 우리나라 고유 공동체 놀이인 대동놀이를 흥겨운 기락에 맞춰 한다.
- 모닥불을 지핀 뒤 전통춤을 통해 친교를 다진다.

⑱ 환경 영화 보기

- 자연의 소중함을 담은 영상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
- 환경 관련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에게 호소력이 높다.

⑲ 즐거운 불편 추적 놀이

-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러 유형의 놀이, 퀴즈, 작업 등을 통하여 이를 이해하고 체득하도록 한다.

⑳ 모듈별 전례준비

- 생명 학교 마지막 날 있을 미사에 필요한 전례를 모듈별로 준비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체험한 것, 느낀 바를 서로 나눔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례의 한 부분을 맡는다.

※ 창조 보전 미사와 마침 예식

- 파견 미사: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변화를 이끌도록 하는 마무리
- 미사 중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다짐, 결단식을 갖는다.
- 행사 동안 담은 사진들을 PPT로 만들어 보여준다.
- 영성체 후 평가서 작성

청소년 견진 가정 교리

- 의정부교구 금촌2동 본당



■ 권찬길 신부(의정부교구) 제공

가정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대략 12세 정도부터 시작된다. 부모의 훈육 방향을 거부하며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첫영성체 이후 자녀는 사춘기를 맞으며 심신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고, 부모 이외의 관계에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며 학업의 비중 또한 커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와 잦은 언쟁이나 분열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관계 완화를 위해서,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녀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변화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에서 신앙의 주제들은 뒤로 미뤄두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모와 자녀가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가정이 함께 자녀의 견진성사를 준비하게 하는 데 이 교리의 목적이 있다.

1. 주요 사항

- 견진 대상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리는 사제가 맡는다. 기간은 10주 정도로 한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해 이용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진첩을 다시 정리하게 한다든가, 부모가 자녀와 같은 나이였을 때를 회상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자녀의 평가를 나누게 한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활동(여행 혹은 봉사 등)을 과제로 준다.
- 성당에서 배운 교리를 자녀가 부모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부모 교리반에서 나누도록 한다. 부모는 자녀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표현들을 듣게 되고, 자녀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깊이는 어떤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교리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 안에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 등을 지켜볼 수 있다.
- 부모에 대한 교리에서 부모 자녀 소통 전문가의 초청 강의를 포함한다.
- 견진 교리의 마지막에는 견진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 청소년들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밝힐 수 있으며, 교리를 하는 동안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 견진 교리 기간 중에는 가정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지도한다.

2. 프로그램

주	청소년 교리	부모 교리
1	초청특강 1 : Egogram (청소년과 부모 함께)	
2	성사편 교리 1	휴강(어버이날, 연휴)
3	신학교 방문	14시 초청 특강 2
4	미술 놀이 (청소년과 부모 함께)	
5	성사편 교리 2	19시 기도 모임 1
6	종합 교리 (건강자 전체)	19시 기도 모임 2
7	전체 나눔 및 발표 (청소년과 부모 함께)	
8	예절 연습	-

- 초청 특강 1: Egogram(교류분석)_유영미 테오도라
- 초청 특강 2: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신앙”_박종수 사도요한 신부(서울대교구 유아부)
- 미술 놀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미술 작업_전문 강사, 부주임 신부
- 기도 모임: 자녀를 위한 기도와 부모 나눔_주임 신부(토요일 저녁 시간)
- 전체 나눔 및 발표: 전체적인 정리 모임_주임, 부주임 신부

3. 프로그램 내용

1) '교리-성사'

(아래의 질문에 대해 워크북에 적도록 한다.)

- 부모님과 나는 각각 언제, 어디서, 어느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았나요?
-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나요?
- 부모님이 세례 받았을 때의 느낌을 여쭙보고 적어봅시다. 또 자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느낌도 적어봅시다. (유아 세례의 경우, 첫 영성체 때의 느낌을 적어봅시다.)
- 부모님께서 성체를 모실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여쭙보고 적어봅시다. 또한 자신이 앞으로 성체를 모시고 바칠 기도를 만들어 적어봅시다.

2) 신학교 방문

(아래의 질문에 대해 워크북에 적도록 한다.)

- 신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신학교에 대해서 들은 설명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 신학생(학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나는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 나의 꿈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부모님과 대화해 보고 적어봅시다.
-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노력하고 있습니까?

3) '교리-성사2'

(아래의 질문에 대해 워크북에 적도록 한다.)

- 부모님께 첫 고해성사의 느낌을 여쭙보고 적어봅시다.
- 자신의 첫 고해성사의 느낌을 적어봅시다.
- 부모님은 고해성사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여쭙보고 적어봅시다.
- 부모님께서 다른 분의 병자성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쭙보고 적어봅시다.
-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적어봅시다.
-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셔서, 언제 어디서 결혼하셨나요?
- 우리 부모님의 일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게 기억하는 것을 적어봅시다.
- 좋게 기억하고 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계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 부모님이 좋게 기억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 이야기를 적어봅시다.

4) 부모 기도 모임 (순서)

- 성가
- 시작 기도
- 자녀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 자녀와 관련된 자기소개
- 영상 시청: “세상이 주는 상처를 짊어져야 하는 아이들”(15분)
- 느낌 대화(성가)
- 사제의 당부말. 기도와 대화
- 마침 기도(기도문, 성가)
- 자녀를 위한 기도문 적기

※ 자녀를 위한 기도 모음

1.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기도서』)

2.

나를 고쳐 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일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해주소서.
저희 아이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소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이 위협당하는 순간에
거짓으로 인해 친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공공의 선을 위해 진리를 증언해야 할 때
당신께 대한 굳은 신앙심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소서.
(미리암 H, 미국 생태 영성가이며 동화작가)

3.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을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께
저희 아이를 위해 간청합니다.

당신께 드리는 저의 기도가 저희 아이들에게 빛과 힘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길을 동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아직 철부지로만 보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하고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당신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첫 눈길을 당신께로 보내고, 낮에는 당신의 망토에 싸여 걷고
저녁에는 당신이 굽어보시는 아래에서 잠들게 하시며
바르고 선한 것에만 맛 들이게 하소서.
(매일 드리는 가족의 기도, 성바오로)

4.

주님,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이를 분별할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를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맥아더 장군)

5.

주님, 제가 낳은 아이들이 도무지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마음을 채워주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의 밝은 등대이기를, 저의 끝없는 노래이기를, 저의 크나큰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그들은 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 아닌 제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제 욕심의 빛깔대로 그들을 마구 덧칠하려는 짓을 그만두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그윽한 빛깔, 산뜻한 숨결이 숨어 있음을 알아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어린삿을 보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며,
또는 새가 아님을 알면서도 날지 못한다며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이들이 아직은 꽃피지 않아도 머지않아 나뭇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고,
아직은 날지 못해도
언젠가는 나뭇의 하늘에 밝게 닿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서로가 감당하지 못할 기대로써 함께 참담히 무너지고 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고유하게 마련하신 그들의 빛깔대로
평화로우 바라보는 기쁨을 저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소서.
(김영수, “기도가 그리운 날에는”)

6.

저로 하여금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아이들과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 하느님!
초라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의 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행하는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아이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작자 미상)

청년 피정 프로그램

- 수원교구 범계 본당

■ 출처: 서울대교구 본당청년사목부, 『본당 청년들을 위한 청년 열린 피정』, 2002년

다음은 서울대교구 청년사목부에서 2000-2001년에 실행한 피정 프로그램이다.
인터넷상이나 기존에 있던 피정 책자에서 청년들이 피정 시 사용하면 효과적인 것 같은 내용과 사목부 연구원이 연구하여 자체 피정 때 활용했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작 프로그램

1. 마음으로 들어주기

주제

표정과 몸짓, 행동으로 대화

목적

말보다는 행동으로 서로를 알리고 들어줄 수 있음을 안다.

들어가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언어) 이외의 다른 수단 즉, 우리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행동(비언어)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말보다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말: 약 20%, 표정/몸짓/행동: 약 80%).
지금부터 침묵 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서로 짝이 되어 마주 앉아주십시오.

- ① 시선 나누기: 두 눈과 코와 이마 사이를 지긋이 바라본다. 이때 눈과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② 마음 나누기: 30초간 다음의 마음이 담긴 표정을 지긋이 보낸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 ③ 느낌 나누기: 짝을 이룬 사람과 느낌을 나누고 전체의 느낌을 듣고 종합한다.

조별 작업

다음의 작업을 설명 없이 지시한다.

- ①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최초의 기억부터 초등학교까지)를 2분씩 번갈아가면서 한다.
- ② 듣는 사람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느끼면서 듣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느낌을 중심으로 실감 나게 이

이야기한다.

- ③ 듣고 말한 느낌을 노트에 적는다.
- ④ 서로 옆으로 나란히 앉아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중학교부터 지금까지)를 2분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
- ⑤ 듣는 사람은 판짚으면서 듣는 등 마는 등 한다.
- ⑥ 듣고 말한 느낌을 노트에 적는다.
- ⑦ 서로 마주 앉아 최근에 있었던 사건(짜증 났던 일, 열 받았던 일 등)을 4분씩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한다.
- ⑧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응, 그랬구나.” 등 맞장구치면서 듣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해서 실감 나게 이야기한다.
- ⑨ 듣고 말한 느낌을 노트에 적는다.
- ⑩ 각각 자신의 느낌을 조별로 발표한다.

묵상

함께 나눈 내용과 각자가 대화 중에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하는 혼자 시간을 2분 동안 갖는다.

표현의 중요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단어를 구사하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는 “안녕, 고마워.”와 같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안해.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와 같이 솔직하고 진지한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에 기쁨을 주고 후련함도 줍니다. 반면에 긴장이 되고 화가 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난 몰라,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안 돼. 너 때 문이야. 시끄러워.”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에 쓸쓸함과 외로움, 분노를 갖게 합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정을 살려내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며 그렇지 않게도 합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진행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보면 “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라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너하고 이야기만 하면 싸우게 돼!”라며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각각의 사람들은 성격과 관심,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의 속도, 억양, 어조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지위(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대화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며 상대의 입장에서 정확히 듣는 것이며 나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조별 작업

조별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은 조심하는 “언행 십계명”을 만들어 조 전체가 지키기로 한다.

2. 나를 돌아보기

목적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빠져 신앙을 저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통교의 시간을 갖는다.

준비물

성경, 명상 음악, 영상 자료

나를 돌아보기

① 미리 준비한 현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시작 부분에 보여준다.

(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엄마, 학생, 성당 신자 등)

② 조용한 가운데 성찰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다음의 멘트를 한다.

- 나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부인했던 일은 없나요? 무의식적으로 잊고 지내거나 의식적으로 그분을 인식하려 하지 않은 적은 없나요?
- 나의 부모님, 형제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남을 욕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한 적 있나요?
-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의 게으름과 신앙인으로서의 부족해진 신심을 침묵 중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외적인 변화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만을 신경 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며 외면했던 나의 모습, 이런 나를 바라만 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되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성찰 1

잠시 음악과 함께 묵상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 읽기(이사 55,6-11)

고통 받는 이웃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는 시간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한다.

성찰 2

-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까?
-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나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언제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모습을 느끼니까?
- 나 스스로 가톨릭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까?
-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눔

조별로 이동하여 묵상 질문 중에서 2가지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나눈다.

친교 프로그램

1. 보물찾기

목적

잊고 지냈던 나의 장점들을 놀이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나눔을 통해 다시 한 번 나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목상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모여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것을 잊고 하느님과 나와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당신 자신은 나약하고 가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거나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경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 자신과 또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크고 중요한 선물이든, 또는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선물이든, 당신이 그분에게서 받은 모든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받은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성경 읽기

마태 25,14-29

(잠시 묵상한다. 잔잔한 음악)

목상

이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 금전의 가치에 대한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과소평가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모자란 점,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은 미성숙한 삶의 태도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 등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같이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남의 과일이 크고 좋아 보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도 소중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못났다 하더라도 나에게만 주어진 은총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 때 그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찾기

- ① 여러 장의 종이를 나누어주고 그 안에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총을 한 장에 한 가지씩을 작성하도록 한다.
- ② 진행팀에서는 작성한 은총표를 모아 여러 장소에 숨겨 놓는다.
- ③ 참가자들에게 은총표를 찾도록 하고 각자가 찾아낸 은총표를 가지고 모이도록 한다.
- ④ 남의 은총표를 찾아도 무관하다. 내가 쓴 것을 다시 잡기도 하지만, 남이 쓴 것을 들여다보는 순간에는 또 다른 감격이 몰려온다.

⑤ 한자리에 모이면 잠시 침묵을 한다.

나눔의 시간

지금부터 각자 받은 은총표를 가지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보물을 찾았고 찾은 보물 중에 인상에 가장 남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이들과 특히 더 나누고 싶은 보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은총을 함께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지!” 하며 잊고 있던 은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

정리

(나눔이 끝난 후에 모든 조가 한데 모인다.)

우리는 현실의 내 모습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나의 노력에 의해 몇 배의 은총으로 변화합니다. 내 모습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은총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실히 활용하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하느님께서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찰 프로그램

1. 양심 성찰과 묵상

목적

나그네인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와 벗이 될 수 있음을 알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장소

조용한 곳

시작 기도

하느님은 오늘 당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늘 당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할 양심 성찰 피정의 다섯 단계는 당신으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하여,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보다 심오한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깊은 마음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끌어당기고 있는가 하는 것과 죄 많은 나의 심성이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를 살며시 유혹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잘 이해하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당신은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생활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감각과 자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여러 해 동안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날로 늘어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당신을 그분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하시고 보다 큰 은총과 당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찾는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단계 : 조명을 구하는 기도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가를 회상하기 위해 당신의 기억에 의존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내와 통찰력을 바랄 것입니다. 용기와 정직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응답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거짓 없이 바라보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성령의 축복입니다.

묵상

멘트 후 각자의 묵상 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충분하게 주며 조별 나눔을 한다.

나눔

당신 자신을 거짓 없이 바라보았을 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2단계 : 반성하는 감사의 기도

이제 당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십시오. 당신 자신은 나약하고 가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거나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경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 자신과 또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크고 중요한 선물이든, 또는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선물이든 당신이 그분에게서 받은 모든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평소에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받은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나눔

내가 받은 달란트 중에서 자신의 생활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눔을 한다.

3단계 :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관찰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물음을 당신 자신에게 던져 보십시오.

- 오늘 내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 하느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는가?
-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가?
-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가?
- 그분은 대체 나에게 어떠한 영적 선물을 주려고 하셨는가?(평화, 단순함, 그분에 대한 더욱 깊은 신뢰, 기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 그분께서 내가 깨달도록 해주시는 어떤 죄가 있는가? 또는 내가 떨쳐버리도록 바라시는 죄가 있는가?
- 나는 오늘 그분께 어떻게 응답했는가?

당신이 보낸 날을 깊은 신앙심으로 반성해 보십시오.

“나”(당신 혼자 경험한 것)와 “우리”(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경험한 것)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체험해 보십시오.

시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2,2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당신의 삶이 단지 “나”만이 아닌 “우리”(당신과 그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

하루를 반성해 보았으면 이제 당신이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을 모두 생각해봅시오. 예를 들면 “우리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등” 그리고 당신이 “우리”라고 말할 수 없고, “나”라고 말해야만 하는 경우를 관찰해 봅시오. 예를 들면 “나는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차가 늦게 간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는 경솔하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나를 일깨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것이 내가 자유와 성취감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매일 성찰을 시작한다면 이와 같은 부분은 아마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묵상

4단계 : 회개로 부름

생활해 나감에 따라 여러분은 사건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됨에 따라 우리 자신의 죄의식이 점점 더해지게 됩니다. 개인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백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로부터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함을 아십니다.”로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상

5단계 : 미래에 대한 희망찬 결의

이제 커다란 희망 하나가 당신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래에 당신 자신의 강인함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분을 따르려는 당신의 바람에 은총을 내리시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의식과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하느님의 보살핌에 의탁하고 그분께서 당신을 한결같이 보살펴 주실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아두기

단계별 설명을 읽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진행자가 숙지하여 각 단계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묵상이나 나눔의 시간은 충분히 주도록 한다.



청년 사도 훈련 프로그램

- 수원교구 동천 성 바오로 본당

■ 출처: 조한영 신부(수원교구), 『사목정보』 2009년 8월 호

청년 사도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우리 본당에서는 ‘청년 사도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총체적이고 중장기적 사목적 돌봄과 배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 본당은 영향력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청년 공동체의 활성화는 곧 주일학교와 장년층 양쪽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어서 청년들은 학생들의 친근한 신앙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년층으로 이동해 본당의 주축 봉사자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청년 사도 훈련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

‘청년 사도 훈련’을 통해 강도 있는 교육, 체계적인 교육, 실생활 밀착형 교육, 재생산이 가능한 선 순환적 교육을 실행하고자 기획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군중과는 별도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으며 구원의 신비를 체계적으로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교육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당신의 사도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가르치셨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에 강한 확신을 주는 교육, 교육의 단계와 과정을 밟아가는 체계적인 교육, 실제로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되는 교육, 배운 것을 소화하고 체득하여 또 다시 다른 이들을 제자 삼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도가 되는 것이 ‘청년 사도 훈련’의 기획 목적이다. 이 목적에 들어맞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교육, 산발적이고 전시적인 교육, 이론적 지식 위주의 추상적인 교육, 교육의 수용자 내지 소비자로서만 머물게 하는 교육을 지양하고자 했다.

‘청년 사도 훈련’의 기본 주제와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청년 사도 훈련’의 기본 주제와 내용

제1과	창조주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과 창조세계 안에서의 인간, 나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신앙과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다.
제2과	세상과 인간	
제3과	나 자신	
제4과	타락	이 세상과 인간 사회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톨릭교리에 맞추어 함께 설명한다.
제5과	나의 죄악	

제6과	구원의 계획(1)	하느님의 구원계획과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나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도록 이끈다.
제7과	구원의 계획(2)	
제8과	예수 그리스도	
제9과	나의 구원(1)	
제10과	나의 구원(2)	
제11과	성경의 형성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한 기초를 교회의 역사와 전승 안에서 공부한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으며 성조의 신앙, 죄악의 사회로부터의 탈출과 해방, 하느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연대와 투쟁에 대해 공부한다.
제12과	믿음의 조상(1)	
제13과	믿음의 조상(2)	
제14과	탈출(1)	
제15과	탈출(2)	
제16과	연대와 투쟁(1)	
제17과	연대와 투쟁(2)	
제18과	성공과 몰락(1)	개인과 공동체의 성공적 인생과 역사와 몰락을 성경의 인물과 역사를 통해 우리 현실을 성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도전한다.
제19과	성공과 몰락(2)	
제20과	성공과 몰락(3)	
제21과	예언자(1)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의와 사랑의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예언자들의 말씀과 삶으로 배운다.
제22과	예언자(2)	
제23과	예언자(3)	
제24과	예언자(4)	

진행은 주일 교중 미사 후 함께 본당에서 식사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함께했다가 미사 시간 변경으로 저녁 미사가 끝나고 함께 야식을 먹고 오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공부한다. 훈련 중간에 청년들 스스로 준비한 자체 피정과 휴가를 실시했다. 실제 진행 순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년 사도 훈련' 진행 순서

1. 시작 기도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시편과 성가와 자유 기도로 시작 기도를 바친다.
2. 사권	하느님의 자녀로서 형제의 친교를 나눕시다.
	일상적인 평범함 가운데 그 주제에 맞는 에피소드를 발표한다.
3. 배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고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직접 성경을 읽고 답을 찾으며 공부한다.
4. 나눔	복음을 나눕시다.
	주제에 따르는 하느님 말씀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의식할 수 있도록 체험과 경험을 나눈다.
5. 열림	세상과 대화합니다.
	신앙적 개념과 의식으로 세상을 성찰하며 우리 삶과 사회 현실에 대해 진단한다.
6. 섬김	하느님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합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신앙생활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한다. 그리고 다음 과의 주제에 맞는 성경 목상을 과제로 내준다.
7. 마침 기도	이제와 영원히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기도와 마찬가지로 시편과 성가와 자유 기도로 맺는다.

노인 대학

■ 출처: 『사목』 2006년 1월 호

노인 사목은 다른 사목 분야와는 달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그 열매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

노인 대학의 활성화를 발판으로 본당 공동체에서 노인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신앙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 노인 대학의 목적

노인 대학에서는 노인 대학 학생들이 변천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고양하고, 자신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나이와 더불어 원숙해지는 신앙관을 확립하고, 굳은 신앙을 실현하는 가운데 후세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2. 노인 대학 설립 절차

1) 본당 사목 협의회의 교육 분과 또는 사회 복지 분과에서 주관하여 노인 대학 설립을 준비하도록 한다. 물론 노인 사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노인 사목 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분과 내에 노인대학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방법과 규모, 봉사자 모집과 운영 등을 계획한다.

2) 설립의 준비를 위해서 교구 노인대학연합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노인대학연합회를 통해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으며 안내를 받는다. 노인 대학 정관, 입학 원서 양식, 노인 대학 학생증 등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에 노인대학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2005년 12월 6일 의정부교구에 노인대학연합회가 신설되었다. 춘천교구에는 춘천 지역 11개 본당이 연합으로 설립한 '니꼬데모 모임'이 있다. 노인대학연합회가 없는 교구에서도 이들 연합회에 연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락처 (2018.10. 업데이트)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02)727-2121 /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 02)727-2385~6

수원교구 노인대학연합회: 010-8165-4201

인천교구 노인대학연합회: 032) 761-0618

의정부교구 노인대학연합회: 031)850-1446~7

대전교구 노인사목부: 042)252-5865

부산교구 노인대학연합회: 051)629-8722

3) 봉사자 모집과 교육: 노인 대학에서 봉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봉사자 모집과 양성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한다.

노인 대학에서 수업할 내용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특기나 적성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여 선발한다. 성경 공부, 서예,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민요, 시물놀이,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기가 없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추었다면 충분하다. 노인 대학 봉사는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봉사하는 이들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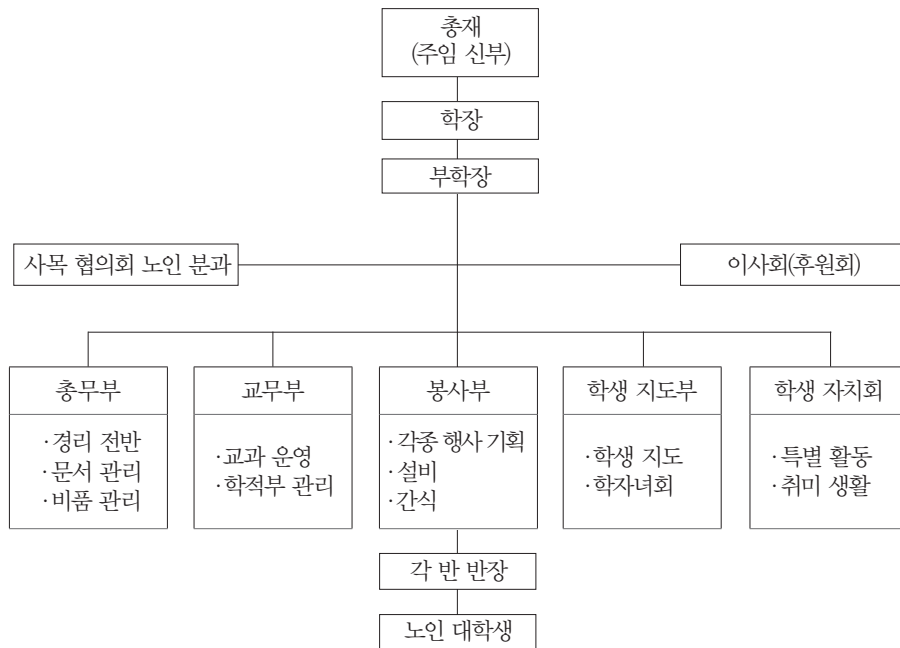
봉사자가 구성되면, 먼저 노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쌓는 과정을 거친다. 노인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함께 연구하고, 노인대학연합회에서 마련한 월례 교육 등에 참석하며, 타 본당을 견학하는 등 노인 대학 설립 전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

4) 학생 모집과 선발: 주보, 포스터, 현수막, 본당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노인 대학 설립과 학생 모집 요강을 공지한다. 본당 교적에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본당 신부의 관심을 보여 주는 초대의 글을 일일이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 대학과 비슷한 형식으로 입학 원서를 교부하여 학생을 모집한 뒤, 합격을 통지한다. 형식적일 수 있지만, 합격의 기쁨과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입학 원서에는 학생들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를 비롯하여, 필요하다면 경제 사정, 교육 정도 등을 함께 기입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입학 때 본인 사진이 들어간 학생증을 교부한다.

5) 노인 대학 운영 기구 구성과 반 편성: 노인 대학은 본당 부설 기관으로서 주임 신부를 총재로 하고, 학장, 부학장을 임명하며, 부서별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노인 대학생은 교육 수준, 연령, 생활 환경, 취미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1개 반을 10명 내외로 편성하고, 각 반에 담임 봉사자를 배정한다. 또한, 각 반을 대표하는 반장을 선출하여 어르신들의 뜻이 노인 대학 교육 과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기구 조직표를 참고할 수 있겠다.

〈노인 대학 조직표〉



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 자료 참조

6) 재정 마련: 노인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확보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인 대학 재정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당 정기 예산을 통한 지원: 노인 사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당 정기 예산에서 적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당 공동체 구성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 정부 지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구청 사회 복지과에 등록하면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노인 대학의 경우, 구 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된 사회 복지 예산에서 월 50만 원(방학 기간인 1, 8월 제외)과, 용산구청이 설립한 사회 복지 법인 용산상회원에서 특별 보조금 월 40만 원(보조금 30만 원, 중식 쌀 구입비 10만 원)을 합하여 총 9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 학생 회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학금, 월 회비 등을 적절히 책정한다.
- 후원회 조직: 신자들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후원회를 조직한다. 노인 대학 어르신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조직할 수도 있으며, 소액의 구좌를 여러 사람이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 자체 수익 사업: 어르신들 스스로 노인 대학 운영을 책임진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본당에서 간단한 물품 판매를 하거나 소규모 바자회 등을 개최한다.

7) 교육 과정 계획: 노인대학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수업 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본당 실정에 맞는 1년 교육 과정을 계획한다. 신앙생활, 노년기에 대한 이해, 건강 생활, 취미와 오락, 봉사 활동, 행사 등의 내용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8) 개교식: 봉사자들과 학생이 함께하고, 내외빈을 초청하여 노인 대학의 개교식과 입학식을 거행한다. 1부에서

는 개교 미사를 봉헌하고, 2부 입학식에서는 노인 대학 설립 취지와 경과 보고를 한 뒤, 입학생을 일일이 호명한다. 현판식과 즐거운 다과의 시간을 갖는다.

3. 노인 대학 운영

1) 교육 내용

- ① 신앙생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일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교회에서는 노인의 영적인 부분을 함께 돌봄으로써 더욱 근본적인 접근을 꾀할 수 있다. 신앙 안에서 노년기를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며, 동료들과 함께 이를 나누도록 한다. 성경 공부와 묵상 나눔, 성체 조배, 기도 모임, 교리·전례 등에 관한 강의, 성지순례 등을 갖는다.
- ② 취미와 오락: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노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래, 율동, 미술, 운동, 등산, 바둑, 장기, 원예,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취미와 적성을 개발하며, 여가를 누리게 한다. 그러나 단순한 취미 오락에만 편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③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년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년기 건강을 위한 풍부한 지식 갖기, 세대 차이와 사회 변화 이해하기, 은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 배우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 알기, 정년퇴직과 수입 감소에 적응하기,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 찾기, 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 ④ 행사: 소풍, 수학여행,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견학, 음악회, 영화, 공연 관람, 성지순례, 캠프 등 외부 행사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가족을 초대하여 학예회 등을 갖는다. 캠프 등을 계획할 때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또한 다달이 생일 또는 축일을 맞은 이들을 위한 생신잔치나 축일 잔치를 연다.
- ⑤ 봉사 활동: 노인 대학 안의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교 활동, 환자 방문,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어린이 돌보기, 주보 접기, 성당 미화, 거리 미화 등 어르신들 스스로 타인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대교구 중계본동 본당 양업노인대학에서는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를 통해 노인 대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 ⑥ 정규 수업 외 특별 교육: 한글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글반, 또한 본당에 컴퓨터 시설을 갖추 수 있는 경우 컴퓨터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 진행

- 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규 수업을 실시한다.
- ② 교육 내용에 따라 전체 수업, 반별 수업, 특활 수업, 레크리에이션, 외부 강사 초청 강의 등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한다.
- ③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이 전례 봉사를 하는 월례 미사를 봉헌한다.
- ④ 되도록 점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본당 다른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구역(반), 레지오 마리아, 성모회를 비롯한 각 단체가 봉사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본당 식구들의 정성이 담긴 한 끼의 따뜻한 식사는 어르신들에게 음식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정도 나눌 수 있다.
- ⑤ 연말에는 학예회, 수료식, 졸업식 등을 개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만 노인 대학에서 졸업식을 했다고 해서 학업의 완전한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4. 고려할 점

- 1) 노인 대학을 운영할 때 노인에 대한 사목자와 봉사자들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노인 대학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며, 어르신들을 본당 공동체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한다. 어르신들이 자존감과 만족감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2) 본당 안에서 노인 대학의 역할을 고려한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본당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청소년 교육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르신들은 어린이들에게 한자, 예절, 장기, 바둑, 무용 등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은 노인 대학의 생신 잔치나 행사 때 찾아와 공연을 벌이도록 한다.
- 3) 지역 사회에 열려 있는 노인 대학이 되도록 한다. 노인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사회 안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노인 대학 입학에 비신자를 수용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내 비신자를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벌이며, 본당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또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비신자 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4)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연령과 교육 수준, 생활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 내용 개발이 시급하다. 노인 대학이 처음 시작되고 20~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인 대학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노인 대학마저도 고령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연령대별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목 아이디어 모음

— 연령별 —

■ 새 생명 잉태 축하 미사

생명 수호 주일을 맞아 예비 부모 50여 쌍을 초대해 새 생명 잉태 축하 미사를 봉헌하였다. 사제가 예비 엄마들을 한 명씩 축복한 뒤 축하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육아용품, 작은 십자가 등을 선물하였다.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발족하고, 타 본당 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 서울대교구 서초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1.12.18.

■ 임신부와 태아 축복 미사

생명분과에서 매달 둘째 주일에 축복을 원하는 임신부와 태아를 위해 교중 미사 중 축복 예식을 진행한다. 입당 시 초를 든 임신부와 사제, 전례단이 입당한 후 임신부는 맨 앞자리에 앉는다. 교중 미사 강론 후에 임신부는 앞으로 나아가 사제에게 안수와 기도, 베넷 저고리 선물을 받는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는 유아방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 임신부는 제대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바친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임신부 태아 축복 미사에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참석하여 위 순서대로 축복 미사를 진행한다.

— 서울대교구 송천동 본당 제공(2017.12.)

■ 유아 신앙 교실

교중 미사 시간대에 '유아 신앙 교실'을 열었다. 부모와 함께 성당에 온 아이들은 미사 시작과 함께 제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교육관에 마련된 유아 교리실로 향한다. 여기서 담당 교사와 함께 눈높이에 맞는 작업을 통해 교리도 익히고, 또래 친구들과 교감을 나눈다. 같은 시간 아이와 떨어져 부모들은 미사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다. 교리실에 있던 아이들은 보편 지향 기도 때 다시 들어와 미사가 끝나면 주례 사제는 아이들을 앞세우고 퇴장한다.

— 서울대교구 면목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6.7.10.

■ 엄마랑 아기 학교 및 연령별 놀이방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성당을 찾지 않고 냉담으로 이어지는 30-40대를 위해 유아를 위한 놀이방과, 유아와 부모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교중미사 때 3-5세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중·고·대학생 봉사자들이 어린이들과 성당 내에서 놀이를 하며, 성호경이나 간단한 기도, 유아 노래를 배우는 것도 병행된다. 기존 유아실은 1-2세 유아와 부모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맞춤형이다. 또한, 1-4세 유아와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엄마랑 아기 학교'는 상·하반기 10주 과정으로 아기를 위한 활동과 엄마의 신앙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아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신체 놀이 △유아음악(오르프) △나비피리 만들기 △아키발레 △가톨릭 유아 노래 배우기 △소풍 △동물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설 문화센터보다 저렴하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엄마들의 신앙 공동체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엄마랑 아기학교'에 참가한 엄마들이 기도 모임, 영적 독서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활동하며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교류하면서 육아와 신앙의 공감대 속에서 친교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 수원교구 영통 본당, 가톨릭신문 2014.3.30.

■ 설 세배와 놀이

보통 친지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설날은 피하고 1월 1일 새해 첫날, 오전에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도록 초대한 후, 설 세배와 놀이를 한다.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은 신부님, 수녀님께 세배를 올린 후 1,000원부터 50,000원까지 세뱃돈의 액수와 다양한 미션이 적힌 다트판을 맞추는 뽑기 놀이를 한다. 이를 통해 명절에 가족들과 미사를 드리는 문화를 만드는 데서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명절에 미사 드리는 즐거움을 가르칠 수 있으며, 웃어른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예절 교육도 할 수 있다.

- 조재연 신부(서울대교구), 『활기찬 젊은 성당 만들기』, 가톨릭출판사

■ 성당에서의 파자마 데이

어린이 전례단, 복사단, 어린이 말씀터(어린이 복음 나눔 모임) 등 특별히 본당 공동체 안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방학을 활용하여 그들을 더욱 결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 있는 주일학교의 캠프에 에너지를 쏟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학 때 그룹별로 성당 강당에 텐트를 쳐 놓고 파자마 데이를 했다. 준비는 텐트와 간식 정도이며, 특별히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교사 몇 사람이 안전과 방법을 위해 자리만 지키고 소그룹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알려 주면 어린이들은 파자마(잠옷)를 입고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게임들, 베개 싸움, 진실 게임 등을 자유롭게 하면서 우정과 추억을 쌓아 간다.

- 조재연 신부(서울대교구), 『활기찬 젊은 성당 만들기』, 가톨릭출판사

■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성당 내에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청소년 사목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전용 공간은 밴드연습실과 춤 연습실, 공부방으로 나뉜다. 밴드연습실은 밴드 장비를 갖추고 방음설비를 하여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춤 연습실은 신을 벗고 들어가는 마룻바닥에 한쪽 벽면에는 전신거울을 설치한다. 독서실은 칸막이가 달린 책상을 구비하여 시험 기간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성당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주일학교 교사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는 없게 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전용 공간을 마련한 뒤 주일미사 중고등부 학생의 출석률이 증가한 것은 물론, 성당 공간을 활용한 성가부, 율동부, 우쿨렐레부, 사물놀이부와 봉사부, 농구부, 축구부 등 9개 동아리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 수원교구 상촌 본당, 가톨릭신문 2014.7.27.

■ 공공기관과 주일학교 프로그램 협력 운영

구립서초유스센터와 방배4동 성당은 주일학교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일학교 청소년 9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 생명 사랑, 리더십과 자존감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부모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연계해 진행한다. 2018년에는 △열쇠고리 만들기 △나만의 영웅 만들기 △가톨릭 상식 퀴즈 △건강 도시락 만들기 △대림초 만들기 등을 8차례 주일학교에서 실행한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대교구 방배4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8.9.2.

■ 여름 수영장 개장

성당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수영장 옆에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었다. 햇볕을 가리는 차양도 설치하

였다. 수영복을 갖춘 어린이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레지오 마리에 팀과 청소년위원회에서 봉사하였다.

- 수원교구 광주 본당, 가톨릭신문 2016.7.24.

■ 골목길 물놀이장 개장

성당 마당에 '골목길 물놀이장'을 개장하였다. 독산4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성당 주차장을 물놀이장으로 꾸몄으며, 에어 수영장과 에어 미끄럼틀 외에도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빨간 고무 대야도 등장했다. 지역 경찰, 소방관 등 마을 어른들도 물총 놀이,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물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 서울대교구 독산동 본당, 한겨레 2016.7.28.

■ 3040 디딤돌

30~40대 신앙 활성화를 위해 '3040디딤돌'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발족하였다. 본당에서는 3개월 전부터 3040준비위원회를 꾸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30~40대 신자들 가운데 단체활동을 하는 신자는 26%에 불과했고, 3040모임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나왔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초청 편지를 두 차례 보내고 첫 모임을 가졌다. 이들을 위한 9시 주일미사를 신설하였고, 첫째 셋째 주에 회합을 갖는다. 성서 모임, 기타 교실, 인근 병원 미사 전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당에서 소외되기 쉬운 30~40대 신자들 신앙생활에 훌륭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 서울대교구 서원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0.10.17.; 2011.4.17.

■ 'R3040', 30-40대 신자 불금 모임

부활(Resurrection)의 앞글자를 딴 'R3040'프로그램은 30-40대 신앙생활 부활을 목표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당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와 영성 △대합창 △떼제 기도 △함께하는 여정(하느님 말씀 읽기) 등으로 매주 돌아가며 한 달 과정으로 꾸며지는데 관심 있는 3040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3040볼링대회, 성지순례 등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 ME 주말', '아버지 여정' 같은 교육과도 연계하고 있다.

- 서울대교구 성수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8.7.22.

■ 동아리형 주일학교

주일학교 운영 형태를 기존의 교리반에서 풍물반, 바둑반, 사진반, 영어성경반, 밴드반, 성가반, 십자수반 등 동아리 모임으로 바꾸는 변신을 시도했다. 교리 수업은 월 1회 넷째 주 학년별 교리로 진행하고, 그 외 둘째, 넷째 주는 동아리 활동으로 대체시켰다. 첫 주는 가정 주일로 설정, 주일학교 대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주일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영화 감상이나 등산 등 학년별 혹은 동아리별 과외활동을 한다.

동아리 활동 주일학교 시행의 주된 배경은 학생들에게 성당을 재미있고 즐겨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다. 대다수 교리 수업을 딱딱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취미활동과 이를 통한 친구 관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당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인천교구 서운동 본당, 가톨릭신문 2001.4.15.

■ 첫 영성체 교리반

솔내 본당 첫 영성체반의 한 해 일정은 가정 성화 주간부터 시작된다. 첫영성체 대상 가정에 초대장을 보내고 한 달간 아이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인 첫영성체 어린이들은 2월부터 인보성체수도회 가정교리연구소에서 편찬한 첫영성체 가정 교리서를 통해 교리를 받기 시작한다. 먼저 부모가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또는 오후 8시에 성당에 모여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 내용에 갖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나눔의 시간을 보내면, 어린이 미사 전에 교사들이 확인한다.

아이든 부모든 2번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첫 영성체반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바로 '가족 피정'이다. 4년 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첫영성체 어린이 가족 피정은 예수수도회 수녀들 지도로 진행된다. 이 시간에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모여 가정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고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 전주교구 솔내 본당, 가톨릭신문 2014.4.6.

■ 수험생들을 위한 사목

수학능력 시험 백일 전에 사전 모임을 통해서 기도 방법과 기도 내용을 정한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시작성가-시작기도-성경봉독-묵상기도-묵주기도-성인호칭기도-수험생을 위한기도-마침기도-마침성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수험생의 명찰을 건 학부모에게 사제가 일일이 안수를 한다. 이외에도 일일 수험생 학부모 피정, 수능 전날 수험생 미사, 수능 당일 학부모 피정을 실시한다.

- 서울대교구 송천동 본당 제공(2017.12.)

■ 솔봉이 주일학교 미사 - 발달장애아 특화 미사

솔봉이 주일학교 미사는 일반 신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발달장애아와 가족들만을 위한 주일학교와 특화 미사이다. 솔봉이 주일학교는 주일 미사와 특별 활동, 간식 차례로 진행된다. 특별 활동은 한 달에 두 번씩 교리교육을, 나머지 두 번은 미술 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한다. 봉사자는 주일학교 관리, 출석, 재정, 간식, 교육팀으로 나뉘 3시간 가까이 붙어 활동하며 그 사이에 부모들은 미사를 봉헌하거나 '작은 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서울대교구 대방동 본당, 가톨릭평화신문 2017.4.30.

■ 군대 전역 청년

군대에서 전역한 청년 신자들을 직접 찾아나섰다. "군대에서 전역한 교우들 환영합니다."라는 주보 공지에 이름과 세례명, 구역과 반을 표기하고, 구역장, 반장에게 전역 군인의 가정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에서 세례받은 전역 군인은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어 전역 후 관할 본당의 관심과 안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 서울대교구 신대방동 본당, 가톨릭신문 2014.8.3.

■ 젊은 아버지들의 모임-자부회

본당 가정 사목 활성화 방안으로 40대를 주축으로 하는 젊은 아버지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둔 40대 아버지들에게 공통의 관심사인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혼자가 아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활동과 연계한 차량 봉사 및 간식 봉사 등의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동년배들끼

리의 공동 참여 활동을 통한 만남과 생활 나눔을 통해 동질감과 의지, 협동심 등 긍정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으며 성당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들의 모습이 자모들이나 다른 신자들에게도 매우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 12명으로 시작해서 1년여 만에 현재 26명이 되었다. 이들 중에서 사목회와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 신자들을 배출하였다. 또 자연스러운 전교로 비신자 외딴 교우의 세례와 냉담 교우의 활동 참여가 증가하였다. 본당이 전반적으로 아빠들의 참여로 젊어졌다.

- 의정부교구 정발산 본당 제공(2017.12.)

■ 노인 대학

해마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 마련한다. 본당의 65세 이상 어르신 약 40~50명이고, 4~5개의 반에 7~9명으로 편성되고, 4~5명의 교리교사, 중식 담당 봉사자 7~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3~6월)와 2학기(9~11월)로 구성된다. 금요일 오전 미사 후부터 11시까지 시작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12시까지 한 시간 동안 반별 교리를 진행하고, 1시까지 점심식사, 2시까지 취미반 활동을 진행한다. 특별 활동으로는 취미반을 운영하고, 성탄 예술제 때 이를 선보이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생신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해 드리고, 학기당 한 번씩 야외 소풍을 한다.

- 전주교구 동산동 본당 제공(2017.12.)

기도문 모음

+ 매일 봉헌 기도

(※ 교황님 기도 지향으로 기도하기 전 바치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온 세상에서 봉헌되는 미사성제의 거룩한 희생제물과 하나 되어,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기도와 일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특별히 영혼들의 구원과 죄의 보속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원하시는
당신 성심의 거룩한 뜻을 위해 저의 오늘 하루를 봉헌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봉헌이 참될 수 있도록 제게 사랑과 힘을 주소서.

사랑이신 나의 주님,
언제나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이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하시오니,
오늘 저희 또한 당신의 그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이들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에 저희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저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이달의 교황님 기도지향을 위해 이 기도를 바치나이다.

아멘.

+ 예비신자들을 위한 기도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성자를 보내 구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
가정이나 일터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함께 해 주소서.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맞이하여 성가정을 이루고
많은 예비신자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이끌어주소서.

저희가 남을 비추기 전에 자신이 먼저 빛이 되고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에서
길 잃은 양들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전례 봉사자가 드리는 기도

(※ 전례 봉사자는 최소한 시작 20분 전에 도착하여 전례단의 일치를 드러내는 이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해설자석, 독서자석, 봉헌자석에 비치)

사랑의 주님, 오늘 저를 당신 제단 가까이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드리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사성제를 통하여
모든 이가 주님과의 깊은 일치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과 기쁨으로
당신 사랑을 가득히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소서.

또한 저로 하여금 언제나 합당한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나날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당신 사랑을 위해
오랫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교리교사의 기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구원되기를 원하시기에,
당신의 가르침을 전할 교리교사들을 뽑으시고
저를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나이다.
저에게 힘을 주시어, 당신 생명으로 사는 삶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학생들 앞에 서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말씀과 그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충실히 전하게 하소서.
저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노애락을 겪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인들에게,
주님이신 당신과 친밀히 만나는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가르칠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며,
가장 잘 이해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마침내 당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의 미약한 봉사를 크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 주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당신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보람을
저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 복사의 기도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를 미사성제 때
복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복사로 봉사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미사를 주례하시는 사제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미사에 참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복사로 봉사하는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을 위한 기도

오, 마리아님, 새 세상의 여명, 생명의 어머니,
어머니께 생명의 근원을 맡기나이다.
오, 어머니, 태어날 수많은 아기들,
생명이 곤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
잔인한 폭력에 희생된 남자와 여자들,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 때문에 죽어간
노인과 병자들을 굶어보소서.
어머니의 아드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직과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은총을 주시고, 일생 생명의 복음을 기쁘게 기념하고
용기 있게 증거 하게 하시어,
선한 뜻을 지닌 모든 이들과 함께
진리와 사랑의 문명을 이루게 하시고,
창조주이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 성체조배 전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성체 안에 계심을 진실로 믿나이다.
주님께서 밤과 낮 온종일 여기 머무시며,
저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주님께 오는 모든 이를 즐겨 맞으시나이다.
하오니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특별히 성체를 통해 주님 자신을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은혜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제(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림은,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함이며,
홀로 성체 안에 계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심을 상하게 하는 이들의 무례함을
값아드리기 위함이며,
살아 계신 성체 안에 현존하시나,
외면하는 이들에게 버려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지난 날 주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해 드린 것을 뉘우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나이다.
불쌍한 죄인이오나 저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저희 뜻과 저희 사랑과 저희 바람과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겠나이다.
저희는 다만 주님의 사랑만을 청하오며,
죽기까지 충실한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청하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만을 간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옥 영혼(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가까이 있었던 영혼들도 기억하시며,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천상 사랑에 저희 사랑을 일치시켜,
아버지 하느님께 저희 사랑이 봉헌되도록 간구해 주소서.

아멘.

- 『성체조배 31일』, 가톨릭출판사

+ 아르스의 본당 신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사랑의 기도

저의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하느님만 사랑하기를 바라나이다.

한없이 좋으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한 순간이라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느니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다 죽기를 더 바라나이다.

저의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오직 천국만을 그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따스한 위로가 없기에
저는 지옥이 두렵나이다.

저의 하느님,
순간순간마다 제 혀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도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며 고통 받고, 고통 받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며,
어느 날 하느님을 사랑하다 죽는 은총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며 죽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제 인생 막바지에 다가갈수록
하느님을 향한 제 사랑을 더하고 채워 주소서.

-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 드리는 본당 사제의 기도

성모님,
성모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사제다운 백성인(1베드 2,9)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당신 아드님의 봉사자인 사제들의 어머니이시니,
겸손되이 바치는 저 자신을 받아 주시어,
제가 사목 활동을 통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자비의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의 ‘사제다운 순종에 함께 하셨고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아드님을 훌륭한 그릇으로 키워 주셨으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천주 성모”의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
저의 사제 생활을 지켜 주소서.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사도들의 모후이시고 사제들의 도우미신 성모님.”
사제 생활이 힘들 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사제 직무에 힘쓰도록 저를 도와주시며
저를 예수님께 맡겨 주시어,
제가 어머니와 일치하여
사랑과 충성으로 사제 직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성모님,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양 떼에
충실하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묵묵히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이다.

제가 언제나 인내와 친절과
균셈과 사랑으로 양 떼를 이끌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병자들과 죄인들을 돌보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드님의 구원 활동에 함께 하시어
“구원 활동과 풀릴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어” 계신
성모 마리아께 저 자신을 봉헌하며 맡겨 드리나이다.

“의탁의 성모님,”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할 때나 활동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쳤을 때나 쉴 때나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놀라운 현존”을 언제나 깨닫게 해 주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 아드님과 친교를 이루시듯,
저도 사제 직무의 원천이며 중심인 미사 거행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살게 해 주소서.
“저희가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때 저희 곁에 계셔 주시어,
당신 아드님을 봉헌하신 구원의 신비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이 희생 제사에서 흘러 나와
교회와 모든 신자에게 흘러드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

어머니,
성덕에 대한 저의 갈망과 이 한 몸을
어머니의 보호와 영감에 맡겨 드리오니,
본당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제가 머리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은총을 베푸시는 중개자.”
“사제들의 어머니시여,”
한 분이신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신 어머니께서
“언제나 사제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설문지 모음



전 신자 대상 설문지

‘행복한 본당 만들기를 위한 신자생활 실태 파악용 설문지’

다음 질문들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답의 번호를 () 안에 적어 주십시오. 다른 안내가 없으면 한 질문에 한 가지만 적으시고, 관련 없거나 모르시는 질문은 답하지 마십시오.

● 일상생활

1. 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② 여가/휴식 시간이 많은 것
- ③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④ 좋은 직업
- ⑤ 돈이 많은 것 ⑥ 신앙생활 하는 것
- ⑦ 건강 ⑧ 남을 돕는 것
- ⑨ 남에게 존경 받는 것 ⑩ 마음의 평화
- ⑪ 신념을 갖고 생활하는 것

2. 다음 여러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시면 10점, 매우 불만족하시면 0점, 보통이면 5점이라고 할 때 다음에 대해 귀하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측면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① 살림살이 형편	0	1	2	3	4	5	6	7	8	9	10
②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③ 결혼생활/이성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④ 요즘 건강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⑤ 직업/하는 일	0	1	2	3	4	5	6	7	8	9	10
⑥ 전반적인 자신의 삶	0	1	2	3	4	5	6	7	8	9	10

3. 요즘 귀하가 처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진로/학업 | ② 경제적 어려움 | ③ 부부관계 |
| ④ 자녀관계 | ⑤ 부모와의 관계 | ⑥ 건강 |
| ⑦ 직장문제/상사와의 갈등 | ⑧ 이성문제 | ⑨ 신앙문제 |
| ⑩ 기타 (적어주세요 :) | | |

● 신앙생활

4. 미사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 | | | |
|-------------|------------|---------|
| ① 매일 | ② 주 2회 이상 | ③ 주일미사만 |
| ④ 한 달에 1-2번 | ⑤ 특별한 경우에만 | ⑥ 쉬고 있음 |
| ⑦ 기타 | | |

5. 귀하는 우리 본당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 난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신자들의 영성생활과 신앙상담 지원 노력	⑤	④	③	②	①
②	신자들의 신앙생활 방향 제시	⑤	④	③	②	①
③	선교 활동	⑤	④	③	②	①
④	사회봉사 및 복지 활동	⑤	④	③	②	①
⑤	신부님/수녀님의 가정 방문	⑤	④	③	②	①
⑥	주임 신부님 강론	⑤	④	③	②	①
⑦	신자들 간의 친교	⑤	④	③	②	①
⑧	성경 공부/신자 재교육	⑤	④	③	②	①
⑨	예산 편성과 예산 지출	⑤	④	③	②	①
⑩	주일미사/기타 전례	⑤	④	③	②	①
⑪	성당/교육 공간/교회시설	⑤	④	③	②	①
⑫	신자들의 신앙열의	⑤	④	③	②	①
⑬	본당 신부님의 신자들과의 관계	⑤	④	③	②	①
⑭	청소년(초등, 중고등부) 주일학교	⑤	④	③	②	①
⑮	전체적으로 우리 본당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10. 봉헌금, 교무금, 후원금(매월)을 얼마나 내십니까?

해당 난에 ○ 또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주일 봉헌금	1천원	2천~3천 원	4천~5천 원	6천~1만 원	1만5천~2만 원	3만 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②	교무(납)금	3만 원 이하	4만~5만 원	6만~10만 원	11만~15만 원	16만~20만 원	21만~30만 원	30만 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각종 후원금	5천 원 이하	6천~1만 원	2만~3만 원	4만~5만 원	6만~10만 원	11만~15만 원	15만 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1 (교무금을 못 내시는 분만)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10.2 위 세 가지를 합해 나는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하세요)	① 나의 월수입 가운데 _____%를 내고 있다.
	② 가족의 월수입 가운데 _____%를 내고 있다.

11. 본당 신자들과 어느 정도나 친교를 갖고 계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보통	비교적 안 그렇다	전혀 안 그렇다
①	성당 일이 아닌 가정사도 함께 한다	⑤	④	③	②	①
②	신자들의 경조사에도 가능한 참여 한다	⑤	④	③	②	①
③	친하게 지내는 신자가 6명 이상이다	⑤	④	③	②	①
④	영세 및 견진 대부모/대자녀와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신부님의 미사 강론은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 ① 마음의 위로와 평화
- ② 복음 자체에 대한 해설
- ③ 이웃에 대한 나눔 실천
- ④ 교리나 교회에 대한 이해 증진
- ⑤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 ⑥ 기타

● 신앙의식

■ 다음은 가톨릭의 주요 교리(16-25번)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교리를 어느 정도나 믿으십니까? 해당 난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주요 교리	전적으로 믿음	비교적 믿는 편	보통	거의 안 믿음	전혀 안 믿음
16	성모님은 평생 동정을 지키셨다	⑤	④	③	②	①
17	성모발현(루르드, 파티마 등)	⑤	④	③	②	①
18	성모님의 승천	⑤	④	③	②	①
19	예수님의 부활	⑤	④	③	②	①
20	예수님의 재림	⑤	④	③	②	①
21	성인의 통공	⑤	④	③	②	①
22	연옥과 지옥의 존재	⑤	④	③	②	①
23	육신의 부활	⑤	④	③	②	①
24	교황님이 신앙과 교의에 관해 가르치실 때 오류가 없다(교황의 무류성(無謬性))	⑤	④	③	②	①
25	영원한 삶(永生)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성 평등, 종교 의식, 생명의식, 본당 사목 현실 평가

■ 다음은 성 평등과 종교의식 관련 내용(26-34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 난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질문	적극 동의	비교적 동의	보통	비교적 반대	적극 반대
26	결혼 중 얻은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27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⑤	④	③	②	①
28	'전생'(前生)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9	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④	③	②	①
30	명절이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1	명당에 묘자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	⑤	④	③	②	①
32	극락 또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있다	⑤	④	③	②	①
33	모든 종교에 구원 혹은 진리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4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 다음은 생명, 환경의식과 관련된 내용(35-44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 난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질 문	적극 동의	비교적 동의	보통	비교적 반대	적극 반대
35	사형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6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7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8	인공피임을 허용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9	인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40	현재 지구 생태계 문제가 심각하다	⑤	④	③	②	①
41	교회의 환경 사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2	우리 본당은 환경 친화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43	우리 본당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44	우리 본당은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5. 한국 사회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극 동의하시면 10점, 적극 반대하시면 0점, 보통 이면 5점이라고 할 때 다음에 대해 교우님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측면	매우 불만족 ←----- 보통 -----> 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0	1	2	3	4	5	6	7	8	9	10
② 양심적인 혹은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0	1	2	3	4	5	6	7	8	9	10
③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0	1	2	3	4	5	6	7	8	9	10
④ 종교와 성직자의 정치참여/또는 정치적 발언	0	1	2	3	4	5	6	7	8	9	10

■ 다음은 본당생활 관련 내용(46-105항)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 난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6	나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⑤	④	③	②	①
47	나는 우리 교구가 자랑스럽다	⑤	④	③	②	①
48	나는 우리 교구장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9	나는 우리 교구의 올해 사목방침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0	나는 우리 본당이 몇 지구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1	나는 우리 지구 지구장과 지구장좌 본당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2	나는 우리 본당 신부님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3	나는 우리 본당 사목회장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4	나는 미사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5	나는 매일 기도(아침·저녁기도, 삼종기도)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6	나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7	나는 교무금을 형편껏 책정하여 납부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8	나는 봉헌금을 형편껏 최선을 다해 바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9	나는 본당행사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0	나는 나의 고민을 본당 신자들에게 털어 놓는다	⑤	④	③	②	①
61	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2	나는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3	나는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4	우리 가족은 자주 함께 식사한다	⑤	④	③	②	①
65	우리 가족은 자주 함께 가정기도를 바친다	⑤	④	③	②	①
66	우리 가족은 신앙으로 일치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7	우리 가족은 가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	⑤	④	③	②	①
68	나는 다른 가족들에게 입교를 적극 권면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9	나는 쉬는 교우의 회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0	나는 비신자들에게 입교를 적극 권면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1	우리 본당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이웃돕기에 사용한다	⑤	④	③	②	①
72	우리 본당은 지역 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3	우리 본당은 지역사회에 본당을 개방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4	우리 본당은 지역사회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5	우리 본당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성당을 개방한다	⑤	④	③	②	①
76	우리 본당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77	우리 본당은 신앙성숙을 돕는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번호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8	우리 본당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9	우리 본당은 수시로 신자들의 교육 욕구를 파악한다	⑤	④	③	②	①
80	우리 본당은 1인 1단체 가입을 장려한다	⑤	④	③	②	①
81	우리 본당은 새 신자 모시기에 적극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82	우리 본당은 쉬는 교우들의 회두에 적극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83	우리 본당은 신자들의 작은 요구에도 귀를 기울인다	⑤	④	③	②	①
84	우리 본당의 전례는 생동감이 넘치고 신앙심을 북돋운다	⑤	④	③	②	①
85	우리 본당은 다른 본당과 교구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86	우리 본당은 다른 나라의 어려움에도 동참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87	우리 본당 예산은 계획된 활동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다	⑤	④	③	②	①
88	우리 본당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89	우리 본당은 유아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90	우리 본당은 주일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91	우리 본당의 주일학교는 활성화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92	우리 본당은 청소년사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93	우리 본당은 청소년사목을 적극 지원한다	⑤	④	③	②	①
94	우리 본당에는 다양하고 유익한 신앙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95	우리 본당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⑤	④	③	②	①
96	우리 본당의 수도자들은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돕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97	우리 본당의 수도자들은 신자들과 함께 할 기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98	우리 본당 신자들은 신자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99	우리 본당은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0	우리 본당 신자들은 노인들을 잘 배려한다	⑤	④	③	②	①
101	우리 본당 단체장들은 개인 명예보다 본당을 우선 한다	⑤	④	③	②	①
102	우리 본당은 매년 사목목표들을 잘 세우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3	우리 본당은 매년 세운 사목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4	우리 본당은 신앙을 기준으로 사목위원들을 뽑는다	⑤	④	③	②	①
105	우리 본당 사목회는 본당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⑤	④	③	②	①

7. 본당 단체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8. 소속 구역(본당 내 구역인 경우: 모르면 모름에 ○ 또는 √표시)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구역
- ② 모름 ()

8.1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 본당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을 해주시는 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하게 작성해주신 이 설문지는 본당발전과 사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자 신앙생활과 본당 운영 실태 조사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신자 여러분, 우리 본당 신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당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번 설문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므로 응답자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개인과 가족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언제 세례성사를 받으셨습니까? ()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세례 ② 초등학교 시절(만7~12세)
- ③ 중·고등학교 시절(만13~18세) ④ 20대 ⑤ 30대
- ⑥ 40대 ⑦ 50대 ⑧ 만60세 이상

2.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태중 교우 또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 ② 배우자, 형제 등 가족의 입교 권유로
- ③ 친구, 지인 등 주변의 입교 권유로
- ④ 마음의 평화를 위해/천주교에 대한 호감 등으로 스스로
- ⑤ 기타(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3. 입교 전에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없었다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기타

4. 평소 주일 미사와 의무 대축일 미사 참례를 잘 하십니까? ()

- ① 매번 참석한다 ② 거의 참석한다
- ③ 자주 빠지는 편이다 ④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5. 평소 고해성사를 잘 드립니까? ()

- ① 거의 매주 ②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 ③ 두세 달에 한 번 ④ 판공성사 때만(연 1~2회 정도)
- ⑤ 거의 하지 않는다

1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천주교 신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없다 ② 나 혼자만 천주교 신자다
 ③ 동거 가족 중 일부가 천주교 신자다 ④ 동거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다

12.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
- ① 매우 많이 늘었다 ② 약간 늘어난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주5일제에 해당 안 된다

13. 다음과 같은 가족과의 활동을 본당에서 진행한다면 참석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당 난에 ○나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참석하고 싶다	약간 참석하고 싶다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결코 참석하지 않겠다
① 가족과 함께 미사 참례	1	2	3	4
② 가족과 함께 기도하거나 신앙 대화	1	2	3	4
③ 가족과 함께 신앙 프로그램(피정 등) 참석	1	2	3	4
④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1	2	3	4
⑤ 가족과 함께 친교, 야외 활동	1	2	3	4

14. 우리 본당에 소속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5년 이상

15. 우리 본당 신자들과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6. 우리 본당 신자들은 서로 간에 사랑과 친교를 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7. 현재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십니까? ()
- ① 매번 참석한다 ② 대체로 참석한다
 ③ 별로 참석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 17-1. (③, ④)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 ① 언제 모이는지 잘 몰라서
 ② 시간이 없거나 맞지 않아서

내 용	(1) 냉담경험(O, V)	(2) 냉담이유 (번호 선택)
① 초·중·고등학교 시절(만 18세 미만)		
② 20대(만19~29세)		
③ 30대(만30~39세)		
④ 40대(만40~49세)		
⑤ 50대(만50~59세)		
⑥ 만60세 이상		

보기

- | | |
|---------------------|--------------------|
| ① 생계(직장)나 학업 문제 | ② 가정 내 종교 갈등 |
| ③ 성직자 또는 수도자에 대한 실망 | ④ 본당 교우와의 갈등 |
| ⑤ 신앙에 대한 회의 | ⑥ 자녀 양육 혹은 자녀 문제 |
| ⑦ 고해성사 부담 | ⑧ 경제적 부담(예: 교무금 등) |
| ⑨ 취미생활 등 개인 생활 때문 | ⑩ 건강 문제 때문 |
| ⑪ 본당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 ⑫ 특별한 이유 없이 |
| ⑬ 기타(직접 적어주십시오) | |

28. 우리 본당의 미사와 전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28-1. (③,④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9. 본당의 신심·영성 활동(예: 피정, 기도모임, 영상 및 교리교육, 성지순례 등)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 | | |
|--------------|-------------|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대체로 참여한다 |
| ③ 가끔 참여한다 | ④ 참여한 적이 없다 |

29-1. (④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0. 귀하께서는 본당에서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하고 기대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교육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 ① 성경 | ② 천주교 기본 교리 | ③ 교회의 역사 |
| ④ 영성수련 | ⑤ 선교 | ⑥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 가르침 |
| ⑦ 자녀 신앙 교육 방법 | ⑧ 전례 | ⑨ 가정 문제 |
| ⑩ 시사적인 문제 | ⑪ 기타 | |

31. 신앙에 대해 귀하를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없다 ② 사제 ③ 수도자 ④ 가족
 ⑤ 대부모 ⑥ 친구/이웃 ⑦ 본당 신자 ⑧ 기타

■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32. 귀하의 자녀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까? ()
- ① 모두 세례를 받았다 ② 일부만 세례를 받았다
 ③ 모두 아직 안 받았다 ④ 자녀가 없다
33. 귀하께서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는 편입니까? ()
- 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강조한다 ② 약간 강조하는 편이다
 ③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④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⑤ 자녀가 없다
34. (주일학교 대상 자녀가 있는 분만) 귀하의 자녀는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 ① 부모의 적극 권유로 열심히 참여한다
 ② 부모는 권유하지 않는데 스스로 참여한다
 ③ 부모는 적극 권유하지만 안 나간다
 ④ 자녀 의지에 맡기는데 안 나간다
35. 우리 본당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 시키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잘 시키고 있다
 ③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 ④ 매우 부족하다
 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른다
36. 본당에서 청소년 신앙교육을 할 때 가장 크게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인성교육 ② 신앙/신심교육 ③ 교리교육
 ④ 공동체성 강화 ⑤ 다양한 문화 체험 ⑥ 청소년 사도 양성
 ⑦ 기타
37. 본당의 청년 신앙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내실 있는 청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② 청년들을 위한 친교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③ 구역단위의 청년 소공동체 구성
 ④ 청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재정 등)
 ⑤ 청년 지도자의 적극적인 발굴 육성
 ⑥ 기타 _____

■ 본당의 사회사목 활동에 대한 평가 질문입니다.

38. 귀하께서는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 ① 아무런 활동도 안 한다
- ② 본당 차원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③ 지역사회 차원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④ 본당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모두 참여한다

39. 우리 본당이 신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개방이나 프로그램 마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렇다
- ③ 다소 부족한 편이다
- ④ 매우 부족하다

40. 우리 본당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소외된 이들을 잘 돌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1. 우리 본당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제를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교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42. 올해 우리 본당 사목계획의 주요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 ① 상세히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43. 귀하께서는 본당 운영 상황에 대해 주로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

- ① 본당 주보를 통해
- ② 미사시간 신부님 공지사항을 통해
- ③ 소공동체 모임에서
- ④ 단체 모임을 통해
- ⑤ 신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 ⑥ 거의 알 기회가 없다

44. 우리 본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55. 귀하께서는 성당에서 미사 참례 등의 기본적인 전례활동 외에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희망하는 내용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영성적인 피정이나 기도, 교육의 기회
- ②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기회
- ③ 교리나 성경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
- ④ 천주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의 참여 기회
- ⑤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사목자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
- 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자들과 어울려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
- ⑦ 사회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회
- ⑧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
- ⑨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때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⑩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5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성 ② 여성

57.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 ④ 50대 ⑤ 60대 이상

58.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중퇴나 재학은 졸업에 포함)?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5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자영업(소규모 가게 경영, 개인택시 등) ② 생산/단순 노무직
- ③ 기능/숙련공 ④ 교사/공무원/사무직
- ⑤ 서비스/영업직 ⑥ 농/수/축산업
- ⑦ 경영/관리직(기업체 간부 등) ⑧ 전문직/자유직
- ⑨ 학생 ⑩ 전업 주부
- ⑪ 은퇴/무직 ⑫ 기타

6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61. 끝으로 교우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자유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우리 본당 발전을 위한 자유 제안

(2) 우리 본당에 대한 불만 및 불편사항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 내용은 본당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천주교 _____ 교구 _____ 성당
‘쉬는 교우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지

쉬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당 주임 _____ 신부입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쉬는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사제, 본당이나 교구에 요청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기쁘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답변은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곧 성당에서 반가이 뵙게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와 귀댁에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년 월 일

○○○ 본당 주임 _____ 신부

다음의 질문들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답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다른 안내가 없으면 한 질문에 한 가지 답만 표시하시고, 관련 없는 질문은 답하지 마십시오.

1. 신앙생활을 쉬시게 된 직접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인 두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생계(직장)나 학업 | ② 가정 내 종교 갈등 |
| ③ 부부간 갈등 | ④ 성직자 또는 수도자에 대한 실망 |
| ⑤ 신앙에 대한 회의 | ⑥ 본당 교우와의 갈등 |
| ⑦ 자녀 양육 혹은 자녀 문제 | ⑧ 취미 생활 |
| ⑨ 고해성사의 부담 | ⑩ 경제적 부담(예: 교무금 등) |
| ⑪ 기타(직접 기록) | |

2. 귀하가 냉담하시게 될 당시는 영세 후 얼마가 지난 때였습니까?

- | | |
|-----------------|----------------|
| ① 영세 후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3년 미만 |
| ③ 3년 이상 5년 미만 |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
| ⑤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⑥ 20년 이상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들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난에 ○ 혹은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혼인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별거 ④ 사별

4. 교육 수준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③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④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⑤ 대학원 이상

5. 직업

- ① 무직 ② 주부(직장여성 제외)
 ③ 학생 ④ 서비스/영업직
 ⑤ 자영업 ⑥ 기술직(고급 엔지니어 등)
 ⑦ 사무 관련직(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
 ⑧ 경영/관리직(고용인 30인 이상 기업체 이사, 고위직, 과장급 이상 고급 공무원, 교장, 학원장, 등)
 ⑨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언론인, 연구원 등)
 ⑩ 자유직(예술가, 작가, 종교인, 정치인 등)
 ⑪ 기타

6. 영세 시기 만 ()세

7. 견진 ① 받음 ② 안 받음

8. 입교 과정

- ① 유아 세례 ② 가족의 권유로
 ③ 타인의 권유로 ④ 자발적으로

8-1. (8에서 유아 세례가 아니신 분만) 가톨릭 신자가 되기 이전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없었다 ② 개신교 ③ 불교
- ④ 유교 ⑤ 천도교 ⑥ 원불교
- ⑦ 기타 종교

8-2. (8에서 유아 세례가 아니신 분만) 가톨릭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여론을 통해 호감을 갖게 되어 ② 가톨릭의 교리를 알기 위해
- ③ 가톨릭 신자의 모범적 생활을 보고 ④ 가톨릭의 전례 분위기 때문에
- ⑤ 장례 때 도움을 받고 난 후 ⑥ 결혼을 위해
- ⑦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친분) ⑧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 ⑨ 현실적인 도움을 위해(건강, 금전) ⑩ 기타

9. 현재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는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 ① 1인 가족 ② 부부 가족 ③ 부부+자녀 가족
- ④ 한 부모 가족 ⑤ 3세대 가족 ⑥ 조손 가정(조부모와 손주)
- ⑦ 기타

10. 본인을 제외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 가톨릭 신자는 얼마나 계십니까?

- ① 나 혼자만 신자 ② 가족 중 일부만 신자 ③ 가족 모두 신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본당 중장기 전망 연구를 위한 면접지

(중고등부 교사용)

1.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시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선생님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본당과의 관계에서
 - 2)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3.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면들이 있습니까?
 - 1) 가정의 문제라면 어떤 것입니까?
 - 2) 본당의 문제라면 어떤 것입니까?
 - 3) 학생 자신의 문제라면 어떤 것입니까?

4. 본당은 주일학교를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1) 성직자, 수도자의 관심과 지원

2) 사목회의 관심과 지원

3) 자모회의 관심과 지원

5.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십니까? (의무감, 부모님의 강요, 미사 분위기, 선생님들이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등)

6. 교사 지원자가 많습니까? 많거나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활성화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당 중장기 전망 연구를 위한 면접지

(초등부 교사용)

1.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시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선생님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본당과의 관계에서

2)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3.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면들이 있습니까?

1) 가정의 문제라면 어떤 것입니까?

2) 본당의 문제라면 어떤 것입니까?

3) 교사와의 관계라면 어떤 것입니까?

4. 본당은 주일학교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각각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1) 성직자, 수도자의 관심과 지원

2) 사목회의 관심과 지원

3) 자모회의 관심과 지원

5.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십니까? (의무감, 부모님의 강요, 미사 분위기, 선생님들이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등)

6. 교사 지원자가 많습니까? 많거나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가 활성화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냄새가 나는 사제들은 양떼들인 신자들의 삶의 기쁨과 슬픔,
그들의 행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자들을 신자들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고난, 근심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신자들을 위해 더욱더 좋은 사목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기쁨은 다시 사목자의 보람과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목의 기쁨’입니다.”